야셰르



제 1 장

1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2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영혼이 되어 말할 수 있게 되었더라.
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잠들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위에 살을 붙여 모양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매 아담이 잠에서 깨어 보니 여자가 자기 앞에 서 있었다.
5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니라 아담이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리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임이니라
6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시니라.
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하신 후에 떠나가시니,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에덴동산에 거하였다.
9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땅에서 창조하신 뱀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기도록 부추겼습니다.
10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니,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 따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였더라.
11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셨다.
1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어 그들이 취해진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동쪽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 둘과 딸 셋을 낳았습니다.
13 마리아는 맏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부르며 이르되 내가 주님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 부르며 이르되 우리가 헛되이 땅에 왔으니 헛되이 땅에서 나갈 것이라 하였더라.
14 그 아이들이 자라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땅의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다.
15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여호와께 적절한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아벨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시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셨다.
16 여호와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외면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니, 이는 가인이 땅에서 나는 질이 떨어지는 열매를 여호와 앞에 바쳤기 때문이었다. 가인은 이 때문에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죽일 구실을 찾았다.
17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일하러 밭에 나갔습니다. 가인은 밭을 갈고 있었고, 아벨은 양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떼가 가인이 밭을 갈아 놓은 곳을 지나가자 가인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18 그러자 가인이 노하여 그의 동생 아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기에 네가 내 땅에 와서 살면서 네 양 떼를 먹이려 하느냐?"
19 아벨이 그의 형 가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기에 네가 내 양 떼의 고기를 먹고 그 털로 옷을 입으려 하느냐?
20 그러므로 이제 네가 입고 있던 내 양의 털을 벗어 버리고, 네가 먹은 그 열매와 고기 값을 내게 갚아라.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땅에서 떠나겠다.
21 그러자 카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면 누가 내게서 네 피를 요구하겠느냐?
22 아벨이 가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를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갚아 주실 것이요, 만일 네가 나를 죽인다면 내 피를 네게서 요구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심판자요 중재자이시니, 그분께서 사람의 악행대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그 악행대로 갚으실 것이다.
23 만일 네가 여기서 나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네 은밀한 계획을 다 아시므로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하겠다고 공언한 악행에 대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24 가인은 그의 형 아벨이 한 말을 듣고, 아벨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몹시 분노하였다.
25 그러자 카인은 급히 일어나 쟁기의 쇠 부분을 가져다가 갑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 카인은 동생 아벨의 피를 땅에 쏟았고, 아벨의 피는 양 떼 앞에서 땅 위로 흘러내렸다.
26 그 후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후회하고 몹시 슬퍼하며 그를 위해 울었고,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였다.
27 가인은 일어나 밭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동생의 시체를 넣은 다음 흙을 덮었다.
28 여호와께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한 일을 아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던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29 그러자 가인이 변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죽인 땅에서 네 동생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30 너는 네 형제를 죽이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며, 내가 너를 보지 못했고 네 모든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느니라.

31 그러나 너는 아무 이유 없이 네 형제를 죽였으니, 그가 너에게 바르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네 손에서 나온 네 형제의 피를 받아낸 땅, 네가 그를 묻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32 네가 그 땅을 갈 때에는 처음과 같이 너에게 힘을 주지 못할 것이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며, 너는 죽는 날까지 땅에서 방황하며 떠돌아다닐 것이다.
33 그때에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그가 있던 곳을 떠나 에덴 동쪽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방황하였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도 그러하였다.
34 그 당시에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다. 이는 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이다.
35 그 때 가인도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읍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 당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땅에서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가 처음처럼 돌아다니며 방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6 이라드는 에녹에게서 태어났고, 이라드는 메추야엘을 낳았으며, 메추야엘은 메투사엘을 낳았다.

제 2 장

1 아담이 땅에서 살아온 지 130 년째 되던 해에 그는 다시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하와는 임신하여 그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할 다른 씨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2 셋은 백오 년을 살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이는 그 당시 사람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하여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한 말이었다.
3 에노스 시대에 사람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진노를 더욱 크게 하셨습니다.
4 그러자 사람의 아들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땅에서 그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아들들은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겼습니다.
5 각 사람이 자기의 신을 만들어 그 신에게 절하였고, 에노스와 그의 자손들이 다 살던 평생에 여호와를 버렸으니, 그들이 땅에서 행한 악행과 가증한 일들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6 여호와께서 기혼 강물을 그들에게 덮치게 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땅의 삼분의 일을 파괴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려고 손을 뻗고 있었다.
7 그 당시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못했으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심했습니다.
8 그들이 그 당시 땅에 뿌린 씨는 가시와 엉겅퀴와 엉겅퀴가 되었으니 이는 아담 시대부터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음이라. 곧 아담이 주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음이니라.
9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며 그들의 행실을 타락시켰으므로 땅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10 에노스는 90 년을 살았고 가이난을 낳았습니다.
11 가이난이 장성하여 마흔 살이 되었는데, 그는 지혜롭고 모든 지혜에 능통하여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였다. 가이난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지혜에 통달했으며, 그의 지혜로 영들과 악령들을 다스렸다.
12 가이난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홍수를 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13 그 무렵에 카이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돌판에 기록하여 자기 보물창고에 보관하였다.
14 가이난은 온 땅을 다스렸고, 사람 중 몇 사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15 가이난이 칠십 세 되었을 때, 그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16 가이난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의 이름은 말랄렐이요, 둘째는 에난이요, 셋째는 메렛이요, 그들의 누이들은 아다와 질라라니라. 이들이 가이난에게서 태어난 다섯 자녀니라.
17 메투사엘의 아들 라멕은 가이난과 혼인하여 그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다는 라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야발이라 지었다.
18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발이라 불렀다. 그녀의 언니 질라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다.
19 그 당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이르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20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들이 불임이 되게 하는 약을 마시게 하여, 그들의 몸매와 아름다운 모습이 시들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21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 아내들 중 몇 명을 술에 취하게 했을 때, 질라도 그들과 함께 마셨다.
22 아이를 낳는 여인들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과부처럼 남편에게 혐오스럽게 보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마지막 날과 해가 끝날 무렵, 질라가 늙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여시니라.
24 그리하여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투발가인이라 부르며 이르되 내가 죽은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를 얻었도다 하시니라
25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녀의 이름을 나아마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내가 죽은 후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26 라멕은 나이가 많고 눈이 침침하여 잘 보지 못하였더라. 그의 아들 투발카인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라멕이 투발카인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들판을 걷고 있을 때에 아담의 자손 카인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더라. 라멕은 매우 늙고 잘 보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 투발카인은 매우 어렸더라.
27 투발카인은 그의 아버지에게 활을 당기라고 말하여 화살로 아직 멀리 있던 카인을 쳐서 죽였다. 이는 카인이 그들에게 짐승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28 가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그의 몸에 박혀 땅에 쓰러져 죽었다.
29 여호와께서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행한 악행에 따라 그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베푸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었다.
30 가인이 죽고 나서 라멕과 투발이 자기들이 죽인 짐승을 보러 갔더니, 보라, 그들의 조상 가인이 땅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31 라멕은 이 일을 저지른 것에 몹시 슬퍼하며 손뼉을 쳐서 아들을 죽였다.
32 라멕의 아내들은 라멕이 한 일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33 라멕의 아내들은 그가 가인과 투발가인을 죽였으므로 그날부터 그를 미워하였고, 그와 결별하여 그 당시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34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35 그리고 라멕이 그의 아내 아다와 질라에게 말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당신들은 내가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채찍질로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늙고 머리가 희고 눈이 무거워서 그런 일을 무심코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6 라멕의 아내들은 이 일에 대해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의 아버지 아담의 충고대로 그에게 돌아갔으나, 그 후로 자녀를 낳지 못했다. 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거세져서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37 가이난의 아들 말랄렐은 육십오 년을 살다가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육십이 년을 살다가 에녹을 낳았다.

제 3 장

1 에녹은 육십오 년을 살다가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의 악한 길을 멸시했습니다.
2 에녹의 마음은 주님의 가르침과 지식과 명철에 몰두하여, 지혜롭게도 사람들을 떠나 여러 날 동안 그들로부터 숨어 지냈다.
3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 그가 주님을 섬기며 그의 집에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집과 네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
5 에녹은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자기 집과 자기 처소와 자기가 숨어 있던 방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그 때에 사람들을 모아 주님의 교훈을 알려주었다.
6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하셨다. "주의 길과 선행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에녹에게로 오라."
7 그러자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이는 이 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에녹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아들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와서 그에게 절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8 하나님의 영이 에녹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길을 가르쳤으니 사람의 아들들이 에녹이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겼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더라.
9 그러자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왕들, 곧 처음과 마지막 왕들과 그들의 방백들과 재판관들이 에녹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와서 절하고, 에녹에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청하였으니, 에녹이 이에 동의하였다.
10 그리하여 백삼십 명의 왕과 방백들이 모두 모여 에녹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들 모두가 그의 권세와 명령 아래 있게 되었다.
11 에녹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주님의 도를 가르쳤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었으며, 에녹이 살아 있는 동안 온 땅에 평화가 있었다.
12 에녹은 이백사십삼 년 동안 사람의 아들들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였다.
13 이것은 에녹과 메투셀라와 엘리사와 엘리멜렉의 족보인데, 그들의 세 아들은 멜가와 나흐마였고, 메투셀라는 87 세까지 살다가 라멕을 낳았다.
14 아담은 라멕의 생애 56 년에 죽었는데, 그의 나이는 930 세였다. 그의 두 아들과 에녹과 그의 아들 므두셀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동굴에 왕의 장례식처럼 성대하게 장사지냈다.
15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아담 때문에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관습이 되었느니라.
16 아담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죽었고, 그와 그의 자손들도 그 후에 죽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17 아담이 죽은 해, 곧 에녹 왕의 통치 243 년에 에녹은 처음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의 아들들과 떨어져 은둔하기로 결심하였다.
18 에녹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완전히 숨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사람들의 아들들을 피해 있다가 하루 동안 그들에게 갔습니다.
19 예수께서는 사흘 동안 자기 방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날에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들이 여호와에 관하여 묻는 모든 것에 대답하셨습니다.

20 그리고 그는 여러 해 동안 이와 같이 행하다가 나중에는 엿새 동안 모습을 감추고 일곱에 한 번씩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모든 왕과 방백과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를 찾아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에녹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깃든 신과 같은 위엄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벌을 받고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1 그리하여 모든 왕과 방백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모아 에녹에게로 오기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에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다 그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22 에녹이 나아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모여 그에게 나아왔다. 에녹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다. 그들은 그에게 절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살아 계소서! 왕이시여, 살아 계소서!”
23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들과 방백들과 사람들의 아들들이 에녹에게 말하고 에녹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에녹을 불러 그를 하늘로 데려가 땅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24 그때 에녹이 이 말을 듣고 가서 온 땅의 주민들을 모아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훈계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할 운명을 받았으므로 내가 언제 올라갈지 알지 못합니다.”
25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떠나기 전에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하셨다.
26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시고,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땅에서 행할 율례와 법도를 그들 앞에 제시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고, 영생을 가르치시고,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때 사람의 아들들이 에녹과 함께 있었는데, 에녹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더라. 그들이 눈을 들니 큰 말의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말이 공중에서 걸어 다니더라.
28 그들이 본 것을 에녹에게 말하니, 에녹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나 때문에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 다시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왔느니라.
29 그때 말이 내려와 에녹 앞에 섰고, 에녹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보았다.
30 그러자 에녹은 다시 음성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여 이르되, “주 그의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전에 오늘 에녹에게로 오라.” 하고 말하였다.
31 그날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모여 에녹에게로 왔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방백들과 고문들이 그날 에녹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신성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명했으며, 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도록 힘썼습니다.
32 그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 말을 타고 나아가시니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그를 따라갔으니 그 수는 약 팔십만 명이었고, 그들은 예수와 함께 하루 길을 갔다.
33 그리고 둘째 날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가느냐? 너희가 죽을까 두렵다." 그러자 그들 중 몇몇은 그를 떠나갔고, 남은 자들은 그와 함께 엿새 길을 갔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그들에게 "죽을까 두렵으니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고 말했지만, 그들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와 함께 갔습니다.
34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남아 그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35 그러자 그들이 그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고, 그들은 그를 따라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36 왕들이 돌아와서 에녹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 남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인구 조사를 시켰더라. 에녹은 일곱째 날에 불 말과 불 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37 여덟째 날에 에녹과 함께 있었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어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던 그곳으로 에녹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수를 다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38 그리하여 그 모든 왕들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땅이 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 위에는 큰 눈돌들이 놓여 있었다. 한 왕이 다른 왕에게 말하기를, “자, 눈을 헤치고 들어가 보자. 에녹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눈돌 밑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다. 에녹은 이미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이다.

제 4 장

1 에녹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날은 삼백육십오 년이었다.
2 에녹이 하늘에 오르자 땅의 모든 왕들이 일어나 그의 아들 므두셀라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3 므두셀라는 그의 아버지 에녹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고,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으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4 그러나 므두셀라 말년에 사람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떠나 땅을 더럽히고 서로 강탈하고 약탈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며 그들의 행실을 타락시키고 므두셀라의 말을 듣지 않고 그에게 반역하였다.
5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 당시에 계속해서 씨를 멸하셨으므로 그 땅에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못했다.

6 그들이 자기들을 부양할 양식을 얻으려고 땅에 씨를 뿌렸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뿌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랐습니다.
7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려고 손을 뻗었으며, 그들의 악한 행위로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심히 노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8 그리고 그는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9 그 무렵 므두셀라의 아들 라멕의 나이가 백육십 세였을 때에 아담의 아들 셋이 죽었다.
10 셋이 살았던 모든 날은 구백이십 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11 라멕은 180 세에 그의 삼촌 에녹의 아들 엘리사의 딸 아스무아와 동침하여 임신하였다.
12 그때에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 씨를 뿌려 약간의 소출이 났으나, 사람의 아들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다.
13 라멕의 아내가 임신하여 그 해가 바뀔 무렵에 아들을 낳았다.
14 므두셀라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불렀는데, 이는 그의 시대에 땅이 평화롭고 썩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의 이름을 메나헴이라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고된 수고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15 그 아이는 자라서 젖을 떼고, 그의 아버지 므두셀라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16 그 당시 사람의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길에서 떠나 땅 위에 번성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서로 악한 행실을 가르치며 주님께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17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자기 이웃뿐 아니라 친척까지 강탈하고 약탈하며, 땅을 더럽히고,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18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남편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강제로 아내를 빼앗았고, 그 당시 사람의 아들들은 땅의 가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취하여 이 종의 동물들을 이 종의 동물들과 교배시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시니 땅이 타락하였더라. 이는 모든 생물이 땅 위에서 그 행실을 타락시켰음이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이 그러하였음이니라.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멸절시키리라. 사람부터 공중의 새,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모두 멸절시키리라.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20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던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사람에게 내리시기 전에 그 날에 죽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재앙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21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온 땅에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제 5 장

1 노아의 생애 84 년에 셋의 아들 에녹이 죽으니 그의 나이는 905 세였다.
2 노아의 생애 179 년에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이 죽으니 그의 모든 날은 910 년이었고 그 후에 죽었다.
3 노아의 생애 이백삼십사 년째 되던 해에 가이난의 아들 말랄렐이 죽으니 그의 나이는 팔백구십오 년이라.
4 말랄렐의 아들 야렛이 그 무렵에 죽으니, 노아의 나이 삼백삼십육 년째 되던 해였고, 야렛의 총 일 년은 구백육십이 년이라.
5 그리고 그 당시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6 여러 해가 지난 후, 노아의 생애 사백팔십 년째 되던 해에,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므두셀라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므두셀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 너희는 말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악을 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거두시어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리라 하라.
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백이십 년의 기간을 주노니,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너희의 악한 길을 버리면, 나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재앙에서 떠나게 하여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9 노아와 므두셀라는 날마다 끊임없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10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이 뻣뻣했습니다.
11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이십 년의 기간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셔서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12 라멕의 아들 노아는 그 당시에 자녀를 낳기 위해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키실 텐데, 내가 어찌 자녀를 낳겠느냐?"
13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시대에 흠 없는 사람이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의 자손을 통해 땅 위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14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으라 내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보았느니라
15 너는 자손을 번성시키고 네 자녀들을 땅 가운데로 번성하게 하라. 노아가 가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에녹의 딸 나아마를 택하였고 그녀의 나이는 580 세였다.
16 노아는 사백구십팔 세에 나아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17 나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야벳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땅 가운데 번성

하게 하셨다' 하신 것이라. 나아마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셈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삼으사 땅 가운데에 씨를 뿌리게 하셨다' 하신 것이라.
18 노아가 502 세였을 때 나아마가 셈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자라서 그들의 아버지 므두셀라와 노아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의 길을 행하였다.
19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그 무렵에 죽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노아의 나이 195 세에 죽었다.
20 라멕의 모든 생애는 칠백칠십 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21 그리고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해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죽기를 바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2 그때에 여호와께서 노아와 므두셀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내가 그 당시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전파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23 노아와 므두셀라는 앞으로 나와 사람들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4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듣지도 않았고, 그들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25 그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보라, 내가 땅을 멸망시키겠다."
26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어떤 곳으로 가서 큰 궤를 만들어 거기에 두어라.
27 너는 그것을 이와 같이 만들어라.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으로 하라.
28 너는 네 문을 하나 만들되, 옆면은 열고 위쪽은 한 규빗 높이로 마감하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29 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리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
30 너와 네 가족은 가서 모든 생물 중에서 수컷과 암컷 두 쌍씩 모아 방주로 데려와 땅에서 그 자손을 번식시키도록 하라.
31 그리고 모든 짐승이 먹는 모든 음식을 모아 너희와 그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하라.
32 너는 사람의 딸 중에서 네 아들들을 위하여 세 명의 처녀를 택하여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라.
33 노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방주를 만들었으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34 노아는 오백구십오 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오 년에 걸쳐 방주를 완성하였다.
35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므두셀라의 아들 엘리아김의 세 딸을 자기 아들들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36 그때에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가 죽었는데, 그의 나이는 960 세였다.

제 6 장

1 그때에 므두셀라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보라, 내가 땅의 모든 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너에게로 모아들일 것이니 그들이 다 와서 방주를 에워쌀 것이다."
2 너는 가서 방주 문 곁에 앉으라. 그러면 모든 짐승과 동물과 새들이 모여 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네 앞에 와서 웅크리는 것들은 네가 잡아 네 아들들의 손에 넘겨 주어 방주로 데려가게 하라. 그리고 네 앞에 서 있는 것들은 네가 그대로 두어라.
3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다음 날에 이루시니, 짐승과 새들이 큰 무리로 몰려와 언약궤를 에워쌌습니다.
4 노아가 가서 방주 문 곁에 앉으니, 그 앞에 엎드린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생물은 땅에 남겨 두었다.
5 그때 암사자 한 마리가 새끼 두 마리, 수컷과 암컷을 데리고 와서 셋이 노아 앞에 엎드렸다. 새끼 두 마리가 일어나 어미 사자를 쳐서 도망치게 하였고, 어미 사자는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노아 앞에 엎드렸다.
6 그러자 암사자가 도망쳐서 사자들이 있는 곳에 섰다.
7 노아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일어나 새끼 양 두 마리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8 노아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데려왔으므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데려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9 암소와 가축은 둘씩 짝지어 노아에게 와서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결한 동물과 새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곱 쌍을 데려왔습니다.
10 모든 동물과 짐승과 새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방주를 사방에서 에워쌌으며, 칠 일 후에야 비가 내렸다.
11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흔드시고 해가 어두워지며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온 땅이 격렬하게 요동치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땅의 모든 샘이 전에는 없던 규모로 터져 나오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땅 위에 다시는 악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12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때에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깊게 하였으며,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
13 칠 일 후에, 곧 노아의 생애 육백 년째 되던 해에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14 그리하여 깊은 곳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사십 주야 동안 비가 땅 위에 내렸다.

15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은 홍수 때문에 방주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그 안에 문을 닫으셨다.
16 땅에 남은 모든 사람의 아들들은 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지쳐 버렸습니다. 물이 더욱 거세게 땅으로 쏟아져 내렸고, 짐승들은 여전히 방주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17 그러자 사람의 아들들, 곧 남녀를 합쳐 약 70 만 명이 모여 노아의 방주로 나아왔다.
18 그들이 노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방주를 타고 당신에게로 갈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 죽어야 합니까?
19 그러자 노아가 방주에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다 여호와께 반역하여 그분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재앙을 내리사 너희를 땅에서 멸절시키려 하신 것이니라.
20 내가 백이십 년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그때 너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땅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21 그들이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않도록 문을 열어 주십시오."
22 노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은 마음의 고통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정해 주신 120 년 동안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23 그러나 이제 너희가 와서 너희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니, 주님께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며, 오늘 너희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실 것이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들이 비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5 여호와께서 언약궤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짐승들을 보내시니, 그 짐승들이 그들을 덮쳐 그곳에서 쫓아냈고, 각 사람은 제 갈 길로 흩어져 땅 위에 흩어졌다.
26 비는 계속해서 땅 위에 내렸는데, 사십 주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니 물이 땅을 크게 덮었습니다. 땅 위나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 곧 사람이나 짐승이나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이나 공중의 새나 다 죽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27 물이 넘쳐흘러 땅 위에 크게 불어나더니 방주를 들어 올려 땅에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28 그러자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흔들리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가마솥 안의 죽처럼 이리저리 뒤집혔다.
29 그러자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방주가 부서질 것 같았다.
30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두려워하며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고 소들은 울부짖고 늑대들은 울부짖으며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이 제각기 다른 말로 말하고 슬퍼하여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31 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일로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는 이 재앙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물결이 우리를 에워싸고, 사나운 급류가 우리를 두렵게 하며, 죽음의 올무가 우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소서."
32 여호와께서 노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셨다.
33 바람이 땅 위를 지나가니 물이 잔잔해지고 방주가 멈췄다.
34 그러자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막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35 그 때에 물이 줄어들어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멈추었더라.
36 그때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여, 우리를 이 갇힌 곳, 주께서 우리를 가두신 감옥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하느라 너무나 지쳤나이다.
37 여호와께서 노아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일 년이 차면 그때 나가라 하시니라
38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노아가 방주에 거한 지 일 년이 되자, 땅에서 물이 마르고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벗겼습니다.
39 그때 둘째 달 스물일곱째 날에 땅이 말라 있었으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40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신 날이 이르렀고, 그들은 모두 방주에서 나갔다.
41 그들은 각자 자기 길과 처소로 돌아갔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땅에 거주하며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다.
42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강성하여 땅에서 번성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제 7 장

1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벳, 함, 셈이니라. 그들은 홍수 전에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홍수 후에 자녀를 낳았느니라.
2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다이, 야반, 투발, 메섹, 티라스로 일곱 명이다.
3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킨나스와 르팟과 테가르마였다.
4 마곡의 아들들은 엘리하나프와 루발이었다.
5 마다이의 자손은 아콘, 젤로, 하조니, 롯이었다.
6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다시스, 킷팀, 두도님이었다.
7 투발의 아들들은 아리피, 케셋, 타아리였다.
8 메섹의 아들들은 데돈, 자론, 그리고 세바스니였다.
9 티라스의 아들들은 베닙, 게라, 루피리온, 길락이었는데, 이들은 야벳의 자손들이며 그 당시 그들의 수는 약 사백육십 명이었다.

10 함의 아들들은 쿠스, 미츠라임, 푸트, 가나안 네 명이요, 쿠스의 아들들은 세바, 하빌라, 사브타, 라아마, 사테카이며, 라아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데단이다.
11 이집트의 아들들은 루드, 아놈, 파트로스, 차슬롯, 캅토르였다.
12 푸트의 아들들은 게불, 하단, 베나, 아단이었다.
13 가나안의 아들들은 시돈, 헷, 아모리, 게르가스, 히위, 아르게, 스니, 아로디, 시모디, 하모디였다.
14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며, 그 당시 그들의 수는 약 730 명이었다.
15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다섯이요, 엘람의 아들들은 수산, 마훌, 하르몬이라.
16 아살의 아들들은 미리스와 모킬이요, 아르팍삿의 아들들은 셀라크와 아나르와 아스골이라.
17 룻의 아들들은 페토르와 비자욘이요,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와 훌, 가테르와 마쉬였다.
18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며, 그 당시 그들의 수는 약 삼백 명이었다.
19 이것은 셈의 족보이니,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락을 낳고 셀락이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이 펠렉이라. 이는 그의 시대에 사람의 자손이 나뉘었고, 후대에 땅이 나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20 둘째 왕의 이름은 요크탄이었는데, 그 뜻은 그의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낮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21 이들은 요크탄의 아들들입니다. 알모다드, 셀라프, 하자르모벳, 예라크, 하두롬, 오젤,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셰바, 오피르, 하빌라, 요밥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크탄의 아들들입니다.
22 그의 형 펠렉은 옌을 낳았고, 옌은 세룩을 낳았고, 세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는 서른여덟 살이었고, 그는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23 함의 아들, 곧 노아의 손자인 쿠스는 그 당시 늙은 나이에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니므롯이라 불렀다. 이는 '그때에 사람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기 시작하였느니라'라는 뜻이다. 그 아이가 자라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24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만드신 가죽옷은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나올 때에 구스에게 주어졌습니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옷은 야렛의 아들 에녹에게 주어졌고, 에녹이 하나님께로 승천한 후에 그 옷을 그의 아들 므두셀라에게 주었다.
26 므두셀라가 죽자 노아는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
27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에게서 그 옷들을 훔쳐서 형제들 몰래 숨겨 두었다.
28 함이 맏아들 구스를 낳았을 때, 그는 몰래 그에게 옷을 주었고, 그 옷은 구스와 함께 여러 날 동안 있었다.
29 그리고 쿠스는 그 옷들을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숨기고, 니므롯을 낳았을 때, 그를 향한 사랑으로 그 옷들을 주었다. 니므롯은 자라서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그 옷들을 입었다.
30 니므롯은 그 옷을 입으니 강건해졌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는 땅에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참으로 그는 들판에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그는 짐승들을 사냥하고 제단을 쌓아 그 위에 짐승들을 여호와 앞에 제물로 바쳤더라.
31 그러자 니므롯은 힘을 얻어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사방의 모든 원수들과 싸워 자기 형제들을 위해 싸웠다.
32 여호와께서 그의 형제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쟁에서 그를 때때로 복을 주셨으며, 그는 땅 위에서 왕으로 다스렸다.
33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훈련시킨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땅에서 용맹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자기 형제들을 공격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 니므롯이 마흔 살이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야벳 자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35 그때에 니므롯이 나가서 구스의 모든 자손과 그 가족들을 모았는데, 그 수가 약 460 명이었다. 그는 또한 자기 친구들과 지인들 중에서 약 80 명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그들과 함께 싸우러 갔다. 길을 가는 동안 니므롯은 자기와 함께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
36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 손에 넘겨질 것이니, 당신들은 그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37 그리고 가서 싸운 모든 사람은 약 오백 명이었는데, 그들은 적들과 싸워 그들을 멸하고 정복했습니다. 니므롯은 그들의 각 지역에 상급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38 그리고 그는 그들의 자녀 중 몇 명을 담보로 잡았고, 그들은 모두 니므롯과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었다. 니므롯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39 니므롯이 전쟁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기쁨에 차 돌아오자,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를 전에 알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왕으로 삼고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
40 그리고 그는 왕들 사이의 관례대로 자기 백성과 신하들 위에 군주, 재판관, 통치자들을 세웠다.
41 그리고 그는 나홀의 아들 데라를 자기 군대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 모든 지도자들보다 높이 올려주었다.
42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면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친 후에 신하들과 함께 궁궐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기로 의논하였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다.
43 그들은 동쪽 맞은편에 큰 골짜기를 발견하고 그곳에 크고 넓은 성을 건설했습니다. 니므롯은 그 성을 시날

이라 불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맹렬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44 니므롯은 시날에 거주하며 안전하게 통치하였고, 원수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였으며,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의 왕국은 매우 번성하였다.
45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로 모여들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바쳤으니, 그가 그들의 주와 왕이 되어 그들이 다 그와 함께 시날 성에 거하였더라. 니므롯은 노아의 모든 아들을 다스리며 그의 권세와 조언 아래 다스렸더라.
46 온 땅이 한 언어와 한목소리를 냈으나 니므롯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홍수 때부터 그 날까지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였다.
47 그가 나무와 돌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여호와께 반역하여 자기 백성과 온 땅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악한 길을 가르쳤으니 그의 아들 마르돈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였다.
48 니므롯의 아들 마르돈의 행적을 들은 자는 다 그에 대하여 이르되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더라. 그리하여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말이 온 땅에 속담이 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에 거론되게 되었느니라.
49 니므롯 군대의 군주인 나홀의 아들 데라는 그 당시 왕과 신하들 앞에서 매우 큰 인물이었으며, 왕과 방백들은 그를 사랑하여 매우 높이 올려주었다.
50 그리고 데라는 코르네보의 딸 암텔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무렵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51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을 낳았는데, 이는 왕이 그 당시 그를 높이 올려 모든 신하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제 8 장

1 아브람이 태어난 밤에 데라의 모든 신하들과 니므롯의 모든 현자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며 그날 밤에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2 그리고 모든 현자들과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서 나와 그날 밤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바라보니, 동쪽에서 매우 큰 별 하나가 와서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가더니 하늘 사방의 별 네 개를 모두 삼켜 버렸다.
3 그러자 왕의 모든 현자들과 마술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고, 현자들은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아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오늘 밤 데라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 아이는 자라서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져 온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와 그의 자손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큰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하였더라.
5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마술사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이 모든 동방박사들과 마술사들은 일찍 일어나 정해진 집에 모였다.
6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젯밤에 본 광경은 왕께 감추어져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7 만일 이 일이 훗날 왕께 알려지면, 왕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겼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본 광경과 그 해석을 왕께 말씀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무죄할 것이다.
8 그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왕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왕이시여, 살아 계십시오! 왕이시여, 살아 계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9 우리는 당신의 군대 지휘관 나홀의 아들 데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젯밤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10 주의 종들이 데라의 집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밤을 지새우려고 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동쪽에서 큰 별이 오고 있었는데, 그 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 하늘 사방의 큰 별 네 개를 삼켜 버렸습니다.
11 주의 종들은 우리가 본 광경에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광경을 보고 판단하여 우리의 지혜로 그 의미를 깨달았으니, 이는 데라에게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예언이니라. 그 아이는 자라나 번성하여 강대하게 되고,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과 함께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
12 이제 우리의 주군이시며 왕이신 당신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이에 관하여 우리가 본 것을 진실로 당신께 알려드렸습니다.
13 만일 왕께서 이 아이를 통해 그의 아버지에게 값진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가 자라나 이 땅에서 번성하여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 전에 그를 죽일 것이며,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녀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4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들어 사람을 보내 데라를 부르게 하였고, 데라는 왕 앞에 나아왔다.
15 그러자 왕이 데라에게 이르되 내가 듣기로는 어젯밤에 네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늘에서도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였더라.
16 그러므로 이제 그 아이를 내게 주어라. 그 아이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이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의 값에 네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주겠다.
17 그러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의 말씀을 들었으니 왕의 종은 왕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18 그러나 나의 주군이시여, 어젯밤에 내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왕께서 신하에게 어떤 충고를 하실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왕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해 보아라."
19 그러자 테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모레드의 아들 아욘이 어젯밤에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20 왕께서 네게 주신 크고 아름다운 말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값에 상응하는 은과 금과 짚과 사료를 네게 주겠소.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왕을 뵙고 당신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시오. 왕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소.

21 이제 나의 주군이시며 왕이신 분이시여, 보십시오, 제가 이 일을 왕께 알려드렸으며, 왕께서 당신의 신하에게 주실 조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22 왕은 데라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를 어리석은 자로 여겼다.
23 그러자 왕이 데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 그리 어리석고 무지하며 분별력이 부족하여 네 아름다운 말을 은과 금이나 심지어 짚과 사료에까지 팔겠느냐?
24 네가 은과 금이 그토록 부족하여 말에게 먹일 짚과 사료조차 구할 수 없다고 이런 짓을 하려느냐? 은과 금이나 짚과 사료가 네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네게 준 그 귀한 말을, 온 세상에 그만한 말이 없으니 어찌하여 그 말을 버리려느냐?
25 그러자 왕이 말을 마치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그의 종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이다
26 나의 주군이시며 왕이신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네 아들을 내게 주어라. 우리가 그를 죽이면 내가 그의 값에 상응하는 은과 금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내 아들이 죽은 후에 내가 그 은과 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은과 금은 그것을 주신 왕께 돌아갈 것입니다.
27 왕은 데라의 말과 그가 왕에 관하여 전한 비유를 듣고 몹시 슬퍼하며 분개하였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불타올랐다.
28 데라는 왕의 분노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권한 아래 있으니 왕께서 그의 신하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내 아들도 왕의 권한 아래 있으니 아무 값도 없으며 그와 그의 두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9 그러자 왕이 데라에게 이르되, 안 된다. 그러나 내가 값을 치르고 네 둘째 아들을 사겠다.
30 그러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군이시여, 부디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께서 당신의 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데라가 또 이르되, 제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해보고 가족과 상의하여 왕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왕께 간절히 청하여 허락을 구하였다.
31 왕은 데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그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었다. 데라는 왕 앞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왕의 모든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32 사흘째 되던 날, 왕이 데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한 대로 네 아들을 값 주고 내게 보내라.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 집에 있는 모든 짐승을 죽여 개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리라 하였더라.
33 데라는 왕의 명령이 급하여 서둘러 자기 종 중 한 사람, 곧 여종이 그날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왕에게 데려가 값을 받았습니다.
34 여호와께서 이 일에 데라와 함께 하셔서 니므롯이 아브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데라에게서 아이를 데려다가 온 힘을 다해 머리를 땅에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아브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날 이후로 이 일은 왕에게 숨겨졌고, 왕은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람이 죽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5 그리고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그의 어머니와 유모를 몰래 데리고 동굴에 숨어 지내며 매달 그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었다.
36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함께 동굴에 계시니 그가 자라났더라. 아브람이 동굴에 십 년을 거하였더니 왕과 그의 방백들과 점쟁이들과 현자들이 왕이 아브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였더라.

제 9 장

1 아브람의 맏형 데라의 아들 하란이 그 무렵에 아내를 맞이하였다.
2 하란은 서른아홉 살에 아내를 취하였고,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이름을 롯이라 불렀다.
3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밀가라 하였고, 또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사라이라 하였더라.
4 하란은 아브람이 태어난 지 10 년째 되던 해에 사라를 낳았는데, 그 무렵 아브람과 그의 어머니와 유모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은 아브람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 아브람이 동굴에서 나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여호와의 훈계와 그의 길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아브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은 오랫동안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을 섬겼습니다.
6 아브람은 노아의 집에 삼십구 년 동안 거하였고, 세 살 때부터 여호와를 알았으며,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가르쳐 준 대로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여 그분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땅 위에 자기들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는데,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며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7 그때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데라와 그의 온 가족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였습니다.
8 데라는 나무와 돌로 만든 크고 웅장한 신상 열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상들은 일 년 열두 달을 상징하는 모양이었다. 데라는 매달 각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매달 고기 제물과 음료 제물을 신들에게 바쳤다. 데라는 이렇게 매일같이 행했다.
9 그 세대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들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버렸더라.
10 그 당시 온 땅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조언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여호와를 알았다.
11 그 당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은 노아의 집에서 번성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1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세대의 모든 행위가 헛되고 그들의 모든 신들이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13 아브람은 해가 땅을 비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르되, '땅을 비추는 이 해는 분명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섬기리라' 하였더라.
14 그날 아브람은 태양을 섬기며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양은 평소처럼 졌습니다. 아브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실 리가 없구나.'
15 그러자 아브람은 계속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는 누구시며, 땅 위에 창조하신 이는 누구시며, 어디 계시는가?"
16 밤이 그에게 이르러 어두워지니 그가 눈을 들어 서쪽, 북쪽, 남쪽, 동쪽을 보니 해가 땅에서 사라지고 날이 어두워졌더라.
17 아브람이 눈앞에 펼쳐진 별과 달을 보고 이르되, 이분이 바로 온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보라,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종들이요 신들이로다. 아브람은 그날 밤 내내 달을 섬기며 기도하였다.
18 그리고 아침이 되어 날이 밝고 해가 평소처럼 땅을 비추자, 아브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만드신 모든 것을 보았다.
19 아브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땅과 모든 사람을 창조한 것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브람은 노아의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와 그의 길을 알았고,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모두 여호와를 잊고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평생토록 반역했습니다.
20 니므롯 왕은 안전하게 통치하였고 온 땅이 그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온 땅이 한 언어와 연합된 말을 사용하였다.
21 니므롯의 모든 방백들과 그의 큰 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였다. 곧 풋, 미츠라임, 쿠스, 가나안과 그 가족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 함께 성을 쌓고 그 안에 하늘에 닿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명성을 떨치고 온 세상을 다스리자. 그러면 우리 원수들의 악행이 우리에게서 그치고 우리가 그들을 강하게 다스리며 그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22 그들이 모두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이 말을 전하니, 왕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그대로 행하였다.
23 그리하여 모든 가족이 모였는데, 그 수는 약 60 만 명이었다. 그들은 성읍과 망대를 건축할 넓은 땅을 찾으러 갔다.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시날 땅 동쪽에 있는 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찾지 못했다. 그곳은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했다.
24 그리고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불을 피워 자신들이 완성하고자 했던 성읍과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5 그들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범죄요 죄악이었으므로, 그들은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건축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분과 싸워 하늘에 올라가려는 생각을 품었더라.
26 이 모든 백성과 그 모든 가족은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그와 싸우겠다"고 했고, 둘째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우리 신들을 모시고 섬기겠다"고 했으며, 셋째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활과 창으로 그를 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짓고 있는 성읍과 망대를 보셨습니다.
27 그들이 건축할 때에 큰 성읍과 매우 높고 견고한 망대를 쌓았는데, 그 높이 때문에 건축자들이 망대에 올라가는 동안 회반죽과 벽돌이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일 년이 지나서야 회반죽과 벽돌이 건축자들에게 닿아 회반죽과 벽돌을 가져다주었다. 이와 같이 매일 반복되었다.
28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온종일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려왔습니다. 만일 그들의 손에서 벽돌 하나가 떨어져 깨지면 그들은 모두 그것 때문에 울었고, 만일 사람이 넘어져 죽으면 그들 중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29 여호와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건축을 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더니 모든 화살이 피를 묻혀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였도다" 하였습니다.
30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31 그리고 그들은 탑과 성을 건설했으며, 여러 날과 여러 해가 지날 때까지 매일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32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일흔 천사, 곧 자기 곁에 있던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한 사람이 자기 이웃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자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33 그날 이후로 그들은 각자 이웃의 언어를 잊어버렸고, 한 언어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자가 이웃에게서 주문하지 않은 석회나 돌을 가져다가 던져 이웃에게 던지면, 이웃은 죽곤 했습니다.
34 그들은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행하여 많은 사람을 이와 같이 죽였다.
35 여호와께서 거기에 있던 세 무리를 치시고 그들의 행위와 계획대로 벌하셨으니 곧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신들을 섬기겠다고 말한 자들은 원숭이와 코끼리처럼 되었고, 화살로 하늘을 치겠다고 말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죽으셨는데, 한 사람이 이웃의 손을 통해 죽임을 당하였더라. 또 하늘에 올라가서 그와 싸우겠다고 말한 셋째 무리는 여호와께서 온 땅에 흩으셨느니라.
36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알고 깨달아 그 건물을 버리고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37 그들이 성읍과 망대 건설을 중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바벨이라 부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음이라. 보라, 그곳은 시날 땅 동쪽에 있었더라.
38 사람의 아들들이 세운 그 탑에 관하여 말하자면, 땅이 입을 벌려 그 삼분의 일을 삼켜 버렸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 삼분의 일을 태워 버렸으며, 나머지 삼분의 일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위에 있던 부분이고 그 둘레는 사흘 걸어가야 할 길이다.
39 그 망대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제 10 장

1 에벨의 아들 펠렉이 그 무렵에 죽으니, 이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의 나이 마흔여덟째 해였고, 펠렉의 총 생애는 이백삼십구 년이었다.
2 여호와께서 망대에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흩으시니, 보라, 그들이 여러 무리로 흩어지고 모든 사람의 자손이 땅의 사방으로 흩어졌더라.
3 그리고 모든 가족은 각자 언어, 땅, 또는 도시에 따라 흩어졌습니다.
4 사람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가족대로, 그들이 가는 모든 곳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신 온 땅에 많은 성읍을 건설하였다.
5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멸절된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들을 자기들의 이름이나 자녀들의 이름이나 특정한 사건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6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들은 흩어져 있는 곳에 가서 성읍들을 세우고 그 성읍들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불렀으며, 야벳의 자손들은 땅 위에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7 야벳의 아들들은 그 가문대로 고멜, 마곡, 메다이, 야반, 투발, 메섹, 티라스이니, 이들은 야벳의 자손들이라.
8 고멜의 자손은 그 성읍들에 따라 프란차 땅에 거주하는 프란쿰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프란차 강과 세나 강가에 살고 있었다.
9 르밧 자손은 바르토님 족속인데, 그들은 레다 강가에 있는 바르토니아 땅에 거주하며, 그 강은 큰 바다 기혼, 곧 대양으로 흘러들어간다.
10 투가르마의 자손은 열 가문이요 그 이름은 부자르, 파르주낙, 발가르, 엘리카눔, 라그비브, 타르키, 비드, 제북, 온갈, 틸마스이니, 이들은 모두 북쪽에 흩어져 정착하여 성읍을 세웠다.
11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성읍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오늘날까지 히들라 강과 이탈락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12 그러나 앙골리, 발가르, 파르주낙의 가족들은 큰 강 두브니 강가에 거주하며 그들의 성읍 이름도 그들의 이름대로 지어졌습니다.
13 야완의 자손은 막도니아 땅에 거주하는 야만족이요, 메다이아레의 자손은 쿠르손 땅에 거주하는 오렐룸족이요, 투발의 자손은 파시아 강변의 투스카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니라.
14 메섹의 자손은 시바스니 족속이요, 티라스의 자손은 루샤스 족속, 쿠스니 족속, 온골리 족속이라. 이들은 다 가서 성읍들을 세웠는데, 그 성읍들은 야보스 바닷가, 쿠라 강변에 있고, 쿠라 강은 트라간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15 엘리사의 자손은 알마님이며, 그들도 가서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그 성읍들은 욥 산과 시밧모 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욥 산과 시밧모 산 맞은편에 거주하는 룸바르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탈리아 땅을 정복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16 킷팀 자손은 티브레우 강가의 카노피아 골짜기에 거주하는 로밈 족속이다.
17 두도님 자손은 바다의 성읍들, 곧 보르드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18 이것은 망대 후에 흩어져 살았던 야벳 자손의 가족들이 각 성읍과 언어별로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성읍들을 그 성씨와 사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망대 후에 그 시대에 각 성읍에 세운 모든 가족들의 성읍 이름입니다.
19 함의 자손은 세대와 성읍에 따라 구스, 미츠라임, 풋, 가나안이었더라.
20 이들은 모두 가서 적당한 곳을 찾아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들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쿠스, 미츠라임, 풋, 가나안이라 불렀다.
21 이집트 자손은 루딤, 아나밈, 레하빔, 나프투킴, 파트루심, 카슬루킴, 카프투림, 즉 일곱 가문이다.
22 이들은 모두 이집트 시내인 시호르 강가에 거주하며, 성읍을 짓고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23 파트로스와 카슬록의 자손들은 서로 혼인하여 펠리쉬팀, 아자팀, 게라림, 기팀, 에크로님 등 다섯 족속을 이루었으며, 이들도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까지 부르고 있다.
24 가나안 자손도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에 자기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열한 성읍을 비롯하여 셀 수 없이 많았다.
25 함의 자손 네 사람이 평야 땅으로 갔으니 그들의 이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제보임이라.
26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지에 네 개의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지었다.
27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성읍들에 거주하며 번성하여 크게 번식하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28 후르의 아들, 히비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 세일은 가서 파란 산 맞은편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성을 쌓고 그와 그의 일곱 아들과 그의 가족이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는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세일이라 불렀으니, 그 땅이 오늘날까지 세일 땅이라 한다.
29 이것은 함의 자손들이 망대 사건 이후 각자의 나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의 언어와 도시에 따른 가족들의 기록이다.
30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 중 에벨의 모든 자손의 아버지인 그들도 흩어져 살던 곳에 성읍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 이름을 지었다.

31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었는데, 그들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32 그 때에 셈의 아들 아술과 그의 자녀와 그의 가족이 큰 무리를 지어 떠났는데, 그들이 발견한 먼 땅으로 가서 넓은 골짜기를 만났고, 거기에 네 개의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이름과 사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33 아술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은 니느웨, 레센, 칼라크, 르호보테르이며, 아술 자손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34 아람 자손도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의 맏형의 이름을 따서 우스라 불렀으며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 땅이 오늘날까지 우스 땅이다.
35 망대를 세운 지 이 년 후에 아술 지파 사람 벨라라는 사람이 니느웨 땅에서 나와 자기 가족과 함께 머물 곳을 찾아 여기저기 이주하다가 소돔 맞은편 평지 성읍들까지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였다.
36 그 사람이 일어나 거기에 작은 성읍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따서 벨라라 불렀으니, 그 땅이 오늘날까지 소알 땅이라 한다.
37 그리고 이것은 셈 자손의 가족들인데, 그들이 망대 사건 후에 땅 위에 흩어진 후 그들의 언어와 성읍에 따라 나열된 것이다.
38 그리고 노아의 자손의 모든 왕국과 성읍과 각 가문은 그 후에 많은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39 그들은 모든 성읍에 정부를 세워 그들의 명령에 따라 통치받도록 하였으니, 노아의 자손의 모든 가족이 영원히 이와 같이 하였더라.

제 11 장

1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여전히 시날 땅에 있었고, 그는 그 땅을 다스리며 그곳에 거주했고, 시날 땅에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2 이것들은 그가 건축한 네 성읍의 이름인데, 그는 그 성읍들에 탑을 건축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3 그가 첫째를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음이라 하였고 둘째를 에렉이라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음이라 하였느니라
4 그리고 셋째는 에겟이라 불렀는데, 그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칼나라 불렀는데,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이 거기서 멸망당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고 반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5 니므롯은 시날 땅에 이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곳에 자기 왕국에 남은 백성, 곧 방백들과 용사들을 두었다.
6 니므롯은 바벨에 거주하며 거기서 그의 남은 신하들을 다스리는 통치를 다시 시작했고, 안전하게 다스렸다. 니므롯의 신하들과 방백들은 그의 이름을 암라펠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의 방백들이 탑에서 그의 명령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악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돈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여 아버지의 가증스러운 행실에 더욱 가담했습니다.
8 그리고 그는 사람의 아들들이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고 말하느니라.
9 그때에 함 자손의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성읍들에 거주하고 있었다.
10 엘람 왕 케돌라오멜은 함 자손의 가족들을 떠나 그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평야의 다섯 성읍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여 그 성읍들을 자기 통치하에 두었다.
11 그들은 12 년 동안 그를 섬기며 매년 세금을 바쳤다.
12 그때에 세룩의 아들 나홀이 데라의 아들 아브람의 나이 마흔아홉 살에 죽었다.
13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오십 년째 되던 해에 노아의 집을 나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14 아브람은 여호와를 알고 그의 길과 율례를 따라 행하였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15 그 당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전히 니므롯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으며,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16 아브람이 아버지 집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신전에서 있는 열두 신상을 보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우상들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7 아브람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이 우상들을 내 아버지 집에 두지 않겠다. 만일 내가 사흘 안에 이 우상들을 다 부수지 아니하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18 아브람은 그들을 떠나갔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불타올랐다. 아브람은 서둘러 방을 나와 아버지의 바깥 뜰로 갔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브람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앉았다.
19 아브람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데라가 아들 아브람에게 대답했습니다. “보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집에 계시다.”
20 아브람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제발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테라가 아브람을 안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아브람이 보니 그 방에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이 가득하더라. 큰 신상 열두 개와 그보다 작은 신상들이 무수히 많았더라.
21 테라가 아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땅 위에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와 너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이들이니라
22 그리고 데라는 자기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떠나갔으며 그의 아들 아브람도 그와 함께 떠났다.
23 아브람이 그들을 떠나 어머니에게로 가서 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들과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24 그러므로 이제 서둘러 양 떼에서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맛있는 고기로 만들어 내게 가져다주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 먹게 하

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25 그의 어머니는 그대로 하여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아브람에게 가져다주었다. 아브람은 어머니에게서 맛있는 고기를 받아 아버지의 신들 앞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신들 가까이 나아갔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26 아브람이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던 날에 보니, 그들은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으며, 아무도 손을 뻗어 먹을 수 없었다.
27 아브람이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맛있는 고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양이 너무 적어서 먹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맛있고 푸짐한 새 고기를 준비해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28 그리고 다음 날 아브람이 어머니에게 맛있는 고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일어나서 양 떼에서 좋은 어린 염소 세 마리를 잡아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아브람에게 주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
29 아브람은 어머니에게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신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음식을 앞에 놓았습니다. 아브람은 신들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온종일 신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 아브람이 그들을 보니, 그들은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며, 아무도 손을 뻗어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31 그날 저녁 그 집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습니다.
32 그리고 그가 외쳐 이르되 내 아버지와 이 악한 세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허영에 기울어 있으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그 우상들은 말도 못하는 입,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느끼지 못하는 손,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또한 그들과 같으니라.
33 아브람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분노하여 서둘러 도끼를 들고 신들의 방으로 가서 아버지의 모든 신상을 부숴 버렸다.
34 그가 우상들을 부순 후에, 그들 앞에 있던 큰 신상의 손에 도끼를 쥐여주고 나갔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문 앞에서 도끼 소리가 들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데라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35 그리고 데라는 우상들이 있는 방에서 도끼 소리를 듣고 그 방으로 달려갔다가 아브람이 나오는 것을 만났다.
36 데라가 방에 들어가 보니 모든 우상이 쓰러져 부서져 있었고,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들린 도끼는 부서지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 아브람이 만든 맛있는 음식이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37 데라는 이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서둘러 방을 나와 아브람에게로 갔다.
38 그가 자기 아들 아브람이 아직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신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더라
39 그러자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그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자, 그들은 모두 먼저 손을 내밀어 먹으려 했고, 그 큰 분이 손을 내밀기도 전에 먹으려고 했습니다."
40 큰 자가 그들이 자기 앞에서 행한 일을 보고 몹시 분노하여 집에 있던 도끼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두 부수었다. 보라, 네가 보는 바와 같이 그 도끼가 아직도 그의 손에 있다.
41 이 말을 듣고 데라는 아들 아브람에게 몹시 화가 나서, 아브람에게 "네가 지어낸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42 저 신들에게 네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할 영이나 정신이나 능력이 있느냐? 저것들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저것들과 함께 있던 큰 신이 저것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네가 그 신의 손에 도끼를 쥐여주고는 그가 저것들을 모두 쳤다고 말하는 것이냐?
43 아브람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우상들을 섬기느냐? 아버지께서 의지하시는 그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부르짖으실 때 그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우상들이 아버지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혹은 아버지를 위해 싸워 줄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시느냐?
44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에게도, 너와 관련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분별력이 부족하여 나무와 돌을 섬기며 이런 식으로 행하려 하느냐?
45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너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잊고,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써 너희 영혼에 큰 재앙을 초래하느냐?
46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일에 죄를 지었으므로 온 세상의 주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들에게 내리시고 온 땅을 멸망시키시지 않았습니까?
47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너희를 압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온 우주의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겠느냐?
48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 이런 일을 삼가시고, 당신의 영혼과 당신 가족의 영혼에 재앙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49 아브람은 서둘러 아버지 앞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의 가장 큰 우상에서 도끼를 빼앗아 그것을 부수고 도망쳤다.
50 데라는 아브람이 한 모든 일을 보고 서둘러 집을 나와 왕에게로 가서 니므롯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왕에게 절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51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주군이시여,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50 년 전에 제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제 신들을 모독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군이시며 왕이시여, 그를 불러 당신 앞에 오게 하시고 율법에 따라 심판하셔서 저희가 그의 악행에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52 왕은 자기 신하 세 사람을 보내어 아브람을 왕 앞에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날 니므롯과 그의 모든 방백과 신하들이 왕 앞에 앉아 있었고, 데라도 그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3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버지와 그의 신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니라 아브람이 아버지께 드린 말 그대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집에 있던 큰 신이 그들에게 왕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였느니라
54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그들이 네가 말한 대로 말하고 먹고 행할 능력이 있느냐? 아브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면 어찌하여 그들을 섬기시며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느냐?
55 너는 그들이 너를 구원하거나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네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너를 창조하셨으며 죽이고 살리실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56 어리석고, 단순하고, 무지한 왕이여, 너에게 영원히 화가 있을지어다.
57 나는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실 줄 알았으나,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의 죄와 주의 길을 따른 백성의 죄로 온 땅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58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행하는 이 악행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과 같으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그들 때문에 온 땅도 멸망시키셨느니라. 그런데 너와 네 백성은 이제 일어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너와 온 땅에 재앙을 가져오려 하느냐?
59 그러므로 이제 네가 행하는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을 섬기라. 네 영혼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 네게 잘 될 것이다.
60 만일 네 악한 마음이 내 말을 듣고 악한 길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와 네 백성과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네 말을 듣고 악한 길을 따라 행하다가 마지막 날에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다.
61 아브람이 왕과 방백들 앞에서 말을 마치자, 아브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인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제 12 장

1 왕이 아브람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니, 아브람은 열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2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왕은 모든 왕과 방백과 지방 총독과 현자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앉았을 때, 아브람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3 그러자 왕이 방백들과 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한 일을 들었느냐?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노라. 그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그는 마음을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였고, 내 앞에서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도다."
4 그러므로 왕을 비방한 이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들은 바와 같이 말하고 행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5 그들이 모두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욕하는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하지만, 그가 한 모든 말을 행하고 우리 신들을 업신여기었으니, 불에 태워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일에 대한 법입니다.
6 만일 왕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신하들에게 당신의 벽돌 가마에 밤낮으로 불을 지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안에 던져 넣겠습니다. 왕은 그대로 하시고, 신하들에게 카스딤에 있는 왕의 가마에 삼일 밤낮으로 불을 지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아브람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7 그러자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자들, 귀족들, 총독들, 재판관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 곧 약 90 만 명이 아브람을 보려고 화덕 맞은편에 섰습니다.
8 모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아브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지붕과 망대 위로 몰려들어 멀리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 광경을 보려고 오지 않은 남자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9 아브람이 오자 왕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아브람을 보고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폐하,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50 년 전에 왕께 말씀드렸던, 태어날 때 큰 별이 네 별을 삼켜 버린 그 아이입니다.” 하였습니다.
10 보십시오, 이제 그의 아버지도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이 죽인 또 다른 아이를 데려와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11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몹시 노하여 데라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12 그러자 왕이 말했다. "마법사들이 한 말을 들었느냐? 이제 네가 어떻게 했는지 진실을 말해 보아라. 네가 진실을 말하면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13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보고 데라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군이시여, 왕께서 진실을 들으셨고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네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내게 주고 그 값으로 사려고 하느냐?"
14 그러자 데라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하여, 제 여종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께 데려왔습니다."
15 그러자 왕이 말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조언했느냐? 내게 말해 보아라.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16 그러자 데라는 왕 앞에서 몹시 두려워하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맏아들 하란이 제게 조언한 것입니다. 하란은 아브람이 태어났을 당시 서른두 살이었습니다."
17 그러나 하란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다. 데라는 하란을 왕에게서 구하려고, 즉 왕을 몹시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왕은 데라에게 "네 아들 하란은 아브람과 함께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가 왕의 뜻을 거역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18 그때 하란은 아브람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19 하란은 속으로 생각했다. '보라, 이제 왕이 아브람이 행한 이 일들 때문에 그를 붙잡았구나. 만일 아브람이 왕을 이기면 나도 그를 따르겠지만, 만일 왕이 이기면 나도 왕을 따라가겠다.'
20 데라가 하란의 아들에 관하여 왕에게 이 말을 하자, 왕은 하란과 아브람을 함께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21 그들이 아브람과 그의 형 하란을 데려와 불에 던지려고 하니 그 땅의 모든 주민과 왕의 신하들과 방백들과 모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날 그들 위에 서 있었다.
22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아브람과 그의 형을 데려다가 그들이 입고 있던 하의만 남기고 모든 옷을 벗겼다.
23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아마포 끈으로 묶고, 왕의 신하들이 그들을 들어 올려 둘 다 용광로에 던져 넣었다.
24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람을 불에서 구원하시니 그가 타지 아니하였더라.
25 그러나 그들이 아브람을 묶었던 모든 줄은 불에 타버렸고, 아브람은 불 가운데 남아 걸어 다녔다.
26 하란은 그들이 그를 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죽었으니,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으므로 그는 재가 되어 버렸다. 그를 불 속에 던져 넣은 자들에게도 불길이 번져 그들도 타 죽었으니, 그들 중 열두 명이 죽었다.
27 아브람은 삼일 밤낮으로 불 가운데를 걸어 다녔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가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람이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아랫옷은 타지 않았고, 그를 묶고 있던 줄만 탔습니다."
28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보내어 이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왕에게 알리니, 왕이 일어나 가서 보니 아브람이 불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하란의 시체는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29 그러자 왕이 아브람을 불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꺼내려고 다가갔으나, 불이 사방에 둘러싸이고 화덕에서 불꽃이 그들을 향해 올라왔기 때문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30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그 불길에서 도망쳤다. 왕은 그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어서 아브람을 불에서 꺼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31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아브람을 끌어내려고 다시 다가왔는데, 불길이 그들에게 덮쳐 그들의 얼굴을 태워 8명이 죽었다.
32 왕은 자기 신하들이 불에 가까이 가면 타버릴까 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브람을 불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나와 내 앞으로 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아브람은 왕의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서 나와 왕 앞에 나아와 섰다.
33 아브람이 나올 때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아브람이 왕 앞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아랫옷은 불에 타지 않고 그 위에 입고 있었지만, 그를 묶었던 줄은 불에 탔더라.
34 그러자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불에 타지 아니하였느냐?
35 아브람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의지하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왕께서 나를 던지신 불에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36 아브람의 형 하란은 불에 타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찾았으나, 이미 타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37 하란은 카스딤의 불 속에서 죽을 때에 여든두 살이었다. 그 땅의 왕과 방백들과 주민들은 아브람이 불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고 와서 아브람에게 절하였다.
38 아브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세상의 하나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을 따르라. 그분께서 나를 이 불에서 건져내셨고, 모든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창조하셨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사람을 빚으시고 세상에 나오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39 아브람이 불에서 구원받고 하란이 불타 없어진 것이 왕과 방백들의 눈에 매우 놀라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왕은 아브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왕궁의 두 수장을 그에게 주었는데, 한 명은 오니였고 다른 한 명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40 그러자 모든 왕과 방백과 신하들이 아브람에게 은과 금과 진주를 많이 선물로 주었고, 왕과 방백들은 그를 배웅하여 평안히 떠나게 하였다.
41 아브람은 왕에게서 평안히 나왔고, 왕의 많은 신하들이 그를 따랐으며, 약 삼백 명이 그와 합류했다.
42 그날 아브람은 돌아와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갔다. 아브람은 평생 동안 주 그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길을 따라 행하고 그의 율법을 지켰다.
43 그날부터 아브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44 그 무렵 나홀과 아브람은 그들의 형제 하란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고, 아브람의 아내는 사라였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
45 아브람이 불에서 나온 지 이 년이 지난 후, 곧 그의 나이 쉰두째 해에 니므롯 왕이 바벨의 왕좌에 앉아 있

었는데, 왕이 잠이 들어 꿈에서 자기 군대와 함께 왕의 용광로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46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아브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풀무불에서 나와 왕 앞에 서서 칼을 빼어 들고 왕에게 달려들었다. 왕이 두려워 도망치자 그 사람이 왕의 머리 위에 달걀을 던졌는데, 그 달걀이 큰 강이 되었다.
47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의 모든 군대가 그 강에 빠져 죽었고, 왕은 자기 앞에 있던 세 사람과 함께 도망쳐 살아남았다.
48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왕의 옷과 같은 귀족 복장을 하고 있었고, 왕과 같은 모습과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49 그들이 달려가는 동안 강물이 다시 왕 앞에서 알로 변했고, 그 알에서 어린 새 한 마리가 나와 왕 앞으로 날아가 왕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 왕의 눈을 뽑아 버렸다.
50 왕은 그 광경을 보고 슬퍼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마음이 불안해졌으며 큰 두려움을 느꼈다.
51 그리고 아침이 되자 왕은 두려움에 떨며 침상에서 일어나 모든 현자와 마술사를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2 그러자 아누키라는 왕의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이 훗날 나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분을 대적하여 일으킬 악행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3 보라, 아브람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안 자녀들이 내 왕과 싸워 그의 모든 군대와 군대를 쳐부술 날이 올 것이다.
54 그리고 네가 너와 같다고 보고 도망친 세 사람에 관하여 말한 것은, 너와 함께 싸울 세상의 왕들로부터 너와 함께 세 왕만이 도망칠 것이라는 뜻이다.
55 네가 본 강물이 처음처럼 알로 변하고 어린 새가 네 눈을 뽑아 간 것은, 곧 아브람의 자손이 훗날 왕을 죽일 것을 의미한다.
56 이것은 나의 왕께서 꾸신 꿈이며,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꿈은 참되고, 당신의 종이 당신께 드린 해석도 옳습니다.
57 그러므로 나의 왕이시여, 당신의 현자들이 아브람이 태어날 때 이 일을 예언한 지 벌써 52 년이 되었음을 당신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나의 왕께서 아브람을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주군이시며 왕이신 당신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살아 있는 동안 당신과 당신의 왕국은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의 왕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그의 악행이 후대에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58 그러자 니므롯은 아누키의 말을 듣고 자기 종들 중 몇 사람을 몰래 보내어 아브람을 잡아 왕 앞에 데려와 죽게 하도록 하였다.
59 그때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은 왕이 그에게 준 사람으로, 왕 앞에 서 있다가 아누키가 왕에게 충고한 내용과 왕이 아브람을 죽이려고 한 말을 들었다.
60 엘리에셀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어서 일어나 네 목숨을 구하라. 왕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라. 왕이 꿈에서 너에 관하여 이렇게 보았고, 아누키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고, 아누키가 왕에게 너에 관하여 이렇게 조언하였느니라.
61 아브람은 엘리에셀의 음성을 듣고 서둘러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집으로 피신하여 안전한 곳에 숨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아브람을 찾으려고 그의 집으로 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고, 사방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62 왕의 신하들이 아브람을 찾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람을 찾지 못하자 왕의 분노는 가라앉았고, 왕은 아브람에 관한 이 일을 마음에서 떨쳐버렸습니다.
63 아브람은 왕이 이 일을 잊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노아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여전히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데라가 몰래 노아의 집에 있는 아들 아브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데라는 왕의 눈에 매우 큰 여인이었습니다.
64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왕이 악한 신하들의 꾀를 들어 나를 죽이고 내 이름을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65 이제 네가 여기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손에서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마지막 날에 그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66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니므롯이 너에게 이 모든 영예를 주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베푸는 것임을.
67 만일 그분께서 이보다 더 큰 선을 너에게 베푸신다면, 이것들은 분명 세상의 헛된 것들일 뿐이다. 진노와 분노의 날에는 재물과 부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68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니므롯의 해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땅에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좇는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라.
69 아브람이 말을 마치자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데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람이 네게 한 말이 참되니라
70 데라는 아들 아브람의 말을 듣고 아브람이 말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왕이 아브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신 뜻이었다.

제 13 장

1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이자 그의 며느리인 사라와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우르 카스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란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목초지로 매우 좋고 일행이 살기에 충분한 땅이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2 하란 땅 사람들은 아브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하고 정직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 사람들 중 몇 사

람이 와서 아브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그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람의 집에 머물며 그에게 충성했습니다.
3 아브람이 그 땅에 삼 년 동안 머물렀더니, 삼 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우르 카스딤에서 인도해 내고 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여호와이다."
4 그러므로 이제 네가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원수들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5 이제 일어나 네 아내와 네 소유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이 되고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람은 일어나 아내와 네 소유를 다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브람은 하란을 떠날 때 50 세였다.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성읍 가운데에 거하였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자손 곧 그 땅 주민들 가운데 장막을 쳤다.
7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땅이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며,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8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9 그때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삼 년 동안 거주한 끝에 노아가 죽었는데, 그 해는 아브람의 나이 58 세였습니다. 노아의 모든 생애는 950 년이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10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과 그 땅 백성 중에서 그와 합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 그러나 아브람의 형 나홀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하란의 아들 롯과 그들의 모든 가족은 하란에 거주하였다.
11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5 년째 되던 해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평야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권세에 반역하였다. 그 주변 평야의 모든 성읍 왕들은 12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며 매년 세금을 바쳤으나, 그 13 년째 되던 해에 그에게 반역하였다.
12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째 되던 해에 시날 왕 니므롯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니므롯이 그돌라오멜과 싸워 그를 굴복시키려고 왔다.
13 그때에 케돌라오멜은 니므롯 군대의 지도자 중 하나였는데, 망대에 있던 모든 백성이 흩어지고 남은 자들 또한 온 땅에 흩어졌을 때, 케돌라오멜은 엘람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자기 주에게 반역하였다.
14 그 무렵 니므롯은 평야의 성읍들이 반역한 것을 보고 교만과 분노에 차서 그돌라오멜과 싸우려고 왔다. 니므롯은 자기의 모든 방백과 신하들을 모아 약 70 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그돌라오멜을 치러 나갔다. 그돌라오멜도 5 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 니므롯을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엘람과 시날 사이에 있는 바벨 골짜기에서 전투 준비를 했다.
15 그 모든 왕들이 거기서 싸웠는데, 니므롯과 그의 백성은 케돌라오멜 백성 앞에서 패배하여 니므롯의 군대에서 약 60 만 명이 죽고, 왕의 아들 마르돈도 그들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16 그리하여 니므롯은 수치와 불명예를 안고 도망쳐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케돌라오멜의 지배를 받았다. 케돌라오멜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기 주변 왕들, 곧 엘라사르 왕 아리오크와 고임 왕 티달에게 자기 군대의 장군들을 보내어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모두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17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오 년째 되던 해, 곧 그의 나이 칠십 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우르 카스딤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고 데려온 여호와이다."
18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19 너는 평안하고 장수하여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며, 네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와 영원히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제단 위에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
20 그때 아브람은 돌아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족을 만나러 하란으로 갔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은 하란으로 돌아와서 아브람은 하란에서 5 년 동안 살았습니다.
21 하란 사람 중 많은 사람, 곧 일흔두 명이 아브람을 따랐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그분의 길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22 그 무렵에 여호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십 년 전에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23 너는 네 고향과 네 출생지와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너를 축복하여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 이름을 크게 하며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24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너와 네 아내와 네 모든 가족과 네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와 하란에서 낳은 모든 영혼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25 아브람은 일어나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와 하란에서 낳은 모든 자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26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그의 형 하란의 아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칠십오 세였다.
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 마므레 평지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더라.

그와 함께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도 함께 있었더라.
28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시니, 아브람이 거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마므레 평야에 남아 있다.

제 14 장

1 그 당시 시날 땅에 지혜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카욘이었고,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2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아놈의 아들 오스위리스에게 가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기로 결심하였다. 어쩌면 왕의 눈에 들어 자신을 높여주고 부양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리카욘은 그렇게 했다.
3 리카욘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집트 주민들에게 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주민들은 그에게 이집트 왕의 관습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은 일 년에 단 하루만 왕궁을 떠나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후에는 왕궁으로 돌아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4 왕이 나가신 날에 그는 나라에서 재판을 하셨고,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있는 자는 모두 그날 왕 앞에 나아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5 리카욘은 이집트의 관습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6 그리고 저녁에 리카욘은 나가서 폐허가 된 집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예전에 이집트에 있던 빵 굽는 집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머물렀는데, 마음이 괴로웠고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7 그러자 리카욘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성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야 할지 속으로 생각했다.
8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채소와 여러 가지 씨앗을 파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것들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
9 그리고 리카욘도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 지역 사람들의 관습을 알지 못하여 그들 가운데서 마치 눈먼 사람과 같았다.
10 그러자 그는 가서 채소를 구해와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들어 그를 조롱하고 채소를 빼앗아 갔습니다.
11 그러자 그는 마음이 괴로워 그곳에서 일어나 탄식하며 전날 밤을 보냈던 빵 굽는 곳으로 가서 두 번째 밤도 거기서 잤다.
12 그날 밤에도 그는 어떻게 하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속으로 의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
13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 기발한 생각을 떠올려 가서 손에 전쟁 도구를 든 건장한 평민 서른 명을 고용하여 이집트 무덤 꼭대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 세웠다.
14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강건하여 용감하게 행동하고 은 이백 세겔을 주기 전에는 아무도 여기에 묻히지 못하게 하라. 그 후에야 묻을 수 있다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해 내내 이집트 백성에게 내린 리카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15 여덟 달이 지나자 리카욘과 그의 부하들은 많은 은과 금을 모았고, 리카욘은 많은 말과 다른 짐승들을 얻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말을 주었고, 그들은 그와 함께 머물렀다.
16 그 해가 되어 왕이 성읍으로 나갈 때에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이 모여 리카욘과 그의 부하들이 한 일에 대하여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였더라.
17 왕이 정해진 날에 나가니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와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18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 성읍에서 신하들에게 행하시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일정량 주기 전에는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부터, 아담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죽은 자를 정해진 값에 의해서만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온 세상에 있었습니까?
19 우리는 왕들이 산 자에게서 매년 세금을 걷는 것이 관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서도 날마다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 오 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온 도시가 황폐해졌는데, 왕께서는 그것을 모르십니까?
21 왕은 그들이 한 말을 모두 듣고 몹시 노하여 이 일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다. 왕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2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 명령도 없이 내 땅에서 감히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느냐? 너는 반드시 내게 말해 주어라."
23 그들이 왕에게 리카욘과 그의 부하들이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니 왕이 노하여 리카욘과 그의 부하들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24 리카욘은 아들딸 약 천 명을 데려다가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자기 신하들을 시켜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보석과 튼튼하고 아름다운 말 한 마리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말을 타고 왕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백성은 리카욘의 솜씨와 그가 왕에게 가져온 재물과 선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25 왕은 그 일에 크게 기뻐하며 놀라워하였다. 리카욘이 왕 앞에 앉자 왕은 그에게 그의 모든 업적에 대하여 물었다. 리카욘은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였다.
26 왕이 리카욘의 말과 그의 지혜를 듣고 리카욘은 왕의 눈에 호감을 얻었고, 그의 지혜와 훌륭한 언변 때문에 왕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로부터 호의와 친절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그들은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27 그러자 왕이 리카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리카욘이라 불리지 않고 파라오라 불릴

것이다. 이는 네가 죽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은 그의 이름을 파라오라 불렀다.
28 왕과 신하들은 리카욘의 지혜를 사랑하여 그를 왕의 총독으로 세우기 위해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과 의논하였다.
29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주민과 현자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것이 이집트에서 법으로 제정되었다.
30 그리고 그들은 리카욘 파라오를 이집트 왕 오스위리스의 총독으로 세웠고, 리카욘 파라오는 이집트를 다스리며 매일 온 도시에 공의를 베풀었지만, 오스위리스 왕은 일 년에 하루, 즉 자기 모습을 드러내러 나갈 때에 백성들을 재판하였다.
31 그리고 리카욘 파라오는 교활하게 이집트의 정권을 찬탈하고 이집트의 모든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2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은 리카욘 파라오를 매우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다스릴 모든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33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집트를 다스린 모든 왕들은 오늘날까지 파라오라 불렸다.

제 15 장

1 그 해에 가나안 땅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 주민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여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2 아브람과 그의 모든 가족은 기근 때문에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시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3 아브람과 사라가 이집트 시내 둑을 거닐다가,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4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니,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두렵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내 누이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우리가 살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6 아브람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함께 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명령을 내렸고, 그의 조카 롯에게도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에 대하여 물으면 그녀는 아브람의 누이라고 말하여라 하였더라.
7 그러나 아브람은 이 모든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사라를 데리고 궤에 넣어 그릇들 사이에 숨겼습니다. 이는 아브람이 이집트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사라를 몹시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8 아브람과 그의 모든 가족은 이집트 시내에서 나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경비병들이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너희 소유의 십일조를 왕에게 바치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그대로 했습니다.
9 아브람은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라가 숨겨져 있던 궤짝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궤짝을 보았습니다.
10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아브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궤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왕에게 바치십시오."
11 아브람이 이르되 이 궤는 내가 열지 않겠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주겠나이다.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그것은 보석 궤이니 그 십일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니라
12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나 궤짝은 열지 마십시오."
13 왕의 신하들이 아브람을 압박하여 궤짝에 이르러 억지로 열어 보니, 궤짝 안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14 왕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바로의 모든 신하와 신하들이 사라를 보러 모였다. 사라는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왕의 신하들은 달려가서 바로에게 본 것을 모두 말하고 사라를 칭찬했다. 그러자 바로는 사라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사라는 왕 앞에 나아왔다.
15 바로가 사라를 보고 그녀에게 크게 매료되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 왕은 그녀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그녀에 대한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16 그 여자가 바로의 집으로 끌려가자 아브람은 아내 때문에 슬퍼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내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17 그때 사라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주 아브람에게 그의 고향과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주의 명령을 지키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하여 우리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땅과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18 우리가 기근을 피해 이 땅에 왔는데 이런 불행이 내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며, 주의 자비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19 여호와께서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라를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20 왕이 와서 사라 앞에 앉으니, 보라,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위에 서 있었다. 그 천사가 사라에게 나타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21 왕이 사라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너를 여기로 데려온 저 사람은 너와 무슨 관계냐?” 사라가 대답했다. “그는 제 오빠입니다.”
22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크게 세우고 높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좋은 일을 그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왕은 아브람에게 은과 금과 보석을 풍성하게 보내어 가축과 남종과 여종을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람을 불러오라고 명령

하여 그를 왕궁 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아브람을 크게 높였습니다.
23 왕이 사라에게 말하려고 다가가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지려 하자 천사가 그를 세게 치니 왕이 두려워 손을 뻗지 않았다.
24 왕이 사라에게 가까이 이르자 천사가 왕을 땅에 쓰러뜨리고 밤새도록 이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왕은 두려워하였다.
25 그날 밤 천사가 사라 때문에 왕의 모든 신하와 온 가족을 심하게 쳤고, 그날 밤 바로의 궁궐 백성들 가운데서 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26 바로는 자기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틀림없이 이 여자 때문이로다"라고 말하며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그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다.
27 왕이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함께 온 사람에 대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겠느냐 하시니 사라가 이르되 이 사람은 제 남편인데 제가 오빠라고 말한 것은 왕께서 악을 행하셔서 그를 죽이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8 그러자 왕이 사라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호와의 천사가 왕과 그의 가족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바로는 자신이 사라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
29 아침에 왕이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째서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라고 말했느냐? 이 큰 재앙이 나와 내 집안에 닥친 것이다."
30 그러므로 이제 여기 네 아내가 있다.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녀 때문에 죽을 것이다. 바로는 더 많은 가축과 남종과 여종, 그리고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브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 사라를 아브람에게 돌려보냈다.
31 왕은 자기 첩들에게서 낳은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사라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32 그러자 왕이 자기 딸에게 이르되, 이 여자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재앙을 우리가 목격했으니, 네가 내 집에서 안주인이 되는 것보다 이 남자의 집에서 여종이 되는 것이 네게 더 나을 것이다.
33 아브람이 일어나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바로는 자기 부하 몇 명에게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을 동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4 아브람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전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다.
35 아브람의 형 하란의 아들 롯은 많은 가축과 양 떼와 소 떼와 천막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36 아브람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람의 목자들이 다투었는데,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그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그 땅도 그들의 가축 때문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7 아브람의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 떼를 먹이러 갈 때에는 그 땅 사람들의 밭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나, 롯의 목자들의 가축은 그 땅 사람들의 밭에서 풀을 뜯어 먹도록 허락되었더라.
38 그 땅의 백성들은 이 일을 날마다 보고 아브람에게 와서 롯의 목자들 때문에 그와 다투었다.
39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 땅 주민들에게 멸시받게 하려고 목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네 가축을 먹이게 하느냐? 내가 가나안 자손 가운데서 나그네인 것을 모르느냐? 어찌하여 내게 이러느냐?
40 아브람은 이 일로 날마다 롯과 다투었으나 롯은 아브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와 다투었다. 그러자 그 땅의 주민들이 와서 아브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41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이 땅 주민들 앞에서 내게 걸림돌이 되려 하느냐? 이제 간청하건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친척이니라.
42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떠나 네 가축과 네 모든 소유물과 함께 거할 곳을 택하여 가서 너와 네 가족은 나와 멀리 떨어져 지내기를 바란다.
43 그리고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만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면 내게 알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그에게서 복수해 주겠다. 다만 내게서 떠나기만 하면 된다.
44 아브람이 롯에게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롯은 일어나 눈을 들어 요단 평야를 바라보았다.
45 그리고 그는 그곳 전체가 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을 뿐 아니라 가축들이 풀을 뜯기에도 좋은 곳임을 보았다.
46 롯은 아브람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소돔에 거주하였으므로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47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주하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러 해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제 16 장

1 그때 엘람 왕 케돌라오멜은 모든 이웃 왕들, 곧 당시 자기 지배하에 있던 시날 왕 니므롯과 고임 왕 티달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도와 소돔의 모든 성읍과 그 주민들을 쳐부수자. 그들이 십삼 년 동안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이 네 왕은 자기들의 모든 진영을 이끌고 올라갔는데, 그 군사는 약 80 만 명이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쳐죽였다.
3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왕, 곧 아드마 왕 시납, 제보임 왕 셰메벨,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베르샤, 소알 왕 벨라가 그들을 맞으러 나가서 싯딤 골짜기에 모여들었다.
4 이 아홉 왕이 싯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더니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엘람 왕들 앞에서 패배하였다.
5 싯딤 골짜기는 석회 구덩이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엘람 왕들이 소돔 왕들을 추격하여 도망치다가 석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모두 안전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고, 엘람의 다섯 왕이 그들을 뒤쫓아 소돔 성문까지 진격하여 소돔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6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을 약탈하고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사로잡아 갔으며, 소돔 성읍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갔다. 전쟁에 나가 있던 아브람의 종 우닉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브람에게 왕들이 소돔 성읍에 한 일과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7 아브람은 이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있던 삼백십팔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날 밤 그 왕들을 추격하여 쳐 죽였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 앞에서 쓰러졌고, 도망친 네 왕만 남았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갔다.
8 아브람은 소돔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롯과 그의 재산, 그의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 롯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9 그가 이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그와 그의 군대는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였던 싯딤 골짜기를 지나갔다.
10 소돔 왕 베라와 그와 함께 있던 나머지 군사들은 아브람과 그의 군사들을 만나려고 그들이 빠졌던 석회 구덩이에서 나왔다.
11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곧 셈이 자기 군대와 함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과 그의 백성을 맞으러 나갔고, 그들은 멜렉 골짜기에 머물렀다.
12 아도니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하니, 아브람이 자기가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의 십일조를 그에게 주었으니, 이는 아도니세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음이라.
13 거기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이 아브람에게 나아와서 그가 사로잡아 간 신하들을 돌려보내 주시고 모든 재산을 자기가 취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14 아브람이 소돔 왕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내가 너희의 소유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가 내일 ‘아브람이 우리 재산을 구원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15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16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나는 당신에게서 살아 있는 사람 중 한 사람, 신발끈 하나,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빼앗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간 자들의 식비와 나와 함께 간 아날, 아스골, 마므레와 그들의 부하들, 그리고 짐을 지키기 위해 남았던 자들의 몫은 예외입니다.
17 소돔 왕들은 아브람이 말한 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라고 권했으나 아브람은 거절하였다.
18 그리고 그는 소돔 왕들과 남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롯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19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롯은 자기 고향인 소돔으로 돌아갔고, 아브람과 그의 백성은 고향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로 돌아갔습니다.
20 그때에 여호와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상이 내 앞에서 매우 크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21 내가 네 자손에게 네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주리니,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너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라.
22 아브람의 생애 칠십팔 년에 펠렉의 아들 르우가 죽으니 그의 모든 날은 이백삼십구 년이었고 그 후에 죽었다.
23 하란의 딸이자 아브람의 아내인 사라는 그 당시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여 아브람에게 아들이나 딸을 주지 못했다.
24 그리고 요다모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자기에게 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25 하갈은 사라가 가르쳐 준 대로 사라의 모든 방식을 배웠으므로, 사라의 선한 방식을 따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6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보라, 내 여종 하갈이 여기 있으니, 가서 그녀가 내 무릎 위에서 아이를 낳게 하여 나도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도록 하라.
27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이 지난 후, 곧 아브람의 나이 팔십오 년째 되던 해에 사라는 하갈을 그에게 주었다.
28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여종 하갈을 데려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29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주인인 사라는 그녀의 눈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 사라보다 낫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 주인은 주님과 함께 지낸 모든 날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임신하게 하셨구나.'
30 사라가 하갈이 아브람에게서 임신한 것을 보고 여종을 질투하여 속으로 ‘이건 분명 하갈이 나보다 낫다는 뜻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31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한 것이 너로다. 네가 여호와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내게 자손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아니하였느냐?
32 내가 당신 앞에서 하갈에게 말할 때, 그녀는 임신했기 때문에 내 말을 업신여기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나와 당신 사이를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33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네 여종이 네 손에 있으니 네 눈에 좋게 여겨지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시매 사라는 하갈을 괴롭히니 하갈은 광야로 도망하였다.
34 주의 천사가 그녀가 도망쳐 온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제 네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품에 복종하라
35 하갈은 그 우물의 장소를 브엘라하이로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가데스와 베렛 광야 사이에 있다.
36 그때 하갈은 주인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람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아브람은 그를 낳았을 때 나이가 86 세였다.

제 17 장

1 아브람의 나이 91 년에 깃딤 자손이 투발 자손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을 온 땅에 흩으셨을 때에 깃딤 자손은 가서 카노피아 평야에 정착하여 거기에 성읍을 짓고 티브레우 강가에 거주했습니다.
2 투발의 자손은 투스카나에 거주하였고 그들의 거주지는 티브레우 강까지 이르렀으며, 투발의 자손은 투스카나에 성을 쌓고 그들의 아버지 투발의 아들 사비나의 이름을 따서 사비나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3 그때에 킷팀 자손이 투발 자손과 전쟁을 벌였는데, 투발 자손이 킷팀 자손 앞에서 패배를 당했고, 킷팀 자손은 투발 자손 중에서 삼백칠십 명을 죽게 하였습니다.
4 그때에 투발의 자손들이 킷팀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와 서로 결혼하지 말라. 또한 어떤 사람도 자기 딸을 킷팀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하더라.
5 그 당시 투발의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으니, 온 세상에 투발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더라.
6 그리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투발의 딸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 당시 여인의 아름다움을 매우 좋아하는 왕과 방백을 비롯한 사람들의 아들들도 투발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7 투발의 자손이 킷팀의 자손에게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지 삼 년이 지난 후에, 킷팀 자손 중 약 스무 명이 투발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러 갔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8 투발의 자손들은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켰고, 그 맹세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9 추수 때에 투발 자손은 추수하러 밭으로 나갔는데, 킷팀의 젊은이들이 모여 사비나 성읍으로 가서 각 사람이 투발의 딸들 중에서 젊은 여자를 한 명씩 데리고 자기 성읍으로 갔다.
10 투발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러 갔으나, 산이 너무 높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11 그리고 그 해가 바뀔 무렵에 투발 자손은 근처 성읍들에서 약 만 명의 용사를 고용하여 킷팀 자손과 싸우러 나갔다.
12 투발 자손이 킷팀 자손과 싸워 그들의 땅을 파괴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였더니, 이 싸움에서 투발 자손이 킷팀 자손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킷팀 자손은 크게 괴로워하며 투발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쌓아올린 성벽 위에 올려 투발 자손이 보는 앞에서 전시하였다.
13 그러자 킷팀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들딸들과 싸우러 왔느냐?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살과 뼈로 여겨지지 않았느냐?"
14 투발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킷팀 자손과 싸우기를 그치고 떠나갔다.
15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니, 그때에 킷팀 자손들이 모여 바닷가에 두 성읍을 세우고 하나는 푸르투라 하고 다른 하나는 아리자라 하였더라.
16 그때 데라의 아들 아브람의 나이는 99 세였다.
17 그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은 이것이니, 너와 네 후손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8 새끼가 여덟 살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이 언약을 너희 살에 새겨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19 그러므로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불리며, 네 아내는 더 이상 사라이라 불리지 않고 사라라 불리리라.
20 내가 너희 둘에게 복을 주어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너희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제 18 장

1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고, 자기 집안사람들과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2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포경수술을 받았더라. 이스마엘은 포경수술을 받을 때에 열세 살이었더라.
3 사흘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육체의 고통을 견디며 햇볕을 쬐려고 자기 장막에서 나와 문 밖에 앉았다.
4 여호와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의 시종 천사 셋을 보내어 그를 방문하게 하셨다.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멀리서 오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 달려가 그들을 맞으며 절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눈에 호감을 얻었다면, 들어와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으라." 예수께서 그들을 간청하시니, 그들이 들어와서 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고 예수께서 그들을 장막 문 앞 나무 아래에 두셨습니다.

6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급히 잡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주어 손질하게 하였습니다.
7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밀가루 세 되를 어서 준비하여 반죽하고 고기가 담긴 솥을 덮을 빵을 만들어라 하시매, 사라가 그대로 하였더라.
8 아브라함은 서둘러 가서 그들 앞에 버터와 우유, 소고기와 양고기를 가져다가 송아지 고기가 충분히 익기도 전에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그들이 먹었다.
9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이르되 내가 정해진 때에 네게 돌아오겠으며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였더라
10 그 후 그 사람들은 떠나서 자기들이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각자의 길로 갔다.
11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성읍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심히 악하고 죄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가증스럽고 멸시받으며 늙어갔으며, 그들의 악과 죄악은 그 당시 여호와 앞에서 매우 컸습니다.
12 그들의 땅에는 반나절 정도 걸어가야 할 만큼 넓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샘물이 솟아나고 물가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13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은 일 년에 네 번씩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14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때에 그들은 모두 일어나 이웃의 아내들을 붙잡고, 어떤 이들은 이웃의 처녀 딸들을 붙잡아 즐겼다. 각 남자는 자기 아내와 딸이 이웃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하다가 각자 남자들은 자기 집으로, 여자들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일 년에 네 번씩 늘 그렇게 했습니다.
16 또 어떤 이방인이 그들의 성읍에 와서 자기가 사서 거기서 팔려고 가져온 물건들을 가져오면, 그 성읍 사람들은 남자, 여자, 아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 그 주인이 가져온 모든 물건을 다 빼앗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17 만일 물건 주인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고 따지면, 그들은 하나씩 그에게 다가와서 각자 자기가 가져간 작은 것을 보여주며 “나는 당신이 내게 준 것 중 아주 조금밖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모두 들으면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일어나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모두 일어나 그를 따라가서 큰 소리와 소란으로 그를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18 엘람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색깔의 아름다운 겉옷을 나귀에 타고 한가롭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겉옷은 끈으로 나귀에 묶여 있었습니다.
19 그 사람이 소돔 거리를 지나가다가 저녁 해가 질 무렵에 그곳에 머물렀는데, 밤을 지새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소돔에는 악하고 간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헤닷이었습니다.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서 나그네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느냐?"
21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헤브론에서 제 고향인 엘람으로 가는 길에 해가 지자 아무도 저를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빵과 물과 짚과 나귀 먹이도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22 그러자 헤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겠으나 밤에는 거리에서 지내지 말라 하였더라
23 헤닷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나귀에서 끈으로 된 겉옷을 벗겨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나귀에게 짚과 먹이를 주었고, 나그네는 헤닷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 나그네는 그날 밤 헤닷의 집에서 묵었다.
24 그리고 아침 일찍 여행자가 길을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헤닷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빵 한 조각으로 마음을 달래고 가십시오." 그 사람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헤닷과 함께 머물면서 낮 동안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25 헤닷이 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날이 저물고 있으니 마음이 편히 쉬려면 하룻밤 더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닷이 그를 간곡히 권하여 그가 하룻밤을 지새우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헤닷이 다시 이르되, "빵 한 조각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가시오." 하였습니다. 하닷은 그가 다음 날에도 헤닷과 함께 머물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서야 길을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26 헤닷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날이 저물고 있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 네 마음을 위로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네 길을 가거라.
27 그러자 그 사람은 머물지 않고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가 나귀에 안장을 얹는 동안 헤닷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틀 동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까?" 헤닷이 아내에게 말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28 그 사람은 나귀에 안장을 얹고 헤닷에게 나귀에 묶을 끈과 겉옷을 달라고 청하였다.
29 헤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생각은 어떠냐 하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집에 숨겨 두셨던 여러 색깔의 끈과 겉옷을 내게 주시어 내가 잘 보관하게 하소서 하소서
30 헤닷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네가 본 줄은 네 수명이 줄처럼 길어질 것을 의미하고, 온갖 색깔로 물든 겉옷은 네가 포도원을 갖게 되어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것을 의미하느니라
31 그러자 여행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깨어 있을 때에 당신께 줄과 여러 가지 색깔로 짠 겉옷을 드렸는데, 당신께서 나귀에서 벗겨 나를 위해 따로 두셨느니라. 헤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 꿈의 해석을 분명히 말해 주었으니, 그것은 좋은 꿈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32 이제 사람들의 아들들은 내게 꿈 해몽에 대한 대가로 은 네 닢을 주는데, 너에게서만 나는 은 세 닢을 요구한다.
33 그러자 그 사람은 헤닷의 말에 격분하여 통곡하며 헤닷을 소돔의 사사 세락에게 데려갔다.
34 그 사람이 재판관 세락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니 헤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일은 이러하니라 하니라 재판관이 그 나그네에게 이르되 이 헤닷이 네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는 꿈 해몽에 능하여 여러 도시에서 명성이 자자하느니라
35 그러자 그 사람이 재판관의 말에 소리쳐 말했습니다. "나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귀에 있던 줄과 겉옷을 그에게 주어 집에 보관하게 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다투었는데, 한쪽은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그렇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6 그러자 헤닷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 해몽해 준 대가로 받는 은 네 닢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조금도 깎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집에서 먹은 네 끼 식사 비용도 내게 주십시오."
37 그러자 그 사람이 헤닷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서 먹은 것에 대한 값을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집에 숨겨 두었던 끈과 겉옷만 내게 주십시오."
38 그러자 헤닷이 재판관 앞에서 대답하여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 해몽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줄은 당신의 날이 줄처럼 길어질 것을 의미하고, 겉옷은 당신이 포도원을 갖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것을 의미합니다."
39 이것이 네 꿈의 올바른 해석이다. 이제 내가 보상으로 요구하는 은 네 닢을 내게 주어라. 나는 너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
40 그러자 그 사람은 헤닷의 말에 울부짖었고,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다투었다. 재판관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함부로 집에서 쫓아냈다.
41 그들이 재판관과 다투며 떠나갈 때, 소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그 나그네를 고발하며 그를 함부로 성에서 쫓아냈다.
42 그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슬퍼하며 울면서 나귀를 타고 계속 길을 갔다.
43 그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는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제 19 장

1 소돔 성읍에는 네 성읍을 담당하는 네 명의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소돔 성읍의 세락, 고모라 성읍의 샤르캇, 아드마 성읍의 자브낙, 그리고 제보임 성읍의 메논이었다.
2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 세락을 샤크라로, 샤르카드를 샤크루라로, 제브낙을 케조빔으로, 메논을 마츠로딘으로 바꾸었습니다.
3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네 명의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 성읍 거리 곳곳에 침상을 설치하고, 사람이 이곳에 오면 붙잡아 침상 중 하나로 끌고 가서 억지로 눕혔다.
4 그가 누우면 세 사람이 그의 머리맡에, 세 사람이 발치에 서서 침대 길이로 그의 키를 재고, 만일 그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 이 여섯 사람이 그의 양쪽 끝을 잡아 당겨 늘리고, 그가 부르짖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5 만일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들은 침대의 양쪽 끝을 모아서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도록 했다.
6 만일 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면,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될 것이다."
7 사람들이 소돔 성읍 사람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을 듣고는 그곳에 오기를 삼갔다.
8 가난한 사람이 그들의 땅에 오면 그들은 그에게 은과 금을 주고, 온 성읍에 포고령을 내려 그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나그네가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빵 한 조각도 얻지 못하고 굶어 죽으면, 그가 죽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그에게 주었던 은과 금을 가져갔습니다.
9 그들이 예수께 드린 은이나 금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가져갔고, 예수가 죽자 그의 옷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두고 서로 다투었는데, 이긴 사람이 옷을 차지했습니다.
10 그들은 그 후에 그를 옮겨 사막의 덤불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와서 죽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11 그리고 얼마 후 사라가 엘리에셀을 소돔으로 보내어 롯을 만나 그의 안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12 엘리에셀이 소돔으로 갔을 때, 그는 소돔 사람이 타국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버렸습니다.
13 그러자 이 불쌍한 사람이 엘리에셀에게 부르짖으며 소돔 사람이 자기에게 한 짓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4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땅에 온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15 그러자 소돔 사람이 엘리에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네 형제냐? 아니면 소돔 사람들이 오늘 너를 재판관으로 세워서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
16 엘리에셀은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소돔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가난한 사람의 옷을 되찾으려고 소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소돔 사람이 급히 달려들어 돌을 던져 엘리에셀의 이마를 쳤습니다.
17 그러자 엘리에셀의 이마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 그 사람이 피를 보고 엘리에셀을 붙잡고 말했다. "내가 네 이마에 묻은 이 악한 피를 닦아 주었으니 내 품삯을 내게 주시오. 이것이 우리 땅의 관습이며 법입니다."
18 엘리에셀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상하게 하고는 내게 품삯을 요구하느냐 하니 엘리에셀은 소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9 그러자 그 사람은 엘리에셀을 붙잡아 소돔의 재판관 샤크라에게 데려가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20 그러자 그 사람이 재판관에게 말하기를, “나리, 간청하건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돌로 그를 쳐서 이마에서 피가 흘렀는데도, 그는 제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21 그러자 재판관이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네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 그에게 품삯을 주어라. 이것이 우리 땅의 관습이니라 하니라. 엘리에셀이 재판관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재판관을 치니 돌이 그의 이마에 맞아 피가 흥건히 흘렀다. 엘리에셀이 이르되 만일 이것이 당신 땅의 관습이라면 내가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당신이 이 사람에게 주어라. 이것이 당신의 결정이니 당신이 정한 것이니라.
22 엘리에셀은 소돔 사람을 재판관에게 맡기고 떠났다.
23 엘람 왕들이 소돔 왕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엘람 왕들은 소돔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롯과 그의 재산을 사로잡아 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서 엘람 왕들과 싸워 롯의 모든 재산과 소돔의 재산을 되찾았다.
24 그때에 롯의 아내가 딸을 낳았는데, 롯은 그 딸의 이름을 팔딧이라 지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엘람 왕들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롯의 딸 팔딧이 장성하자 소돔 사람 하나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25 한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는데, 소돔 사람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그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말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26 그리고 롯의 딸 팔딧은 이 사람이 굶주림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생명을 구할 것을 주지 않았고, 그는 이제 막 죽음 직전에 있었다.
27 그리하여 그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여러 날 동안 몰래 빵을 주어 먹였더니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28 그녀는 물을 길으러 나갈 때 물 항아리에 빵을 넣어두었다가,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면 항아리에서 빵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했다.
29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날 동안 굶주림을 견딜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30 그러자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그가 먹고 마시는 거겠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굶주릴 수도 없고, 이 사람처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 숨어서 누가 그에게 먹을 빵을 가져다주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31 그날 롯의 딸 팔딧이 물을 길으러 나갔다. 그녀는 물 항아리에 빵을 넣고 가난한 사람의 집 근처로 가서 물을 긷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빵을 꺼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니 그가 먹었다.
32 세 사람은 팔딧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한 일을 보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를 돌보았으므로 그는 굶주리지도 않았고, 외모도 변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도 않았습니다."
33 그러자 그 세 사람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팔딧과 그 가난한 사람의 손에 있던 빵을 빼앗았다.
34 그들이 팔딧을 데려다가 재판관들 앞에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었으므로 그가 지금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우리 법을 어겼으니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35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모여 성읍 거리에서 불을 지르고 그 여자를 잡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 여자는 재가 되어 버렸다.
36 아드마 성읍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행하였다.
37 한 여행자가 아드마 성에 와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는 해가 진 후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 집 문 맞은편에 앉아 거기에 머물렀다. 그 젊은 여인은 그가 집 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38 그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자 그녀가 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그녀에게 “저는 오늘 길을 가다가 해가 질 무렵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39 그러자 그 젊은 여자는 집으로 들어가 그 남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 위해 빵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40 이 일이 아드마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여서 그 젊은 여자를 재판관들 앞에 데려와서 그녀의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41 그러자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법을 어겼으므로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판결입니다."
42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모여 그 젊은 여자를 끌어내어 재판관이 명령한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꿀을 바르고 벌집에 있던 벌떼 앞에 세웠다. 그러자 벌들이 그녀에게 날아들어 쏘았고, 그녀의 온몸이 부어올랐다.
43 그러자 그 젊은 여자는 벌떼 때문에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채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녀의 울부짖음은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44 여호와께서 이와 소돔 성읍들의 모든 행위에 진노하셨으니, 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때에 그들의 악행과 죄악이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커졌더라.
45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왔던 천사 두 명을 불러 소돔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46 그리고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장막 문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저녁에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가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맞으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47 그러자 그는 그들을 몹시 불러들여 자기 집으로 데려와 음식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고, 그들은 그의 집에서 밤을 지새웠다.

48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와 네 온 가족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멸망할 것이니 주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49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를 데리고 나와 성읍들 밖에 세웠다.
50 그들이 롯에게 이르되 목숨을 살리라 하시매 도망치라 하니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도망쳤다.
51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 모든 성읍 위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52 그리고 그분은 이 성읍들과 그 평야 전체와 그 성읍의 모든 주민들과 그 땅 위에 자라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롯의 아내 아도는 성읍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려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이는 소돔에 남아 있는 딸들, 곧 그녀와 함께 가지 않은 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53 그녀가 뒤를 돌아보니 소금 기둥이 되어 있었고, 그 소금 기둥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남아 있다.
54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소들은 날마다 소금을 발끝까지 핥아 먹었는데, 아침이 되면 소금이 다시 솟아나와 소들은 오늘날까지 또다시 소금을 핥아 먹었다.
55 그리고 롯과 그와 함께 남아 있던 두 딸은 도망쳐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56 아브라함은 소돔 성읍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보니 성읍들에서 연기가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57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은 동굴에 남아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와 동침하였다. 이는 온 땅이 멸망했다고 생각하여 세상에는 자기들에게서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남자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58 그 둘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 부르고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그를 낳았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하였더라.
59 그리고 둘째 딸도 아들의 이름을 베나미라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60 그 후에 롯과 그의 두 딸은 그곳을 떠나 요단 강 건너편에 두 딸과 그들의 아들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롯의 아들들이 장성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했습니다.

제 20 장

1 그 무렵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야에서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게라르에 거주하였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25 년째 되던 해, 그의 생애 100 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 땅의 게라르에 이르러서였다.
2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 그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물어보면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땅 주민들의 악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사라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녀에 대해 물으니 아브라함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4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르되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러 왔는데, 그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누이가 있더라 하더라
5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이 사라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어 사라를 왕에게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6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이르러 왕은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매우 마음에 들어하였다.
7 그가 사라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우리 땅에 온 저 사람은 너와 무슨 관계냐?"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오빠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와서 정착할 곳을 찾다가 왔습니다."
8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오빠를 네가 원하는 이 땅의 어느 곳에든 정착하게 하라. 네 오빠이니 우리가 그를 이 땅의 모든 백성보다 높이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니라.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왔다.
10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네 누이 사라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존귀하게 대접받도록 명령하였노라.
11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나왔고, 왕의 신하들이 그를 따라갔다.
12 저녁 무렵,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왕은 왕좌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져 아침까지 왕좌에 누워 주무셨다.
13 아비멜렉이 꿈을 꾸었는데,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에게 나타나 아비멜렉 위에 서서 그를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왕은 꿈에서 두려워하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가 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14 그러자 천사가 아비멜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어젯밤에 네 집에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네가 죽으리라.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요, 네 집에 온 아브라함의 아내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 온 가족이 반드시 죽으리라.
15 그 밤에 블레셋 땅에서 큰 함성이 울려 퍼졌고, 그 땅 주민들은 칼을 빼든 한 사람의 형체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칼로 그 땅 주민들을 치고 또 계속해서 쳤다.
16 여호와의 천사가 그날 밤에 블레셋 온 땅을 치니 그 날 밤과 다음 날 아침에 큰 혼란이 일어났더라.
17 모든 태가 닫히고 모든 자손이 막혔으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라.
18 아침이 되자 아비멜렉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큰 공포에 사로잡혀 일어나 사람을 보내어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19 그러자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 왕이시여, 이 여자를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집트 왕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가 이집트에 왔을 때 말입니다.
20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그가 나그네로 살러 올 때에는 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1 그러자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심한 재앙을 내리셔서, 그가 마침내 그 여자를 남편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22 그러므로 오 주왕이시여, 어젯밤 온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소서. 큰 동요와 큰 고통과 통곡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당신께서 취하신 그 여자 때문임을 압니다.
23 그러므로 이제 이 여자를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닥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서둘러 사람을 불러 사라를 불러오게 하였고, 사라가 그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오게 하였고, 아브라함도 그의 앞에 나왔습니다.
24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자매라고 말하고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무슨 짓이냐?"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였더니 아비멜렉이 양 떼와 소 떼와 남종과 여종과 은 천 세겔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니 사라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26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택하는 곳에 거하라 하니라
27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왕 앞에서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나와서 그 땅, 곧 게라르에 정착하였다.
28 블레셋 땅의 모든 주민과 왕의 신하들은 사라 때문에 천사가 밤새 내린 재앙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 네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서 이 죽음을 없애 주시도록 하옵소서 하더라
30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백성을 고쳐 주셨다.

제 21 장

1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게라르에 거한 지 일 년 사 개월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2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다.
3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생후 8 일 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 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 세였다.
4 아이가 자라 젖을 떼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5 셈과 에벨과 그 땅의 모든 장수들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군대 사령관 피콜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젖 떼는 날을 기념하여 베푼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6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 나홀도 하란에서 왔는데, 그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도 함께 왔다. 그들은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기 때문이다.
7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셨다.
8 데라와 나홀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뻐하며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다.
9 그때에 레우의 아들 세룩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첫 해에 죽었다.
10 세룩의 모든 생애는 이백삼십구 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11 그 무렵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을 때 열네 살이었다.
12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자라면서 활쏘는 법을 배워 궁수가 되었다.
13 이삭이 다섯 살이었을 때, 그는 이스마엘과 함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
14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활을 당겨 화살을 장전하고 이삭을 죽이려 하였다.
15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려던 일을 보고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저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해치려 하였으니 말이다.
16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빵 열두 덩이와 물 한 병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보냈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광야로 가서 파란 광야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이스마엘은 활쏘는 사람이었고,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17 그 후에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였고, 하갈은 이집트에서 아들을 위해 메리바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18 이스마엘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았고, 그 후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은 광야로 돌아갔다.
19 그들은 광야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한 해에 한 번씩 쉬었다.
20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와 천막을 주셨고, 그 사람은 가축이 번성하였다.
21 이스마엘은 광야와 천막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쉬었으므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22 얼마 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아들 이스마엘을 만나야겠다.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으므로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
다.”
23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찾으려고 낙타 한
마리를 타고 광야로 갔다. 이스마엘이 광야의 한 장막
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
문이다.
24 아브라함이 광야로 가서 정오쯤 이스마엘의 장막에
이르러 이스마엘을 찾아보니 이스마엘의 아내가 자녀
들과 함께 장막에 앉아 있었고, 남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내에게 “이스마엘이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니, “사냥하러 들판에 나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낙타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낙타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았다.
26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내에게 이르되 딸아 내가
여행으로 지쳤으니 물 좀 주너라.
27 그러자 이스마엘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는 물도 없고 빵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녀는 장막에 계속 앉아 아브라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도 묻지 아니하였더라.
28 그러나 그 아내는 장막 안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저
주했으며, 남편 이스마엘에게도 저주를 퍼붓고 꾸짖었
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을 듣고 몹시 화가 나고 불쾌했다.
29 아브라함이 그 여자를 불러 장막에서 나오라고 하자,
그 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 맞은편에 섰다. 아브라함은
아직 낙타 위에 타고 있었다.
30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남편 이
스마엘이 집에 돌아오면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31 블레셋 땅에서 온 아주 늙은 사람이 너를 찾으러 여
기에 왔는데, 그의 모습은 이러했다. 나는 그에게 누구
인지 묻지 않았다. 네가 여기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 남편 이스마엘이 돌아오면 이렇게 전하라
고 하였더라. 네가 집에 돌아오면 여기에 세운 천막의
이 못을 빼내고 다른 못을 박으라고 하였더라.
32 아브라함은 그 여자에게 지시를 마치고 돌아서서 낙
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33 그 후에 이스마엘이 어머니와 함께 사냥에서 돌아와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
했습니다.
34 블레셋 땅에서 온 아주 늙은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
데, 그의 모습은 이러했다. 나는 그에게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네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여기
에 세운 천막의 못을 빼내고 다른 못을 박으라고.
35 이스마엘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자기 아버
지이며 아내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36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아내에게 한 말을 알아듣고 아
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자를 내쫓았더니 그 여자
는 떠나갔다.
37 그 후에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른 아내
를 맞이하여 자기가 살던 곳의 장막으로 데려왔다.
38 그리고 삼 년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
시 가서 내 아들 이스마엘을 봐야겠다.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39 그리고 그는 낙타를 타고 광야로 가서 정오쯤에 이
스마엘의 천막에 이르렀다.
40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행방을 묻자 그의 아내가 장
막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스마엘은 여기 없
습니다. 들판에 사냥을 나가 낙타들에게 먹이를 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
주인님, 장막으로 돌아가셔서 빵 한 조각 드십시오. 여
행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41 아브라함이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급히 가
야 하니 멈추지 않겠다. 그러나 내게 물을 조금만 주시
오. 내가 목이 마르소. 하니 그 여인이 서둘러 장막으로
달려가 물과 빵을 가져다 아브라함 앞에 놓고 먹으라고
권하니 아브라함이 먹고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
기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였다.
42 그리고 그는 식사를 마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스
마엘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스마엘이 집에 돌아오면 이
말을 그에게 전하여라 하였더라
43 블레셋 땅에서 온 매우 늙은 사람이 여기로 와서 너
를 찾았으나 너는 여기 없었더라. 내가 그에게 빵과 물
을 가져다 주니 그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위로를 받았
더라.
44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돌아오면, 네가 가진 장막의 못
이 아주 좋으니, 장막에서 떼어내지 말라고 그에게 말
하여라."
45 아브라함은 그 여인에게 명령을 마치고 블레셋 땅에
있는 자기 집으로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이
그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46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온 한 노인이 여기로 왔는데 그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안부를 물었지만 당신은 여기 계시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과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47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돌아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
라. '네가 가진 장막의 못은 아주 좋으니, 장막에서 떼어
내지 말라.'"
48 이스마엘은 그분이 자기 아버지이시고, 아내가 그분
을 공경한 것을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에게 복
을 주셨다.

제 22 장

1 그러자 이스마엘은 일어나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가
축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 블
레셋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다.
2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이 첫
째 아내와 맺은 일과 그녀가 행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었다.

3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4 날이 흘러 이십육 년이 되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과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하여 헤브론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정착했고, 아브라함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은 물가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땅 경계에 우물을 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5 그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투고 그들이 판 큰 우물을 훔쳐 갔다.
6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군대 사령관 피콜과 그의 부하 스무 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신하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그의 신하들이 훔쳐간 우물에 대해 아비멜렉을 꾸짖었습니다.
7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온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행한 일을 오늘까지 듣지 못하였나이다.
8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부디 내 손에서 이것들을 받아 주십시오. 이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9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소와 떼도 많이 주었던 것을 받아먹고, 그 우물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그 우물에 관하여 맹세한 곳이 바로 여기였으므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 불렀다.
10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사령관 피콜과 그의 모든 군사들과 함께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은 브엘세바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그 땅에 있었다.
11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큰 에셀 나무를 심고 땅의 네 방향으로 네 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곳에 포도원을 심어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면 길에 있는 문 중 어느 문으로든 들어가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운 후에 떠나도록 했습니다.
12 아브라함의 집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서, 그들은 날마다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13 누구든지 굶주린 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오면, 아브라함은 그에게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할 빵을 주었고, 누구든지 헐벗고 그의 집에 오면, 아브라함은 그에게 원하는 옷을 입혀 주고 은과 금을 주며, 땅에서 그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알려주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렇게 행하였다.
14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브엘세바에 거주하였고, 그는 헤브론까지 장막을 쳤다.
15 아브라함의 형 나홀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은 하란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였더라.
16 하란의 딸이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자매인 밀가가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17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우스, 부스, 케무엘, 케셋, 하조, 필다쉬, 티들라프, 베투엘이니, 이들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낳은 여덟 아들들이다.
18 나홀에게는 르우마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홀에게 제박, 가하스, 타하스, 마아카라는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19 나홀에게는 딸들 외에 아들이 열두 명 있었는데, 그들도 하란에서 자녀를 낳았다.
20 나홀의 맏아들 우스의 자녀는 아비, 케레프, 가딘, 멜루스, 그리고 그들의 누이 드보라였다.
21 부스의 아들들은 베라켈, 나아맛, 세바, 마도누였다.
22 케무엘의 아들들은 아람과 레콥이었다.
23 케셋의 아들들은 아남렉, 메샤이, 베논, 이피였고, 하조의 아들들은 필다쉬, 메키, 오페르였다.
24 필다쉬의 아들들은 아룻, 함, 메레드, 몰록이었다.
25 티들라프의 아들들은 무산, 쿠산, 그리고 무치였다.
26 베투엘의 자녀는 세갈과 라반과 그의 누이 레베카였다.
27 이들은 하란에서 태어난 나홀의 자손들의 가족들이다. 케무엘의 아들 아람과 그의 형제 레콥은 하란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28 그들이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아람의 아들 페토르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 이름을 아람 나헤라임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29 그리고 케셋의 자손들도 거할 곳을 찾아 나섰는데, 가서 보니 시날 땅 맞은편 골짜기를 발견하여 거기에 정착하였다.
30 그들은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케셋이라 불렀으니, 그 땅은 오늘날까지 카스딤 땅이라 불린다. 카스딤 족속은 그 땅에 거주하며 번성하여 매우 번성하였다.
31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많아지자 다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펠릴라였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조바라 불렀다.
32 그리고 테라는 조바를 낳은 후 25 년을 더 살았습니다.
33 그리고 데라는 그 해에 죽었으니,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5 년째 되는 해였다.
34 데라의 나이는 이백오 년이었고, 그는 하란에 묻혔다.
35 데라의 아들 조바는 삼십 년을 살았고 아람과 아클리스와 메릭을 낳았다.
36 데라의 손자 조바의 아들 아람은 아내가 셋이었는데, 그 아들 열두 명과 딸 셋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재물과 소유와 풍성한 가축과 양떼와 소 떼를 주셨고, 그 사람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37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의 형제와 그의 온 가족은 하란을 떠나 정착할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하란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홀의 자손 형제들과 함께 하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38 그리고 조바의 아들 아람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가다가 동쪽 지방 멀리 떨어진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39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의 맏형의 이름을 따서 아람이라 불렀으니,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람 조바라 불린다.
40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성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41 이삭이 서른일곱 살이 되었을 때, 그의 동생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 장막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42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자랑하여 이르되 내가 열세 살 때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우리를 할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내 목숨을 여호와께 바쳤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명하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43 그러자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주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네 몸에서 떼어낸 작은 살점을 어찌하여 내게 자랑하느냐?
44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만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45 여호와께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한 말을 들으시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이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다.
46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날이 이르렀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왔다.
4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매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땅 위를 두루 다니며 걸어 다니다가 왔나이다 하니라
4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땅의 모든 자녀들이 주를 섬기며 주께 무엇을 구할 때에 주를 기억하느니라 내가 보라
49 그러나 네가 그들이 네게 요구하는 것을 주면 그들은 편히 앉아 너를 버리고 다시는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50 주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셨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주님을 섬기며 가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치며 온 땅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51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그는 너를 버리고 온 땅의 주민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여호와를 잊어 버렸다.
52 그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서도 너에게 아무런 제물도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번제물도 화목제물도 아니요, 아들의 젖 떼는 날에 잡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도 드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3 그의 아들이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즉 서른일곱 살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는 당신 앞에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어떤 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가 당신 앞에서 요구한 것을 이미 주셨음을 알고, 당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54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으니, 그는 내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만일 내가 그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데려오라'고 말하면 그는 내게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하물며 내가 그에게 '네 양 떼나 소 떼 중에서 번제물을 내 앞에 가져오라'고 말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55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오늘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지 않을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제 23 장

1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매 그가 대답하노라.
2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게 보여지는 산들 중 하나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거기서 네가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3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이삭을 그의 어머니 사라에게서 떼어내어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4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 그의 아내 사라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5 내 아들 이삭이 장성했는데, 한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지 않았다. 내일 내가 가서 그를 셈과 그의 아들 에벨에게 데려오겠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6 그러자 사라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저에게서 너무 멀리 옮기지 마시고, 너무 오래 그곳에 머물게 하지도 마십시오. 제 영혼이 그의 영혼 안에 묶여 있습니다."
7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내 딸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자.
8 사라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자기 곁에 머물게 하였고, 사라는 그에게 입맞추고 껴안으며 아침까지 지켜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다.
9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입맞추고 껴안으며 아브라함에게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0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부디 당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는 그 아이 외에는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11 그를 버리지 마소서. 그가 굶주리면 빵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소서. 그가 걸어 다니지 않게 하고, 햇볕에 앉지 않게 하소서.
12 그를 혼자 길에서 가게 하지도 말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도 말고,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3 사라가 이삭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아침까지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14 그리고 아침에 사라는 집에 있는 옷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준 아주 아름답고 멋진 옷을 골랐다.
15 그리하여 마리아는 아들 이삭에게 그 옷을 입히고 머리에 터번을 씌우고 터번 꼭대기에 보석을 박아 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고 길을 나섰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갔고, 몇몇 종들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동행했다.
16 사라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길을 따라가며 그들을 배웅했는데, 그들이 사라에게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7 사라가 아들 이삭의 말을 듣고 통곡하니 남편 아브라함도 함께 울고 아들도 그들과 함께 크게 울었으며 그들과 함께 가던 사람들도 많이 울었다.
18 사라가 아들 이삭을 붙잡고 품에 안아 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19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함께 울었고, 길을 함께 걸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울었다. 사라는 나중에 아들을 떠나 통곡하며 모든 남종과 여종들과 함께 장막으로 돌아갔다.
20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여호와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나갔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21 아브라함은 자기 종 이스마엘과 하갈의 아들 엘리에셀을 데리고 길을 갔다.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두 종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22 그러자 이스마엘이 엘리에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23 이제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분의 모든 소유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분의 뒤를 이어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4 엘리에셀이 이스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너와 네 어머니를 버리고 맹세하건대 그의 모든 소유물 중에서 네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보물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그의 종인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나는 그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밤낮으로 그를 섬기고 그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나에게 물려 주시겠느냐?
2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사탄이 나타나 매우 늙고 겸손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어리석거나 짐승 같으니 오늘 네 외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려 하느냐?"
26 하나님께서 네게 늦은 나이, 곧 네 노년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가서 그를 죽이려 하느냐? 네 외아들의 영혼을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 하느냐?
27 너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에게 그토록 악한 일을 행하시어 “가서 네 자식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시다.
28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사탄이 자기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를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29 사탄이 다시 돌아와 이삭에게 와서,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이삭에게 나타났다.
30 그가 이삭에게 다가가 이르되 네 늙고 어리석은 아버지가 오늘 아무 죄 없이 너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줄 모르느냐?
31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마라. 그는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하니, 너의 소중한 영혼과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
32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버지,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3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조심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는 사탄이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자니라.
34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사탄을 꾸짖으니 사탄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사탄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숨어서 길을 가다가 그들 앞에서 지나갔다. 그리고 큰 시냇물로 변하여 길을 지나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두 젊은이가 그곳에 이르러 보니 큰 물처럼 크고 힘찬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35 그들이 시냇물에 들어가 건너가니 처음에는 물이 그들의 다리까지 차올랐다.
36 그들이 시냇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 물이 그들의 목까지 차올랐고, 그들은 모두 물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시냇물을 건너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곳을 알아보았고, 전에는 그곳에 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7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아는 이 곳은 시냇물도 없고 물도 없던 곳인데 바로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하여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38 아브라함이 사탄을 꾸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니 사탄아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노라 하였도다

39 그러자 사탄은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그곳은 처음처럼 다시 마른 땅이 되었다.
40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였다.
41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42 그리고 땅에서 하늘에 닿는 불기둥이 그에게 나타났고, 산 위에는 영광의 구름이 있었으며, 그 구름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보였다.
43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우리가 멀리서 보는 저 산에서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느냐?
44 이삭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느니라 하였더라
45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았다.
46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너희도 우리가 멀리 산 위에서 보는 것을 보느냐?
47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산들과 다를 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과 함께 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이삭이 저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니라
48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그곳에 머물렀다.
49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쓸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의 어깨에 메고, 불과 칼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다.
50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5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아들 너를 택하사 어린 양 대신에 완전한 번제물로 삼으시려 하셨느니라
52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53 아브라함이 다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르되 네 마음속에 이 일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이나 계획이 있느냐? 내 아들아, 내게 말해 보아라. 내게 숨기지 말아라.
54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내 마음속에는 주께서 아버지께 하신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55 이 일에 대해 내 몸의 어느 사지나 근육도 움직이거나 꿈틀거리지 않았으며, 내 마음속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생각이나 악한 계획도 없었다.
56 그러나 나는 이 일에 대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하노니, 오늘 나를 택하셔서 그분 앞에 번제물로 바치신 주님은 복되시도다.
57 아브라함은 이삭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그들이 함께 길을 떠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다.
58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가까이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울고 있었고, 이삭은 돌과 회반죽을 가져다가 제단을 완성했다.
59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가 쌓아 놓은 제단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60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묶어서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61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를 단단히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내가 돌아서서 움직여 칼이 살을 찌르는 고통에서 벗어나 번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였더라.
62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저를 죽이시고 불태워 제물로 바치실 때에, 제 재가 남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주어 '이것은 이삭의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라가 우물가나 높은 곳에 앉을 때에는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사라가 저를 따라 몸을 던져 죽을까 두렵습니다.
63 아브라함은 이삭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이삭이 이 말을 하자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쏟아졌고, 이삭도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 아버지, 어서 오셔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하신 뜻을 저에게 행하십시오."
64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이 일로 마음이 기뻐하였으므로 눈은 슬피 울었으나 마음은 기뻐하였더라.
65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삭은 아버지 앞에서 제단 위에 목을 내밀었고, 아브라함은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아들을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 했다.
66 그때에 자비의 천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이삭에 관하여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67 0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왕이시며, 그 모든 것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 이삭을 대신하여 속량과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 당신의 명령을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68 주님, 주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짐승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69 그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늘에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행하고 네 외아들을 내게 바치려 한 것을 보니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70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땅 위에 창조하신 숫양이었다.
71 여호와께서 그날부터 이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려고 예비해 두셨느니라.
72 그 숫양이 아브라함에게로 다가오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숫양을 붙잡아 뿔을 덤불에 얽매어 아브라함에게

로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죽일 수 있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73 아브라함은 숫양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탄이 그를 막는 것을 보고, 그 숫양을 데려다가 제단 앞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결박을 풀고 그 숫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쳤다.
74 아브라함이 숫양의 피를 얼마간 제단 위에 뿌리고 외쳐 이르되 이것은 내 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니 오늘 여호와 앞에서 내 아들의 피로 여겨지게 하소서 하니라
75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외쳐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아들을 대신하여 이것을 여겨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모든 예식을 마쳤고, 그 예식은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져서 마치 이삭을 대신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76 그러자 사탄이 사라에게 가서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77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아브라함이 오늘 네 외아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을 쌓고 그를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렸는데 이삭이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었으나 아버지는 그를 보지도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셨다.
78 그러자 사탄이 이 말을 반복하고 사라에게서 떠나갔다. 사라는 사탄의 모든 말을 듣고, 그를 자기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있는 늙은이로 생각하여, 와서 이런 말을 한 사람으로 여겼다.
79 사라가 큰 소리로 울며 아들을 생각하여 통곡하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먼지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 대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가 오늘 너 대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80 그러자 그녀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길렀는데, 이제 내 기쁨이 너 때문에 슬픔으로 바뀌었구나. 나는 너를 간절히 바라며 아흔 살에 너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 너는 오늘 칼과 불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구나."
81 그러나 내 아들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노라. 네가 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으니, 모든 생물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길 수 있겠느냐?
82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공의로우시니 주의 모든 행위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내 눈은 쓰라린 눈물을 흘리지만 내 마음은 기뻐합니다.
83 그러자 사라가 자기 여종 중 한 사람의 품에 머리를 기대니 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84 그 후 그녀는 일어나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아보았고,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줄 수 없었다.
85 그리하여 마리아는 여종들과 남종들을 데리고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 이르러 아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면서 종들 중 몇 사람을 보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게 했다. 그들은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온 땅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86 보십시오, 사탄이 노인의 모습으로 사라에게 나타나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는 죽지 않았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아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87 아브라함이 자기 일을 마치고 아들 이삭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가서 집으로 돌아왔다.
88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이르되, “사라는 당신들이 간 헤브론까지 가서 당신들을 찾아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89 아브라함과 이삭이 헤브론으로 가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울었다. 이삭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고 엎드려 울며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90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 때문에 크게 울었고, 그들의 모든 신하들도 그들과 함께 울며, 사라를 위해 크고 무거운 슬픔에 잠겨 애통하였다.

제 24 장

1 사라의 수명은 백이십칠 년이었고,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곳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그 땅 주민인 헷 자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2 나는 당신 땅에서 나그네이며 거류민입니다. 그러니 당신 땅에서 내게 장사 지낼 곳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죽은 자들을 미리 장사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헷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우리 무덤 중에서 택하여 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아무도 네가 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4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이에 동의하거든 에프론 곧 소갈의 아들 에프론에게 가서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고 간청하여라. 내가 그가 원하는 값으로 그것을 사겠다.
5 에프론은 헷 자손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서 그를 불렀습니다. 에프론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 소유한 동굴과 밭을 값비싼 값으로 사겠습니다. 그곳을 영원한 매장지로 삼겠습니다."

6 그러자 에프론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밭과 동굴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주
라 하시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오직 정당한 값으로
만 사겠나이다 네 성문으로 들어오는 자들과 네 자손의
손에서 영원히 사겠나이다
7 에프론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
은 에프론과 그의 모든 형제들의 손에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주어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이 거래를 기록
하고 네 명의 증인 앞에서 증언하였다.
8 증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헷 사람 아비쉬나의 아들
아미갈, 히위 사람 아슈나크의 아들 아디코롬, 고메르
사람 아키람의 아들 압돈, 시돈 사람 아부디쉬의 아들
박딜이라.
9 아브라함은 그 구매 장부를 가져다가 자기 보물 창고
에 넣어 두었고, 그 장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0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프론과 그의 자손과 그의 성
읍에서 나가는 자들과 그들의 자손으로부터 영원히 사
들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의 허리에
서 나오는 모든 후손에게 영원한 매장지로 소유될 재산
이 될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에 인장을 찍고 증인들 앞
에서 이를 증명하였다.
11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동굴과 그 온 곳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곧 헷 자손에게 확실히 보장되었으니, 보라,
그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마므레 앞에 있느니라.
12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냈고, 그곳과 그 주변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사지로서 소유되게 되었다.
13 아브라함은 왕의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
대하게 사라를 장사 지냈고,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값
진 옷을 입고 묻혔다.
14 그녀의 관 곁에는 셈과 그의 아들 에벨과 아비멜렉
과 아날과 아스골과 맘레와 그 땅의 모든 장수들이 함
께 있었다.
15 사라의 나이는 백이십칠 년이었고, 그녀가 죽자 아
브라함은 크게 슬퍼하며 칠 일 동안 애도의 예식을 행
하였다.
16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의 아들 이삭을 위로하였다.
17 애통하는 기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보
내고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율례와 가르침
을 배우려고 삼 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18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일어나 브엘세
바로 돌아갔고, 아브라함과 모든 신하들은 브엘세바에
머물렀다.
19 그 해 새해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죽으니 그의 나
이는 193 세였다.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의 온 가족과 모든 종들을 위로하고 집
으로 돌아왔다.
20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게라르 사람들은 그의 아들
벤말릭을 데려왔는데, 그는 겨우 열두 살이었다. 그들
은 그를 아버지 대신 눕혔다.
21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을 아
비멜렉이라 불렀는데, 이는 게라르 지방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을 이어 왕
위에 올라 왕좌에 앉았다.
22 하란의 아들 롯도 그 무렵에 죽었는데, 이는 이삭의
나이 삼십구 년째 되던 해였고, 롯이 살았던 모든 날은
백사십 년이었다.
23 롯의 딸들에게서 얻은 자녀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베나미니라.
24 롯의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
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모압 자손이라 에드, 마욘,
타르수스, 칸빌이라 하니, 이들이 오늘날까지 모압 자
손의 조상이라.
25 롯의 자손들은 모두 번성하여 자손이 크게 늘어났으
므로, 가는 곳마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26 그들은 가서 그들이 거주하던 땅에 성읍들을 건설하
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27 데라의 아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이며, 이삭의
나이 마흔 해에 죽었고, 그의 모든 생애는 백칠십이 년
이었으며, 그는 하란에서 죽어 묻혔다.
28 아브라함은 자기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여러 날 동안 형을 애도하였다.
29 아브라함이 그의 수석 종 엘리에셀을 불러 집안일에
관하여 지시를 내리니, 엘리에셀이 와서 그의 앞에 섰
다.
30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늙었으니 내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땅, 곧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31 그러나 너는 내 고향, 내 출생지로 가서 거기서 내 아
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오너라. 하늘과 땅의 주 하
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에서 인도하여 이 곳으로 데려
오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시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네 앞
에 보내어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네가 내 아들을 위
하여 내 집안,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
다.
32 그러자 종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가 당신의 고향과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의 아들을 당신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겠습니까?
33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지 말라 내가 섬기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네 앞
에 보내사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34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행하였고, 이
일에 관하여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다. 엘리에셀
은 일어나 주인의 낙타 열 마리와 주인의 종 열 명을 데
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의 성읍인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
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들이
떠난 사이에 아브라함은 셈과 에벨의 집에 사람을 보내
어 아들 이삭을 데려오게 하였다.
35 이삭은 아버지 집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갔고, 엘
리에셀과 그의 부하들은 하란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의
물가에 도착하여 멈췄는데, 엘리에셀은 낙타들을 물가
에 엎드리게 하고 그곳에 머물렀다.

36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여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게 신속히 이르도록 하시고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친족 중에서 오늘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사 주소서.
37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엘리에셀의 말을 들으시고, 마침 나홀의 아내 곧 밀가의 아들 베투엘의 딸을 만나게 되었는데, 엘리에셀이 그 집에 갔다.
38 엘리에셀이 자기의 모든 일과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39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였고, 베투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었다.
40 그 젊은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고 처녀였으며, 그 당시 레베카는 열 살이었다.
41 그날 밤 베투엘과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엘리에셀과 그의 부하들도 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42 엘리에셀이 아침에 일어나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베투엘의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나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주인에게 가겠습니다." 하니 그들이 일어나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 드보라(우즈의 딸)를 보내고 은과 금, 남종과 여종을 주며 축복하였다.
43 그리하여 그들은 엘리에셀을 그의 종들과 함께 보내 버렸고, 종들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
44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45 이삭은 마흔 살에 그의 삼촌 베투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제 25 장

1 그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다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케투라였고, 그녀는 가나안 땅 출신이었다.
2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짐란, 족샨, 메단, 미디안, 이스박, 슈아흐라는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짐란의 자녀들은 아비헨, 몰릭, 나림이었습니다.
3 요크산의 아들들은 세바와 데단이요, 메단의 아들들은 아미다, 요압, 고치, 엘리사, 노탁이요,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페르, 하녹, 아비다, 엘다아였다.
4 이스박의 아들들은 마키로, 베요두아, 타토르였다.
5 슈악의 아들들은 빌닷, 맘닷, 무난, 메반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가나안 여인 케투라가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녀들의 가문이다.
6 아브라함은 이들을 모두 보내면서 선물을 주었고, 그들은 그의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에든지 정착할 곳을 찾아 떠났다.
7 그리고 이들은 모두 동쪽 산으로 가서 여섯 개의 성읍을 건설하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8 그러나 스바 자손과 데단 자손, 곧 욕산 자손은 그 자손들과 함께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성읍에 거주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여러 나라와 광야를 돌아다니며 진을 쳤습니다.
9 아브라함의 자손인 미디안 자손은 구스 땅 동쪽으로 가서 동쪽 지방에서 큰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땅이 오늘날까지 미디안 땅이라.
10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가 건축한 성읍에 그와 그의 다섯 아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1 미디안 자손의 이름은 그 성읍 이름대로 에파, 에페르, 하녹, 아비다, 엘다아입니다.
12 에파의 아들들은 메탁, 메살, 아비, 차누아이요, 에페르의 아들들은 에프론, 주르, 알리룬, 메딘이요, 하녹의 아들들은 르우엘, 레켐, 아지, 알료숍, 알라드니라.
13 아비다의 아들들은 추르, 멜루드, 케루리, 몰키였고, 엘다아의 아들들은 미케르, 레바, 말키야, 가볼이었으니, 이는 미디안 사람들의 가문별 이름이라. 그 후에 미디안 가문들은 미디안 땅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14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이니,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다.
15 이스마엘은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리바였고, 메리바도 같은 이름이다.
16 그리고 리바는 이스마엘에게 네바욧, 케다르, 아드벨, 밉삼과 그들의 누이 보스맛을 낳았습니다.
17 이스마엘은 그의 아내 리바를 내쫓았고, 리바는 그를 떠나 이집트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는 리바가 이스마엘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매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8 그 후에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말쿠트였고, 그녀는 그에게 니쉬마, 두마, 마사, 차닷, 테마, 예투르, 나피쉬, 케드마를 낳았습니다.
19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들은 각 민족을 따라 열두 방백이라. 그 후에 이스마엘의 가족은 흩어져 살았고, 이스마엘은 자기 자녀들과 그가 얻은 모든 재산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서 정착할 곳을 찾아 떠났다.
20 그들은 가서 파란 광야 근처에 거주하였고, 그들의 거주지는 하빌라에서 수르까지였으니, 곧 이집트로 가는 길목, 앗수르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21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에 거주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들은 번성하여 수가 많아졌다.
22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욧의 아들들의 이름은 멘드, 센드, 마욘이며, 케달의 아들들은 알리온, 케젬, 하마드, 엘리이다.
23 아드벨의 아들들은 하마드와 야빈이요, 밉삼의 아들들은 오바댜와 에벳멜렉과 예우쉬이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내 리바의 자손들의 가문이다.
24 이스마엘의 아들 미스마의 아들들은 사무아, 제카리온, 오벳이요, 두마의 아들들은 케셋, 엘리, 막마드, 아멧이었다.

25 마사의 아들들은 멜론, 물라, 에비다돈이요, 차닷의 아들들은 아술, 민자르, 에베드멜렉이요, 테마의 아들들은 세일, 사돈, 야콜이었다.
26 예투르의 아들들은 메릿, 야이스, 알료, 파콧이요, 나피쉬의 아들들은 에벳타메드, 아비야사프, 미르요, 케드마의 아들들은 칼립, 타흐티, 오미르이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내 말쿠트의 자손들이라.
27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며, 그들은 대대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읍들을 건축하여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28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베투엘의 딸 리브가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 노아의 손자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그 당시 이삭의 나이 마흔팔 년에 죽었는데, 아르박삿의 총 살은 사백삼십팔 년이었다.

제 26 장

1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59 세 되던 해에 그의 아내 리브가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다.
2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는 당신의 어머니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당신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께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시어 임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4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미 나를 위하여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이제 이 불임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야 할 것이로다.
5 그러자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도 이제 일어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자녀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일어나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으려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이삭은 일어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6 이삭이 이르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선하심과 자비가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께서 내 아버지를 친정에서, 그의 고향에서 데려오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시며,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시며 약속하셨으니,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께 하신 그 말씀을 이루소서
7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눈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사람의 자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눈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8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9 그리고 약 칠 달 후에 아이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서로 다투었고, 그녀는 그 아이들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고 피곤해져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10 그리하여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만 이런 일을 당하였나이까? 하고 이 일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려고 모리아 땅으로 갔으며, 셈과 그의 아들 에벨을 찾아가 이 일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 그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11 그리고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어 보고 여쭈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12 그들이 모두 이 일에 관하여 여호와께 여쭈어 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네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두 민족이 일어날 것이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요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라 하였더라
13 그리고 해산할 날이 이르매 그녀가 무릎을 꿇으니, 보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다.
14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몸이 털옷처럼 붉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게 태어났음을 의미하였다.
15 그 후에 그의 형이 와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
16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 세였다.
17 그 아이들은 자라서 열다섯 살이 되어 어른들의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에서우는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으며 사냥에 능숙했습니다.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며 양 떼를 치고 여호와의 훈계와 부모의 명령을 배웠습니다.
18 이삭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과 함께 하빌라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정착하였다.
20 아브라함의 첩들의 자녀들은 모두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아들에게서 내보내면서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21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 이삭에게 주었고, 또한 자기의 모든 보물도 그에게 주었다.
22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3 나를 아버지 집과 태어난 곳에서 데려오시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내게 주셨으며 악인의 꾀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는 내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4 그분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르 카스딤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니, 그들이 내가 네게

명한 것과 앞으로 명할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25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한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바르게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26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고, 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27 너는 네 자녀와 네 자손에게 여호와의 훈계와 계명을 가르치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라.
28 이삭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리니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리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그의 길을 가르치니라
29 그때에 아브라함이 죽으니, 이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생애 열다섯 해였고, 아브라함의 총 생애는 백칠십오 년이었다. 그는 장수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냈다.
30 가나안 주민들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왕과 방백과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31 하란 땅의 모든 주민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가족과 모든 방백과 고위 관리들과 아브라함의 첩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와서 아브라함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으며, 아브라함을 헷 사람 에프론과 그의 자손에게서 매장지로 사들인 동굴에 장사지냈다.
32 가나안의 모든 주민과 아브라함을 알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 년 내내 울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를 위해 애도하였다.
33 그리하여 모든 어린아이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울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들 모두에게 잘 대해 주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이다.
34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어린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35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어 니므롯과 그의 백성의 계략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가 엘람의 네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
36 그리고 그는 땅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섬김에 이르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며,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37 그리고 그는 나무를 베어 숲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원을 심었으며,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자기 장막에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 두어 그들이 그의 집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8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온 땅을 구원하셨다.
39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함께 하셨음이라. 이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켰으며, 그의 아버지가 명한 바른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제 27 장

1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에서가 자주 들판에 나가 사냥을 했습니다.
2 바벨 왕 니므롯, 곧 암라펠도 자주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사냥을 하러 나가고, 날씨가 선선할 때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3 니므롯은 에서를 온종일 감시하였다. 니므롯의 마음에는 온종일 에서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4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들판에 나갔다가 니므롯이 그의 부하 두 명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5 그의 모든 용사들과 백성은 광야에서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냥하러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에서가 니므롯을 피해 숨어서 광야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6 니므롯과 그와 함께 있던 그의 부하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니므롯과 그의 부하들은 날이 시원할 때 자주 들판을 돌아다니며 그의 부하들이 어디에서 사냥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7 니므롯과 그와 함께 있던 두 부하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에서가 숨어 있던 곳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칼을 뽑아 니므롯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베었다.
8 에서가 니므롯과 함께 있던 두 사람과 필사적으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부르자 돌아서서 칼로 그들을 쳐 죽였다.
9 니므롯의 모든 용사들은 그를 남겨두고 광야로 갔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 두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들의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두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10 에서가 멀리서 니므롯의 용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쳐서 무사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니므롯의 아버지가 니므롯에게 물려준 귀한 옷들을 가져다가, 니므롯이 온 땅을 다스릴 때 입었던 그 옷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 숨겼다.
11 에서가 그 옷들을 가지고 니므롯의 부하들을 피해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싸움으로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슬픔에 잠겨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형 야곱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12 에서가 그의 형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니 어찌 장자권을 원치 않겠느냐 하니 야곱이 이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처신하여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었다.
13 그리고 막벨라 밭의 굴에 있는 에서의 몫, 곧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서 매장지로 사용하기 위해 산 곳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그의 형 에서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습니다.
14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증인들과 함께 증언한 다음 봉인하여 그 책을 야곱의 손에 두었다.
15 쿠스의 아들 니므롯이 죽자 그의 부하들이 그를 들어 올려 슬픔에 잠긴 채 자기 성읍에 장사지냈다. 니므롯은 이백십오 년을 살다가 죽었다.
16 니므롯이 그 땅 백성을 다스린 기간은 185 년이었는데, 니므롯은 에서의 칼에 맞아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죽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가 꿈에서 본 대로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
17 니므롯이 죽자 그의 왕국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었고, 니므롯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은 니므롯이 죽은 후에 그 지역을 되찾은 각 왕들에게 반환되었으며, 니므롯 왕가의 모든 백성은 오랫동안 그 땅의 다른 모든 왕들의 노예가 되었다.

제 28 장

1 그 무렵,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을 내리셨고, 기근이 가나안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이삭이 일어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2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게라르로 가서 기근이 그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3 이삭은 일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라르로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렀다.
4 이삭이 게라르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은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그가 아내라고 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이 그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5 아비멜렉의 방백들이 가서 왕에게 그 여인을 칭찬하였으나,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셨다.
6 그러나 그들은 이삭이 그녀를 자기 누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왕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7 이삭이 그 땅에 석 달 동안 머물렀을 때,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삭은 왕궁 바깥집에 거했는데, 이삭의 집은 왕궁 맞은편에 있었다.
8 그러자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 아내에 대하여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하여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백성 가운데 높은 사람이 그녀와 동침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네가 우리에게 죄를 안겨주려 한 것이냐?
9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여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하였느니라
10 그때 아비멜렉은 모든 방백과 고위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와 왕 앞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11 왕은 그들에게 왕자의 옷을 입히고 성읍 거리를 다니게 하며 온 나라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삭이고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이니,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삭은 아내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왔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시어 그는 번성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12 여호와께서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호감을 얻게 하셨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잘 대해 주었다. 이는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맹세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13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생각에 좋은 곳에 거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라.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밭과 포도원과 게라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을 주어 기근이 그칠 때까지 씨를 뿌리고 거두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였더라.
14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리니 그 해에 백 배의 소출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15 그 사람은 크게 번성하여 양 떼와 소 떼와 많은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6 기근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이삭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의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17 그 후 아르팍삿의 아들 셀락이 야곱과 에서의 생애 18 년째 되던 해에 죽으니, 셀락의 총 생애는 사백삼십삼 년이라.
18 그때에 이삭은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셈과 에벨의 집으로 보내어 여호와의 훈계를 배우게 하였고, 야곱은 셈과 에벨의 집에 삼십이 년 동안 머물렀다. 그의 형 에서는 가지 않으려 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남아 있었다.
19 에서가 사냥해서 집으로 가져올 것을 얻으려고 들판에서 끊임없이 사냥을 했으니, 에서가 온종일 그렇게 했다.
20 에서(Esau)는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고 유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Esau)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얼마 후 평소처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세일(Sier) 들판, 곧 에돔(Edom)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21 그리고 그는 세일 땅에 머물면서 일 년 사 개월 동안 들판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22 에서가 세일 땅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 예후딧을 보았는데, 그녀는 에페르의 아들 베에리의 딸이며, 가나안의 아들 헷의 가문 출신이었다.

23 에서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다. 에서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의 나이는 마흔 살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아버지의 거주지인 헤브론으로 데려가 거기에 거주하였다.
24 그 무렵 이삭의 생애 110 년, 곧 야곱의 생애 50 년에 노아의 아들 셈이 죽으니 그의 나이는 600 세였다.
25 셈이 죽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26 야곱의 생애 56 년에 하란에서 사람들이 와서 리브가는 자기 오빠 베투엘의 아들 라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27 그 당시 라반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고, 그의 모든 여종들도 그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28 그 후에 여호와께서 라반의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라반이 그 딸들의 이름을 맏딸의 이름은 레아라,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지었다.
29 그러자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리브가에게 전했습니다. 리브가는 주님께서 자기 오빠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제 29 장

1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가 들어 늙고 눈이 무거워져 흐릿해지고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그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네 무기와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서 사슴고기를 잡아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니 내가 이제 늙고 백발이 되었느니라
3 에서가 그대로 하여 무기를 들고 평소처럼 들판으로 나가 사슴을 사냥하여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였습니다.
4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모두 듣고 서둘러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였고 내가 들은 것도 이것이니 이제 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하더라
5 일어나서 양 떼에게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께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겠다. 네 형이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고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6 야곱은 서둘러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앞에 가져왔습니다.
7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으니, 이제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것을 드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8 이삭이 일어나 먹고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아버지 곁을 떠났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와 먹으며 축복하였다.
9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네가 오기 전에 사슴을 잡아 내게 가져와서 내가 축복한 자가 누구냐? 에서가 그의 형 야곱이 한 짓임을 알고, 야곱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 것에 몹시 화가 났다.
10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두 번이나 저를 몰아내고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이제는 제 축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크게 울었습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의 울음소리를 듣고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네 형이 간교하게 와서 네 축복을 빼앗아 갔구나." 에서가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축복 때문에 형 야곱을 미워하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11 야곱은 형 에서를 몹시 두려워하여 일어나 셈의 아들 에벨의 집으로 도망쳐 형을 피해 거기에 숨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63 세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에벨의 집에 십사 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을 계속 배웠습니다.
12 에서가 야곱이 도망쳐 자기를 피해 간 것과 야곱이 교묘하게 축복을 얻어낸 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며 부모에게도 화를 냈다. 그는 일어나 아내를 데리고 부모를 떠나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했다. 거기서 에서가 헷 지파의 딸들 가운데 헷 사람 엘론의 딸 보스맛이라는 여자를 보고, 이전 아내 외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름을 아다라 지었다. 이는 축복이 이제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말하려 함이었다.
13 에서가 세일 땅에 여섯 달 동안 머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 후에 아내들을 데리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두 아내를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집에 두었다.
14 에서의 아내들은 그들의 행위로 이삭과 리브가를 괴롭히고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겼으며, 아버지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라.
15 그들은 마음의 악한 욕망대로 행하여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였으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에게 싫증이 났더라.
16 그러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헷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지겹습니다. 야곱이 헷의 딸들, 곧 이 땅의 딸들 중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 그 무렵에 에서의 아내 아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가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바스라 지었다. 아다가 엘리바스를 낳았을 때 에서의 나이는 65 세였다.
18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야곱의 생애 64 년에 죽으니, 이스마엘의 총 생애는 137 세였다.
19 이삭은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퍼하며 여러 날 동안 애통했습니다.
20 야곱이 에벨의 집에 십사 년을 거한 후에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뵙고 싶어 헤브론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이 예전에 자기에게서 축복을 빼앗아 갔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21 에서가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여 몹시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22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에서가 말하기를 “이제 내 아버지의 때가 가까워져 죽을 때가 되었으니, 그가 죽으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다.
23 이 소식을 리브가가 듣자, 그녀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오빠의 노여움이 너에게서 돌아설 때까지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라. 그 후에 돌아오라."
24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하였으니 곧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였으니 만일 네 자손이 나와 네게 맺은 언약을 지키면 나도 네 자손에게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였느니라
25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라.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네 어머니의 아버지 베투엘의 집으로 가서, 네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오너라.
26 그러므로 너는 네가 가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모든 길을 잊지 말고, 그 땅 백성과 교제하여 허영을 좇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27 그러나 네가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네가 배운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28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곧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선하고 정직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9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네가 가는 땅에서 큰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네가 자녀와 큰 부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조상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0 이삭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축복하며 은과 금을 비롯한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보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일어나 파단아람으로 갔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칠십칠 세였다.
31 야곱이 하란으로 가려고 떠나자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를 불러 은밀히 말하기를 “어서 칼을 들고 야곱을 뒤쫓아가 길에서 그의 앞에 서서 숨어 있다가 산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돌아오라” 하였더라.
32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총명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활 솜씨가 뛰어났으며, 사냥에도 능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33 엘리바스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니, 그때 엘리바스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고, 엘리바스는 일어나 어머니의 형제 열 명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러 갔다.
34 그리하여 그는 야곱을 바짝 뒤쫓아 가나안 땅 경계, 세겜 성읍 맞은편에서 그를 기다렸다.
35 야곱은 엘리바스와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뒤쫓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가던 길에 멈춰 섰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엘리바스는 칼을 뽑아 들고 부하들과 함께 야곱을 향해 나아왔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왜 여기까지 왔으며, 칼을 들고 나를 추격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36 엘리바스가 야곱에게 가까이 이르러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이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니라. 야곱은 에서가 엘리바스에게 무력을 사용하라고 말한 것을 보고 엘리바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나아가 간청하며 이르되
37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 곧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일이 당신의 의로 여겨질 것입니다.
38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부하들의 눈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야곱의 모든 소유물과 그가 브엘세바에서 가져온 은금까지 모두 빼앗아 갔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39 엘리바스와 그의 부하들은 야곱을 떠나 브엘세바에 있는 에서에게 돌아가서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야곱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에서에게 주었다.
40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은 것에 분개하였다.
41 그들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에서가 엘리바스가 야곱에게서 가져간 은과 금을 모두 가져다가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42 그때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보았는데, 가나안 여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 악한 여인들이었다.
43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삼촌 이스마엘의 집으로 가서, 그의 기존 아내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욧의 누이인 막흘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제 30 장

1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을 계속 나아가 모리아 산에 이르렀고, 루스 성읍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2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줄 것이며,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며,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굴복시킬 것이요,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기쁨과 자녀와 큰 부와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3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본 환상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4 야곱은 매우 기뻐하며 그곳에서 일어났고,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그곳에서 동방 자손의 땅으로 가서 하란으로 돌아와 목자의 우물가에 앉았다.
5 거기서 야곱은 하란에서 양 떼를 치러 가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아나이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 떼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7 예수께서 아직 그들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 라반의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 떼를 먹이러 왔습니다. 그녀는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8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 달려가서 그녀에게 입맞추고 큰 소리로 울었다.
9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누이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져갈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울었습니다.
10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껴안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11 야곱은 라반에게 그의 형 에서가 자기에게 한 일과 그의 아들 엘리바스가 길에서 자기에게 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2 야곱은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라반의 집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품삯이 얼마인지 말해 보아라. 어찌하여 너는 나를 공짜로 섬길 수 있느냐?"
13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그의 다른 아내들과 여종들은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아내 아디나가 낳은 딸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망울이 아름다웠지만, 라헬은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야곱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14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매 라반이 이에 동의하여 야곱이 그의 딸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하였더라
15 야곱이 하란에 거주한 지 이 년째 되던 해, 곧 야곱의 생애 79 년째 되던 해에 셈의 아들 에벨이 죽으니 그의 나이는 464 세였다.
16 야곱은 에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며 여러 날 동안 애곡하고 애통하였다.
17 야곱이 하란에 거한 지 사 년째 되던 해에 에서의 아내 이스마엘의 딸 보스맛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가 그 이름을 르우엘이라 불렀다.
18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한 지 사 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라반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기억하셨고, 야곱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브올이요, 둘째는 알립이요, 셋째는 호라스였다.
19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부와 영광과 아들딸들을 주셨으니,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였더라.
20 그 당시 야곱은 집안일과 밭일 등 모든 일에 라반을 섬겼고, 라반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다.
21 그리고 5 년째 되던 해에 에서의 아내 베에리의 딸 예후딧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22 그리고 그녀가 에서에게 낳은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마르짓이요, 둘째 딸의 이름은 푸잇이라.
23 그리고 예후딧이 죽자 에서가 일어나 평소처럼 들판에서 사냥하러 세일로 갔고, 에서가 세일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24 그리고 에서가 여섯째 해에 다른 아내들 외에 히위 사람 제브온의 딸 아흘리바마를 아내로 맞아들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
25 아흘리바마는 에서에게 세 아들, 곧 유쉬, 야알란, 코라를 낳았다.
26 그 무렵 가나안 땅에서 에서의 목자들과 가나안 땅 주민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는 에서의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 그가 아버지 집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었고, 가나안 땅도 그의 가축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7 에서가 가나안 땅 주민들과의 다툼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아내들과 아들딸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과 자기가 소유한 가축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세일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 주민들을 떠나 세일 땅에 정착하였다.
28 그러나 에서가 때때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에서가 호리 족속과 결혼하여 그의 딸들을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29 그리고 에서가 맏딸 마르짓을 아내의 오빠인 제브온의 아들 아나에게 주고, 둘째 딸 푸이트를 호리 사람 빌한의 아들 아살에게 주어라. 에서와 그의 자녀들은 산에 거하며 번성하였다.

제 31 장

1 그리고 일곱째 해에 야곱이 라반을 섬기던 기간이 끝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아내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던 기간이 다 되었느니라 하매 라반이 그대로 하니 라반과 야곱이 그곳의 모든 백성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더라
2 저녁에 라반이 그 집에 왔고, 그 후에 야곱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라반은 집 안의 모든 등불을 껐습니다.
3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 라반이 대답하노라 이 땅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관습이니라
4 그 후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그녀가 레아인 줄 몰랐습니다.

5 라반은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여종 질바를 종으로 주었다.
6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일을 알았지만, 야곱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7 그날 밤 모든 이웃들이 야곱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레아 앞에서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야곱 앞에서 "헬레아, 헬레아"라고 노래하였다.
8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들었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9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밤중에 야곱 앞에서 이 말을 하였고, 라반의 집에 있던 모든 불을 그날 밤에 꺼뜨렸다.
10 아침이 되어 날이 밝자 야곱은 아내를 돌아보았고, 보니 그의 품에 안겨 있던 여자는 레아였다. 야곱이 말했다. "이제야 어젯밤 이웃 사람들이 '헬레아'라고 말했던 것을 알겠구나. 나는 그때는 몰랐구나."
11 야곱이 라반을 불러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짓을 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당신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레아를 내게 주었나이까?
12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집에서는 나이 어린 딸을 먼저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니니 만일 네가 그녀의 여동생도 데려가고 싶다면, 네가 나를 위해 칠 년 동안 섬기는 대가로 그녀를 데려가라 하였더라
13 야곱은 그렇게 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고, 라반을 칠 년 더 섬겼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로 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시녀로 주었습니다.
14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시니 레아가 임신하여 그 당시 야곱에게 네 아들을 낳았더라.
15 그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이며, 그 후로 그녀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
16 그때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는데,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레아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종 빌하를 데려와서 야곱에게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17 레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여종 질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도 질바에게 가서 질바와 낳으니, 질바도 야곱에게 아들 갓과 아셀을 낳았다.
18 그 무렵 레아는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잇사갈과 제불론이며, 그들의 누이는 디나이다.
19 그 당시 라헬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였으므로, 라헬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돌보아 주소서. 이제 제 남편이 저를 버리려 합니다. 제가 그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 이제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있는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고난을 보시어, 여종 하나와 같은 자녀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시니,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수치를 없애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의 나이는 아흔한 살이었는데, 그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더라.
22 그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유모 드보라(우즈의 딸)와 이삭의 종 두 명을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23 그들이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이르되 리브가가 우리를 보내어 네가 아버지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니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24 그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섬긴 나머지 칠 년이 되었고, 하란에 거주한 지 십사 년이 지난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아내들을 내게 주고 나를 보내사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어머니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25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제발 그러지 마시오. 만일 내가 자네의 호의를 얻었다면 나를 떠나지 마시오. 자네의 품삯을 정하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오.
26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모든 양 떼를 두루 다니며 얼룩무늬가 있거나 갈색인 어린 양과 염소를 모두 골라내면 내게 품삯을 주시겠소. 만일 당신이 이 일을 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당신의 양 떼를 처음처럼 먹이고 돌보겠소.
27 라반은 그대로 하여 야곱이 말한 모든 것을 자기 양 떼에서 골라내어 야곱에게 주었다.
28 야곱은 라반의 양 떼에서 떼어낸 모든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라반의 남은 양 떼는 야곱이 돌보았다.
29 이삭이 야곱에게 보낸 신하들이 야곱이 자기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야곱을 떠나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30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하란에 머물렀고, 이삭의 종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란에 거주하였다.
31 야곱은 라반을 6 년 더 섬겼는데, 양 떼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야곱은 라반과 정한 대로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을 골라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6 년 동안 그렇게 하였고, 그의 재산은 크게 번성하여 소와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32 야곱은 소떼 이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소들은 크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며, 매우 번식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족들이 야곱의 소떼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소떼는 매우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야곱의 양 떼를 얻으려고 왔고, 야곱은 그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귀나 낙타 등 원하는 것을 주면 그들은 야곱에게 주었다.
34 야곱은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부와 명예와 재산을 얻었고, 라반의 자손들은 그의 이러한 명예를 시기하였다.

35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 모든 것으로 이 모든 영광을 얻었다."
36 야곱이 라반과 그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야곱을 향하지 않았다.
37 그리고 6 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8 그때 야곱이 일어나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낙타에 태우고 아버지 이삭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39 라반은 야곱이 자기 곁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라반은 그날 양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이다.
40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들을 훔쳐서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 위에 숨기고 길을 떠났다.
41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맏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의 머리카락을 깎고, 소금을 가져다가 머리에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작은 구리판이나 금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이름을 쓰고 혀 밑에 놓고, 그 머리와 혀 밑에 있는 판을 가져다가 집에 두고, 그 앞에서 등불을 켜고 절하는 것이다.
42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절할 때에, 그것은 그 안에 기록된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대답한다.
43 어떤 이들은 금과 은으로 사람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아는 시간에 그 형상들에게 가서 별의 영향을 받아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데,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훔친 형상들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44 그리고 라헬은 라반이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아버지의 우상들을 훔쳤다.
45 라반이 집으로 돌아와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 물었으나, 야곱은 어디에도 없었다. 라반은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위해 우상들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물어보니, 야곱이 아버지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도망쳤다고 대답했다.
46 그러자 라반이 일어나 그의 형제들과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여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47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도망치며 내 딸들과 그 자녀들을 칼에 사로잡힌 포로로 끌고 갔느냐?
48 그런데 너는 내가 그것들에 입맞추고 기뻐하며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내 신상들을 훔쳐 가 버렸구나.
49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서 당신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든지 그 신은 죽을 것입니다.
50 라반은 그 우상들을 찾으려고 야곱의 모든 장막과 가구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51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리니 만일 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니라
52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쌓아 올리니 라반이 이르되 이 돌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의 증거가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길르앗이라 불렀다.
53 야곱과 라반은 산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 더미 곁에서 먹었으며, 밤새도록 산에 머물렀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딸들과 함께 울며 입맞추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54 그리하여 그는 서둘러 자기 아들 브올(17 세)과 우스의 아들 나홀의 아들 아비코롭을 보냈는데, 그들과 함께 열 명의 사람이 있었다.
55 그들은 서둘러 가서 야곱보다 앞서 길을 갔고, 다른 길로 세일 땅에 이르렀다.
56 그들이 에서에게 이르되, 당신의 형이요 친척이요 당신 어머니의 오빠이요 베투엘의 아들인 라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7 네 형 야곱이 내게 한 일을 들었느냐? 그가 먼저 벌거벗은 채 내게 왔을 때, 나는 그를 맞으러 가서 그를 귀하게 여겨 내 집으로 데려왔고, 그를 크게 대접했으며, 내 두 딸과 두 여종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58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아들과 딸과 여종들이 생겼습니다.
59 그는 또한 엄청난 양의 양 떼와 소 떼, 낙타와 나귀, 그리고 풍부한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나를 두고 몰래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60 그리고 그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낙타에 태우고, 내 땅에서 얻은 모든 가축과 재산을 끌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기 위해 얼굴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다.
61 그리고 그는 내가 내 딸들과 그 손주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혀 끌고 갔으며, 내 신상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62 이제 나는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야북 시내 산에 남겨 두었으니,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63 만일 네가 그에게 가고자 한다면, 그때 가거라. 거기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반의 사자들이 와서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였다.
64 에서가 라반의 사자들의 말을 모두 듣고 야곱에게 몹시 분노하여 그의 미움을 기억하고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65 에서가 급히 자기 자녀와 종들과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60 명을 모으고, 호리 사람 세일의 온 자손과 그 백성을 모두 모아 340 명을 모았다. 그리고 칼을 빼어 들고 야곱을 치려고 400 명 모두를 데리고 갔다.
66 에서가 이 무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자기 자녀와 종과 집안사람들 중에서 60 명을 한 무리로 삼아 맏아들 엘리바스에게 맡겼다.
67 그리고 남은 머리들은 호리 사람 세일의 여섯 아들에게 맡겨서 각자 자기 자손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68 그리고 이 진영 전체가 그대로 이동하였고, 에서가 그들 가운데로 야곱에게로 가서 그들을 빠르게 인도하였다.
69 라반의 사자들은 에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집에 이르렀다.
70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에서가 그의 형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갔습니다. 그와 싸워서 그를 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갔습니다.
71 그리고 리브가는 서둘러 이삭의 종들 중에서 일흔두 명을 보내어 길에서 야곱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혹시 에서가 길에서 야곱을 만나 싸움을 걸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2 그리고 이 사자들은 야곱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야북 시내 건너편 길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진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막나임이라 불렀습니다.
73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백성을 알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포옹하며 그들과 함께 갔다. 야곱이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부를 묻자 그들은 "두 분 모두 건강하십니다."라고 대답했다.
74 그러자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를 너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 형 에서가 호리족 세일 자손의 사람들을 이끌고 너를 치러 길을 나섰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노라 하니라
75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아라. 그가 네게 올라오면 그에게 간청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은혜 중에서 그에게 선물을 주어라.
76 그가 네 일에 대하여 물으면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너에 대한 노를 거두어 네 영혼과 너와 네 가족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그를 공경하는 것은 네 의무이니, 그는 네 형이기 때문이다.
77 야곱은 사자들이 자기 어머니가 전한 말을 듣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제 32 장

1 그때 야곱은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어 간청하는 말을 전했다.
2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3 내가 라반과 함께 이십 년을 지냈는데, 그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주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4 내가 그의 집에서 매우 열심히 섬기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수고와 내 손으로 한 일을 보시고 내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 그 후 나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소와 나귀와 가축, 그리고 남종과 여종을 얻게 되었습니다.
6 이제 나는 고향인 가나안 땅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는 주님의 호감을 얻기 위함이며,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 그 사자들이 에서에게 가서 보니, 에서가 에돔 땅 경계에서 야곱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호리족 세일 자손 사백 명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8 야곱의 사자들은 야곱이 에서에 관하여 자기들에게 한 말을 모두 에서에게 전했다.
9 그러자 에서가 교만과 경멸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들었고 진실로 내게 전해진 바에 따르면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일이니라. 라반은 그를 자기 집에서 높이고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었으니 야곱은 아들딸을 낳아 라반의 집에서 그의 재산과 부가 크게 늘어났느니라.
10 그가 자기의 재산이 풍족하고 부가 많음을 보고는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으며, 라반의 딸들을 아버지 몰래 데리고 나가 마치 칼에 사로잡힌 포로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다.
11 야곱은 라반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하여 두 번이나 나를 속였는데, 내가 어찌 침묵하겠느냐?
12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오늘 내 진영을 이끌고 그를 맞으러 왔으니,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13 사자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 형 에서에게 가서 네 말을 다 전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답하였으니 보라 그가 사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하더라
14 그러므로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보고, 그에게서 너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15 야곱은 그의 형이 야곱의 사자들에게 한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16 야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17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 땅과 네 자손을 네게 주노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요 너는 하늘 사방으로 뻗어 나갈 것이며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18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내게 재물과 자녀와 가축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당신의 종에게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모든 것을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9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내게 이르기를, 네 부모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여전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였느니라.
20 이제 내가 왔고 주께서 나를 라반에게서 구원하셨지만, 나는 에서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내 자녀들의 어머니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21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그를 몹시 두려워하나이다.
22 만일 내게 의로움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내 조상 이삭을 생각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23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은 은혜와 자비로 된 것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주의 자비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노라.
24 야곱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고,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과 양 떼와 소 떼를 두 진영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아들 다메섹에게 맡겨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진영을 이루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의 동생 엘리에셀의 아들 엘리아누스에게 맡겨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진영을 이루게 하였다.
25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 진영끼리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만일 에서가 한 진영에 와서 그들을 죽인다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진영은 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6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자기 종들에게 군대와 자녀들에 관하여 지시를 내렸다.
27 그날 여호와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그의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28 여호와께서 하늘의 천사들 중 셋을 보내시니 그들이 에서 앞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렀다.
29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에서와 그의 백성에게 이천 명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온갖 전쟁 도구를 갖춘 말을 타고 있었으며, 에서와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네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각 진영에는 네 명의 지휘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30 한 진영이 나아가다가 에서가 사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의 형 야곱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영은 에서와 그의 백성을 향해 달려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에서가 놀라 말에서 떨어졌고, 그의 모든 군사는 그곳에서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31 그들이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온 진영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고, 모든 용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2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야곱의 종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군이시며 형이신 야곱은 당신들의 주인이신데, 나는 이십 년 동안 그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분을 뵈러 왔는데,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33 그러자 천사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시니 만일 네가 말하는 야곱이 네 형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너와 네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았을 것이나 야곱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34 이 진영은 에서와 그의 부하들을 떠나갔고, 에서와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게서 약 1 리그(약 12km) 정도 떨어져 갔을 때, 두 번째 진영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로 다가와서 첫 번째 진영이 에서와 그의 부하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였다.
35 그들이 떠나 길을 가려 할 때에, 보라, 셋째 진영이 그에게로 다가오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에서가 말에서 떨어졌고 온 진영이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야곱의 종들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더라.
36 그러자 에서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은 나의 주이며 당신들의 주인인데, 나는 이십 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갔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3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만일 당신이 말한 대로 야곱이 당신의 형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나, 당신이 말한 야곱이 당신의 형제이므로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38 그리고 셋째 진영도 그들을 지나갔고, 그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곱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그때 넷째 진영이 그에게 다가와서 다른 진영들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도 행하였다.
39 에서가 네 천사가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행한 악행을 보고 형 야곱을 몹시 두려워하여 평안히 그를 맞으러 갔다.
40 에서가 야곱에 대한 미움을 숨긴 것은, 형 야곱 때문에 자기 목숨이 두려웠고, 또 자기가 발견한 네 진영이 야곱의 종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41 야곱은 그날 밤 그의 종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재산 중에서 에서에게 선물을 주기로 종들과 함께 결심하였다. 아침에 야곱과 그의 종들은 일어나서 가축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고르았다.
42 야곱이 자기 양 떼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고른 것은 이러하니라. 양 떼 중에서 이백사십 마리를 고르고, 낙타와 나귀는 각각 서른 마리씩 고르고, 소 떼 중에서 암소는 오십 마리를 골랐느니라.
43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모두 열 무리로 나누어 각 종류별로 따로 두고, 열 명의 종들에게 맡겨 각자 몰이하게 하였습니다.
44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서로 거리를 두고, 양 떼 사이에도 간격을 두어라. 만일 에서와 그의 일행이 너희를 만나서 '너희는 누구의 사람이요, 어디로 가느냐, 너희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면, '우리는 야곱의 종들이며, 에서를 평안히 만나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우리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45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46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가 형제를 만나러 오는 것을 미루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뒤를 따라 형제를 만나러 오는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보내는 선물로 그를 기쁘게 하고 나서 그의 얼굴을 뵙고, 어쩌면 그가 내 선물을 받아줄지도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하니라.

47 그리하여 그의 모든 선물은 그의 종들의 손에 맡겨져 그날 그의 앞에 나아갔고, 그는 그날 밤 야북 시내 둑에 진을 치고 묵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그의 아내들과 여종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그날 밤 야북 나루터를 건넜다.
48 그가 자기 소유를 다 두고 시냇물을 건너갔을 때 야곱만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더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다.
49 날이 밝자 그 사람은 야곱을 그곳에 남겨두고 축복하며 떠났습니다. 야곱은 날이 밝자 시냇물을 건너다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50 그가 시냇물을 건너고 나서 해가 떠오르자 그는 자기 가축과 자녀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51 그리고 그들은 정오까지 계속 갔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그 행렬이 그들 앞에서 지나갔다.
52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멀리서 많은 사람 사백 명쯤 되는 무리를 이끌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형을 몹시 두려워했다.
53 야곱은 서둘러 자기 자녀들을 아내들과 여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딸 디나는 궤에 넣어 자기 종들에게 맡겼다.
54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 앞에서 형을 맞으러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일곱 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에서와 그의 부하들 앞에서 은혜와 호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55 야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형 에서에게까지 미쳤으니, 이는 에서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에서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야곱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에서가 야곱에게 품었던 분노가 인자함으로 바뀌었다.
56 에서가 야곱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도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57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서와 함께 온 사람들의 마음에 야곱을 향한 두려움과 친절함을 심어 주셨고, 그들은 야곱에게 입맞추고 그를 껴안았다.
58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네 형제들, 곧 에서의 아들들도 야곱과 함께 울며 그에게 입맞추고 껴안았으니, 이는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59 에서가 눈을 들어 보니 야곱의 자손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야곱 뒤에서 걸어오며 길에서 에서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60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형님, 당신과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종들입니까?" 하니, 야곱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종에게 주신 제 자녀들입니다." 하니,
61 야곱이 에서와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에서가 온 진영을 보고 야곱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만난 이 모든 진영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이는 주군께 은혜를 입혀 드린 것이라.
62 선물이 에서 앞에 이르자 야곱이 에서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니라 에서 이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네 것이 네 것이니라
63 야곱이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니 네가 아직 평안히 살고 있도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의무니라.
64 그러자 에서가 선물을 받기를 거부하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만일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얼굴을 마치 신의 얼굴처럼 보았나이다.
65 에서가 선물을 받으니 야곱도 에서에게 은과 금과 유향을 주었다. 에서가 간절히 청혼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66 에서가 진영에 있던 가축을 나누어, 절반은 품삯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에게 주었다.
67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와 함께 머물며 네가 나와 함께 내 처소에 올 때까지 천천히 너와 동행하여 거기서 함께 살자 하니라
68 야곱이 그의 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나 주께서는 아시되 아이들이 어리고 나와 함께 있는 양 떼와 소 떼와 그 새끼들이 천천히 가야 하느니라 만일 빨리 가면 다 죽을 것이니 주께서 그들의 짐과 피로를 아시느니라
69 그러므로 주인께서 먼저 가시도록 하십시오. 나는 자녀들과 양 떼를 생각하여 천천히 걸어 세일에 있는 주인의 집에 도착하겠습니다.
70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백성 중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보내어 길에서 너를 돌보고 네 수고와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겠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71 보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일로 가서 당신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가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72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에서와 그의 부하들을 자기에게서 쫓아내고, 그 후에 아버지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 것이었다.
73 에서가 야곱의 말을 듣고 세일로 가는 길에 있던 사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갔고, 야곱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 가나안 땅 경계 끝까지 가서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제 33 장

1 얼마 후 야곱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떠나 살렘 땅, 곧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쉬었다.
2 그리고 그는 그 땅 백성인 하몰 자손에게서 그 밭의 일부를 다섯 세겔에 샀습니다.
3 야곱은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수곳이라 불렀다.
4 야곱은 수곳에 일 년 육 개월 동안 머물렀다.
5 그때에 그 땅 주민의 여자들 중 몇 사람이 세겜 성읍에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춤추고 즐거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성읍 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6 야곱의 딸 디나도 그들과 함께 가서 그 성읍의 딸들을 보았고, 온 성읍 사람들이 그들의 기쁨을 구경하려고 그들 곁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은 그 딸들 앞에 머물렀으며, 성읍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거기에 있었다.
7 하몰의 아들 세겜 곧 그 땅의 통치자도 그들을 보려고 거기에 서 있었다.
8 세겜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머니와 함께 성읍의 딸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자기 친구들과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성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여자 중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의 딸인가?"
9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 여인은 히브리인 이삭의 아들 야곱의 딸이니라. 이 성에 얼마 전부터 거주하다가 이 땅의 여인들이 잔치를 벌이러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머니와 여종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 가운데 앉으셨으니, 보시는 바와 같으니라.
10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11 그가 사람을 보내어 디나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니, 디나가 세겜의 집에 이르러 세겜이 그녀를 강제로 붙잡아 동침하고 굴욕감을 주었으며, 그녀를 매우 사랑하여 자기 집에 들였다.
12 그들이 와서 야곱에게 그 일을 알리니,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종 열두 명을 보내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오게 하였더라. 그들이 가서 세겜의 집에 이르러 디나를 데려왔더라.
13 그들이 오자 세겜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고, 디나 앞에 오지 못하게 막았다. 세겜은 그들 앞에서 디나와 함께 앉아 입맞추고 포옹했다.
14 야곱의 신하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왔을 때에 그와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쫓아냈고 세겜이 우리 눈앞에서 디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하였더라
15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을 더럽혔다는 것을 알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었고,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16 야곱은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 종의 딸들 중에서 두 처녀를 보내어 디나를 세겜의 집에 맡겨 돌보게 하고, 그녀와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히데켐의 아들이요 페렛의 손자)에게 세 친구를 보내어 "이 아가씨를 내 아내로 데려오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7 히위 사람 키데켐의 아들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의 집에 와서 그 앞에 앉아 아들에게 이르되 세겜아, 네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으니 네 백성이 아닌 히브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18 세겜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직 그녀만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녀는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몰은 아들의 말대로 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들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19 하몰은 이 일에 관하여 야곱과 의논하려고 그에게로 갔다. 그가 아들 세겜의 집에서 나와 야곱에게 이르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한 일을 듣고 밭에서 돌아와 있었다.
20 그 남자들은 자기 누이 일로 몹시 슬퍼하여, 가축을 모으기 전에 모두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다.
21 그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앉아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보십시오. 세겜 사람이 우리 누이와 간음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온 성읍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2 너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온 성읍이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리라.
23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디나에 관한 그의 아들의 말을 전하려고 하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 앉았다.
24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사모하노니 너희가 그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우리와도 혼인하여 살라.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는 그 땅에서 한 백성이 될 것이다.
25 우리 땅은 매우 넓으니, 거기에 거주하며 장사하고 재산을 모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무도 한마디로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26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치니, 보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뒤를 따라와 그들 앞에 앉았다.
27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당신들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28 내게 풍성한 혼수와 선물을 요구하시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입니다. 다만 그 처녀를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29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행하리라 하더라.
30 보십시오, 우리 누이가 당신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아버지 이삭에게 사람을 보낼 때까지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그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1 이는 그분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아시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2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여 구실을 찾고, 이 일에 관하여 세겜과 그의 성읍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였다.
33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시므온과 레위의 말을 듣고 그것이 좋다고 여겨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왔다.
34 그들이 떠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악한 자들과 그들의 성읍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에게 명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35 또한 세겜이 우리 자매 디나를 더럽힌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결코 그런 악행이 저질러져서는 안 됩니다.
36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할지 알고, 그들에게 행할 구실과 핑계를 찾아 이 성읍의 모든 주민을 죽이도록 하라.
37 그러자 시므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그들 가운데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38 만일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 행하려 한다면, 그들이 고통으로 쓰러질 때에 우리는 마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람을 공격하듯이 칼로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남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39 시므온의 충고가 그들에게 마음에 들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제안한 대로 행하기로 결심하였다.
40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왔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41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거짓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들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전했고, 그분께서 당신들의 말씀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42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 땅의 주 하나님께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그의 딸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줄 수 있습니다."
43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방식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딸을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44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처럼 당신들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딸을 당신들에게 주고 우리도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 백성으로 맞이하여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45 만일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명한 대로 모든 남자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서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46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소원을 서둘러 들어주었다. 세겜은 디나를 매우 사랑하여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47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성문으로 급히 가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48 우리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의 딸에 관하여 이야기하니, 그들이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땅은 그들에게 매우 넓으니,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며 장사하고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우리의 딸들은 그들에게 아내로 주겠습니다.
49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은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시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과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50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듣고는 모두 그 제안에 동의하여 할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그 땅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았기 때문입니다.
51 그리고 다음 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성읍 가운데로 모으고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들여 그날과 다음 날에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52 그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의 다섯 형제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모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여호와께서 세겜 성읍을 치시려고 하신 일이었고, 시므온의 계획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세겜 성읍을 야곱의 두 아들의 손에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제 34 장

1 할례를 받은 남자의 수는 육백사십오 명이고, 아이는 이백사십육 명이었다.
2 그러나 하몰의 아버지 페렛의 아들 키데켐과 그의 여섯 형제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이 그들의 눈에는 혐오스러웠고, 성읍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여덟 명의 어린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성읍 사람들에게서 아이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4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할례 받게 하려고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깃데겜과 그의 여섯 형제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5 그들은 이 일 때문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려 했고, 디나도 그들과 함께 죽이려 했다.
6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너희 형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여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전에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딸들을 너희와 합치려 하고, 너희 조상들이 명하지도 않았던 이런 짓을 하려느냐?
7 당신은 당신이 행한 이 일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와서 이 일에 대해 당신에게 물을 당신의 형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8 만일 당신들의 행위가 그들 앞에서 옳고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명을, 그리고 나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 만일 그 땅의 주민들과 너의 모든 형제 함의 자손들이 너의 행위를 듣고 말하기를,
10 히브리 여인 때문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들이 전에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명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였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 주민들인 너희 형제들 앞에서 평생토록 어디로 도망가거나 너희의 수치를 어디에 숨기겠느냐?
11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행한 이 일을 견딜 수 없으며, 우리 조상들이 명하지 않은 이 멍에를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12 보라, 내일 우리가 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우리 형제들, 곧 가나안 형제들을 모두 모아 너희와 너희를 믿는 자들을 모두 쳐서 너희와 그들에게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리라.
13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성읍의 모든 백성이 키데켐과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행한 일을 뉘우쳤다.
14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들의 아버지 키데켐과 그의 형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15 이제 너희는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여 우리 조상들이 명하지 않은 일을 행했다고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16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 딸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 이런 조건 없이는 들어줄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7 우리가 그들에게서 우리의 요청을 얻어낸 후에 그들에게 돌아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18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치유되고 다시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그들을 대적하여 여러분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19 야곱의 딸 디나는 깃데켐과 그의 형들이 한 말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을 모두 들었다.
20 그리하여 그녀는 서둘러 아버지 야곱이 세겜 집에 보내어 자신을 돌보게 한 여종 하나를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오빠들에게 이르기를,
21 이와 같이 키데켐과 그의 형제들은 당신에 관하여 조언하였고, 이와 같이 하몰과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은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22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분개하였고, 그들을 향한 그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23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는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온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 성읍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였더라
24 할례를 받지 않은 젊은이 스무 명이 숨어 있다가 시므온과 레위를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열여덟 명을 죽이고 두 명은 도망쳐 성읍 안에 있는 석회 구덩이로 숨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25 시므온과 레위는 계속해서 성읍을 돌아다니며 칼로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26 그러자 성읍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났고, 성읍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며,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27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을 죽였으니, 그 성읍에는 남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28 그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와 그곳을 떠났다.
29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돌아오다가 죽은 자들을 발견하고 성읍과 들판에 있던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였다.
30 그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있을 때, 삼백 명이 일어나 그들에게 흙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돌아서서 칼날로 그들을 모두 죽이고 레위 사람보다 앞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1 그들은 양과 소와 가축과 남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힘차게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32 야곱은 그들이 성읍에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빼앗아 간 것을 보고 몹시 노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보십시오, 나는 가나안 땅 주민들 가운데서 평안을 얻었고 그들 중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33 이제 당신은 가나안 사람들과 페리싯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미움받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당신이 자기 형제들과 한 일을 듣고 모두 모여 나를 죽이려 할 것이며, 나와 내 가족은 멸망할 것입니다.
34 시므온과 레위와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겜이 우리 누이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어찌하여 세겜이 한 모든 일에 침묵하느냐? 그가 우리 누이를 길거리 창녀처럼 대하느냐?
35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서 사로잡아 온 여자들 중 죽이지 않고 데려온 자들은 팔십오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순결한 처녀였다.

36 그들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의복이 단정한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부나였다. 시므온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들이 사로잡아 죽이지 않고 남겨둔 남자의 수는 마흔일곱 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죽였다.
37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서 사로잡아 온 모든 젊은 남녀는 야곱의 자손과 그 후손들의 종이 되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38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서 나간 후에, 성읍에 숨어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두 젊은이가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 둘러보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자들만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야곱의 자손들이 이 성읍에 저지른 악입니다. 그들은 오늘 가나안 성읍 중 하나를 파괴하고도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9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성을 떠나 다프낙 성으로 가서 다프낙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야곱의 자손들이 세겜 성에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40 이 소식이 다프낙 왕 야숩에게 전해지자, 그는 세겜 성읍으로 사람들을 보내 그 젊은이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세겜처럼 큰 성읍을 황폐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41 야숩의 사자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울고 있는 여자들만 있도다. 양 떼나 가축도 하나도 없도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가져갔도다.
42 그러자 야숩은 이 일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처럼 큰 성읍을 파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맞설 자가 한 명도 없었구나."
43 이는 니므롯 시대 이후로도, 그 이전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다프낙 왕 야숩은 자기 백성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가서 이 히브리인들과 싸워 그들이 성읍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고, 성읍 백성의 원수를 갚아 주겠다” 하였더라.
44 다프낙 왕 야숩은 이 일에 관하여 그의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 혼자서는 히브리인들을 이길 수 없으니, 그들이 온 성읍을 다스리려면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느니라.
45 만일 그들 중 두 사람이 온 성읍을 황폐하게 하였을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면, 네가 그들을 대적하려 들면 그들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여 똑같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46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서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47 야숩은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그와 그의 백성을 기쁘게 하여 그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다프낙 왕 야숩은 세겜과 다프낙을 포위한 모든 아모리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48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히브리 사람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쳐서 땅에서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이다. 그가 세겜 성읍에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49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세겜 성에 행한 악행을 듣고 크게 놀랐다.
50 아모리 사람의 일곱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칼을 빼든 약 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왔습니다. 야곱은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자기 아들들과 싸우려고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51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소리쳐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며 가나안의 모든 자손을 불러내어 나와 내 가족을 멸하려 하느냐? 나와 내 가족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너희가 이런 짓을 하고 그 땅 주민들을 선동하여 나를 대적하게 하였구나."
52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형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주민을 다 죽인 것이 헛된 일이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모욕하고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강제로 데려가서 간음했습니다.
53 세겜 사람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그 성읍 주민 중에 아무도 그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고 말하며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형제들이 가서 그 성읍을 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요, 그 성읍 주민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헛된 것이겠느냐?
54 그런데 이제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들에게 불쾌해하며, 어찌하여 그들에게 분노를 품느냐?
55 우리 하나님께서 세겜 성읍과 그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우리를 대적하여 오는 모든 가나안 왕들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우리도 내 형제들이 세겜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56 이제 그들에 대하여는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우리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57 그러자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신하 중 하나를 불러 “가서 우리를 치러 오는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58 그 종이 가서 멀리 내다보고 시혼 산 맞은편에 올라가 보니 모든 왕들의 진영이 들판에 펼쳐져 있더라. 그가 유다로 돌아와 이르되, 보십시오, 왕들과 그들의 모든 진영이 들판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도다.
59 유다가 시므온과 레위와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강건하여 용맹한 아들이 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60 각자 활과 칼 등 전쟁 무기를 갖추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61 그들이 일어나서 크고 작은 무기를 모두 차고 야곱의 열한 아들과 야곱의 모든 종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62 헤브론에 이삭과 함께 있던 이삭의 모든 신하들이 온갖 전쟁 도구로 무장하고 그들에게로 왔고,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신하들 백십이 명이 왕들을 향해 갔으며, 야곱도 그들과 함께 갔다.
63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헤브론, 곧 기르앗아르바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64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치러 오는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65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 하나님, 주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르시기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고 내게도 약속하셨으니 이제 가나안 왕들이 모여들어 내 아들들과 싸우려 하니, 내 아들들은 아무 폭력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그 말씀을 이루소서
66 그러므로 이제 온 땅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오니 이 왕들의 계략을 무산시켜 주셔서 내 아들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소서.
67 그리고 내 아들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왕들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 내 아들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소서.
68 주의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소서. 주의 손에는 이 모든 일을 행할 권능과 힘이 있나이다.
69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신하들이 그 왕들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들은 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주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70 주님은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손에는 높이시고 낮추시는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오, 주님의 자비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왕들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제 아들들의 공포로 가득 채우시고, 그들과 그들의 진영을 두렵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백성을 우리 아래로 복종시키시고 나라들을 우리 권세 아래로 굴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제 35 장

1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와서 들판에 모여서 그들의 고문들과 야곱의 자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논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야곱의 자손들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들 중 두 사람이 세겜 성읍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하였더라.
2 여호와께서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왕의 신하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시니, 그들이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3 너희는 오늘 어리석은가, 아니면 깨달음이 없는가? 히브리인들과 싸우려 하고, 어찌하여 오늘 너희 자신의 멸망을 기뻐하는가?
4 보십시오, 그들 중 두 사람이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세겜 성에 와서 그 성읍의 모든 주민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는데, 어찌 당신들이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5 너희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옛날부터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 행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서도 그의 놀라운 행적에 비견할 만한 신은 없다.
6 진실로 그분은 그들의 조상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니므롯의 손에서, 그리고 그를 여러 번 죽이려 했던 그의 모든 백성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7 그분은 니므롯 왕이 그를 던져 넣은 불에서도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그 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8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람의 다섯 왕이 소돔에 살던 그의 조카를 해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9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서 충성스러운 종과 몇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하룻밤 사이에 엘람 왕들을 추격하여 죽이고, 그들이 그의 조카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다.
10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 또한 그분을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1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외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2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에게 맹세하시며,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닥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이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식에 대한 동정심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13 너희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와 게라르 왕 아비멜렉에게 행하신 일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아비멜렉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할까 두려워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은 그 모든 일을 그들과 그들의 백성에게 행하셨다.
14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니 야곱의 형 에서가 사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15 그가 시리아에서 오는 그를 맞으러 가서 그 어머니와 아이들을 치려 하였으나, 누가 그를 그의 손에서 구

원하였나이까? 그가 의지하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그를 그의 형제의 손에서도, 그의 원수들의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반드시 다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16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세겜 성읍에 재앙을 초래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일임을 누가 모르겠느냐?
17 그렇다면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겜처럼 큰 성읍을 파괴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그 성읍 주민들을 성읍 안에서 죽이기 위함이었다.
18 그러면 당신의 성읍에서 나와 온 자들과 싸우려고 할 때, 설령 천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우러 온다 해도, 당신이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19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은 그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그들의 하나님과 싸우러 온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모두 멸망을 당하러 온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초래하려 하는 이 재앙을 삼가라. 그들의 수는 적지만 그들과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21 아모리 왕들이 그들의 조언자들의 모든 말을 듣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야곱의 자손들을 무서워하여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22 왕들은 조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조언자들의 말이 왕들을 매우 기쁘게 했기에,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23 그리하여 왕들은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돌아서서 물러갔다. 그들은 감히 그들에게 다가가 싸우려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몹시 두려워했고, 그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이다.
24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니, 그분께서 그의 종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 날 모든 왕들이 자기 진영을 이끌고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으며, 그때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25 야곱의 아들들은 그날 저녁까지 시혼 산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왕들이 싸우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제 36 장

1 그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벧엘로 가서 거기에 머물며 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그분은 너와 네 아들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2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온 가족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벧엘로 갔다.
3 야곱은 아흔아홉 살에 벧엘로 올라갔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은 루스 지방 벧엘에 머물렀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벧엘에 여섯 달 동안 머물렀다.
4 그때에 야곱과 함께 있었던 리브가의 유모였던 우스의 딸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벧엘 아래, 거기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5 야곱의 어머니 베투엘의 딸 레베카도 그 때 헤브론, 곧 기르앗아르바에서 죽었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묻혔다.
6 리브가의 수명은 백삼십삼 년이었는데, 그녀가 죽자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여 어머니와 그녀의 유모 드보라를 위하여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크게 애도하고 그곳 이름을 알론바쿠트라 불렀다.
7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라반이 죽었는데, 이는 그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다.
8 야곱이 백 살이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으며, 그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임신하였다.
9 그때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은 아버지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려고 벧엘에서 길을 떠났다.
10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에브랏에 이르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 끝에 죽었다.
11 야곱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라헬의 나이는 사십오 년이었으며, 그녀는 죽었다.
12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아들이 오른쪽 땅에서 태어났음이라.
13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그녀의 여종 빌하의 천막에 자기 천막을 쳤다.
14 그러자 르우벤은 이 일로 그의 어머니 레아를 위해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에 차서 일어나 빌하의 장막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옮겨 놓았다.
15 그때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장자권과 왕권, 제사장 직분이 모두 박탈되었는데, 이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왕권은 유다에게,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주어졌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16 이것은 야곱이 파단아람에서 낳은 자손들의 족보이며, 야곱의 아들들은 열두 명이었다.
17 레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제불론, 그리고 그들의 누이 디나였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다.
18 레아의 여종 질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니, 이들은 야곱이 파단아람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19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가족은 길을 떠나 마므레, 곧 기랴아르바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에 있는 곳이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가족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 거주하였다.

20 그의 형 에서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은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여 그 땅에 재산을 소유하였고, 에서의 자손은 세일 땅에서 번성하여 매우 많아졌다.
21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의 자손들인데, 에서의 아들은 다섯이었다.
22 아다는 에서에게 그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낳았고, 또 르우엘을 낳았으며, 아흘리바마는 예우쉬, 야알람, 코라를 낳았다.
23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의 자녀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 오마르, 제포, 가탐, 케나스, 아말렉스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갓, 제락, 샤마, 미자이다.
24 예우스의 아들들은 팀나, 알바, 예뎃이요, 야알람의 아들들은 알라, 피놀, 케나스였다.
25 고라의 아들들은 데만, 밉살, 막디엘, 에람이었는데, 이들은 세일 땅에서 에서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가문들이다.
26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사람 세일의 아들들의 이름은 로탄, 쇼발, 지베온, 아나, 디산, 에셀, 디숀이니, 이들은 일곱 아들이다.
27 로탄의 자손은 호리, 헤만, 그리고 그들의 누이 팀나였는데, 이 팀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왔으나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 가서 첩이 되어 아말렉을 낳았다.
28 쇼발의 아들들은 알반, 마나핫, 에발, 셰포, 오남이었고, 지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였는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지브온의 나귀들을 먹이다가 광야에서 예밈 사람들을 만난 바로 그 아나였다.
29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때때로 그것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 먹이를 주었다.
30 어느 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바닷가의 사막 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백성들이 사는 광야 맞은편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계실 때, 바다 건너편에서 큰 폭풍이 몰아쳐 거기서 풀을 뜯고 있던 나귀들 위로 덮쳤다. 그러자 나귀들이 모두 멈춰 섰다.
31 그 후에 바다 건너 광야에서 크고 무서운 짐승 약 백이십 마리가 나와서 나귀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2 그 짐승들은 허리 아래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허리 위로는 곰의 형상을 하고, 어떤 것은 지빠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깨 사이에서 땅에 닿을 듯한 꼬리가 달려 있었고, 그 꼬리는 지빠귀의 꼬리와 같았다. 이 짐승들이 와서 나귀에 올라타서 나귀들을 끌고 갔는데, 나귀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을 떠나갔다.
33 그러자 그 짐승 중 하나가 아나에게 다가와 꼬리로 그를 치고 그곳에서 도망쳤다.
34 그가 이 광경을 보고는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 두려워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35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들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아나와 그의 형제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6 세일의 아들 아나의 자손은 디숀과 그의 누이 아흘리바마였고, 디숀의 자손은 헴단, 에쉬반, 이트란, 케란이었으며, 에제르의 자손은 빌한, 자아반, 아칸이었고, 디숀의 자손은 우스와 아란이었다.
37 이들은 호리인 세이르의 자손들의 가문으로, 세이르 땅에서 그들이 다스리던 공국에 따른 가문들이다.
38 에서와 그의 자손은 그 땅의 주민인 호리 사람 세일의 땅에 거주하여 그곳에서 재산을 얻고 번성하여 매우 번성하였고, 야곱과 그의 자손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제 37 장

1 야곱의 생애 백오 년째 되던 해, 곧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아홉 해째 되던 해에 그는 파단아람에서 나왔습니다.
2 그 무렵 야곱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나와 세겜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 성읍에서 가축을 위한 좋고 기름진 목초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겜 성읍은 그때 재건되었고, 그곳에는 약 삼백 명의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3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파단아람 성을 공격하기 전에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산 밭의 일부에 거주하였다.
4 세겜 성을 에워싸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 거기에 거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5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 야곱의 자손들이 그 성읍 주민들을 쳐서 쫓아낸 후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거하겠느냐?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쫓아내거나 죽이겠느냐?" 하였더라.
6 그러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시 모여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싸우려고 모였다.
7 그리고 타프나흐 왕 야숍은 또한 그의 모든 이웃 왕들, 곧 가아스 왕 엘란, 실로 왕 이후리, 하자르 왕 파라톤, 사르톤 왕 수시, 벳코란 왕 라반, 오트나이마 왕 샤비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8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 야곱 히브리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쳐죽이자. 그들이 다시 세겜으로 와서 그곳을 차지하고 전처럼 주민들을 죽이려 한다.
9 그리하여 이 모든 왕들이 자기들의 모든 진영을 이끌고 한데 모였으니, 그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 타프낙 맞은편에 있었다.
10 그리고 다프낙 왕 야숍은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나아가 다프낙 성읍 밖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일곱 부대로 나누어 일곱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11 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 모두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가 평지에서 함께 만나 세겜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세겜 사람들의 원수를

갚고, 너희가 다시 세겜 성읍으로 돌아가 거기에 거주하며 이전처럼 그 주민들을 죽일 것이다 하더라.
12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가나안 왕들의 말에 몹시 분노하여, 야곱의 아들 열 명이 급히 일어나 각자 전쟁 무기를 차고, 그들과 함께 백이십 명의 신하들을 전투 태세로 무장시켰다.
13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이 모두 그 왕들을 향하여 갔는데,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모두 세겜의 언덕 위에 섰습니다.
14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오 하나님,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주의 자비로 내 아들들을 오늘 싸우러 오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손에는 권능과 위엄이 있으니 적은 자를 많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15 그리고 당신의 종들인 내 아들들에게 용맹과 힘을 주셔서 그들의 원수와 싸워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소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이 가나안 자손의 손에 죽지 않게 하소서.
16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크신 자비로 당신의 신하들을 통해 그들을 데려가셔서 오늘 아모리 왕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소서.
17 야곱이 여호와께 기도를 마치자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니 이 모든 왕들이 두려워 크게 동요하였다.
18 여호와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자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모든 왕과 그 군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다.
1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병거 소리와 야곱의 자손들의 용맹한 말 소리와 그들을 따르는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느니라.
20 이 왕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에 서 있을 때, 야곱의 자손들이 112 명의 군사와 크고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그들에게 진격해 왔습니다.
21 왕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들을 향해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 더욱 두려워하여 처음처럼 야곱의 자손들 앞에서 물러나 싸우려 하지 않았다.
22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앞에서 두 번이나 물러서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23 야곱의 아들들이 가까이 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대적하여 진격하니, 보라, 그 백성은 매우 강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24 야곱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노라 오늘 우리를 치러 온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옵소서
25 야곱의 아들들은 전쟁 무기를 차고 각자 방패와 창을 손에 들고 싸우러 나아갔다.
26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열 명의 종과 함께 그 왕들을 향해 나아갔다.
27 그리고 다프낙 왕 야숩도 그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유다는 야숩과 그의 군대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목숨을 걸고 싸우러 다가갔습니다.
28 야숩과 그의 모든 군대는 유다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는데, 야숩은 매우 강하고 힘센 말을 타고 있었고, 그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과 놋쇠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29 그리고 그는 말을 탄 채로 앞뒤로 양손으로 화살을 쏘았는데, 이는 그의 모든 전투에서 하던 방식이었고, 그가 겨냥한 곳을 결코 빗맞히지 않았다.
30 야숩이 유다와 싸우러 와서 유다 백성에게 화살을 많이 쏘았을 때, 여호와께서 야숩의 손을 묶으시니 그가 쏜 모든 화살이 자기 군대에 되돌아갔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숩은 유다에게 화살을 쏘려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약 30 규빗이었는데, 유다는 야숩이 화살을 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차서 힘껏 달려갔습니다.
32 유다가 땅에서 큰 돌을 하나 집어 올렸는데, 그 무게가 육십 세겔이었다. 유다가 야숩에게 달려가서 그 돌로 그의 방패를 치니, 야숩이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다.
33 그러자 야숩의 손에서 방패가 떨어져 나가더니, 그 충격으로 약 15 규빗(약 42 미터)이나 날아가서 두 번째 진영 앞에 떨어졌다.
34 야숩과 함께 온 왕들은 멀리서 야곱의 아들 유다의 힘과 그가 야숩에게 행한 일을 보고 유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35 그들이 야숩의 진영 근처에 모여 그의 혼란을 보고 유다가 칼을 뽑아 야숩 진영 사람 마흔두 명을 쳐 죽이니 야숩의 진영 전체가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못했다. 그들은 야숩을 버리고 도망쳤고 야숩은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있었다.
36 야숩은 자기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두려움에 떨며 유다를 향해 일어나 유다 맞은편에 섰다.
37 야숩은 유다와 일대일로 싸워 방패를 마주 대고 맞섰는데, 야숩의 군대는 유다를 몹시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쳤다.
38 야숩이 창을 손에 들고 유다의 머리를 치려고 하였으나, 유다가 재빨리 방패로 머리를 막아 야숩의 창을 맞고 방패가 쪼개졌다.
39 유다가 그의 방패가 갈라진 것을 보고 급히 칼을 뽑아 야숩의 발목을 쳐서 발을 잘라 버리니 야숩이 땅에 쓰러지고 그의 손에서 창이 떨어졌다.
40 그러자 유다는 급히 야숩의 창을 집어 들고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발치에 던졌다.
41 야곱의 자손들이 유다가 야숩에게 한 일을 보고, 모두 다른 왕들의 군대로 달려가서, 야숩의 군대와 거기에 있던 모든 왕들의 군대와 함께 싸웠습니다.
42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군사 만 오천 명을 쓰러뜨렸는데, 그들은 마치 박을 치는 것처럼 그들을 쳐부수었고, 나머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다.

43 유다는 여전히 야숩의 시신 곁에 서서 야숩의 갑옷을 벗겼다.
44 그러자 유다 백성도 야숩을 둘러싸고 있던 철과 놋쇠를 벗겨냈는데, 그때 야숩의 지휘관 아홉 명이 유다 백성과 싸우려고 왔다.
45 그러자 유다가 급히 달려가 땅에서 돌을 주워 그들 중 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니 그의 두개골이 깨지고 몸도 말에서 떨어져 땅에 박혔다.
46 남은 여덟 지휘관은 유다의 세력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쳤습니다. 유다는 열 명의 군사와 함께 그들을 추격하여 따라잡고 죽였습니다.
47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왕들의 군대를 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담대하게도 지휘관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도망치는 왕들의 군대를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48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왕들의 군대를 치고 돌아와 유다 앞에 이르렀을 때, 유다는 여전히 야숩의 여덟 장군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49 레위는 가아스 왕 엘론이 열네 명의 장군을 이끌고 자기를 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확실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50 엘론과 그의 장군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레위는 뒤를 돌아보니 엘론의 후방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레위는 자기 종 열두 명과 함께 달려가서 칼날로 엘론과 그의 장군들을 죽였다.

제 38 장

1 실로 왕 이후리가 엘론을 도우러 올라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손에 든 활을 당겨 화살로 이후리를 쏴 죽였습니다.
2 실로 왕 이후리가 죽자, 남은 네 왕은 다른 장군들과 함께 자기들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후퇴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강한 세 왕과 그들의 장군들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울 힘이 없습니다."
3 야곱의 아들들이 남은 왕들이 자기 자리에서 떠난 것을 보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야곱도 세겜 언덕에서 나와 자기가 서 있던 곳에서 나와 왕들을 뒤쫓아 그들의 신하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다.
4 그러자 왕들과 장군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야곱의 자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도망쳐 하살 성에 이르렀다.
5 야곱의 아들들이 하살 성문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왕들과 그 군대 약 사천 명을 크게 쳐부수었다. 그들이 왕들의 군대를 치는 동안 야곱은 활을 쏘아 왕들을 모두 죽였다.
6 그리고 그는 하잘 성문에서 하잘 왕 파라톤을 죽였고, 그 후에 사르톤 왕 수시와 벳코린 왕 라반과 막나이마 왕 샤비르를 화살로 쳐서 모두 죽였다.
7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왕들이 죽고 군대가 흩어져 후퇴하는 것을 보고, 하자르 성문 맞은편에서 왕들의 군대와 계속 싸워 약 400 명의 왕들을 죽였다.
8 야곱의 종 세 사람이 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종 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며 아모리 족속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9 그러자 왕들의 군대에서 남은 모든 병사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달려가서 카살 성벽의 문을 부수고 모두 안전을 찾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10 그들은 하자르 성읍 한가운데에 숨었습니다. 하자르 성읍은 매우 크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군대가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뒤쫓아 성읍으로 달려갔습니다.
11 그러자 전쟁 경험이 풍부한 용사 네 명이 성에서 나와 칼과 창을 뽑아 성 입구에 서서 야곱의 자손들을 막아서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12 그러자 납달리가 달려가 그들 사이로 들어가 칼로 그들 중 두 사람을 쳐서 한 번에 그들의 머리를 베었다.
13 그리고 예수께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로 돌아서시니, 그들이 도망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추격하여 따라잡고 쳐서 죽이셨다.
14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성에 또 다른 성벽이 있었다. 그들이 성벽의 문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유다가 성벽 위로 뛰어오르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를 따라 성벽에서 내려와 성 안으로 들어갔다.
15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는 안전을 찾아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성읍 주민들과 그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칼날로 죽였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16 단과 납달리는 통곡 소리가 무엇인지 보려고 성벽 위로 뛰어올랐다. 야곱의 아들들은 형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성읍 주민들이 울며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읍에 있는 우리 소유를 다 가져가시고 떠나십시오. 다만 우리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17 유다와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 주민들을 치는 것을 그치고 성벽에 올라가서 성벽 위에 있던 단과 납달리와 나머지 형제들을 불렀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에게 성읍에 들어갔다고 알렸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 전리품을 가지러 왔다.
18 야곱의 아들들은 카살 성읍의 전리품, 곧 양 떼와 소 떼와 재산을 모두 가져갔고,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날 그 성읍을 떠났다.
19 그리고 다음 날 야곱의 아들들은 사르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르톤 성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왕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싸우려고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톤은 매우 높고 견고한 요새였으며, 성벽이 깊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20 성벽의 기둥은 높이가 약 50 규빗이고 너비는 40 규빗이었으며, 성벽 때문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벽을 보고 들어갈 길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21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뒤쪽에 있었으므로, 성읍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길로 와서 성읍 전체를 돌아간 후에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22 야곱의 자손들은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자 몹시 분노하였고, 성읍 주민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의 힘과 그들이 하자르에게 행한 일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23 사르톤 성읍 주민들은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성읍에 모였지만,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의 세력이 강하고 하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24 그리하여 사르톤 주민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오기 전에 성읍 길에 있던 다리를 서둘러 옮겨 성 안으로 들여왔다.
25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성읍 주민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고 있었다.
26 그러자 성읍 주민들이 성벽 위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비난하고 저주하였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 비난을 듣고 몹시 분개하여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다.
27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노하여 모두 일어나 힘을 다해 성벽을 뛰어넘어, 그 힘으로 성벽의 폭인 사십규빗을 넘어갔다.
28 그들이 성벽을 지나 성벽 아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성문들이 모두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9 야곱의 아들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가까이 왔을 때, 주민들은 성벽 위에서 돌과 화살을 던져 그들을 막았습니다.
30 성벽 위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약 사백 명이었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성읍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성벽 위로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먼저 성읍 동쪽으로 올라갔습니다.
31 갓과 아셀은 그를 따라 성읍 서쪽 모퉁이로 올라갔고, 시므온과 레위는 북쪽으로, 단과 르우벤은 남쪽으로 올라갔다.
32 성벽 위에 있던 사람들, 곧 성읍 주민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모두 성벽에서 내려와 성읍 안으로 들어가 성읍 가운데에 숨었습니다.
33 성벽 아래에 남아 있던 잇사갈과 납달리가 성읍으로 다가와 성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더니 쇠가 녹았다. 야곱의 온 자손이 그들의 모든 남자와 함께 성읍 안으로 들어와 사르톤 성읍 주민들과 싸워 칼로 그들을 쳤으나 아무도 그들 앞에 나서지 못했다.
34 그러자 약 이백 명이 성에서 도망쳐 나와 성 안에 있는 어떤 망대에 숨었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추격하여 그 망대까지 이르러 망대를 무너뜨리니 망대가 그 사람들 위로 떨어져 모두 죽었습니다.
35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망대 지붕의 길로 올라가 보니, 성읍 저 멀리 또 다른 견고하고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서둘러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망대에 이르러 보니,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약 삼백 명이 가득 차 있었다.
36 야곱의 아들들이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을 크게 치니 그들이 도망쳤다.
37 시므온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했을 때, 그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용맹하고 강대한 열두 사람이 나와 그들에게 맞섰다.
38 그 열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를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나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용감한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의 방패를 부수고, 그중 한 사람이 칼로 레위의 머리를 치려 하자 레위는 칼이 두려워 재빨리 손으로 머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칼이 레위의 손을 스쳐 거의 잘려나갈 뻔했습니다.
39 그러자 레위는 그 용사의 칼을 손에 쥐고, 그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그 칼로 그 힘센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의 목을 베었다.
40 그러자 열한 사람이 레위 사람들과 싸우려고 다가왔는데, 이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야곱의 자손들도 싸웠으나, 레위 사람들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41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므온이 크고 무서운 비명을 지르니, 그 비명 소리에 열한 명의 힘센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42 멀리서도 유다 지파는 시므온의 외침 소리를 알아듣고, 납달리와 유다 지파는 방패를 들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달려가 보니, 그들은 그 용맹한 자들과 싸우고 있었지만 방패가 부러져서 이길 수 없었다.
43 납달리는 시므온과 레위의 방패가 부서진 것을 보고 자기 종들에게서 방패 두 개를 가져다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가져다 주었다.
44 그날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셋이서 해 질 때까지 열한 용사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45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몹시 슬퍼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의 아들 납달리와 함께 그 용사들을 치러 나갔다.
46 야곱이 가까이 나아가 활을 당겨 용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활로 그들 중 세 명을 죽였다. 그러자 나머지 여덟 명이 물러갔다. 보라, 앞뒤에서 전쟁이 벌어지니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야곱의 아들들 앞에 설 수 없어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47 그들이 도망치던 중에 그들을 향해 오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를 만났는데, 그들이 갑자기 그들을 덮쳐 싸워 두 사람을 죽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남은 자들을 쳐서 죽였다.
48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돌아와서 성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으려 하였더니, 성 안의 한 동굴에서 스무 명쯤 되는 젊은이들을 발견했다. 갓과 아셀은 그들을 모두 쳐 죽였고, 단과 납달리는 두 번째 망대에서 도망쳐 나온 나머지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도 모두 쳐 죽였다.
49 야곱의 아들들은 사르톤 성읍의 모든 주민을 쳐 죽였으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성읍에 남겨두고 죽이지 아니하였다.

50 사르톤 성읍의 모든 주민들은 힘센 사람들이었으니, 한 사람이 천 명을 추격해도 두 사람이 만 명의 다른 사람들을 쫓아도 도망치지 못할 정도였다.
51 야곱의 아들들이 사르톤 성읍의 모든 주민을 칼날로 죽였으므로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여자들만 성읍에 남겨 두었다.
52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차지했으며, 가축 떼와 재산을 약탈해 갔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르톤과 그 주민들에게 하살과 그 주민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고 돌아서서 떠났다.

제 39 장

1 야곱의 아들들이 사르톤 성에서 떠나 이백 규빗쯤 갔을 때, 다프낙 주민들이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을 만났는데,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프낙 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쳐부수고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려고 나온 것이었다.
2 그리하여 다프낙 성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그들은 하살과 사르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3 그리고 다프낙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싸웠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치니 그들이 도망쳤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아르벨란 성읍까지 이르렀고, 그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쓰러졌다.
4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타프낙에 이르러 타프낙의 전리품을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타프낙에 이르렀을 때, 아르벨란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제의 전리품을 지키려고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열 명의 사람을 타프낙에 남겨두고 그 성을 약탈하게 한 다음, 아르벨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5 아르벨란 사람들은 아내들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들의 아내들은 전쟁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는 남녀를 합쳐 약 사백 명이었다.
6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아르벨란 주민들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들의 함성은 크고 위엄 있는 소리였다.
7 아르벨란 주민들은 야곱의 자손들의 외침과 그들의 포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았고 바다와 파도의 포효 같았습니다.
8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여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성문까지 추격하여 성 안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9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서 그들과 싸웠는데, 그들의 모든 여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 물매를 던지며 싸웠고, 그날 저녁까지 온종일 그들 사이에 매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10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그 전투에서 거의 전멸할 뻔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저녁 무렵에 크게 힘을 얻어, 아르벨란의 모든 주민,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11 그리고 사르톤에서 도망친 나머지 백성들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르벨란에서 쳤으니, 야곱의 아들들은 아르벨란과 타프낙에게도 하살과 사르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였더라. 여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 지붕 위로 올라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돌을 비처럼 던져 쳤더라.
12 야곱의 아들들이 급히 성읍으로 들어가 모든 여자를 붙잡아 칼날로 죽이고, 전리품과 노획물, 양 떼와 소 떼와 가축을 모두 빼앗았다.
13 야곱의 아들들은 막나이마에게 다프낙과 할살과 실로에게 했던 것처럼 행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떠나갔다.
14 그리고 다섯째 날에 야곱의 아들들은 가아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가아스 사람들이 그들의 왕과 장군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아스 성에는 열네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15 그날 야곱의 아들들은 전쟁 무기를 차고 가아스 주민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가아스에는 아모리 족속의 강하고 용맹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아스는 아모리 성읍들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잘 요새화된 성읍으로, 성벽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16 야곱의 자손들이 가아스에 이르러 보니 성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외벽 꼭대기에는 약 오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으며, 성 뒤편 바깥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을 매복하고 있었다.
17 야곱의 아들들이 성문을 열려고 가까이 나아갔는데,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성 뒤편에 매복해 있던 자들이 나와서 야곱의 아들들을 에워쌌습니다.
18 야곱의 자손들은 가아스 백성들 사이에 갇혔고, 앞뒤로 전투가 벌어졌으며, 성벽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벽에서 그들에게 화살과 돌을 던졌습니다.
19 유다는 가아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가아스 사람들은 모두 유다의 비명 소리에 겁에 질렸고, 성벽에서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성 안팎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20 야곱의 자손들이 성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가아스의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돌과 화살을 던져 그들을 성문에서 도망치게 했습니다.
21 야곱의 아들들이 성 밖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가아스 사람들을 향해 돌아와서 그들을 공격하여 마치 박을 치는 것처럼 세게 쳤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비명 소리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야곱의 아들들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22 야곱의 아들들은 성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 성벽 아래에서 싸우려고 가까이 나아갔으나, 성 안에 남아 있던 가아스 주민들이 성벽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싸울 수 없었다.

23 야곱의 자손들이 싸우려고 성벽 한쪽 모퉁이까지 이르렀을 때, 가아스 주민들이 그들에게 화살과 돌을 소나기처럼 던지니, 그들은 성벽 밑에서 도망쳤다.
24 성벽 위에 있던 가아스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성벽 아래에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자손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5 너희가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강대한 가아스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약한 성읍들에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느냐? 너희는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성읍 어귀에서 그들을 죽였으니, 그들은 너희의 함성 소리에 두려워 떨며 아무런 힘도 없었느니라.
26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곳에서 싸울 수 있겠느냐? 여기서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고, 우리는 너희가 파괴한 그 도시들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27 그러자 가아스 주민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심하게 비난하고 그들의 신들을 들먹이며 욕설을 퍼부었고, 성벽 위에서 화살과 돌을 계속 던졌습니다.
28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가아스 주민들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일에 대해 자기 하나님께 시기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우리와 우리 형제들을 도우소서.
29 그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더니 손에 칼을 빼들고 땅에서 솟아올라 힘껏 성벽에 올라갔는데 칼이 손에서 떨어졌다.
30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소리쳤다. 성벽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서 떨어져 성 안으로 들어가 죽었다. 성벽 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힘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성 안으로 도망쳤다.
31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성벽 위에서 유다와 싸우려 했고, 유다의 손에 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성벽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던져 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읍 사람 스무 명이 그들을 도우러 올라와 유다를 에워싸고 모두 소리치며 칼을 빼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두렵게 했고, 유다는 성벽 위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32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성벽 아래에서 활을 꺼내 성벽 위에 있던 사람 셋을 쏘았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성벽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33 그가 이렇게 외치자 성벽 위에서 유다를 에워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유다의 외침과 떨림 소리에 각자 손에서 칼을 던져 버리고 도망쳤다.
34 그러자 유다 백성은 그들의 손에서 떨어진 칼을 가져다가 그들과 싸워 성벽 위에서 그들의 군사 스무 명을 죽였다.
35 그러자 남녀 약 80 명이 성벽을 넘어 유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유다의 두려움을 심어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36 야곱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성벽 아래에서 활을 당겨 성벽 위의 사람 열 명을 죽였더니 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성벽 아래로 떨어졌다.
37 성벽 위의 백성들은 자기네 사람 스무 명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칼을 빼들고 유다에게 달려갔으나, 유다의 강함에 크게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다.
38 그때 그들의 용사 중 아룻이라는 자가 유다의 머리를 칼로 치려고 다가왔는데, 유다가 급히 방패로 머리를 막으니 칼이 방패에 부딪쳐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39 그 용사는 유다 사람들을 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다가 성벽에서 발이 미끄러져 성벽 아래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자손들이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40 유다는 힘센 사람의 매질에 머리가 아파 거의 죽을 뻔했다.
41 유다가 그 타격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성벽 위에서 부르짖으니, 단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도 일어나 멀리 달려가 땅에서 솟구쳐 올라 분노에 찬 힘으로 성벽에 올라갔다.
42 단 지파가 유다 지파 근처 성벽에 이르렀을 때, 유다 지파를 대적하여 성벽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쳐 둘째 성벽으로 올라가서, 둘째 성벽에서 단 지파와 유다 지파를 향해 화살과 돌을 던져 그들을 성벽에서 몰아내려고 애썼다.
43 화살과 돌이 단과 유다를 맞추어 성벽 위에서 거의 죽을 뻔하게 하였습니다. 단과 유다가 성벽에서 도망칠 때마다 두 번째 성벽에서 화살과 돌이 날아와 공격했습니다.
44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성읍 어귀, 첫 번째 성벽 아래에 있었는데, 두 번째 성벽 위에 있어서 성읍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므로 활을 쏠 수 없었다.
45 단과 유다는 둘째 성벽에서 떨어지는 돌과 화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성읍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둘째 성벽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둘째 성벽 위에 있던 성읍 사람들이 단과 유다가 둘째 성벽 위로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소리치며 성벽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46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성읍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아직 성읍 어귀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단과 유다 자손 때문에 걱정하였다. 그들은 두 번째 성벽 위에 있었다.
47 나프탈리는 분노에 차서 힘차게 올라가 성 안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첫 번째 성벽 위로 뛰어올랐고, 잇사갈과 제불론은 성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나아가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48 납달리는 첫째 성벽에서 둘째 성벽으로 뛰어넘어 그의 형제들을 도우러 왔는데, 성벽 위에 있던 가아스 주민들이 납달리가 형제들을 도우러 올라온 세 번째 사람인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쳐 성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들의 모든 젊은이들도 그들에게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9 유다와 단과 납달리는 성벽에서 내려와 성읍 주민들을 추격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성읍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 열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

기서 성벽으로 올라가 성읍 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50 성읍 주민들이 모두 성읍으로 내려왔고 야곱의 아들들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나아와 앞뒤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맹렬히 공격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약 이만 명을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맞설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51 그리하여 그 성읍에 피가 많이 흘러 마치 시냇물 같았고, 그 피는 시냇물처럼 성읍 바깥으로 흘러가 벳고린 사막에까지 이르렀다.
52 벳고린 사람들은 멀리서 가아스 성읍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서 약 칠십 명이 피를 보려고 달려가 피가 흐르는 곳에 이르렀다.
53 그들이 핏자국을 따라 가아스 성벽에 이르러, 성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고, 가아스 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피는 마치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54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여전히 가아스 주민들을 쳐서 저녁까지 그들을 죽였는데, 그 수는 약 이만 명의 남녀였다. 그러자 코린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 히브리인들의 짓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서 아직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55 그러자 그 백성은 급히 벳고린으로 달려가서 각자 전쟁 무기를 들고 벳고린의 모든 주민들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그들도 전쟁 무기를 차고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했다.
56 야곱의 아들들이 가아스 주민들을 쳐죽인 후에,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려고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성읍 안쪽 깊숙이 들어가 더 나아가서 매우 힘센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57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니, 힘센 자들이 도망쳤다. 그들 중 하나가 스불론을 붙잡았는데, 그가 키가 작고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땅에 내동댕이쳤다.
58 야곱이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가 허리 아래를 쳐서 두 동강을 내니 그 시체가 스불론 땅에 떨어졌다.
59 두 번째 사람이 다가와 야곱을 붙잡아 땅에 넘어뜨리려 하자 야곱이 돌아서서 소리쳤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달려와 칼로 그의 엉덩이를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60 그러자 그 힘센 자가 분노에 차서 땅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유다가 그가 아직 일어서기도 전에 달려가서 칼로 그의 머리를 쳐서 머리가 쪼개지고 죽었다.
61 셋째 장수는 자기 동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를 쫓아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수가 도망치면서 성읍 주민들의 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 들고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 칼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62 그러자 힘센 자가 유다에게 달려들어 칼로 그의 머리를 치려고 하였으니, 유다의 손에는 방패가 없었더라. 그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납달리가 급히 방패를 가져다가 유다의 머리에 대었으니, 힘센 자의 칼이 납달리의 방패에 부딪혀 유다가 칼을 피하였더라.
63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힘센 사람에게 달려들어 힘껏 쳤더니, 두 칼이 그 힘센 사람의 몸에 박혀 세로로 둘로 갈라졌다.
64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 용사와 가아스 성읍의 모든 주민들을 쳐 죽였는데, 날이 저물려 가고 있었다.
65 야곱의 아들들은 가아스 성 주위를 돌며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살려두지 않았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르톤과 실로에게 행했던 것처럼 가아스에게도 행하였다.

제 40 장

1 야곱의 아들들은 가아스에서 약탈한 모든 것을 가지고 밤에 성읍을 빠져나갔다.
2 야곱의 아들들은 벳고린 성을 향해 행군해 나가고 있었는데, 벳고린 주민들도 그들을 맞으러 성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의 아들들은 벳고린 성에서 벳고린 주민들과 싸웠습니다.
3 벳고린의 모든 주민들은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천 명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날 밤 성을 공격하여 싸우니, 그들의 함성이 멀리까지 들리고 땅이 흔들렸도다.
4 야곱의 모든 자손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싸우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크게 당황하였더라. 야곱의 자손은 주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소서 하라 하더라.
5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벳고린 백성에게 큰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시니 그들이 밤중에 서로 싸워 많은 수가 서로를 쳐 죽였다.
6 야곱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사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서로 이웃과 싸우는 것을 알고, 벳고린 사람들의 무리에서 나와 벳고린 성의 언덕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날 밤 그곳에 젊은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머물렀다.
7 벳고린 사람들은 밤새도록 싸웠는데, 한 사람은 형제와, 다른 사람은 이웃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성을 향해 소리쳤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으며, 온 땅이 그들의 소리에 흔들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8 그날 밤 가나안 성읍들과 헷 성읍들과 아모리 성읍들과 히위 성읍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뿐 아니라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외침 소리를 들었다.
9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까이 온 일곱 성읍을 대적하여 싸우는 히브리인들의 전투이로구나. 누가 그 히브리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10 가나안 성읍들의 모든 주민들과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들에 행해진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저들의 막강한 힘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11 그날 밤 코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매우 컸고 점점 더 커져 갔으며, 그들은 아침까지 서로 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2 아침이 밝아오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동이 틀 무렵 일어나 성으로 올라가서 코린 자손들을 잔인하게 쳐서 성 안에서 모두 죽였다.
13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자,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멀리서 보니 벳고린 성 안에 벳고린 사람들이 모두 죽어 있었고, 마치 어린 양과 염소의 시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14 야곱의 아들들은 가아스에게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벳고린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싸워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다.
15 야곱의 아들들은 벳고린에게 가아스와 타프낙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하자르와 사르톤과 실로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행하였다.
16 야곱의 아들들은 벳고린에서 약탈한 것과 그 성읍들에서 약탈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날에 세겜으로 돌아갔다.
17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으로 돌아와 성읍 밖에 머물며 전쟁의 피로를 풀고 밤을 지새웠다.
18 그리고 그들은 모든 종들과 그들이 성읍들에서 약탈한 모든 전리품을 성읍 밖에 남겨두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혹시라도 우리와 더 싸워서 그들이 세겜을 포위하러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은 그날 밤과 다음 날을 야곱이 하몰에게서 다섯 세겔에 산 밭에서 머물렀고, 그들이 노획한 모든 것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20 야곱의 아들들이 노획한 모든 전리품은 그 밭에 있었는데, 그 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았다.
21 그 땅의 주민들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고, 이 일을 행한 야곱의 자손들을 두려워하였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2 가나안의 일곱 왕은 야곱의 자손들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야곱의 자손들과 화평을 맺기로 결심하였다.
23 그 날, 곧 일곱째 날에 헤브론 왕 야피아가 아이 왕과 기브온 왕과 살렘 왕과 아둘람 왕과 라기스 왕과 하자르 왕과 그들이 복속하고 있던 모든 가나안 왕들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24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내게로 오너라. 우리가 야곱의 자손들에게로 가서 내가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조약을 맺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자손들이 세겜과 그 주변 성읍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의 모든 땅이 그들의 칼에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듣고 본 바와 같다.
25 그리고 내게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고, 왕은 셋의 지휘관을, 지휘관은 셋의 부하 장교를 데리고 오십시오.
26 너희 모두 헤브론으로 오라. 우리가 함께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도록 간청하자.
27 그 모든 왕들은 헤브론 왕이 보낸 사람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 헤브론 왕의 조언과 명령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야곱의 자손들과 화평을 맺으려고 그들에게 가려고 모였으나, 야곱의 자손들은 돌아가서 세겜에 있는 자기 몫의 밭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이 가나안 왕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28 야곱의 아들들은 돌아와서 자기 밭에 열흘 동안 머물렀는데, 아무도 그들과 싸우러 오지 않았다.
29 야곱의 자손들은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두 모여 세겜 성읍으로 갔고, 그곳에 머물렀다.
30 사십 일이 지나자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헤브론의 왕 야비아에게 이르렀다.
31 야곱의 자손과 화평을 맺으려고 헤브론에 온 왕의 수는 스물한 명이었고, 그들과 함께 온 장군의 수는 육십구 명이었고, 그들의 군사는 백팔십구 명이었다. 이 모든 왕과 그들의 군사는 헤브론 산에서 쉬었다.
32 헤브론 왕은 세 명의 장군과 아홉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 왕들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서 화평을 맺기로 결심하였다.
33 그들이 헤브론 왕에게 이르되, 자네는 부하들과 함께 우리 앞에 가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네 뒤를 따라가서 자네의 말씀을 확증해 주겠소. 헤브론 왕은 그대로 하였더라.
34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헤브론에 모여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 명의 종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왕들을 정탐하고 그들의 신하들이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고 만일 적으면 모두 계수하여 돌아오라 하였더라.
35 야곱의 신하들이 은밀히 그 왕들에게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명령한 대로 행하고 그날 야곱의 아들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그 왕들에게 갔더니 그 수가 적더라 우리가 다 세어 보니 왕과 백성을 합쳐 이백팔십팔 명이었더라 하더라
36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수가 적으니 우리 모두가 다 나가지 않겠다." 하고, 아침에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들 중 육십이 명을 택하여 야곱의 아들 열 명이 그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은 "저들이 우리와 싸우러 오는구나!" 하고 무기를 차고 나갔는데, 사실 그들은 그들이 화평을 이루러 오는 줄을 알지 못했다.
37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종들과 함께 세겜 성문으로 가서 그 왕들을 향하였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38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보라, 헤브론 왕과 그의 세 명의 장군과 아홉 명의 부하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치러 길을 따라 오고 있었다. 야곱의 자손들은 눈을 들어 멀리서 헤브론 왕 야피아와 그의 장군들이 자기들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세겜 성문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39 헤브론 왕은 그의 장군들과 함께 계속 전진하여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까이 이르렀고, 그와 그의 장군들은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헤브론 왕은 그의 장군들과 함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 앉았다.

40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르되 헤브론 왕이여 무슨 일이 있사오며 오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이까? 헤브론 왕이 야곱에게 이르되 주여 간청하건대 오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당신과 화평을 맺으러 왔습니다.
41 야곱의 자손들은 헤브론 왕의 말을 듣고 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야곱의 자손들은 헤브론 왕을 믿지 않았고, 그가 자기들을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2 헤브론 왕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왕은 야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군이시여, 부디 이 모든 왕들이 평화로운 뜻으로 주님께 온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들은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전쟁 무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군과 주군의 아들들에게 평화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43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모든 왕들을 보내어라. 만일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들이 각자 우리 앞에 한 사람씩 나오게 하라. 만일 그들이 무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평화를 구하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44 헤브론 왕 야피아가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왕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모두 야곱의 아들들 앞에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그 왕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45 우리는 당신께서 칼과 매우 강한 팔로 아모리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고, 우리는 우리 목숨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46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온 것은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함이니, 이제 너희도 우리와 평화와 진실의 언약을 맺어,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47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정말로 평화를 구하러 온 것임을 알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48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족속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날부터 가나안 족속을 조공으로 삼았다.
49 그 후에 이 왕들의 모든 장군들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곱 앞에 나아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선물을 손에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50 그러자 이 왕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간청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일곱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여 빼앗은 모든 것, 곧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가축과 모든 전리품을 돌려주고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51 그러자 이 모든 왕들이 다시 야곱의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 당시에 많은 선물을 보내거나 가져왔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이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돌려보내 주었고, 그들은 평화롭게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자손들도 그들의 고향인 세겜으로 돌아갔습니다.
52 그날부터 야곱의 자손과 가나안 왕들 사이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평화가 지속되었다.

제 41 장

1 그리고 해가 바뀔 무렵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떠나 아버지 이삭이 계신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거주했지만, 양 떼와 소 떼는 매일 세겜에서 먹였습니다. 그 당시 세겜에는 좋고 기름진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가족은 헤브론 골짜기에 거주했습니다.
2 그 당시, 야곱의 생애 106 년째 되던 해,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온 지 10 년째 되던 해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헤브론에서 죽을 때 51 세였습니다.
3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의 굴에 그녀를 장사 지냈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서 매장지로 사들인 곳이었다.
4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 골짜기에 거주하였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그들의 용맹함을 알았으며 그들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다.
5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어려서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서 벌어진 전투에 형제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6 요셉은 형들의 힘과 위대함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높이 여겼으나, 자기는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 세웠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이는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은 요셉을 향한 사랑으로 그에게 여러 색깔의 옷을 만들어 주었다.
7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욱 교만해져서 형제들에 대한 악담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8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온종일 그에게 평화롭게 말하지 못했다.
9 요셉은 열일곱 살이었는데, 여전히 자기 형제들보다 자신을 높이 여기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생각했다.
10 그때에 그는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십시오. 우리 모두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 단이 일어나 땅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형들의 곡식 단이 그것을 둘러싸고 절했습니다."
11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은 무슨 뜻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12 그리고 요셉이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니,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듣고 입맞추며 축복하였다.

13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고 입맞추며 그를 매우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여 더욱 미워하였다.
14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15 야곱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과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이 일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꾼 이 꿈은 무슨 뜻이냐? 너보다 나이 많은 형들 앞에서 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냐?"
16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네 어머니와 네 형제 열한 명이 와서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느냐?
17 그의 형제들은 그의 말과 꿈 때문에 그를 시기하여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그 꿈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18 야곱의 아들들이 어느 날 세겜에 있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갔는데, 그때 그들은 아직 목자였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 떼를 치던 중에 지체하여 가축을 모으는 시간이 지나 버렸고, 그들은 도착하지 못했다.
19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늦게 도착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오는 것이 늦어진 건가?'
20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네 형제들이 오늘 세겜에서 소를 뜯고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어서 가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네 형제들과 양떼의 안부를 내게 가져오라 하였더라
21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갔으나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려고 세겜 근처 들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22 그때 주의 천사가 밭으로 가는 길에서 방황하는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식을 취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형제들이 여기서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도단으로 가서 양식을 취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23 요셉은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도단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로 가서 보니 그들이 도단에서 양 떼를 치고 있었다.
24 요셉이 형들에게 나아가자, 그가 가까이 이르기도 전에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25 시므온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꿈꾸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를 죽이고 광야에 있는 구덩이 중 하나에 던져 넣읍시다. 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그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사나운 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말할 것입니다."
26 르우벤이 형들이 요셉에 관하여 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찌 우리 조상 야곱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 죽게 하되, 손을 뻗어 그의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것이었다.
27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러 그들 앞에 앉으니, 형들이 일어나 그를 붙잡아 땅에 엎드려 내리치고 그가 입고 있던 여러 색깔의 옷을 벗겼다.
28 그들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은 없고 뱀과 전갈만 있었다. 요셉은 구덩이 안의 뱀과 전갈을 두려워했다. 요셉이 큰 소리로 부르짖자,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구덩이 가장자리에 숨기셔서 요셉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셨다.
29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제들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으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나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뼈와 살이 아니며, 너희의 아버지 야곱은 나의 아버지 아니냐? 어찌하여 오늘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 아버지 야곱을 존경할 수 있느냐?"
30 그리고 그는 구덩이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자기 형제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유다와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가 나를 몰아 넣은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라. 오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라.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들이며 내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이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그들이 고아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굶주린 자를 보면 빵을 주고, 목마른 자를 보면 물을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 주지 않았느냐?"
31 그런데 어찌 당신들이 당신들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당신들은 내 아버지 때문에라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32 요셉이 구덩이에서 이 말을 하였으나 그의 형제들은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은 구덩이에서 울부짖었다.
33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오늘 내 형들이 내게 행한 일과 오늘 내게 한 말을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더라.
34 그의 모든 형제들이 구덩이 안에서 그가 부르짖고 우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부르짖음과 우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구덩이에서 나와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 42 장

1 그리고 그들은 가서 활 쏘는 거리만큼 떨어진 맞은편에 앉아 빵을 먹으며 그를 어떻게 할지, 죽일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돌려보낼지 의논했습니다.

2 그들이 의논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이스마엘 자손 무리가 길르앗 길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3 유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에게 행할 계획은 이러하니라. 보라,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다.
4 그러므로 이제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자. 우리 손으로 그를 해치지 말자. 그들이 그를 데리고 갈 것이고, 그는 그 땅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를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제들은 이 제안이 마음에 들어 유다의 말대로 행하였다.
5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의논하고 있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미디안 상인 일곱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 눈을 들어 요셉이 갇혀 있던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세히 보니 온갖 새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6 미디안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그 구덩이로 달려갔는데, 그들은 그 안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덩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니, 용모가 단정하고 멋진 젊은이가 있었다.
7 그들이 요셉을 불러 이르되 너는 누구이며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누가 너를 이 광야의 구덩이에 묻었느냐 하니라 그들이 다 힘을 합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데리고 나와 길을 가다가 그의 형제들을 지나갔다.
8 그러자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종을 데려가 버리려 하느냐? 우리가 이 젊은이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그가 우리에게 반역했기 때문인데, 너희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 버리다니! 그러니 우리 종을 돌려주어라."
9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 종이냐, 아니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냐? 너희가 다 그의 종이냐? 그가 너희보다 더 잘생기고 용모가 좋으니 어찌하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10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도, 당신에게 귀 기울이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구덩이에서 그 젊은이를 발견하고 데려왔으니, 우리는 계속 가겠습니다.
11 야곱의 모든 아들이 그들에게 나아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종을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려 합니까?"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치며 칼을 뽑아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려고 다가왔습니다.
12 그러자 시므온이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뛰어올라 칼을 뽑아 미디안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 앞에서 무서운 함성을 질렀으니, 그 함성이 멀리까지 들리고 땅이 흔들렸다.
13 미디안 사람들은 시므온과 그의 외침 소리 때문에 두려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몹시 겁에 질렸습니다.
14 시므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나는 히브리 사람 야곱의 아들 시므온이라 내가 내 형과 함께 세겜 성읍과 아모리 사람들의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와 같이 복을 내리시리니 너희 형제 미디안 사람들과 가나안 왕들이 너희와 함께 온다 해도 나와 싸울 수 없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이제 네가 데려간 그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 줄 것이다.
16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은 시므온을 더욱 두려워하여 야곱의 자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처로운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 당신은 분명히 그 젊은이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반역하는 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18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늠름한 것을 보고, 그를 사들이고 싶어 그의 형제들에게서 그를 사려고 애썼다.
19 야곱의 아들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형제 요셉을 은 스무 냥에 팔았습니다. 그들의 형제 르우벤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길르앗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20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사들인 것을 후회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용모가 아름답고 늠름한 이 젊은이를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데려왔단 말인가?"
21 어쩌면 이 젊은이는 히브리 땅에서 납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습니까? 만일 그가 수색 끝에 우리 손에 잡히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22 분명히 그들은 강인하고 힘센 사람들이 그를 우리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의 힘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힘과 팔을 휘둘러 그를 그의 땅에서 빼앗아 왔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불한 적은 값에 그를 우리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23 그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그들이 보니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에 보았던 이스마엘 사람들의 무리가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이 젊은이를 우리 쪽으로 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무리에게 팔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 지불했던 얼마 안 되는 돈만 받고, 그의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24 그들이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 자손에게 이르렀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고 그 돈은 그들이 요셉을 위해 그의 형제들에게 준 은 스무 냥이었다.
25 미디안 사람들은 길르앗으로 가는 길을 갔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붙잡아 낙타 한 마리에 태우고 이집트로 데려갔다.

26 요셉은 이스마엘 자손이 이집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낙타를 타고 가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낙타에서 내려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울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외쳤습니다.
27 그러자 이스마엘 사람 중 하나가 일어나 요셉의 뺨을 쳤다. 요셉은 계속해서 울었다. 요셉은 길에서 지쳐 있었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길에서 요셉을 때리고 괴롭히며, 그가 울음을 그치도록 두렵게 했다.
28 여호와께서 요셉의 야망과 그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에게 어둠과 혼란을 내리시며 그를 친 자의 손이 다 말라 버렸더라.
29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였더라. 그들은 이 일이 요셉 때문에 일어난 줄을 알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길을 갔고, 라헬이 묻힌 에브랏 길을 지나갔다.
30 요셉이 어머니의 무덤에 이르자, 그는 서둘러 달려가 무덤 위에 엎드려 울었다.
31 요셉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제 깨어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노예로 팔려 갔는지,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지 보십시오."
32 오, 일어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시고, 저의 고난 때문에 저와 함께 울어 주시고, 제 형제들의 마음을 보소서.
33 어머니여, 깨어나소서, 잠에서 깨어나 저를 위해 싸워 주소서. 오, 그들이 어찌하여 내 옷을 벗기고 나를 두 번이나 노예로 팔아넘겼으며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하였는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줄 자가 아무도 없도다.
34 너희는 일어나서 그들에 대한 너희의 소송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고 누구를 정죄하실지 보아라.
35 오 나의 어머니여,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셔서 오늘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분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36 요셉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며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추고, 마음의 비통함에 무덤 위의 돌처럼 굳어 버렸습니다.
37 요셉은 땅 아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마음이 쓰라리고 울며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8 내 아들,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네 울음소리와 애곡 소리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며, 네 고통을 알고 있다. 네 일로 내가 슬퍼하며, 내 슬픔에 더해 큰 슬픔이 더해졌다.
39 그러므로 내 아들 요셉아, 주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모든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40 내 아들아, 일어나 네 주인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녀는 요셉에게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하며 가만히 있었다.
41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울었다. 그 후에 이스마엘 사람 중 하나가 그가 무덤 위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내고 때리고 저주했다.
42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43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종이 아니냐?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만일 네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푼돈에 두 번이나 종으로 팔리지 않았겠느냐?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서 요셉을 계속해서 때리고 채찍질하였더니 요셉은 통곡하였다.
44 여호와께서 요셉의 고난을 보시고 다시 그들을 치시고 징벌하시며 땅 위에 흑암을 덮으시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땅이 천둥과 큰 바람 소리에 흔들리니 사람들이 두려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더라.
45 그러자 짐승들과 낙타들이 멈춰 섰고, 그들이 그것들을 끌고 가려 했으나,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그것들을 치니, 그것들은 땅에 엎드러졌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였다.
46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도 이 종을 괴롭힌 죄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이 모든 일이 이 종을 괴롭힌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47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요셉에게 간청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 가운데서 이 죽음을 없애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48 요셉은 그들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주님께서 요셉의 말을 들으시고 요셉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짐승들이 땅에서 일어나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사나운 폭풍이 잦아들고 땅이 잔잔해졌으며,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요셉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9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재앙이 그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영혼에 이런 죽음을 불러들여야 합니까? 이 종을 어떻게 할지 의논해 봅시다."
50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분명히 그는 우리에게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주라고 하셨으니, 이제 가서 그를 데려가서 그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그의 가족에게서 우리가 그를 위해 지불한 값을 받고 떠나자 하니라.

51 그러자 한 사람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조언은 참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길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고 우리는 우리 길에서 벗어날 수 없나이다.
52 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책략이니 우리가 이 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오늘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에 이르면 그를 거기서 값비싼 값에 팔아 그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라 하였더라.
53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 일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행하여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여정을 계속하였다.

제 43 장

1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그들은 요셉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자기들의 행위를 뉘우치고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2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르우벤은 구덩이 곁에 서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요셉! 요셉!" 하고 불렀으나 아무도 대답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자 르우벤이 이르되 요셉이 두려움에 질려 죽었거나 뱀이 그를 죽였으리라 하더라. 르우벤이 구덩이로 내려가 요셉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나왔더라.
4 그러자 르우벤이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거기 없는데, 만일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화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은 요셉 때문에 슬퍼하며 아버지를 화해시킬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버지는 내게서 아이를 찾으려고만 하십니다."
5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였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워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화해시킬 구실을 찾으려고 앉아 있느니라 하였느니라
6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에 잠겨 무덤으로 가게 하였느냐? 너희가 행한 것은 좋지 아니하도다.
7 르우벤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일어나 야곱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일을 우리 아버지나 그의 집안에 말하거나 이 땅의 자녀들에게 알리는 자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칼로 죽일 것이다.”
8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맏이까지 서로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마음속에 숨겼다.
9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앉아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을 정하고 생각해 내려고 했습니다.
10 잇사갈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찢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담그라.
11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 보내십시오.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면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으니 그의 옷을 찢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피가 그의 옷에 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잇사갈의 충고가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았으므로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잇사갈이 권고한 대로 행하였다.
13 그들은 서둘러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찢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겉옷을 담갔다가 흙바닥에 밟아 뭉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를 통해 그 겉옷을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4 우리가 가축을 몰아 세겜으로 가는 길까지, 더 나아가서는 광야 길에서 피와 먼지로 물든 이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외투가 당신 아들의 것인지 아닌지 아십시오.
15 납달리는 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고, 아버지는 그에게 외투를 주며 형들이 명령한 모든 말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16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돌처럼 굳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17 야곱은 서둘러 자기 종 하나를 아들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양 떼와 함께 길을 오고 있었다.
18 야곱의 아들들이 저녁 무렵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그들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았다.
19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오늘 갑자기 내게 무슨 재앙을 가져왔느냐?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양 떼를 모으고 나서 광야 길을 따라 세겜 성읍까지 이르다가 땅에 피 묻은 이 외투를 주웠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께 사람을 보내어 무슨 일인지 아느냐 하고 여쭈었노라 하니라
20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아들의 외투가 맹수가 뜯어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내가 오늘 그를 보내 너희와 양 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소식을 전해 오라고 했는데, 내 명령대로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21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분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고, 우리가 당신을 떠난 후 지금까지 그분을 본 적도 없나이다.
22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일어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통곡하며 슬피 울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3 내 아들 요셉아, 오 내 아들 요셉아, 내가 오늘 너를 네 형제들의 안녕을 위하여 보냈는데, 보라, 네가 끔찍하게 살해당했구나. 내 손으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24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죽어서 너무나 슬프구나. 살아 생전 너는 내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데, 이제 네 죽음은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25 0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들 요셉아, 네가 떠나간 것이 너무나 슬프구나. 내 아들 요셉아, 너는 어디 있느냐? 어디로 끌려갔느냐? 일어나, 일어나서 와서 너를 향한 나의 슬픔을 보렴, 내 아들 요셉아.
26 이제 와서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세어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노여움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27 0 내 아들 요셉아, 어찌하여 네가 넘어졌느냐? 세상 창조부터 오늘까지 그분께 넘어진 자가 없었도다. 네가 원수의 잔혹한 살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노니, 이는 내 죄가 많기 때문이로다.
28 이제 일어나서 내 아들아,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아라. 비록 내가 너를 키우지도, 빚지도, 생기를 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뼈를 만드시고 살을 입히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내게 주셨다.
29 이제 진실로 너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서 데려가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네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니라
30 야곱은 요셉에 관하여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하며 통곡하였다. 그는 땅에 엎드려 가만히 있었다.
31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의 고난을 보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뉘우치며 통곡하였다.
32 유다가 일어나 아버지의 머리를 땅에서 들어 올려 자기 무릎 위에 얹고 아버지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 주었다. 유다는 아버지의 머리가 돌처럼 미동도 없이 자기 무릎 위에 얹혀 있는 동안 크게 통곡했다.
33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보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며, 야곱은 마치 돌처럼 미동도 없이 땅 위에 누워 있었다.
34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과 종들과 종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를 둘러싸고 위로하려 하였으나, 그는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다.
35 야곱의 온 가족이 일어나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고난 때문에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이 소식이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르러, 그는 요셉과 그의 온 가족을 생각하며 통곡하였다. 그는 자기가 살던 헤브론에서 나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곱을 위로하러 갔으나,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다.
36 그 후에 야곱이 땅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칼과 활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내 아들의 시신을 찾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를 장사 지내도록 하라."
37 또한 너희는 짐승들 가운데서 찾아 사냥하여 먼저 오는 것을 잡아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나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짐승을 너희 앞에 준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38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각자 칼과 활을 손에 들고 짐승을 사냥하러 들판으로 나갔다.
39 야곱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며 집 안을 서성거리면서 손을 치며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하고 말했다.
40 야곱의 아들들이 짐승을 잡으러 광야로 갔는데, 늑대 한 마리가 그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그 늑대를 잡아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늑대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41 야곱은 아들들의 손에서 그 짐승을 빼앗아 들고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손에 붙잡고 괴로운 마음으로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내 아들 요셉을 삼켰느냐? 어찌하여 너는 땅의 하나님도, 내 아들 요셉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42 너는 아무 죄 없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으니, 그는 아무런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그 일로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43 여호와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려고 짐승의 입을 열어 말씀으로 야곱에게 대답하시니, 짐승이 이렇게 말하였다.
44 우리를 땅 위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주군이시여,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시는 한, 저는 당신의 아들을 보지 못했고, 그를 갈기갈기 찢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서 떠난 제 아들을 찾으러 먼 땅에서 왔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45 내가 오늘 아들을 찾으러 들판에 나왔는데, 당신의 아들들이 나를 발견하고 붙잡아 내 슬픔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나를 당신 앞에 데려왔으니,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46 그러므로 이제 인자야, 내가 네 손에 있으니 오늘 네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네 아들을 보지도 않았고, 그를 갈기갈기 찢지도 않았으며, 평생 사람의 살을 내 입에 넣지 않았다.
47 야곱은 그 짐승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그 짐승을 손에서 놓아주니 그 짐승은 제 갈 길을 갔다.
48 야곱은 날마다 요셉을 위하여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였고,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다.

제 44 장

1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곧 그의 형제들에게서 요셉을 산 자들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러 이집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메단의 자손 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2 그러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종을 우리에게서 사겠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보니 요셉은 매우 잘생긴 젊은이였고, 그들은 그를 스무 세겔에 샀습니다.
3 이스마엘 자손은 이집트로 가는 여정을 계속했고 메다인 자손도 그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메다인 자손은 서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는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자기 앞에 서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관리할 훌륭한 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4 그러므로 이제 그를 그에게 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자. 만일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말이다.
5 메다 사람들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종을 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를 주님께 팔겠습니다."
6 그러자 보디발이 말했습니다.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내가 그를 보고, 만일 그가 마음에 들면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7 메다 사람들이 가서 요셉을 데려와 보디발 앞에 세웠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보고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값을 얼마로 요구하느냐?"
8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를 위해 은 사백 세겔을 원합니다.” 하니, 보디발이 말하기를 “그를 판 기록을 가져오고 그의 이력을 알려주면 은 사백 세겔을 주겠다. 혹시 도둑맞은 것일지도 모르니, 이 젊은이는 노예도 아니고 노예의 아들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용모가 훌륭하고 잘생겼다.” 하니,
9 그러자 메다 사람들이 가서 그를 자기들에게 판 이스마엘 사람들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그는 노예인데 우리가 그들을 샀습니다.” 하였습니다.
10 보디발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메다 사람들에게 은을 주면서 한 말을 듣고, 메다 사람들은 은을 받아 길을 떠났고, 이스마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11 보디발은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 호감을 얻었고,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여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1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을 복 주셨더라.
13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 소유를 모두 요셉에게 맡겼으니, 요셉은 물건의 출입을 관리하는 자였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14 요셉은 열여덟 살이었는데,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난 청년이었으며,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15 그때 요셉은 주인의 집에 거닐며 주인을 시중들고 있었는데, 주인의 아내 젤리가가 눈을 들어 요셉을 보니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진 젊은이였다.
16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탐냈고, 그녀의 마음은 요셉에게 쏠려 날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젤리가는 날마다 요셉을 설득했지만, 요셉은 눈을 들어 주인의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7 그러자 젤리가가 요셉에게 이르되, "당신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모든 종들을 다 살펴보았으나 당신처럼 아름다운 종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 요셉이 그녀에게 이르되,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음이 분명합니다."
18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눈으로 이집트의 모든 주민, 남자와 여자를 다 매료시켰도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 눈이 아름답지만, 만일 당신이 무덤에서 그 눈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 눈에서 눈을 돌릴 것이니라.
19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 좋은지! 부디 집에 있는 하프를 가져다가 손으로 연주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20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찬양할 때 내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 좋은가!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머리카락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보십시오, 집에 금빗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빗으십시오.
21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게 이런 말을 그만하고 일어나 네 집안일을 돌보라.
22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의 말씀과 소원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요셉을 자기에게로 데려올 수 없었고, 요셉은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23 젤리가는 마음속으로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젤리가는 그의 앞에 와서 앉아 날마다 그를 유혹하여 자기와 동침하거나 자기를 보기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4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만일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사형에 처하고 쇠멍에를 씌우겠다 하더라
25 요셉이 그녀에게 이르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수의 사슬을 풀어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감옥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6 그녀가 그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기에, 그녀의 욕망이 그녀를 심한 병에 걸리게 했다.
27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쇠약해졌습니까? 당신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왕 앞에서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자인데, 어찌 마음이 원하는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28 그러자 젤리가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너희가 내가 처한 이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하고 여종들에게 모든 여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여 잔치를 베풀매 모든 여자들이 젤리가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더라
29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레몬 껍질을 벗겨 먹으라고 칼을 주었고, 요셉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고 그들 앞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이 그들 앞에 나오자 모든 여인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든 칼로 손을 베었고, 그들의 손에 든 레몬에는 피가 가득 찼습니다.
30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요셉의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31 젤리가는 그들이 한 일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레몬을 먹으라고 주었는데 너희는 모두 손을 베었구나."
32 그러자 모든 여자가 자기 손을 보니 온통 피투성이였고, 그 피가 옷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르되 네 집에 있는 이 종이 우리를 이겼는데,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었도다 하더라.
33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당신들도 그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가 늘 내 집에 있고 날마다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로 인해 쇠약해지거나 심지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4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 말이 옳으니라. 누가 집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는 네 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고, 이 일로 네 영혼이 망하게 하려느냐?
35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를 설득하려고 애쓰지만 그는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36 젤리가는 요셉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몹시 병들었고, 그로 인해 심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젤리가와 그녀의 남편의 집안 사람들은 젤리가 요셉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7 그러자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병들고 쇠약해지셨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한 것은 없으십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병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38 그러자 모든 여인들과 그녀의 친구들이 날마다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오직 요셉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니,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몰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의 말을 듣고 죽음을 면하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39 젤리가는 요셉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40 어느 날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젤리가가 몰래 들어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다. 요셉이 일어나 그녀에게 맞섰는데, 그는 그녀보다 힘이 세서 그녀를 땅에 넘어뜨렸다.
41 젤리가는 그를 향한 마음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울며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와 괴로움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42 너는 나만큼 아름답거나 나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나 들어본 ...
43 만일 네 주인이 너를 벌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라면, 왕이 살아 계시니 이 일로 네 주인에게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베푼 영광을 생각하여 내 죽음을 미뤄 달라고 부탁해라. 어찌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 그녀는 말을 멈췄다.
44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서 물러가서 이 일을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에 있는 내 물건을 모르십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45 그분은 또한 그의 집에서 나를 크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집의 관리자로 세우셨으며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나의 주인은 당신, 곧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내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남편에게 이처럼 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46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떠나서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그러나 젤리가는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날마다 그를 설득하여 자기 말을 듣게 하려 하였다.
47 그 후에 이집트 시내가 사방으로 가득 차 넘쳤고,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이 나왔으며, 왕과 방백들도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며 나갔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큰 잔치였고, 시호르 바다가 범람한 때의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즐거워하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48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대로 잔치를 벌이려고 강가로 나갈 때, 보디발의 집안 사람들도 모두 그들과 함께 갔으나, 젤리가는 몸이 좋지 않다며 가지 않겠다고 하고 집에 혼자 남았으며, 집에는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49 그녀가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귀족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은과 금으로 상감한 오닉스 보석을 달고, 온갖 여성 정결 세정액으로 얼굴과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과 집에 계피와 유향을 뿌리고, 몰약과 알로에를 바르고, 성전 입구, 곧 요셉이 자기 일을 하러 지나다니는 통로에 앉았다. 그때 요셉이 밭에서 돌아와 주인의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다.
50 예수께서 지나가셔야 할 곳에 이르러 젤리가 행한 모든 일을 보시고 돌아서셨다.
51 젤리가는 요셉이 자기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요셉, 무슨 일이냐? 일하러 돌아오너라. 보라, 네가 네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52 요셉이 돌아와 집에 이르러 자기 자리로 가서 평소처럼 주인의 일을 하려고 앉았는데, 그때 젤리가가 왕자의 옷을 입고 그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는데, 그녀의 옷에서 나는 향기가 멀리까지 퍼졌다.
53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요셉과 그의 옷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왕께서 살아 계시는 한, 만일 네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서둘러 다른 손을 뻗어 옷 속에서 칼을 꺼내 요셉의 목에 대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죽을 것이다.”
54 요셉은 젤리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젤리가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도망치려는 와중에 젤리가가 붙잡은 옷이 찢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옷을 젤리가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55 젤리가는 요셉의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그가 그 옷을 자기 손에 남겨두고 도망친 것을 알고, 자기에 대한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일어나서 교활하게 행동하여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었다.
56 그리하여 그녀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 곁에 두고, 집안 사람들이 강가로 나가기 전에 자기가 병들어 앉아 있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집에 있던 한 젊은이를 불러 집안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57 그녀가 그들을 보자 큰 소리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주인이 어떤 히브리인을 내 집에 데려왔는지! 오늘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왔습니다."
58 당신이 나간 후에 그가 그 집에 와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나에게 와서 나를 붙잡고 나와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59 그러자 나는 그의 옷을 붙잡아 찢고 큰 소리로 그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큰 소리로 외치자 그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내 앞에서 도망쳤다.
60 그러자 그 집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셉에게 몹시 분노하여 그의 주인에게 가서 요셉이 꾸민 말을 일러바쳤다.
61 그러자 보디발이 격분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술 장수를 내 집에 데려왔습니까? 오늘 그가 나와 함께 놀려고 와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였더라.
62 그러자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대로 요셉을 매질했다.
63 그들이 요셉을 때리는 동안, 요셉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무죄함을 아시는데, 어찌하여 제가 오늘 거짓으로, 주님께서 아시는 이 할례받지 않은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려 합니까?"
64 보디발의 부하들이 요셉을 때리고 있을 때에 요셉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통곡하였다. 그때에 열한 달 된 아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의 입을 열어 주시니, 요셉을 때리고 있던 보디발의 부하들 앞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65 당신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며, 어찌하여 그에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십니까? 제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이와 같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66 그러자 그 아이는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 주었고, 젤리가가 요셉에게 날마다 한 말을 모두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67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크게 놀라며, 아이는 말을 그치고 잠잠해졌다.
68 그러자 보디발은 아들의 말에 몹시 부끄러워하며 부하들에게 요셉을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명령했고, 부하들은 요셉을 때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69 그러자 보디발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에게 속한 재판관들인 제사장들 앞에 데려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0 보디발과 요셉이 왕의 재판관인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 이르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종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판결을 내려 주소서.
71 제사장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주인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그렇지 아니니라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내 외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저지르느냐 하였느냐
72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시고 주의 목숨이 살아 계시니, 주께서 부인에게서 들으신 말씀은 거짓입니다. 오늘 일은 이와 같았습니다.
73 내가 주의 집에 머문 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셨거나, 내 목숨을 요구하실 만한 일을 보셨습니까?
74 제사장들이 보디발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져오게 하여 우리가 그 찢어진 부분을 보게 하소서. 만일 찢어진 부분이 옷 앞쪽에 있다면 요셉의 얼굴이 아내를 마주 보고 있었고 아내가 그를 붙잡아 자기에게 오게 한 것이니, 당신의 아내는 이 모든 말을 속임수로 한 것이니라.
75 그들이 요셉의 옷을 재판관인 제사장들 앞에 가져왔을 때, 그들은 요셉의 앞쪽에 찢어진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재판관 제사장들은 여인이 그를 꽉 쥐어 상처가 난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이 종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를 통해 당신의 아내에 대한 소문이 퍼졌으므로 감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76 보디발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십이 년을 지냈습니다.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의 아내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그에게 말을 걸며 그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젤리가는 날마다 요셉이 갇혀 있는 집에 찾아가 그를 설득했습니다. 젤리가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겠습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78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내가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습니다. 하니 그녀가 이르되 만일 네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네 눈을 뽑고 네 발에 쇠사슬을 채워 네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더라.
79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온 땅의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 주시며,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80 젤리가가 요셉을 설득하여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유혹하러 가지 않았다. 요셉은 여전히 감금소에 갇혀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모든 형제들은 그 당시 요셉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위로받기를 거부했고, 그 날들 내내 큰 소리로 울며 애통했다.

제 45 장

1 그 해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간 해였는데,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팀나로 가서 가나안 사람 아비의 딸 엘리우람을 아내로 맞이한 해였다.
2 르우벤의 아내 엘리우람은 임신하여 하녹, 팔루, 체츠론, 카르미 네 아들을 낳았고, 그의 형제 시므온은 그의 누이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여 메무엘, 야민, 오핫, 야킨, 소갈 다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3 그 후에 그는 가나안 여인 부나에게 갔으니, 이 부나는 시므온이 세겜 성읍에서 사로잡아 온 바로 그 부나이다. 부나는 디나보다 먼저 가서 그녀를 시중들었는데, 시므온이 그녀에게 갔더니 그녀가 그에게 사울을 낳았다.
4 그때 유다가 아둘람으로 가서 히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 알리얏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슈아의 딸이었다. 유다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동침하여 알리얏이 유다에게 에르, 오난, 실로 세 아들을 낳았다.
5 레위와 잇사갈은 동방 땅으로 가서 에벨의 손자 요크탄의 아들 요밥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요밥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맏딸의 이름은 아디나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아리다였다.
6 레위는 아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잇사갈은 아리다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아디나는 레위와의 사이에서 게르손, 케핫, 므라리 세 아들을 낳았다.
7 아리다는 잇사갈에게 톨라, 푸바, 욥, 사므론 네 아들을 낳았고, 단은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사람 하무단의 딸 아플랄렛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
8 아플랄렛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의 아내 아플랄렛을 기억하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쿠심이라 지었습니다.
9 갓과 납달리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나홀의 손자 우스의 아들 아무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10 아무람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므리마요, 둘째 딸의 이름은 우짓이라. 납달리는 므리마를, 갓은 우짓을 아내로 맞아들여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갔다.
11 메리마는 납달리에게 야흐젤, 구니, 야제르, 살렘 네 아들을 낳았고, 우짓은 갓에게 제피온, 하기, 슈니, 에즈본, 에리, 아로디, 아랄리 일곱 아들을 낳았다.
12 아셀은 나가서 이스마엘의 손자 하닷의 아들 아플랄의 딸 아돈을 아내로 맞아들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
13 그 무렵 아셀의 아내 아돈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아돈이 죽은 후에 아셀은 강 건너편으로 가서 셈의 손자 에벨의 아들 아비마엘의 딸 하두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4 그 젊은 여자는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으며, 셈의 손자 엘람의 아들 말키엘의 아내였습니다.
15 하두라는 말키엘에게 딸을 낳았는데, 말키엘은 그 딸의 이름을 세라크라 지었다. 그 후에 말키엘이 죽자 하두라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머물렀다.
16 아셀의 아내가 죽은 후에 야곱은 가서 하두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딸 세락도 함께 데려왔는데, 세 살이었던 그 소녀는 야곱의 집에서 길러졌습니다.
17 그 소녀는 용모가 아름다웠고 야곱 자손의 거룩한 길을 따라 걸었으며, 부족함이 없었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
18 아셀의 아내 하두라는 임신하여 임나, 이쉬바, 이쉬비, 베리아 네 아들을 낳았다.
19 제불론은 미디안으로 가서 아비다의 아들 미디안 사람 몰라드의 딸 메리샤를 아내로 맞아들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
20 므루사는 스불론 세렛에게 엘론과 야클르엘을 낳았고 세 아들.
21 야곱이 조바의 아들 데라의 손자 아람에게 사람을 보내니, 아람이 그의 아들 베냐민을 위하여 아람의 딸 메갈리아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메갈리아는 야곱의 집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베냐민은 열 살 때 아람의 딸 메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22 메갈리아는 베냐민과 결혼하여 벨라, 베헤르, 아스벨, 게라, 나아만 다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쇼므론의 딸 아리밧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열여덟 살이었습니다. 아리밧은 베냐민과 결혼하여 아키, 보스, 무핌, 후핌, 오르드 다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23 그 무렵 유다는 셈의 집에 가서 셈의 아들 엘람의 딸 다마르를 그의 맏아들 에르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24 에르가 그의 아내 타마르에게 이르러 그녀와 결혼하였더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러서는 외적으로 그의 자손을 멸망시켰으니 그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느니라.
25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죽은 후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의 아내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여 네 형을 위해 자손을 낳으라 하였더라

26 오난은 다마르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와 동침하였고, 그의 형과 같은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27 오난이 죽자 유다는 다마르에게 이르되 내 아들 실로가 장성할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라 하니라. 유다는 다마르를 실로에게 시집보내 줄 마음이 없어 이르되 혹시 실로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하였더라.
28 그리고 타마르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머물렀고, 얼마 동안 아버지 집에 있었다.
29 그리고 그 해가 바뀌는 때에 유다의 아내 알리야트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위해 위로를 받았고, 알리야트가 죽은 후에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갔습니다.
30 그리고 타마르는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갔다는 것과 실로가 장성했는데 유다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31 그리고 다마르는 일어나 과부 시절 입던 옷을 벗고, 면사포를 쓰고 온몸을 가린 채 팀나로 가는 길에 있는 큰 길가로 나가 앉았다.
32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고 데려와서 그녀에게 이르러 임신하게 하였더니 해산할 때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그가 첫째 아이의 이름을 페레스라 하고 둘째 아이의 이름을 자라라라 하였더라.

제 46 장

1 그 당시 요셉은 아직 이집트 땅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2 그때 바로의 시종들이 그의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이집트 왕에게 속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었다.
3 술 맡은 관원이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 앞에 놓아 마시게 하고, 빵 굽는 사람이 빵을 가져다가 왕 앞에 놓아 먹게 하니,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든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었다.
4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는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술 맡은 자가 가져온 포도주에서 파리가 많이 나오고 빵 굽는 자가 가져온 빵에서는 질산염 돌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5 그러자 경비대장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들을 섬기는 시종으로 세웠고, 바로의 신하들은 일 년 동안 감금되었다.
6 그리고 연말에 그들은 갇혀 있던 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평소처럼 그들을 돌보러 갔는데, 보니 그들의 얼굴이 낙담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7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 너희 얼굴이 어찌하여 슬프고 낙심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부디 너희 꿈의 내용을 내게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8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큰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곧 꽃을 피우고 크게 자랐으며, 포도송이가 익어 포도가 되었습니다."
9 내가 포도를 가져다가 즙을 짜서 잔에 담고 바로의 손에 주시니 그가 마시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포도나무에 달린 세 가지는 사흘 동안 먹을 수 있느니라 하니
10 그러나 사흘 안에 왕께서 너를 불러내라고 명하시고 너를 원래 직책으로 복귀시키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처음 술 맡은 관원이었을 때처럼 왕께 포도주를 대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디 내가 은혜를 입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에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 주십시오.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납치되어 이곳에서 노예로 팔려 왔습니다.
11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에 관하여 너에게 전해진 것도 거짓이다. 그들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이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왕께서 처음처럼, 곧 네가 내게 마지막으로 알려준 대로 나를 잘 대해 주신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너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겠다 하더라.
12 빵 굽는 사람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을 보고 다가와서 자기가 꾼 꿈의 전부를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13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서 보니 내 머리 위에 흰 바구니 세 개가 있었고, 보니 맨 위 바구니에는 바로를 위한 온갖 구운 고기가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라 하더라
14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본 세 바구니는 사흘을 의미하는데, 사흘 안에 바로가 네 머리를 베어 나무에 매달 것이며 새들이 네 살을 뜯어먹을 것이니, 이는 네 꿈에서 본 그대로 될 것이다.
15 그 무렵 왕비가 해산할 시기가 되어 이집트 왕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맏아들을 얻었다고 선포했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과 파라오의 관리들과 신하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16 그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바로는 자기 신하들과 신하들, 곧 소알 땅과 이집트 땅의 군대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17 이집트의 모든 백성과 바로의 신하들이 왕의 아들 잔치에 와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왕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였다.
18 그때 왕의 모든 신하들과 신하들은 여덟 날 동안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고, 왕궁에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면서 여덟 날 동안 흥겹게 놀았습니다.
19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약속한 대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셉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벌하시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20 요셉은 그 후로 2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12 년을 채웠다.

제 47 장

1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아 백팔십 세였고, 그의 아들 에서(야곱의 형)는 에돔 땅에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세일 자손 가운데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온 가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헤브론에 살던 곳에서 나와 모두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고, 그곳에서 에서와 그의 아들들을 장막에서 만났다.
3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이삭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아들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4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을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자기 아들 열한 명을 아버지 이삭 앞으로 데려오니라
5 이삭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붙잡아 껴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맞추며 그날 그들을 축복하고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6 이삭도 에서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는 모든 자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 이삭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니 그들이 다 와서 이삭 앞에 앉았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온 땅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내 율례와 내 길을 지키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시니라
8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네 자녀와 네 자녀의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 네가 여호와의 길과 그의 율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너와 네 자손에게 평생토록 복을 주실 것이다.
9 이삭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마치고 숨을 거두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10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아버지 이삭의 얼굴에 엎드려 울었다. 이삭은 백팔십 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들은 그를 막벨라 굴로 옮겼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서 장례지로 사들인 곳이었다.
11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야곱과 에서와 함께 이삭을 장사 지내러 갔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이삭이 죽을 때 그에게 큰 존경을 표했습니다.
12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은 맨발로 돌아서서 통곡하며 걸었고, 마침내 기랴아르바에 이르렀다.
13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아버지 이삭을 헤브론의 기랴아르바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는데, 왕의 장례식처럼 매우 정중하게 장사 지냈다.
14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에서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크게 슬퍼하며 그를 장사 지내고 여러 날 동안 애도하였다.
15 이삭이 죽자, 그는 그의 가축과 소유물과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 남겼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을 둘로 나누되, 내가 선택할 권리를 갖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 야곱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모든 재산, 곧 가축과 소유물을 가져다가 에서와 그의 아들들 앞에 반으로 나누어 놓고 에서에게 이르되, 보라, 이 모든 것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반을 택하여 가져가라 하더라.
17 야곱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시니라
18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네 앞에 있고,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19 만일 네가 온 땅을 원한다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영원히 차지하라.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차지하겠다. 만일 네가 재물을 원한다면 그것을 네 것으로 삼으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영원히 상속받게 하겠다.
20 그때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욧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 땅에 있었는데, 에서가 그날 그를 찾아가 의논하며 이르되
21 야곱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고, 이렇게 내게 대답하였으니, 이제 당신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22 느바욧이 이르되 야곱이 네게 한 말이 무엇이냐? 보라, 가나안 자손이 모두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고 야곱은 자기 자손과 함께 그 땅을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이제 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고, 네 형 야곱은 그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남겨 두어라.
24 에서가 일어나 야곱에게 돌아와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욧이 조언한 모든 것을 행하여 이삭이 남긴 모든 재물, 곧 가족과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다 가져갔다. 그는 형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야곱은 이집트 시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여 영원한 소유로 삼고, 그의 자손과 후손을 위해 영원히 다스렸다.
25 야곱은 또한 그의 형 에서에게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차지했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서 사서 자신과 그의 자손을 위한 영원한 매장지로 삼았던 곳이다.
26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구매 장부에 기록하고 서명했으며, 네 명의 충실한 증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27 야곱이 책에 기록한 말씀은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페리싯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의 모든 성읍들, 곧 이

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일곱 민족의 모든 성읍들이라.
28 야곱은 헤브론 키르얏 아르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동굴 전체를 그의 형 에서에게 값비싼 값을 주고 사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29 야곱은 소유권 증서와 서명서, 명령서와 율례서와 계시된 책을 가져다가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질그릇에 넣어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다.
30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형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차지하였으니, 사람과 짐승, 낙타와 나귀, 소와 어린 양, 은과 금, 보석과 유향,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속한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갔으니, 이삭이 죽은 후에 남긴 모든 것 중에서 에서가 가져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31 에서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호리 사람 세일의 땅으로 돌아가 그의 형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떠나갔다.
32 에서가 세일 자손 가운데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에서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33 그리하여 가나안 온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었고, 에서와 그의 모든 자손은 세일 산을 유산으로 받았다.

제 48 장

1 그 당시 이삭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온 땅에 기근을 내리셨다.
2 그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집트 땅의 왕좌에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누워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자기가 이집트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3 그가 서 있는 동안 보니 살찌고 보기 좋은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라.
4 그러자 살이 마르고 볼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가 그들을 뒤따라 올라와서, 그 볼품없는 일곱 마리가 볼품없는 암소들을 삼켜 버렸고, 그들의 모습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볼품없었다.
5 그가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니 한 줄기에 일곱 개의 이삭이 무성하고 탐스럽게 자랐는데, 그 뒤로 동풍에 시들어 버린 가느다란 이삭 일곱 개가 자라나더니, 그 가느다란 이삭들이 탐스러운 이삭들을 삼켜 버렸다. 그러자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다.
6 그리고 아침이 되자 왕은 꿈을 기억하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서둘러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7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꾸신 꿈을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소서.
8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고 이것이 왕의 꿈 해몽이라 하더라.
9 네가 본 일곱 마리의 좋은 암소는 네게 훗날 태어날 일곱 딸을 상징하며, 그 뒤를 이어 나타나 그 딸들을 삼켜 버린 일곱 마리의 암소는 네게 태어날 딸들이 모두 왕의 생전에 죽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10 그리고 네가 두 번째 꿈에서 한 줄기에 탐스러운 곡식 이삭 일곱 개가 열리는 것을 본 것은, 네가 마지막 날에 이집트 온 땅에 일곱 성읍을 건축할 것이라는 뜻이요, 네가 그 후에 시들어 버린 곡식 이삭 일곱 개가 돋아나서 그 성읍들을 삼켜 버리는 것을 본 것은, 네가 건축할 성읍들이 모두 마지막 날, 곧 왕의 생전에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이다.
11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왕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마음을 두지도 않았다. 왕은 지혜로 그들이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을 마치자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 너희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니 이제 내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 그러자 왕은 사람을 보내어 다른 현자들을 다시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처음 해석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는구나!"
13 그러자 왕은 온 이집트 땅에 포고령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그 포고령은 이러하였다. “왕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꿈 해몽을 알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오늘 왕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4 왕에게 그의 꿈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는 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그리하여 이집트 땅의 모든 현자들과 이집트와 고센, 람세스, 타크판케스, 소알, 그리고 이집트 국경 지대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왕 앞에 나아와 섰다.
15 그러자 모든 귀족과 왕자들과 왕에게 속한 신하들이 이집트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들어 왕 앞에 앉았습니다. 왕은 현자들과 왕자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왕 앞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그 환상에 놀랐습니다.
16 왕 앞에 있던 모든 현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곱 마리의 좋은 암소는 일곱 왕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왕의 자손 중에서 이집트를 다스릴 왕들입니다."
17 그리고 일곱 마리의 나쁜 암소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대적하여 멸망시킬 일곱 명의 방백을 상징하고, 일곱 개의 이삭은 이집트에 속한 일곱 명의 큰 방백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우리 주 왕께서 치르시는 전쟁에서 그들의 적국의 일곱 명의 작은 방백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18 그러자 그들 중 몇몇이 왕에게 이렇게 해석하여 말했습니다. "좋은 소 일곱 마리는 이집트의 견고한 성읍들을 상징하고, 나쁜 소 일곱 마리는 가나안 땅의 일곱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마지막 날에 이집트의 일곱 성읍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19 그리고 네가 두 번째 꿈에서 본 일곱 개의 좋은 이삭과 나쁜 이삭은 이집트의 통치권이 처음처럼 다시 네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징조이다.
20 그리고 그의 통치 시대에 이집트 성읍들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가나안의 일곱 성읍들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이집트의 통치권이 네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21 그러자 그들 중 몇 사람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꿈 해몽은 이러합니다.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왕이 훗날 아내로 맞이할 일곱 왕비를 상징하고, 나쁜 암소 일곱 마리는 왕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여인들이 모두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22 네가 둘째 꿈에서 본 좋은 이삭과 나쁜 이삭 일곱은 열네 자녀를 상징하는데, 훗날 그들이 일어나 서로 싸울 것이며, 그들 중 일곱이 더 강한 일곱을 쳐부술 것이다.
23 그들 중 몇몇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 마리의 좋은 암소는 왕에게 일곱 자녀가 태어날 것을 의미하며, 그 자녀들이 훗날 왕의 자손 일곱 명을 죽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꿈에서 보신 일곱 개의 좋은 이삭은 훗날 다른 일곱 명의 약한 군주들이 싸워서 멸망시킬 군주들을 의미하며, 그들이 왕의 자손의 원수를 갚고 통치권을 다시 왕의 자손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24 왕은 이집트 현자들의 모든 말과 그들이 해석한 꿈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어느 것도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25 왕은 지혜로 이 모든 말이 완전히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현자들의 말을 무산시키시고 요셉이 감금된 집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26 왕은 이집트의 모든 현자들과 마술사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음속에 분노가 불타올랐다.
27 그러자 왕은 모든 현자와 마술사들에게 자기 앞에서 나가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모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왕 앞에서 나갔다.
28 그러자 왕은 이집트 전역에 포고령을 내려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를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29 그러자 왕의 경호대장들이 일어나 각자 칼을 뽑아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치기 시작했다.
30 그 후에 왕의 수석 시종인 메롯이 와서 왕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앉았다.
31 그러자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고 왕의 통치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더라.
32 주님께서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 년 전에 당신의 종에게 노하셔서 저를 병동에 가두셨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그 병동에 있었는데, 저와 빵 굽는 책임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33 그리고 우리와 함께 경비대장에게 속한 히브리인 종 요셉이 있었는데, 그의 주인이 그에게 노하여 그를 감금소에 가두었으므로 그가 거기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34 그리고 얼마 후 우리가 병실에 있을 때, 나와 빵 굽는 책임자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꿈의 해석대로 꿈을 꾸었습니다.
35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와서 그 종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니, 그 종이 우리 각자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으니, 그가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더라.
36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7 그러므로 나의 주군이시며 왕이신 분께서 이집트 백성을 헛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 종은 아직도 경비대장인 그의 주인의 감금소에 갇혀 있습니다.
38 만일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를 불러 네 앞에 오게 하여 네가 꾼 꿈의 올바른 해석을 알려주게 하라.
39 왕은 술 맡은 관원의 말을 듣고 이집트의 현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40 그러자 왕은 신하들에게 요셉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놀라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당황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41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가서 그를 급히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의 머리를 깎고, 그가 죄수복을 갈아입게 한 후, 그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42 왕은 금 에봇을 두르고 왕자다운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에봇에 박힌 순금은 반짝였고, 왕의 머리에는 홍옥과 루비와 에메랄드와 온갖 보석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요셉은 왕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43 왕이 앉으신 왕좌는 금과 은과 오닉스로 덮여 있었고, 계단은 일흔 개였다.
44 이집트 전역에서 왕에게 말을 걸러 오는 사람은 누구나, 곧 왕자이거나 왕의 눈에 존경받는 사람이면, 왕좌의 31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고, 왕은 36 번째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와 말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45 만일 그가 평민 중 하나였다면, 그는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갔고, 왕은 네 번째 계단으로 내려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또한 그들의 관습은 칠십 가지 언어를 모두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칠십 계단을 올라가 왕에게까지 말을 거는 것이었다.
46 그리고 일흔 계단을 다 오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말할 줄 아는 언어의 수만큼 계단을 올라갔다.
47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칠십 가지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48 요셉이 왕 앞에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셋째 계단에 올라갔으며, 왕은 넷째 계단에 앉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9 그러자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자가 없도다. 내가 오늘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자들을 불러 모아 내 꿈 이야기를 들려 주었으나, 아무도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였도다.
50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 대해 들은 바에 따르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듣는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51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께서 꿈꾼 것을 말씀하십시오. 해석은 정녕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소 떼에 대한 꿈과 곡식 이삭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말을 멈췄다.
52 그때 요셉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고, 그날부터 왕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았으며, 왕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알고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53 요셉은 왕의 눈에 들어 호감을 얻었고, 왕은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요셉의 모든 말을 들었다. 요셉이 왕에게 이르되, 두 개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왕의 꿈에 나타내 보이셨으니, 이것이 왕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54 좋은 소 일곱 마리와 이삭 일곱 개는 칠 년을 의미하고, 나쁜 소 일곱 마리와 이삭 일곱 개도 칠 년을 의미하니, 이는 하나의 꿈이다.
55 보라, 앞으로 칠 년 동안은 온 땅에 풍년이 들 것이요, 그 후에 칠 년 동안은 아주 심한 흉년이 들 것이니, 그 모든 풍년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 땅의 주민들이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56 왕이 한 꿈을 꾸었으니, 그 꿈이 바로에게 다시 알려졌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7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충고하여 너와 이 땅 주민들의 영혼을 기근의 재앙에서 구원하리라. 너는 네 왕국 전역에서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모든 통치 일을 아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하라.
58 그리고 당신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시는 사람은 그 아래에 관리들을 임명하여 앞으로 풍년이 드는 해에 나는 모든 식량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곡식을 저장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창고에 보관하게 하십시오.
59 그리고 그들이 그 식량을 칠 년의 흉년 동안 보관하게 하여 너와 네 백성과 네 온 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너와 네 땅이 흉년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라.
60 또한 온 땅의 주민들에게 명령하여 풍년이 드는 칠 년 동안 각자 자기 밭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식량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기근이 드는 날에 그것을 찾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61 이것이 네 꿈의 올바른 해석이며, 이것이 네 영혼과 네 모든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권고이다.
62 그러자 왕이 요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 말이 옳다고 말하며 누가 아느냐? 요셉이 왕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모든 말이 옳고 내 충고가 왕께 유익하다는 표징이 되리라 하니라
63 보라, 오늘 네 아내가 해산의 의자에 앉아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이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네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에, 이 년 전에 낳은 네 첫째 아들은 죽을 것이요, 너는 오늘 네게 태어날 아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다.
64 요셉이 왕에게 이 말을 마치자 왕에게 절하고 나갔다. 요셉이 왕 앞에서 나간 후에, 요셉이 왕에게 말한 표적들이 그날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65 그날 왕비가 아들을 낳았고 왕은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전령이 왕 앞에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왕의 맏아들이 땅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66 그러자 왕궁에서 큰 통곡과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들은 이 소란과 통곡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왕에게 그의 맏아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요셉이 한 말이 모두 옳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예언대로 그날 왕에게 태어난 아이로 인해 왕은 아들의 죽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제 49 장

1 이 일 후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 모든 관리와 신하, 그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왕자와 귀족들을 소집하였고, 그들이 모두 왕 앞에 나아왔다.
2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는 이 히브리 사람의 모든 말과 그가 예언한 모든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들었으나, 그의 말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3 너희는 그가 꿈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해 주었으니, 그 해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의논하여 너희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이 기근에서 벗어날지 알아내라.
4 이제 너희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찾아보아라. 내가 그를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겠다.
5 이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이 일에 관하여 권고한 바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권고는 그 땅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나는 그 히브리 사람, 곧 나에게 권고한 사람이 없이는 그 땅이 기근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안다.
6 그들이 모두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인들이 이 일에 관하여 준 조언이 옳으니 이제 우리 주 왕이시여, 보십시오, 온 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7 왕은 네가 택한 자, 곧 네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그 지혜로 나라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자를 택하여 그 나라를 다스릴 자로 자기 밑에 임명해야 한다.
8 그러자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에게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온 땅에 그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입니다.”
9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집트 법에는 모든 사람의 언어에 능통한 자 외에는 이집트를 다스리거나 왕의 두 번째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 그러므로 우리 주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 히브리인은 히브리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위에 두 번째 통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11 이제 우리가 간청하오니 그를 불러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시험해 보시고 당신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12 그러자 왕이 이르되 내일 그대로 행하리라. 네가 말한 것이 좋으니라. 그날 모든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왔다.
13 그날 밤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 천사 하나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 있는 요셉에게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 위에 서니, 요셉은 밤에 주인의 집 지하 감옥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아내 때문에 그를 다시 지하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14 천사가 요셉을 잠에서 깨우니 요셉이 일어나 자기 발로 서 있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 맞은편에 서 있더라.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말하며 그 밤에 모든 사람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의 이름을 여호셉이라 부르더라.
15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고, 요셉은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요셉은 자기가 본 환상에 놀랐다.
16 아침이 되자 왕이 모든 신하와 신하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다 와서 왕 앞에 앉았다. 왕은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왕의 신하들이 가서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왔다.
17 왕이 나와서 왕좌의 계단에 오르니 요셉이 모든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였다. 요셉은 왕에게 나아가 일흔 번째 계단에 이르러 왕 앞에 앉을 때까지 왕에게 계속 말하였다.
18 왕은 요셉 때문에 크게 기뻐했고, 왕의 모든 신하들도 요셉의 말을 듣고 왕과 함께 크게 기뻐했습니다.
19 왕과 신하들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둘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좋다고 여겼고,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20 이제 당신은 내게 이집트 땅을 다스릴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 땅을 기근에서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셨고,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보니, 온 땅에 당신과 같은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21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요셉이라 불리지 않고 사프낫 파네아라 불릴 것이다. 너는 내 둘째가 될 것이며, 내 통치의 모든 일은 네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내 백성도 네 말대로 드나들 것이다.
22 또한 나의 신하들과 관리들은 당신의 손 아래에서 매달 받는 급여를 받을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당신에게 절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왕좌에서만 내가 당신보다 높을 것입니다.
23 왕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 요셉에게 왕자의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24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왕의 두 번째 병거, 곧 왕의 병거와 마주 보고 가는 병거에 태우게 하였고, 왕은 그에게 왕의 말 중에서 크고 강한 말을 태워 이집트 땅의 거리들을 지나가게 하였다.
25 그러자 왕은 탬버린과 하프와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탬버린 천 명, 하프 천 명, 네발림 천 명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26 그리고 칼을 뽑아 번쩍이며 손에 든 오천 명의 남자들이 요셉 앞에서 행진하며 놀았고, 금으로 장식된 가죽띠를 두른 왕의 고위 신하 이만 명이 요셉의 오른편에, 또 이만 명이 왼편에 서서 행진했으며, 모든 여자들과 처녀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거리에 서서 요셉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의 용모와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27 왕의 백성들이 그 앞뒤로 따라가며 유향과 계피와 온갖 향유를 뿌려 길을 향기롭게 하고 몰약과 알로에를 길가에 뿌렸으며, 스무 명의 사람들이 온 땅에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
28 너희는 왕께서 자기의 두 번째 신하로 택하신 이 사람을 보느냐? 모든 국정을 그가 맡을 것이요, 그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는 그가 왕과 그의 두 번째 신하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9 전령들이 선포를 마치자 온 이집트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왕이시여, 그의 두 번째 왕도 살아 계시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온 이집트 주민들이 길을 따라 엎드려 절하고, 전령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도 엎드려 절하며 온갖 탬버린과 메콜과 네발을 연주하며 요셉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30 요셉은 말을 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 주님은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만군의 주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31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과 관리들과 함께 이집트 전역을 두루 다니며 그들이 그에게 이집트의 모든 땅과 왕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다.
32 요셉이 돌아와 그날 바로 파라오 앞에 나아가니, 왕은 요셉에게 이집트 땅의 밭과 포도원을 하사하고, 은 삼천 달란트와 금 천 달란트와 오닉스와 유향과 많은 선물을 주었다.
33 그리고 다음 날 왕은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제물과 선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 거리 한복판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옷가지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그 산당 안에 올려놓았습니다.
34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산당에 무언가를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금 귀걸이를, 다른 사람들은 반지와 귀걸이,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과 오닉스 보석과 유향을 던졌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씩을 바쳤습니다.
35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자기 창고에 두었다. 그러자 왕에게 속한 모든 관리들과 귀족들이 요셉을 높여 주고 많은 선물을 주었다. 이는 왕이 그를 자기의 두 번째 왕으로 택했기 때문이었다.
36 왕이 온의 제사장 아히람의 아들 포티베라를 불러오니, 그가 자기의 어린 딸 오스낫을 데려다가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
37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처녀였으며,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아내로 맞

이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이다. 너 외에는 아무도 감히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손이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38 요셉은 서른 살 때 바로 앞에 섰고, 왕 앞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왕의 오른팔이 되었다.
39 왕은 요셉에게 그의 집에서 섬길 종 백 명을 주었고, 요셉도 사람을 보내어 많은 종을 사들여 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40 요셉은 왕궁 뜰 앞에 왕궁과 같은 매우 웅장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거주하기에 편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 집을 짓는 데 삼 년이 걸렸습니다.
41 요셉은 금과 은으로 매우 아름다운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흑옥과 유향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집트 온 땅의 형상과 이집트 온 땅을 적시는 이집트 강의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서 그 보좌에 안전하게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42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과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43 요셉은 전쟁을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군대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만 육백 명으로, 왕과 요셉을 도와 적과 싸우기 위해 나갔으며, 그 외에도 왕의 신하들과 종들, 그리고 수많은 이집트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44 요셉은 그의 용사들과 그의 모든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투석용 돌을 주었다.

제 50 장

1 그때에 다시스 자손이 이스마엘 자손을 공격하여 그들과 전쟁을 벌였고, 다시스 자손은 오랫동안 이스마엘 자손을 약탈했습니다.
2 그 당시 이스마엘 자손은 수가 적어 다시스 자손을 이기지 못하고 심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3 그러자 이스마엘 자손의 장로들이 이집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다시스 자손과 싸워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4 그러자 바로는 요셉을 그와 함께 있던 용사들과 군대, 그리고 왕궁의 용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5 그들이 하빌라 땅으로 가서 이스마엘 자손을 찾아가 다시스 자손과 싸우도록 도왔습니다. 이스마엘 자손은 다시스 자손과 싸웠고, 요셉은 다시스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은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6 다시스 땅이 정복되자 다시스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 나와 그들의 형제인 야반 자손의 땅 경계에 이르렀고, 요셉은 그의 모든 용사들과 군대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그들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
7 그리고 해가 바뀌는 해, 곧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린 지 2 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요셉이 말한 대로 온 땅에 칠 년 동안 큰 풍요를 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당시 땅의 모든 소출을 칠 년 동안 축복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음이라.
8 그때 요셉에게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풍년이 든 해의 모든 식량을 모아 해마다 곡식을 쌓아 요셉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9 요셉은 그들이 곡식을 거둘 때마다 곡식을 이삭째로 가져오되, 썩지 않도록 밭의 흙도 조금 함께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0 요셉은 해마다 이와 같이 행하여 곡식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쌓아 올렸으니, 그의 곡식 창고는 엄청나게 넓어 셀 수 없을 정도였다.
11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도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어 온갖 음식을 풍족하게 저장해 두었지만, 요셉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12 요셉과 이집트 사람들이 풍년이었던 칠 년 동안 모아둔 모든 식량은 흉년이 들 칠 년 동안 온 땅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땅을 위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13 이집트 주민들은 기근 동안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기 창고와 숨겨둔 곳에 곡식을 가득 채워 두었다.
14 요셉은 자기가 모아둔 모든 식량을 이집트의 모든 성읍에 두고, 모든 창고를 닫고 파수꾼을 세웠다.
15 요셉의 아내 오스낫은 보디베라의 딸이었는데, 그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고, 요셉은 그들을 낳았을 때 서른네 살이었다.
16 그 아이들은 자라서 아버지의 길과 가르침을 따랐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았다.
17 여호와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자라나 모든 지혜와 모든 통치 일에 능통하고 총명해졌으며 왕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주민 중 높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높여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양육하였다.
18 온 땅에 풍년이 든 칠 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그 후에 칠 년의 흉년이 들어섰으니, 그 흉년이 온 땅에 이르렀다.
19 이집트의 모든 백성은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시작된 것을 보고, 기근이 그들을 덮치자 곡식 창고를 열었다.
20 그들이 창고에 있던 모든 음식이 벌레로 가득 차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하였고, 기근이 온 땅에 만연하여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이 파라오 앞에 와서 부르짖었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을 몹시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21 그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당신의 신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당신 눈앞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합니까?
22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요셉이 풍년 7 년 동안 곡식을 흉년을 대비하여 저장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23 이집트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의 목숨이 살아 있는 한 주의 종들은 요셉이 명한 모든 것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종들은 또한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동안 밭에서 거둔 모든 소출을 거두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 두었나이다.

24 그리고 기근이 주의 종들을 덮쳤을 때, 우리가 창고를 열어 보니, 우리의 모든 소산물이 벌레로 가득 차서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25 왕은 이집트 주민들에게 닥친 모든 일을 듣고 기근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며 크게 공포에 질렸습니다. 왕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으니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26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나가서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당신 앞에서 굶주림으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명하신 대로 칠 년 동안 소출을 모아 저장해 두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27 요셉은 이집트 백성의 모든 말과 그들에게 닥친 일을 듣고, 창고에 쌓아 둔 모든 소산물을 열어 이집트 백성에게 팔았습니다.
28 그리하여 기근이 온 땅에 만연하였고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으나 이집트 땅에는 팔 수 있는 농산물이 있었다.
29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이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기근이 그들을 덮쳐서 모든 곡식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매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30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과 블레셋 사람들과 요단 강 건너편 사람들과 동방 자손들과 멀리 가까운 땅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근이 닥쳤으므로 곡식을 사려고 모두 이집트로 왔다.
31 요셉은 곡식 창고 문을 열고 관리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날마다 서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32 요셉은 그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백성에게 이집트 온 땅에 이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3 왕과 그의 부왕과 고위 관리들은 누구든지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는 자는 자기 종을 보내지 말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 오게 하라. 또한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 이집트의 창고에서 곡식을 사 와서 온 땅에 팔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곡식을 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4 두세 마리의 짐승을 이끄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짐승만 이끌어야 한다.
35 요셉은 이집트 성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증조부의 이름을 적어 놓기 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낮에 적은 이름은 저녁에 내게 보내 주어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라.”
36 요셉은 이집트 온 땅에 관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7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러한 율례를 제정하여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오는 때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의 백성은 요셉이 명령한 이 말씀과 율례에 따라 매일 이집트에 이를 공포하게 했습니다.
38 동쪽과 서쪽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제정한 율례와 법규를 듣고, 땅끝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날마다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 갔다가 돌아갔다.
39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행하였고,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적어서 매일 저녁에 요셉 앞에 데려왔다.

제 51 장

1 그 후에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2 보십시오,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배부른 척하십니까? 당신들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곡식을 조금만 사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3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곡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4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 주민들 때문에 한 문으로 다 함께 들어가지 말라 하였더라
5 야곱의 아들들은 떠나 이집트로 갔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형처럼 길에서 사고를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 열 명이 떠났다.
6 야곱의 아들들이 길을 가던 중에 요셉에게 한 일을 후회하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형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그를 찾아서 만일 찾으면 그의 주인에게서 몸값을 받고 데려오고, 만일 찾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데려오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 죽겠다.” 하였다.
7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동의하고 요셉을 위해 힘을 모아 그의 주인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열 개의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성문지기들은 그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저녁에 그들을 요셉에게 데려왔습니다.
8 요셉은 성문지기들의 손에 있는 이름을 읽어보니 그의 형제들이 성의 열 개의 문으로 모두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에 이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9 너희 모든 창고지기들은 나가서 모든 곡식 창고를 닫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만 열어 두어라.
10 그러자 요셉의 모든 관리들은 그 때 그대로 하여 모든 가게를 닫고 하나만 열어 두었다.

11 요셉은 형제들의 이름을 적어 가게를 맡은 사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곡식을 사러 오거든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이 오면 잡아서 보내십시오."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12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이르러서는 곡식을 사기 전에 요셉을 찾으려고 성 안에 모여들었다.
13 그들이 창녀들의 처소로 가서 사흘 동안 창녀들의 처소 안에서 요셉을 찾았으니, 이는 요셉이 매우 용모가 아름답고 늠름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요셉이 창녀들의 처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자손들은 사흘 동안 요셉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14 그리고 가게를 맡은 사람이 요셉이 자기에게 알려준 이름들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15 그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흘이 지났는데도 네가 내게 알려 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종들을 보내 온 이집트에 이르러 그 사람들을 찾아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하였더라.
16 요셉의 종들이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고센으로 갔으나 거기에도 없었으며, 라메세스 성읍으로 갔으나 역시 찾지 못했다.
17 요셉은 계속해서 열여섯 명의 종을 보내어 그의 형제들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서 성읍 사방에 흩어져 수색했습니다. 그중 네 종이 창녀들의 집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 열 명이 자기 형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18 그 네 사람이 그들을 데려다가 요셉 앞에 이르러 그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은 성전 보좌에 앉아 왕자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쓰고 있었으며, 모든 유력자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19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보니 그의 용모와 아름다움과 얼굴의 위엄이 그들의 눈에 놀랍게 보였고, 그들은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20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는 요셉이 그들의 눈에 매우 위대했기 때문이다.
21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주의 종들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이들과 함께 와서 자기들의 양식을 위해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22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사러 왔다면 어찌하여 성문 열 개를 통과하여 들어왔느냐? 당신들은 분명히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겠소.
23 그러자 그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요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시여, 아닙니다. 저희는 옳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모두 형제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명하시기를, 그 성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 주민들 때문에 한 문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24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왔으므로 성문 열 개를 통과하여 들어왔으니 이 땅의 허물을 살펴보러 온 것이니라
25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갈 길을 가는데, 너희는 벌써 그 땅에 사흘이나 머물렀으면서 창녀들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탐꾼들은 이런 짓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26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주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두 형제이며,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히브리인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한 명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혹시 이 땅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온 땅을 두루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녀들의 집까지 가서 그를 찾고 있습니다.
27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를 온 땅을 두루 찾아 헤매다가 이집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냐? 너희의 형이 이집트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창녀들의 집에 있겠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야곱의 자손이 어찌 창녀들의 집에 있겠느냐?
28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집트에서 팔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형제는 용모가 아름답고 작으니, 창녀들의 집에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당신의 종들이 그를 찾아 몸값을 드리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29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로다. 바로가 살아 계시니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너희가 들키지 않으려고 창녀의 집에 온 것이로다.
30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를 찾았는데 그의 주인이 당신들에게 큰 값을 요구한다면, 그 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그의 주인이 큰 값을 치르더라도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죽이고 우리 형제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니라
3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너희는 이 땅 주민들을 죽이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듣기를 너희 형제 두 명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너희 누이 때문에 모든 주민을 쳐 죽였는데 너희는 이제 너희 형제 때문에 이집트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고 왔느니라
33 내가 너희가 참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 중 한 사람을 집으로 보내 너희 아버지에게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 내게 데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4 요셉이 자기 용사 칠십 명을 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병동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35 그러자 용사들이 그 열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은 삼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36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은 그들을 감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참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여 살 수 있도록 하라.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감방에 남아 있어야 한다.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 가족이 먹을 곡식을 가져오고,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 내게로 데려오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참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7 요셉은 그들에게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크게 울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 시므온을 데리고 와서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시므온은 힘이 센 사람이었으므로 결박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그를 결박할 수 없었다.
38 요셉이 용사들을 부르니 용맹한 사람 칠십 명이 칼을 빼들고 그 앞에 나아왔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붙잡아 그의 형제들이 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라 하시매 요셉의 용감한 부하들이 급히 달려가 시므온을 붙잡아 결박하려 하매 시므온이 크고 무서운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40 그러자 요셉의 용감한 신하들은 모두 그 비명 소리에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41 요셉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 두려워 도망쳤고,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만 남았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시므온의 힘을 보고 몹시 노했다.
42 그러자 요셉의 아들 므낫사가 시므온에게 나아가 그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세게 쳤다. 그러자 시므온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43 그러자 므낫사는 시므온을 붙잡아 세게 붙잡아 결박하고 감금소로 끌고 갔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그 젊은이의 행동에 놀랐다.
44 그러자 시므온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도 이것이 이집트 사람의 패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아버지 집안의 패배다."
45 그 후에 요셉은 창고 관리자를 불러 그들에게 곡식을 그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자루에 채워 주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다시 넣어 주고, 여행길에 필요한 양식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했습니다.
46 요셉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 형제를 데려오라는 내 명령을 어기지 말라. 너희가 너희 형제를 내게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참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내 줄 것이며,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47 그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48 그리고 각자 자기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 그들이 여관에 이르러 레위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펼쳤을 때, 보니 그의 자루 안에 돈이 무게 그대로 그대로 들어 있었다.
49 그러자 그 사람은 몹시 두려워하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내 자루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50 그들이 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이집트 왕의 손에 넘겨주어 우리를 해치려 하시는가?" 하였더라.
51 그러자 유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제, 곧 우리 자신의 살을 팔았으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까?
52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죄를 지었느냐?
53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54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아들들을 맞으러 나갔는데, 야곱이 보니 그들의 형 시므온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 시므온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구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52 장

1 그들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 각자 자루를 열어 보니, 각자의 돈뭉치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 그러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몹시 두려워했다.
2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가 너희 형 요셉을 보내 너희 안부를 묻게 했는데 너희는 내게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였느니라.
3 그리고 시므온은 당신과 함께 음식을 사러 갔는데, 당신은 이집트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하면서, 베냐민도 잡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베냐민과 그의 형 요셉 때문에 내 백발이 슬픔에 잠겨 무덤까지 가게 될 것이오.
4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은 당신과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형이 죽고 그 아이만 남았는데, 당신이 가는 길에서 그의 형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시리라 하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그의 형처
럼 죽지도 않을 것이다.
6 그러자 유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곡식이 다 떨어질 때
까지 그를 건드리지 말라. 그때가 되면 그가 자기와 자
기 집안의 생명이 기근으로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너
희 형제를 잡아오라고 할 것이다.
7 그 당시 온 땅에 기근이 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식
량을 사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기근이 그들 가운데 크
게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곡식이 떨어
질 때까지 일 년 두 달 동안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8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의 온 집안이 굶주림에 시달
리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의 어린 자녀들이 모두 모
여 야곱에게 나아가 그를 에워싸고 말했습니다. "우리
에게 빵을 주십시오. 어찌하여 우리가 당신 앞에서 굶
주림으로 죽어야 합니까?"
9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크게 울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아들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모두 와서 그의 앞에
앉았다.
10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녀들이 오늘 나 때
문에 울며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빵
이 없느니라. 그러니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사 오너라.
11 유다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 형을
우리와 함께 보내 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곡
식을 사 오겠습니다. 만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
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집트 왕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르시기를 '너희 형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 얼굴
을 볼 수 없다' 하셨으니, 이집트 왕은 강하고 힘센 왕이
시니 만일 우리가 형 없이 그에게 가면 우리 모두 죽임
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12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왕이 매우 강력하고 지혜로
워서 온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듣지 못했느
냐? 보라, 우리가 온 세상의 왕들을 다 보았으나 이집트
왕과 같은 왕은 보지 못했다. 진실로 온 세상의 왕들 가
운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보다 더 큰 왕은 없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하며, 아비멜렉은 그
의 신하 중 하나와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13 아버지, 당신은 그의 궁궐과 보좌와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신하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왕이 화
려한 왕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쓴 모습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
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온 땅에 그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14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
와 명철과 지식을 보지 못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
하실 때의 감미로운 음성도 듣지 못하셨습니다.
15 아버지, 누가 그분께 우리 이름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려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 그분은 아버지의 안부도 물으시며, 아버지께서는 아
직 살아 계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물으셨습니다.
16 너는 그가 주군인 파라오에게 묻지 않고는 이집트
정부의 일을 처리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어준 경외심과 두려움을 보지 못
하였느니라.
17 우리가 그에게서 떠날 때, 우리는 이집트도 아모리
사람들의 다른 성읍들과 같이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말한 모든 말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앞에 나아
갈 때, 그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며, 우리
중 누구도 그에게 작은 말이나 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
니다.
18 그러므로 아버지, 제발 그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필요한 음식을 사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야
곱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에게 당신의 형제가 있
다고 말했습니까?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19 그러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이 아
이를 내게 맡기소서. 우리가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 와서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돌아올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당신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20 당신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당신 앞에서
울부짖는 것을 보셨습니까? 당신 손에는 그들을 달래
줄 힘이 없으십니까?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
리 형제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21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당신에게 나타나겠느냐? 이집트 왕이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려 한다고 당신이 말하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
는 한 나는 그 아이를 데려와 당신 앞에 세울 때까지 떠
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
트 왕과 그의 군대 앞에서 우리가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접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
금쯤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22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집트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하
였느니라
23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선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 가져
가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 형제 베냐민과 시므온을 너희와
함께 보내도록 하실 것이다.
24 그러자 모든 남자가 일어나서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나왔고, 그들은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귀한 물건
을 많이 예물로 가져왔으며, 은도 두 배로 가져왔습니
다.
25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에 관하여 엄히 명하여 이
르되 너희가 가는 길에 그를 잘 살피고 길에서나 이집
트에서나 그와 떨어지지 말라 하였더라
26 야곱은 아들들 곁에서 일어나 손을 펴고 아들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
시고 내 조상 이삭과 맺으신 언약도 기억하사 내 아들
들을 은혜로 대하시고 이집트 왕의 손에 넘겨주지 마옵
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여 간구하옵소서 내 모든

자녀를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의 두 형제를 보내 주시옵소서
27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울며 이집트 왕의 손에서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28 야곱은 이집트 왕에게 보고서를 써서 유다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집트 왕을 대신하여 말하였다.
29 당신의 종 야곱, 이삭의 아들,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왕, 비밀을 드러내시는 왕, 이집트의 왕께 문안합니다.
30 이집트 왕이시여, 아시도록 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기에, 제가 아들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양할 약간의 식량을 사 오도록 했습니다.
31 내 아들들이 나를 에워쌌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 눈이 무거워 앞을 볼 수 없었다. 나이 때문에 눈이 무거워졌을 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요셉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나는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갈 때에는 그 땅 주민들 때문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32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집트를 두루 다니며 내 아들 요셉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혹시 거기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이집트의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33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지혜로 내 아들들이 첩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까?
34 그러므로 나의 주군이시며 왕이신 주님, 보십시오. 제가 당신께 제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 아들을 당신 앞에 보냈습니다. 그가 형제들과 함께 평안히 제게 돌아올 때까지 그를 지켜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35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가 내 어머니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녀 때문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엘람의 아홉 왕을 몇 명의 동료와 함께 쳐서 모두 쳐부순 일을 알지 못하느냐?
36 그리고 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모리 사람들의 여덟 성읍에 행한 일, 곧 그들의 누이 디나 때문에 그 성읍들을 멸망시킨 일도 기억하노라.
37 그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 때문에 요셉의 죽음을 위로했는데, 만일 어떤 백성이 요셉 때문에 자기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요셉을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38 이집트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39 내 아들들이 네가 그들에게 한 일을 내게 말했을 때, 나는 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너는 내 아들 베냐민이 너보다 먼저 오기 전에 네 부하들과 함께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시므온이 네 집에 있었으니, 네가 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너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40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내 아들 베냐민이 내 아들들과 함께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를 잘 살피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온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41 이제 내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했으니, 보라, 내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와 함께 너에게로 오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온 땅을 살피고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평안히 돌아가게 해 주어라.
42 야곱은 그 기록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집트 왕에게 전하도록 맡겼다.

제 53 장

1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와 모든 예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2 요셉은 자기 형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습니다.
3 요셉은 자기 집 관리인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고, 관리인은 그대로 했다.
4 정오 무렵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베냐민과 함께 그 사람들을 불러 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 관리자에게 자기들이 자루에 담아 돌려준 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그들에게 “다 잘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의 형제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5 시므온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내게 매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당신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그는 나를 묶어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성에서 나갈 때 그는 나를 풀어주고 자기 집에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6 유다는 베냐민의 손을 잡고 요셉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7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선물을 주고 모두 그의 앞에 앉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잘 있느냐 자녀들은 잘 있느냐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그들이 이르되 잘 있습니다 하니라 유다는 야곱이 보낸 증서를 받아 요셉에게 주었더라
8 요셉은 그 편지를 읽고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 안방으로 들어가 크게 울고 나서 나왔습니다.
9 그가 눈을 들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말했던 네 동생이 이 사람이냐?" 베냐민이 요셉에게 다가오자, 요셉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10 요셉은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형을 보자 다시 울고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11 요셉은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잔은 오닉스와 유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동안 그들 앞에서 잔을 쳤다.

12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잔으로 말미암아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제불론이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들임을 아노니 너희는 출생 순서대로 앉아서 먹으라 하였더라
13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도 출생 순서대로 앉히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막내 동생이 형제가 없고 나도 형제가 없으니,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14 베냐민이 요셉 앞에 나아가 왕좌에 앉으니 사람들이 요셉의 행동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셨고, 요셉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고, 므낫과 에브라임도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선물을 주었다. 오스낫도 선물 하나를 주었으니, 베냐민의 손에는 다섯 개의 선물이 있었다.
15 요셉이 그들에게 마실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은 마시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날부터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어떤 진미도 먹지 않았습니다."
16 요셉은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들을 강하게 권유하여 그날 그들이 요셉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냐민은 여전히 요셉 앞에서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17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자녀가 있느냐? 그가 이르되 주의 종에게는 아들이 열 명 있는데 그 이름은 벨라, 베헤르, 아스발, 게라, 나아만, 아키, 로쉬, 무핌, 후핌, 오르드이요, 내가 보지 못한 내 형의 이름을 따서 지었느니라 하더라
18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별자리 지도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그 지도로 모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지혜에 정통하다고 들었는데, 너는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19 그러자 베냐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보고 네 동생 요셉이 이집트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 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말했던 그 요셉이 말이다."
20 베냐민은 하늘의 별 지도가 그려진 그 기구를 보고 지혜롭게 그의 형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베냐민은 이집트 온 땅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 보니, 자기 앞에 왕좌에 앉아 있는 이는 그의 형 요셉이었다. 베냐민은 몹시 놀랐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그렇게 놀라는 것을 보고 베냐민에게 물었다. "무엇을 보았으며, 왜 그렇게 놀라느냐?"
21 베냐민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내 형 요셉이 나와 함께 왕좌에 앉아 있도다 하시니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네 형 요셉이니라 이 일을 네 형제들에게 누설하지 말라 내가 그들이 떠날 때에 너를 그들과 함께 보내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너를 그들에게서 데려가리라
22 만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해 싸운다면, 그때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일을 뉘우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내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가 너를 데려갈 때 너를 버린다면, 너는 나와 함께 남을 것이며, 나는 그들과 다툴 것이고, 그들은 떠나갈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23 그때 요셉은 자기 부하들에게 그들의 자루에 음식을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잔을 넣고, 여행길에 필요한 양식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24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귀에 곡식을 싣고 베냐민과 함께 길을 떠나 그들의 형제 베냐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다.
25 그들이 이집트에서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은 자기 집을 맡은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추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잔을 훔쳤느냐 하니라
26 그러자 요셉의 부하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러 요셉의 모든 말을 전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분노하여 말하기를 "주인과 함께 잔을 마신 자는 죽을 것이요, 우리도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27 그들이 서둘러 각자 나귀에서 자루를 내려놓고 가방을 살펴보니 베냐민의 가방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길에서 때리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때렸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섰다.
28 그러자 유다의 분노가 타올라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불러들인 것은 오늘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일 뿐이다." 하였다.
29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보니, 요셉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모든 유력자들이 그의 좌우에 서 있었다.
30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은잔을 가져가서 가버렸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잔을 가져간 것은 너희 형이 그 땅의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임을 안다.
31 그러자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주께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모든 신하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32 요셉이 일어나 베냐민을 붙잡아 그의 형제들에게서 강제로 데려와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집을 맡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보십시오, 내 잔을 손에 든 자를 내가 잡았습니다."

제 54 장

1 유다가 요셉이 그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 문을 열고 형제들과 함께 요셉 앞에 나아갔다.
2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이르되, 주인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지 않게 하사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나 하니, 요셉이 이르되, 말하여라 하더라.
3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유다가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처음 주인에게 음식을 사러 왔을 때 너는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

으로 여겼고, 우리가 베냐민을 너 앞에 데려왔는데 너는 오늘까지도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4 그러므로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시고 우리 형제를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신의 영혼도 이집트 주민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5 너는 내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 누이 디나 때문에 세겜 성읍과 아모리 사람들의 일곱 성읍에 행한 일, 그리고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 행할 일을 알지 못하느냐?
6 만일 네가 우리 형제를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 나의 힘은 그 둘보다 더 크고 강력하니, 오늘 내가 너와 네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
7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우리 어머니 사라 때문에 바로에게 행하신 일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바로와 그의 집안에 심한 재앙을 내리셨으니,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네가 오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베냐민 때문에, 그리고 네가 오늘 네 땅에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이는 네가 오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슬프게 했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리 형제를 보내어 떠나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땅의 백성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나를 이길 수는 없다.
9 요셉이 유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두고 '너희에게 힘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바로가 살아 있는 한, 내가 내 모든 용사들을 보내 너희와 싸우게 한다면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반드시 진흙탕에 빠져 죽을 것이다.
10 유다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네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내가 한 번 칼을 뽑으면 오늘 이집트 사람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다시 칼집에 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부터 시작해서 네 주인 파라오까지 죽일 것이니라.
11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힘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니, 당신이 칼을 뽑으면 내가 당신의 목과 당신의 모든 형제들의 목에 대겠습니다.
12 유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를 대적하여 입을 열면 너를 삼켜 버려 땅에서 멸망시키고 오늘 네 왕국에서 망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셉이 이르되 네가 입을 열면 내게 돌로 네 입을 막아 한 마디도 못 하게 할 권세가 있느니라. 보라, 우리 앞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돌을 가져다가 네 입에 넣어 네 턱을 부러뜨릴 수 있느니라.
13 유다가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너와 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형제만 우리에게 넘겨 주면 우리가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가 살아 있는 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너희와 함께 온다 해도 너희는 그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니라
14 그러므로 이제 네 아버지께로 가라. 네 형은 내게 노예가 될 것이다. 그가 왕궁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유다가 말했다. "왕께서 온 나라에 은과 금을 선물이나 경비로 보내시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형의 자루에 넣어둔 당신의 잔을 그가 훔쳤다고 말씀하십니까? 왕께서 무슨 상관입니까?"
15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우리 형제 베냐민이나 아브라함의 자손 중 누구도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서든, 왕이나 왕자나 그 어떤 사람에게서든 도둑질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 그러므로 이제 이런 비난을 그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온 땅이 네 말을 듣고 '이집트 왕이 은 몇 알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투고 그들을 고발하여 그들의 형제를 노예로 삼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17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잔을 받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동생을 종으로 팔아 버리라 도둑이 종으로 팔리는 것은 마땅한 벌이니라
18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형제를 버리고 당신의 잔을 받으시려 하다니!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잔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보다 천 배나 더 주시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 은 때문에라도 우리 형제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죽지 않겠습니다."
19 그러자 요셉이 대답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동생을 버리고 오늘까지 은 스무 냥에 팔았으면서, 어찌하여 이 동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느냐?"
20 그러자 유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시니 우리는 너와 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형제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하더라.
21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온 땅의 왕들이 다 모여도 당신의 형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니라. 유다가 이르되 우리 형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슬퍼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하겠느냐?
22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는 이렇게 말씀드려라. "줄이 물통을 따라갔다."
23 그러자 유다가 이르되, 너는 참으로 왕이냐?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며 거짓 판결을 내리느냐? 너와 같은 왕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24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의 형 요셉에 대하여 한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두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스무 냥에 팔았으면서도 아버지께는 이를 부인하고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고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다고 말했습니다.
25 그러자 유다가 이르되 셈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니 이제 내가 너희 온 땅을 불태워 버리겠다 하니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아들들을 죽인 너희 시누이 다마르가 세겜의 불을 껐느니라

26 그러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살에서 털 한 가닥이 라도 뽑으면 온 이집트가 그 피로 가득 찰 것이라 하였더라.
27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늘 그러시되, 당신의 형을 팔아넘기고 그의 옷을 피에 적셔 아버지께 가져가서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고 여기 그의 피가 있다"라고 말하게 하셨느니라.
28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노하여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무게가 사백 세겔이나 되는 돌 하나가 있었는데, 유다는 분노에 차서 한 손으로 그 돌을 집어 하늘로 던지고 왼손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29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돌을 자기 다리 밑에 놓고 온 힘을 다해 그 위에 앉으니, 유다의 힘으로 그 돌이 먼지로 변하였다.
30 요셉은 유다의 행동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사에게 명령하여 유다와 똑같이 다른 돌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도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그는 우리 조상의 사람이다."
31 요셉이 이르되, 힘이 너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센 자들이니 어찌하여 우리 모두를 자랑하려 하느냐? 하니 유다가 요셉에게 이르되, 부디 우리 형제를 보내어 오늘 네 나라를 망치지 말라 하더라.
32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지께 가서 너희 형 요셉에 대하여 말한 대로 사나운 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전하여라.
33 유다가 그의 형 납달리에게 이르되, 어서 가서 이집트의 모든 거리를 계수하여 내게 알려주어라 하시매, 시므온이 이르되, 이 일로 근심하지 마시오. 내가 산에 올라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이집트 사람 각 사람에게 던져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겠소.
34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하는 이 모든 말을 들었으나, 형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 몰랐다. 그들은 요셉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5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가 멸망할까 두려워 크게 걱정하여 아들 므낫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당장 가서 이집트의 모든 주민과 용사들을 모두 내게로 모아 오게 하라. 그들이 말을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온갖 악기를 가지고 오게 하라. 므낫세는 가서 그대로 하였다.
36 납달리는 유다가 명령한 대로 갔으니, 납달리는 날렵한 사슴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서 곡식 이삭 위를 걸어도 이삭이 부러지지 않았다.
37 그가 가서 이집트의 모든 거리를 세어 보니 열두 개였다. 그는 급히 돌아와 유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서둘러 가서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모두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하더라.
38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힘으로 거리 세 곳을 파괴하리니 너희는 각자 거리 한 곳씩 파괴하라 하시니라.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 주민들과 모든 용사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에게로 몰려오더라.
39 그들의 수는 기병 500 명과 보병 1 만 명이었고, 칼이나 창 없이 오직 손과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400 명이었다.
40 그러자 모든 용사들이 큰 소리와 함성을 지르며 몰려와 야곱의 자손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41 야곱의 아들들이 이 군대를 보자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이 겁에 질려 진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었다.
42 유다는 자기 형제들 중 몇몇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유다는 요셉의 명령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겁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만이 그들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43 그러자 유다는 급히 칼을 뽑아 들고 크고 격렬한 고함을 지르며 칼로 내리치고 땅에 엎드려 모든 백성을 향해 계속해서 고함쳤다.
44 그가 이 일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두려움이 용감한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45 그들이 모두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도망쳤는데, 너무 무서워서 서로 겹쳐 넘어졌고, 많은 이들이 넘어지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46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그들을 쫓아 바로의 집까지 이르렀으나, 그들은 모두 도망쳐 나왔다. 유다는 다시 요셉 앞에 앉아 사자처럼 포효하며 크고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렀다.
47 그 비명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 수곳의 모든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온 이집트가 그 비명 소리에 떨었으며, 땅이 흔들리자 이집트와 고센 땅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바로도 왕좌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으며, 이집트와 고센의 모든 임신한 여인들은 그 흔들림 소리를 듣고 몹시 두려워하여 유산하였다.
48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늘 이집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말하매 바로가 놀라며 몹시 두려워하였더라.
49 이 모든 말을 듣고 그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이집트를 멸망시키려고 히브리인들을 내게 데려왔는데, 저 도둑질하는 종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어라. 그러면 우리와 너, 그리고 이집트 전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50 만일 네가 이 일을 원하지 아니하거든 내 귀중품을 다 버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들이 오늘 내 온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모든 백성을 죽일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다가 유산했다. 그들이 단지 소리치고 말하는 것만으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보라. 더욱이 그들이 칼로 싸우면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나를 택할 것인가, 히브리인을 택할 것인가. 이집트를 택할 것인가, 히브리인의 땅을 택할 것인가.
51 그들이 와서 요셉에게 바로가 그에 관하여 한 말을 모두 전하니, 요셉은 바로의 말에 몹시 두려워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 앞에 서서 분개하고 격노했으며,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바다와 파도의 포효처럼 요셉에게 고함을 질렀다.
52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파라오를 몹시 두려워하여, 이집트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릴 구실을 찾으려 애썼다.
53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명령하여 므낫세가 가서 유다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니 유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54 그러자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 누구도 이것이 이집트 청년의 짓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내 아버지 집안의 일이다.
55 요셉은 유다의 분노가 가라앉은 것을 보고 알고는 부드러운 말로 유다에게 다가가 말했다.
56 요셉이 유다에게 이르되, 네 말이 진실로 말미암아 오늘 네 힘이 확실함을 증명하였도다. 너를 기뻐하시는 네 하나님께서 네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 형제들 가운데서 그 아이 때문에 나와 다투느냐? 그들 중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하여 내게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7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보증했으니 만일 내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아이의 죄를 영원히 져야 할 것이라 내가 약속하였음을 네가 알지 않겠느냐?
58 그러므로 내가 모든 형제 중에서 당신께 나아와 간 것은 당신께서 그를 보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그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를 대신하여 남아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섬기겠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큰 힘으로 당신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59 이제 나를 너에게 반역한 강력한 왕에게 보내면 내가 그와 그의 나라에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비록 그에게 기병과 보병이 있고 백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두 죽이고 왕의 머리를 네 앞에 가져오겠다.
60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이 하룻밤 사이에 엘람의 모든 왕과 그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날 이후로 우리 조상의 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으니,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그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61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진실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입에는 거짓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도 히브리인들은 권능이 있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전해졌으니, 누가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62 그러나 내가 네 동생을 보내려면, 네가 그의 어머니의 아들, 곧 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말한 그의 형제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네가 그의 형제를 데려오면 내가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너희 중 아무도 그의 아버지에게 보증을 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오면, 네가 보증을 섰던 그의 형제를 너와 함께 보내겠다.
63 요셉이 이 말을 하자 유다 백성은 그에게 몹시 분노하여 눈에서 피가 흘렀고,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오늘 자기와 온 이집트의 멸망을 꾀하느냐!
64 그러자 시므온이 요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처음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65 요셉은 유다의 얼굴을 보고 그가 “이 형제 대신 다른 형제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66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이 죽었거나 길을 잃었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만일 내가 오늘 그를 불러 너희 앞에 나타난다면, 너희는 그의 형 대신 그를 내게 주겠느냐?"
67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 시작하여 외쳤다. “요셉아, 요셉아, 오늘 내 앞에 나와 네 형제들 앞에 나타나 그들 앞에 앉으라.”
68 요셉이 그들 앞에서 이 말을 하자, 그들은 요셉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려고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다.
69 요셉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리저리 둘러보십니까?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그러니 나를 판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근 동안 당신들을 도울 수단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70 요셉의 말을 들은 그의 형제들은 그를 보고 몹시 두려워하였고, 유다는 그를 보고 극도로 두려워하였다.
71 베냐민이 요셉의 말을 듣고 집 안쪽에 그들보다 먼저 있었으므로, 베냐민은 그의 형 요셉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72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이 그의 형의 목을 껴안고 그와 함께 우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요셉에게 달려들어 그를 껴안고 요셉과 함께 크게 울었다.
73 요셉의 집에서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음성이 들렸고, 바로는 그들이 이집트를 멸망시킬까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74 바로는 그의 신하들을 요셉에게 보내어 그에게 온 그의 형제들에 대하여 축하하게 하였고, 이집트에 있던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요셉과 함께 기뻐하러 왔으며, 온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75 바로가 그의 신하들을 요셉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 형제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라
76 요셉은 자기 집을 맡은 자에게 형제들에게 줄 선물과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는 왕의 예복과 많은 선물을 가져왔고, 요셉은 그것들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77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 각자에게 금과 은으로 된 옷 한 벌씩과 은 삼백 세겔을 주었고, 그들 모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바로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78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용맹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79 그 후에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들의 형제 베냐민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80 요셉이 일어나 바로에게서 병거 열한 대를 그들에게 주었고, 또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에서 왕위에 오르던 날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셔오기 위해 탔던 병거도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형제들의 자녀들에게 그 수만큼 옷을 주고, 각자에게 은 백 세겔씩을 보냈다. 또한 형제들의 아내들에게는 왕비들의 옷을 보내어 입혔다.
81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 각 사람에게 열 명씩을 주어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게 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고, 이집트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자녀와 모든 소유물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82 요셉은 그의 형 베냐민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 중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몫인 자기 열 아들을 위해 열 벌의 옷을 보냈습니다.
83 그리고 그는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과 파라오를 위해 병거 열 대를 보냈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모든 사치품을 가득 실은 나귀 열 마리와 곡식과 빵과 양식을 가득 실은 암나귀 열 마리를 보냈으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행길에 필요한 식량을 보냈습니다.
84 그리고 그는 그의 누이 디나에게 은과 금으로 된 옷과 유향과 몰약과 침향과 여인의 장신구를 풍성하게 보내었고, 바로의 아내들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에게도 보냈다.
85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들의 아내들에게 온갖 종류의 오닉스 보석과 유향을 주었고, 이집트 귀족들의 모든 귀중품 중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 보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86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을 보내어 그들이 가게 하였고, 그는 그의 형제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87 요셉은 그들과 함께 이집트 국경까지 가는 길에 동행하여, 자기 아버지와 그의 가족에 관하여 이집트로 오라고 명령하였다.
8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요 이 땅에 앞으로 5 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 하시니라
89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 일에 관하여 내 아버지 앞에 갑자기 오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하시니라
90 요셉은 더 이상 그들을 지휘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집트로 돌아갔고, 야곱의 아들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91 그들이 땅의 경계에 이르러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우리가 갑자기 아버지께 가서 이 일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우리 말에 몹시 놀라셔서 우리를 믿지 않으실 것이다.” 하였더라.
92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셀의 딸 세라가 그들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아가씨는 매우 총명하고 영리했으며, 하프를 연주할 줄 알았다.
93 그들이 그녀를 부르니 그녀가 그들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들이 그녀를 붙잡아 하프를 주며 말하기를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앉아 하프를 치며 이 말을 전하여라" 하였다.
94 그들이 그녀에게 자기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니, 그녀는 하프를 가지고 그들보다 먼저 가서 야곱 곁에 앉았다.
95 그리고 그녀는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삼촌 요셉은 살아 계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96 그러자 그녀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말했고, 야곱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에 들었다.
97 야곱은 그녀가 두세 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녀의 말이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녀의 모든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98 야곱은 세라가 자기 앞에서 이 말을 하자 그녀를 축복하며 이르되 내 딸아, 네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으니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한 말대로 계속 내게 말해 주렴. 네 모든 말이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99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렀고, 야곱은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00 그가 아직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말과 병거와 왕복을 입고 종들을 앞세워 그에게로 왔습니다.
101 야곱이 일어나 그들을 맞으니, 그의 아들들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요셉이 그들에게 보낸 모든 보물을 보았다.
102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 형 요셉이 살아 있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입니다.
103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모두 듣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준 모든 것과 요셉이 그에게 보낸 모든 것,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4 그들이 그 앞에 나와 요셉이 보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각 사람에게 요셉이 보낸 것을 주니, 그는 그들이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105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는 것으로 내게 충분하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하니라
106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 아들과 그의 자손을 보겠다 하더라

107 야곱은 일어나 요셉이 보낸 옷을 입고, 씻고 머리를 깎은 다음, 요셉이 보낸 터번을 머리에 썼다.
108 야곱의 집안 모든 사람과 그들의 아내들은 요셉이 보내 준 옷을 입고, 요셉이 아직 살아 있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였다.
109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야곱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였다.
110 야곱은 그들을 위해 사흘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귀족들이 야곱의 집에 모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제 55 장

1 그 후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이집트에 가서 내 아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내 고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2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온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러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시니라.
3 야곱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가서 내 아들이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4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요셉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직도 나를 섬기려고 성실하니 네 눈에도 좋을 것이라 하시매 야곱이 아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5 그때 야곱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들들과 온 가족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명하였다. 야곱은 아들들과 온 가족과 함께 일어나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집트 땅으로 갔다.
6 그들이 이집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 이집트에서 살 곳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둘러 달려가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온 가족을 위해 고센 땅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돌아와 길을 따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7 요셉은 병거를 준비하고, 그의 모든 용사들과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아버지 야곱을 맞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요셉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야곱을 맞으러 가지 않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8 그리고 다음 날 요셉은 온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그들은 모두 고운 베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은과 금으로 만든 도구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9 그들이 모두 야곱을 맞으러 갔는데, 온갖 악기와 북과 탬버린을 가지고 갔으며, 길가에 몰약과 알로에를 뿌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진하자 그들의 함성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10 이집트의 모든 여인들이 야곱을 맞으러 이집트의 지붕 위와 성벽 위로 올라갔고, 요셉의 머리에는 바로의 왕관이 씌워져 있었다. 이는 바로가 요셉에게 아버지를 맞으러 갈 때 쓰라고 보낸 것이었다.
11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50 규빗(약 80 미터)쯤 이르렀을 때, 그는 마차에서 내려 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과 귀족들이 요셉이 걸어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마차에서 내려 야곱에게로 걸어갔다.
12 야곱이 요셉의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야곱은 요셉과 함께 다가오는 진영을 보고 기뻐하며 놀랐다.
13 야곱이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집트 진영에서 왕의 옷을 입고 붉은 옷을 걸치고 왕관을 쓴 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병거에서 내려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느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분은 당신의 아들 요셉 왕이시니라. 야곱은 아들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14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절하니,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야곱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5 보라 야곱이 달려가 아들 요셉에게 이르러 그의 목을 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요셉도 아버지를 껴안고 입맞추며 울었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도 그들과 함께 울었다.
16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뵈었으니 네가 아직 살아 있고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죽으리라 하니라
17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 그리고 야곱의 온 집안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심히 통곡하며 그에게 입맞추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18 그 후에 요셉과 그의 모든 백성은 이집트로 돌아갔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안의 모든 자녀들도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요셉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곳인 고센 땅에 정착시켰다.
19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왔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하리이다 ...
20 요셉은 그대로 하여 그의 형제 르우벤, 잇사갈, 제불론, 그리고 그의 형제 베냐민을 데려다가 바로 앞에 세웠다.
21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양 떼와 소 떼가 가나안 땅에서 내게로 와서 이집트에 거처를 마련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심한 기근이 들었음이라 하더라
22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며, 그 땅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하라.
23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들을 고센 땅에 두었으니 그들은 목자들이라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 양 떼를 치도록 고센에 머물게 하라.
2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이 네게 말하는 대로 다 행하여라 하시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절하고 평안히 떠나갔으며 그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모시고 왔다.

25 야곱이 나아와 바로에게 절하고 축복한 후, 나가서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온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였다.
26 야곱의 생애 130 년째 되는 해, 즉 둘째 해에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마다 먹을 것을 충분히 주어 기근 기간 내내 부족함 없이 살게 하였습니다.
27 요셉은 그들에게 온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또한 그들과 그의 아버지 온 가족에게 해마다 옷과 의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형이 살아 있는 동안 이집트에 안전하게 머물렀습니다.
28 야곱은 항상 요셉의 식탁에서 식사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자녀들이 각자의 집에서 먹는 음식 외에는 밤낮으로 요셉의 식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9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집에서 나온 빵을 먹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았기 때문입니다.
30 요셉은 바로를 대신하여 이집트의 모든 땅과 밭을 빵을 위해 사들였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든 모든 날 동안 이집트 전역에 빵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곡식을 사들인 대가로 가져온 모든 은과 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많은 금과 은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오닉스, 유향, 그리고 값비싼 의복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돈을 다 쓴 후에 각지에서 요셉에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31 요셉은 자기 손에 들어온 은과 금을 모두 가져다가, 금과 은으로 약 칠십이 달란트나 되었고, 또한 많은 양의 오닉스와 유향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숨겼다. 한 부분은 홍해 근처 광야에, 한 부분은 페랏 강가에,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과 네 번째 부분은 페르시아와 메디아 광야 맞은편 사막에 숨겼다.
32 그리고 그는 남은 금과 은 중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바로의 집으로 가져갔으니, 금과 은 약 이만 달란트였다.
33 요셉은 남은 모든 금과 은을 바로에게 주었고, 바로는 그것을 국고에 넣었다. 그 후로 그 땅의 기근이 그쳤고, 그들은 온 땅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해마다 풍족한 소출을 얻었으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34 요셉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였고 온 땅이 그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다.
35 요셉은 나이가 많아 노령이 되었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들, 곧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도가리와 율법을 배우려고 애썼다.
36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 땅 고센 땅에 거주하여 그곳을 차지하고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졌다.

제 56 장

1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십칠 년을 살았고, 야곱의 나이와 그의 생애는 백사십칠 년이었다.
2 그때 야곱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에 있는 아들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3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죽으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에 있는 동굴, 내 조상들의 무덤 근처에 묻어라.
4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헤브론의 막벨라에 자기를 묻겠다고 맹세하게 하였고, 아들들은 그 일에 관하여 아버지께 맹세하였다.
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신 분이 너희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시니라.
6 야곱이 이르되 네 모든 자녀를 내게로 불러 모으라 하시매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자손이 와서 그 앞에 앉으니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천 배나 더 복을 주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매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자손이 그날 야곱의 축복을 받고 떠나갔더라
7 그리고 다음 날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불렀다. 그들이 모두 모여 그에게 나아와 그의 앞에 앉았다. 야곱은 그날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각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었다. 보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
8 야곱이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아노니 네가 네 형제들을 위하여 용맹한 자가 되었도다. 그들을 다스리라. 그리하면 네 아들들이 그 아들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니라.
9 오직 네 아들들에게 활과 모든 전쟁 무기를 가르쳐라. 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다스릴 그들의 형제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하라.
10 그날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는 나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막벨라 굴에 묻으라 하였더라
11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여라. 너희 아들들 중 누구도 나를 업고 가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들만 업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장사 지낼 때에 이와 같이 하라.
12 유다와 잇사갈과 제불론은 동쪽에서 내 관을 메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은 남쪽에서, 에브라임과 므나세와 베냐민은 서쪽에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북쪽에서 내 관을 메고 갈 것이다.
13 레위는 너희와 함께 짐을 나르지 말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진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 요셉도 나르지 말라. 왕으로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을 대신할 것이다.
14 너희가 나를 데려갈 때에는 이와 같이 행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은총으로 기억하시고 너희 자손도 너희 후손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15 그리고 내 아들들아,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와 친척을 공경하고, 너희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명하여라.
16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과 그 자손이 영원히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17 내 아들 요셉아, 네 형제들이 너에게 가한 모든 악행과 상처를 용서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와 네 자손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다.
18 내 아들아, 네 형제들을 이집트 주민들에게 맡겨 두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네 손에 맡겨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게 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9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의 모든 길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라.
20 내가 아노니,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너희 자손과 자손에게까지 많은 심악한 환난이 닥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라.
21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 너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주님을 알게 가르치면, 주님께서 너희 자녀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한 종을 세우시고, 그 자를 통하여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땅을 안전하게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다.
22 야곱은 더 이상 아들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죽었으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23 요셉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울부짖으며 입맞추고 통곡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애통한 목소리로 불렀다.
24 그러자 그의 아들의 아내들과 온 가족이 야곱에게 와서 엎드려 그를 위해 울며 큰 소리로 야곱을 위하여 부르짖었다.
25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일어나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늘에 먼지를 뿌렸다.
26 이 일이 요셉의 아내 오스낫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일어나 자루를 메고 모든 이집트 여인들과 함께 야곱을 위해 슬퍼하며 울었다.
27 야곱을 알던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그날 다 모여들어 온 이집트가 여러 날 동안 통곡하였다.
28 또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와서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해 울었다.
29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종 율법학자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몰약과 유향과 온갖 향과 향수로 방부 처리하라고 명령하였고, 율법학자들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였다.
30 이집트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과 고센 땅의 모든 주민들이 야곱을 위하여 울며 애통하였고,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집안 자녀들도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31 그리고 그가 통곡한 날들이 지나고 칠십 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32 바로가 요셉을 보내어 이르되, 올라가서 네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라. 그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네게 맹세하게 한 대로 하라. 요셉은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려고 갔다.
33 그러자 바로는 온 이집트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야곱을 장사 지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34 그러자 온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포고령을 듣고 모두 함께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안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고, 바로의 모든 관리들과 귀족들도 요셉의 신하로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기 위해 갔습니다.
35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눕혀 놓으신 관을 옮겼으니, 그들의 아버지가 명하신 모든 것을 아들들도 그대로 행하였더라.
36 그 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사방에는 오닉스와 유향으로 장식되었으며, 관의 덮개는 금실로 짜여 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닉스와 유향으로 만든 갈고리가 달려 있었다.
37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머리에 큰 금관을 씌우고 그의 손에 금홀을 쥐여 주었으며, 그들은 생전에 왕들이 하던 관습대로 관을 둘러쌌다.
38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이와 같은 대형으로 그 앞에 나아갔는데, 맨 앞에는 바로의 모든 용사들과 요셉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집트의 나머지 주민들이 따라갔다. 그들은 모두 칼을 차고 갑옷을 입었으며 전쟁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39 그러자 모든 통곡하는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은 멀리 떨어진 관 맞은편으로 가서 울며 애통해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을 따라갔다.
40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맨발로 울면서 함께 관 곁에로 갔고, 요셉의 나머지 종들도 그 주위를 돌았다. 그들은 각자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모두 전쟁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41 야곱의 종 오십 명이 관 앞에 나아가 길에 몰약과 알로에와 온갖 향료를 뿌렸고, 관을 멘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그 향료 그릇 위를 걸었으며, 야곱의 종들은 그들 앞에 나아가 길에 향료를 뿌렸다.
42 요셉은 많은 장차를 몰고 올라갔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와 같이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아탓의 타작마당에 이르렀고, 거기서 매우 크고 슬픈 통곡을 했습니다.
43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 집에서 나와, 가나안의 왕 삼십일 명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위해 슬퍼하며 울려고 왔다.
44 이 모든 왕들이 야곱의 관을 보니 요셉의 왕관이 그 위에 씌워져 있더라.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의 왕관을 그 관 위에 씌우고 왕관으로 둘러쌌더라.
45 그리하여 이 모든 왕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위하여 그곳에서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였으니 이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라.
46 그 소식이 에서에게까지 이르되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장사 지내려 한다는 것이니라.
47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세일 산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과 온 백성과 온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일어났으니, 그 백성은 매우 많았더라. 그들은 야곱을 위해 슬퍼하고 통곡하러 왔더라.
48 에서가 돌아와서 그의 형 야곱을 위해 슬퍼하니, 온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에서와 함께 야곱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49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나와 헤브론으로 가서 야곱을 그의 조상들의 동굴에 장사 지냈다.
50 그들이 기럇아르바의 동굴에 이르렀을 때,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동굴 안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막아서며 말하기를, “야곱은 거기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하였다.
51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몹시 노했습니다. 요셉이 에서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 아버지 야곱은 이삭이 죽은 후 25 년 전에 당신에게서 큰 재물을 받고 그 땅을 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전체도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당신의 후손에게서 샀습니다."
52 야곱은 그 땅을 자기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영원한 유산으로 사들였는데, 어찌하여 너는 오늘 이런 말을 하느냐?
53 그러자 에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퍼뜨리는구나. 네 말대로 나는 이 땅에서 내 소유물을 하나도 팔지 않았고, 내 형 야곱도 이 땅에서 내 소유물을 하나도 사지 않았다.
54 에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요셉을 속이려고 한 것이었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소유를 야곱에게 팔던 날에 요셉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55 요셉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매매 계약서에 기록하고 증인들을 통해 그 기록을 증명하였으니 보십시오, 이 계약서는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있습니다.
56 그러자 에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기록을 가져오너라. 네가 그 기록에서 찾으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57 요셉이 그의 형 납달리를 불러 이르되, 어서 서둘러 이집트로 가서 모든 기록, 곧 매매 기록, 봉인된 기록, 열린 기록, 그리고 장자권에 관한 모든 거래가 기록된 최초 기록들을 모두 가져오라 하니라.
58 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너라. 그리하여 우리가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오늘 한 모든 말을 그것들을 통해 알게 하리라.
59 납달리는 요셉의 말을 듣고 서둘러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달려갔는데, 납달리는 광야의 사슴들보다 발걸음이 가벼워서 곡식 이삭을 밟고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
60 에서가 납달리가 기록을 가져오러 간 것을 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동굴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여, 에서와 그의 모든 백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일어섰다.
61 야곱의 모든 아들과 이집트 백성이 에서와 그의 부하들과 싸웠는데, 에서와 그의 부하들은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배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에서 부하 마흔 명을 죽였다.
62 그리고 야곱의 아들 단의 아들 쿠심은 그때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전투 장소에서 약 백 규빗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들과 함께 야곱의 관 곁에 머물며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63 그리고 추심은 말도 못하고 귀도 먹었으나, 사람들의 동요하는 소리는 알아들었다.
64 그가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자를 묻지 아니하며 이 큰 소란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들이 에서와 그의 아들들의 말을 그에게 대답하매 그가 전투 중에 에서에게 달려가 칼로 에서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더니 그의 목이 멀리 솟구치고 에서가 전투 중에 사람들 가운데 쓰러졌다.
65 쿠심이 이 일을 행하자 야곱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기고,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강제로 동굴에 묻었으며, 에서의 자손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
66 야곱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그 굴은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서 매장지로 사들인 곳이었다. 야곱은 매우 값비싼 옷을 입고 묻혔다.
67 어떤 왕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보여준 것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왕의 장례식과 같은 큰 존경으로 장사지냈습니다.
68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칠 일 동안 지냈다.

제 57 장

1 그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과 전쟁을 일으켰고, 에서의 자손들은 헤브론에서 야곱의 자손들과 싸웠으며, 에서는 아직 죽어 있었고 장사되지 않았다.
2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에서의 자손들 중 80 명을 죽였고,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손이 에서의 자손들 모두를 이기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포와 그의 부하 50 명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자기 종들에게 넘겨 이집트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3 야곱의 아들들이 스포와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을 때, 남은 사람들은 에서의 집에서 자기들도 사로잡힐까 두려워 몹시 두려워하여,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 그리고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세일 산으로 가는 길을 떠났다.
4 그들이 세일 산에 이르러 에서의 머리를 세일에 장사지냈으나, 그의 머리는 가져오지 않고 헤브론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묻었다.
5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 앞에서 도망치자,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을 세일 경계까지 추격했으나, 추격하는 동안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다. 그들이 에서의 시체를 가지고 가자 그들의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고, 야곱의 자손들은 되돌아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날과 다음 날까지 전투에서 쉴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6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호리 사람 세일의 모든 아들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들을 모았으니, 그 무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그들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였더라.
7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에서의 아들들과 동방 자손들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8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이집트의 용사들이 나가서 라메세스 성읍에서 싸웠는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에서의 자손들과 동방 자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9 그들이 그들 중 60 만 명을 죽였는데, 그중에는 호리 사람 세일의 자손 중 용사들도 모두 죽여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명만 남았고, 그들은 또한 동방 자손과 에서의 자손 중 많은 사람도 죽였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동방 자손은 모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10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수곳에 이르렀고, 수곳에서 그들 중 서른 명을 죽였으며, 나머지는 도망쳐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11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이집트의 용사들은 모든 원수를 물리쳤으므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서 돌아갔다.
12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야곱의 자손들에게 노예로 잡혀 이집트에 있었고, 그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13 에서의 자손과 세일의 자손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일의 자손은 에서의 자손이 싸운 일 때문에 자기들이 모두 야곱의 자손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것을 보았다.
14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았으므로 이 진영이 너희 때문에 무너졌고 이제 용사나 전쟁에 능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음을 아느니라
15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우리 땅을 떠나 가나안 땅, 곧 너희 조상들의 거주지로 가라. 어찌하여 너희 자손이 훗날 우리 자손의 재산을 상속받겠느냐?
16 에서의 자손은 세일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일 자손은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17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 곧 딘하바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18 당신의 군사 중 몇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호리족 세일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우리와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19 그러자 딘하바 왕 안게아스가 그렇게 하였으니, 그는 그 당시 에서의 자손과 우호적이었으므로, 에서의 자손에게 용맹한 보병 500 명과 기병 800 명을 보냈다.
20 세일 자손이 동방 자손과 미디안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과 싸워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야곱의 자손과 싸워 우리 모두가 거의 멸망할 지경이니라 하더라
21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야곱의 자손인 그들의 형제들과 싸우다 그들을 위해 죽은 우리 형제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22 그러자 동방의 모든 자손이 세일 자손의 말을 듣고 칼을 빼든 약 800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나아왔다. 그때 에서의 자손은 파란 광야에서 세일 자손과 싸웠다.
23 그때 세일 자손이 에서의 자손을 이기고, 그 전투에서 세일 자손은 딘하바 왕 안게아스의 백성 중 약 200 명을 죽였다.
24 그리고 이듬해에 에서의 자손은 세일 자손과 다시 싸우러 왔는데, 이번 두 번째 싸움은 에서의 자손에게 매우 힘들었고, 세일 자손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25 에서의 자손이 세일 자손이 자기들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에서의 자손 중 몇몇이 돌아서서 그들의 원수인 세일 자손을 도왔습니다.
26 그리고 에서의 자손 가운데서 두 번째 전투에서 딘하바 왕 안게아스 백성 58 명이 전사했습니다.
27 사흘째 되던 날, 에서의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을 배신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과 싸우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28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버리고 우리 원수 세일 자손을 도운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에서 자손이 다시 딘하바 왕 안게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29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시 보내어 그들과 함께 세일 자손과 싸우게 하소서.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두 배나 더 강합니다.
30 그리고 안게아스는 다시 에서의 자손에게 용맹한 사람 600 명을 보내어 그들이 에서의 자손을 도우러 오게 하였다.
31 열흘 후에 에서의 자손이 파란 광야에서 세일 자손과 다시 전쟁을 벌였는데, 세일 자손이 매우 심하게 공격당했습니다. 이때 에서의 자손이 세일 자손을 이겼고,

세일 자손은 에서의 자손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에서의 자손은 세일 자손 중에서 약 이천 명을 죽였습니다.
32 세일 자손의 모든 용사들이 이 전투에서 죽었고, 그들의 성읍에는 어린 자녀들만 남았다.
33 그리하여 온 미디안 자손과 동방 자손이 전투에서 도망쳤는데, 세일 자손도 전투가 격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 에서의 자손은 동방 자손을 모두 추격하여 그들의 땅에 이르렀다.
34 에서의 자손은 그들 중 약 250 명을 죽였는데,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 가운데서 약 30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그들의 형제들이 호리족 세일의 자손을 돕기 위해 그들을 버린 것 때문에 에서 자손에게 닥쳤습니다. 에서의 자손은 다시 그들의 형제들의 악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일로 인해 다시 슬퍼했습니다.
35 전투 후에 에서의 자손은 돌아서서 세일로 돌아와 세일 자손의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도 죽여서, 젊은 남녀 오십 명만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모두 죽였습니다. 에서의 자손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젊은 남자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여자아이들은 아내로 삼았습니다.
36 에서의 자손은 세일 자손이 살던 곳에 거주하여 그들의 땅을 상속받아 차지하였다.
37 에서의 자손은 세일 자손에게 속한 땅의 모든 소유물, 곧 그들의 양 떼와 황소와 재산을 모두 차지하였고, 세일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에서의 자손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은 세일 자손이 살던 세일 땅에 오늘날까지 거주하였다. 에서의 자손은 그 땅을 에서의 다섯 아들에게 그 가족대로 나누어 주었다.
38 그 무렵에 에서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서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렇지 마라. 그가 우리 땅에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그의 조언을 따를 것이며, 그는 우리 원수들과 싸워 줄 것이다." 하고 그대로 행하였다.
39 에서의 모든 자손은 맹세하여 이르되, 그들의 형제 중 누구도 다시는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들의 형제가 아닌 이방인이 다스리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에서의 모든 자손의 마음이 세일 자손과 싸울 때에 그들의 형제에게 당한 악행 때문에 각자 자기 아들과 형제와 친구에게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라.
40 그러므로 에서의 아들들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왕을 택하리라 하였더라.
41 거기에 딘하바 왕 안게아스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브올의 아들 벨라였고, 그는 매우 용맹하고 아름답고 용모하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안게아스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2 에서의 모든 자손이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왕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절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살아 계소서! 왕이시여, 살아 계소서!"
43 그들이 보를 펼치고 각 사람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귀걸이나 반지나 팔찌를 가져와서 은과 금과 오닉스와 유향으로 그를 매우 부유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왕좌를 만들고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그들은 그를 위해 궁전을 지었고 그는 거기에 거주하며 에서의 모든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44 안게아스 사람들은 에서의 자손에게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받고, 그 때에 자기 주인인 딘하바에게로 돌아갔다.
45 벨라는 에서의 자손을 삼십 년 동안 다스렸고, 에서의 자손은 세일의 자손 대신에 그 땅에 거주했으며, 오늘날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

제 58 장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32 년째 되던 해, 곧 요셉의 생애 71 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바로가 죽고 그의 아들 마그론이 왕위에 올랐다.
2 바로는 죽기 전에 요셉에게 그의 아들 마그론의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그리고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을 받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3 그리하여 온 이집트 백성이 요셉을 왕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였으니 이는 모든 이집트 백성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사랑하였음이라. 다만 파라오의 아들 마그론이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 그 당시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4 마그론은 마흔한 살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통치하는 모든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5 바로가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집트의 법률과 모든 국정을 요셉에게 맡겼다.
6 요셉은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 이집트를 다스렸고, 온 이집트가 그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었습니다. 바로가 죽은 후 온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마음을 두었고, 그들이 그를 매우 사랑하여 그들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7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죽은 후 이집트의 모든 통치권은 요셉에게 넘어갔고, 그는 통치자로서 온 땅을 자기 뜻대로 다스렸으며 아무도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8 그리하여 온 이집트가 요셉의 보살핌 아래 놓이게 되었고, 요셉은 주변의 모든 원수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였다. 또한 요셉은 온 땅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 국경까지 정복하여 그의 통치 아래 두었고, 그들은 매년 요셉에게 세금을 바쳤다.
9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좌에 앉았으나, 처음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통제와 조언을 받았습니다.
10 그는 요셉의 조언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요셉은 이집트에서부터 큰 강 페랏까지 온 나라를 다스렸다.
11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더하여 지혜와 존귀

와 영광을 주셨으며, 이집트 사람들과 온 땅의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사십 년 동안 온 나라를 다스렸더라.
12 블레셋과 가나안과 시돈과 요단 강 건너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 그에게 예물을 바쳤고, 온 나라가 요셉의 손아귀에 들어왔으며,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매년 조공을 바쳤다. 이는 요셉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온 나라를 정복하고 이집트 왕좌에 굳건히 앉았다.
13 야곱의 아들들 곧 그의 모든 형제들도 요셉의 평생 동안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였고, 그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여 매우 많아졌으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명한 대로 평생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4 여러 해가 지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의 왕 벨라와 함께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번성하여 그 땅에서 자손이 많아지자 야곱의 자손과 온 이집트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형제 엘리바스의 아들 스포와 그의 부하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 그들은 아직 요셉의 노예였기 때문이다.
15 에서의 자손이 동방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평을 맺으니, 동방의 모든 자손이 에서의 자손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싸우려고 그들에게로 왔다.
16 그리고 딘하바 왕 안게아스의 백성들도 그들에게 와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니 그들도 그들에게 왔습니다.
17 그리하여 이 모든 백성이 모여 세일로 와서 에서의 자손들을 도와 전쟁에 참전하였으니, 그 진영은 매우 크고 백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고, 보병과 기병을 합쳐 약 80 만 명이나 되었다. 이 모든 군대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람세스 곁에 진을 쳤다.
18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의 용사들, 곧 약 600 명을 이끌고 나가서 라메세스 땅에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 다시 에서의 자손들과 싸웠는데,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50 년째 되는 해, 곧 세일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다스린 벨라의 통치 30 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19 여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용사들과 동방 자손들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에서의 자손들과 동방 자손들은 요셉 앞에서 패배하였다.
20 에서의 자손과 동방 자손 가운데서 야곱의 자손 앞에서 전사한 자는 약 이십만 명이었고, 그들의 왕 브올의 아들 벨라도 그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에서의 자손은 자기 왕이 전사한 것을 보고는 싸울 힘이 없어졌다.
21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은 여전히 에서의 집안 사람들을 치고 있었으므로, 에서의 온 백성은 야곱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22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하루 길 동안 추격하여 길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쳐서 약 삼백 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23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은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는 열두 명이 죽었습니다.
24 요셉이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스포와 그의 부하들을 더욱 결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스포와 그의 부하들을 쇠사슬로 묶었고, 그들의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25 에서의 자손과 동방 자손은 모두 수치심에 휩싸여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들과 함께 있던 용사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26 에서의 자손은 자기 왕이 전쟁에서 죽은 것을 보고 서둘러 동방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봇즈라 땅 출신의 사락의 아들 요밥이었다. 그들은 그를 자기 왕 벨라 대신 왕으로 세웠다.
27 요밥이 벨라의 왕좌에 앉아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요밥은 에돔에서 에서의 모든 자손을 다스리며 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날 이후로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과 싸우러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이는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의 용맹함을 알고 그들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8 그러나 그날부터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의 미움과 적개심은 그 후로 오늘날까지 매우 심했습니다.
29 그 후 십 년이 지나서 보츠라 출신의 자라크의 아들 요밥이 죽으니, 에서의 자손이 데만 땅 출신의 추샴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요밥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더라. 추샴은 에돔에서 에서의 모든 자손을 다스리며 이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30 그 당시 이집트 왕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든 자손과 함께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였고, 아무런 방해나 불행한 사고도 없었으며, 요셉과 그의 형제들 시대에 이집트 땅은 전쟁이 없어 평화로웠다.

제 59 장

1 이집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야곱과 함께 왔으니, 야곱의 모든 자손이 각자 그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왔느니라.
2 레아의 자녀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제불론이었고, 그들의 누이는 디나였다.
3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다.
4 레아의 여종 질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다.
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였다.
6 그리고 이들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었다.
7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팔루, 체츠론, 카르미였다.
8 시므온의 아들들은 예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갈,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이었다.
9 레위 자손은 게르손, 케핫, 므라리였고, 그들의 누이 요게벳은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태어났다.
10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 오난, 셸라, 페레스, 자라크였다.

11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페레스의 아들들은 헤즈론과 하물이었다.
12 잇사갈의 아들들은 톨라, 푸바, 욥, 사므론이었다.
13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 엘론, 야클렐이요, 단의 아들들은 쿠심이었다.
14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흐젤, 구니, 예체르, 실람이었다.
15 갓의 아들들은 지피온, 하기, 슈니, 에즈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였다.
16 아셀의 자손은 짐나, 이쉬바, 이쉬비, 베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락이요, 베리아의 아들은 케베르와 말키엘이라.
17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헤르, 아쉬벨, 게라, 나아만, 아히, 로쉬, 무핌, 후핌, 오르드였습니다.
18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19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은 칠십 명이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건너가 살게 된 자들이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았으며,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 이집트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다.
20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93 년을 살았고, 80 년 동안 이집트 전체를 다스렸다.
21 요셉의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모두 모여 그의 앞에 앉았다.
22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실 것이다.
23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여기에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뼈도 너희와 함께 여기에서 가져가라.
24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후손을 위해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하라 하였더라.
25 그 후 요셉이 죽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71 년째 되던 해였다.
26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백십 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모든 종들이 일어나 그들의 관습대로 요셉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애도했습니다.
27 그들은 요셉을 향료와 온갖 향수로 가득 찬 관에 넣어 시홀 강가에 묻었다. 그의 아들들과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칠 일 동안 그를 위해 애도하였다.
28 요셉이 죽은 후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법을 취하여 이집트의 모든 통치를 그의 뜻대로 수행하며 백성을 안전하게 다스렸다.

제 60 장

1 그 해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72 년이 되었는데, 요셉이 죽은 후에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포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2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곧 딘하바에 이르러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에게 갔습니다. 안게아스는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제포를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3 제포는 안게아스와 그의 백성들의 눈에 호감을 얻어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러 날 동안 봉사했습니다.
4 그리고 제포는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를 꾀어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이집트 사람들과 야곱의 자손들과 싸워 그의 형제들의 원수를 갚도록 했습니다.
5 그러나 안게아스는 제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게아스는 야곱의 자손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자기 군대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 그 당시 스포는 안게아스와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끊임없이 그들을 부추겨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게 하려 했으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7 그 무렵에 킷팀 땅 푸짐나라는 도시에 우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킷팀 자손들에 의해 신격화되어 타락하게 되었고, 죽었는데 아들은 없고 야니아라는 딸 하나만 있었다.
8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답고 고상하며 총명하여 온 땅에 그녀와 같은 미모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9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의 백성들이 그녀를 보고 와서 그에게 그녀를 칭찬하였다. 안게아스는 킷팀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킷팀 자손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기로 동의하였다.
10 안게아스의 사자들이 킷팀 땅에서 출발하여 길을 떠날 때에, 비벤투 왕 투르누스의 사자들이 킷팀에 이르렀습니다. 비벤투 왕 투르누스도 야니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녀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11 투르누스의 신하들이 킷팀에 와서 투르누스 왕의 아내로 삼을 야니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 그러자 킷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에 아프리카의 왕 안게아스가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게아스에게서 그 처녀를 빼앗아 투르누스에게 줄 수 없습니다."
13 우리가 안게아스가 우리와 싸워 우리를 멸망시킬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인 투르누스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 투르누스의 사자들이 킷팀 자손의 모든 말을 듣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킷팀 자손의 모든 말을 전하였다.

15 그리고 킷팀의 자손들이 안게아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투르누스가 야니아를 불러 아내로 맞이하려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답하였노라. 또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온 군대를 모아 너와 싸우러 갈 것이며, 사르두니아 길을 지나가서 네 형제 루쿠스와 싸운 후에 너와 싸우러 올 것이라 하였느니라.
16 안게아스는 킷팀 자손이 보낸 편지를 듣고 분노하여 일어나 온 군대를 모아 바다 섬들을 지나 사르두니아로 가는 길을 따라 사르두니아 왕 루쿠스에게로 갔다.
17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는 그의 삼촌 안게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안게아스에게 입맞추고 포옹하며 말했다. " 아버지께 안부를 여쭤보실 때, 제가 당신과 함께 투르누스와 싸우러 갈 때 저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안게아스는 그렇게 하고 그의 형에게로 갔다. 그의 형이 그를 맞으러 나와서 안부를 물었다.
18 안게아스는 그의 형 루쿠스에게 안부를 묻고 그의 아들 니블로스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쿠스는 그렇게 했고, 안게아스와 그의 형 루쿠스는 일어나 투르누스를 향해 싸우러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큰 군대와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19 그가 배를 타고 와서 아스토라쉬 지방에 이르렀을 때, 투르누스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는 사르두니아로 나아가 그곳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다시 안게아스로 가서 그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다.
20 안게아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는 카노피아 골짜기에서 투르누스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1 사르두니아 왕 루쿠스에게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져서 그의 모든 군대가 패배했고, 그의 아들 니블로스도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22 그의 삼촌 안게아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니블로스를 위해 금관을 만들어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안게아스는 다시 투르누스를 향해 전쟁을 벌였는데, 안게아스가 그보다 강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백성을 칼날로 쳐 죽였다. 이로써 안게아스는 그의 조카 니블로스와 그의 형 루쿠스의 군대의 원수를 갚았다.
23 투르누스가 죽자,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손이 약해져서 안게아스와 그의 동생 루쿠스 앞에서 도망쳤다.
24 그리고 안게아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는 그들을 알파누와 로마 사이에 있는 큰길까지 추격하여 칼날로 투르누스의 온 군대를 죽였다.
25 사르두니아 왕 루쿠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놋쇠로 관을 만들어 그 안에 아들 니블로스의 시신을 넣어 그곳에 묻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리고 그들은 그 큰길 위에 높은 망대를 쌓고, 오늘날까지 그곳을 니블로스의 이름을 따서 부르며, 비벤투 왕 투르누스도 그곳에 니블로스와 함께 묻었다.
27 보십시오, 알파누와 로마 사이의 큰길 한쪽에는 니블로스의 무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투르누스의 무덤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오늘날까지도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28 니블로스가 장사된 후에 그의 아버지 루쿠스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 땅 사르두니아로 돌아갔고, 그의 형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는 백성을 이끌고 비벤투 성읍, 곧 투르누스 성읍으로 갔다.
29 비벤두 주민들은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몹시 두려워하여 울며 간청하며 그를 맞으러 나갔다. 비벤두 주민들은 안게아스에게 자기들을 죽이지 말고 성읍도 파괴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안게아스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그 당시 비벤두는 킷팀 자손의 성읍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그 성읍을 파괴하지 않았다.
30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아프리카 왕의 군대는 킷팀으로 가서 약탈하고 파괴하곤 했는데, 그들이 갈 때마다 안게아스 군대의 지휘관 제포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31 그 후에 안게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푸짐나 성에 이르렀고, 거기서 우주의 딸 야니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성읍으로 데려왔다.

제 61 장

1 그 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이집트에 견고한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2 그리고 그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을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왕궁을 지었고, 그는 그곳에 거주하며 통치를 새롭게 하고 안전하게 다스렸습니다.
3 야곱의 아들 스불론이 그 해에 죽었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72 년째 되는 해였고, 스불론은 114 세의 나이로 죽어 관에 넣어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졌다.
4 그리고 그의 형 시므온은 칠십오 년에 죽었는데, 죽을 때 나이가 백이십 세였고, 그도 관에 넣어져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졌다.
5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제포는 딘하바 왕 안게아스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날마다 안게아스를 부추겨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도록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게아스는 그렇게 하기를 꺼렸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자세히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6 그 당시 스포는 날마다 안게아스를 부추겨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7 얼마 후 안게아스는 스포의 말을 듣고 야곱의 자손들과 이집트에서 싸우기로 동의했습니다. 안게아스는 그의 모든 백성을 규합했는데, 그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가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8 안게아의 신하들 가운데 열다섯 살 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브올의 아들 발람이었고, 그는 매우 지혜롭고 마술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9 그러자 안게아스가 발람에게 이르되, 부디 우리를 위하여 주술을 부려 주시어, 우리가 지금 가려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알게 하소서.

10 발람은 그들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안게아의 군대와 이집트 군대를 나타내는 병거와 기병의 형상을 만들고, 미리 준비해 둔 물에 그것들을 넣었다. 그리고 손에 도금양 가지를 들고 그의 재주를 발휘하여 그것들을 물 위에 연결하니, 안게아의 군대의 형상과 이집트 군대와 야곱의 자손의 형상이 물 위에 나타났다.
11 발람이 이 일을 안게아에게 말하니, 안게아는 절망하여 이집트로 내려가 싸우지 않고 자기 성에 머물렀다.
12 엘리파스의 아들 스포는 안게아스가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포기한 것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안게아스를 피해 도망쳐 킷팀에 이르렀다.
13 그리하여 킷팀의 모든 백성은 그를 극진히 영접하고, 그를 고용하여 날마다 자기들의 전쟁에서 싸우게 하였으니, 제포는 그 당시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아프리카 왕의 군대는 계속해서 퍼져 있었고, 킷팀 자손은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 진격해 오자, 쿱티지아 산으로 피신하였다.
14 어느 날 스포가 어린 암소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갔더니 산 주위에서 암소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15 스포가 가서 보니 산 아래에 큰 동굴이 있었고, 동굴 입구에는 큰 돌이 있었다. 스포가 그 돌을 쪼개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큰 짐승이 소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 짐승은 위쪽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 아래쪽으로는 짐승의 형상을 닮았다. 스포가 그 짐승에게 달려들어 칼로 죽였다.
16 킷팀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축을 잡아먹은 짐승을 죽인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17 그들은 모두 모여 일 년에 하루를 그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스보의 날이라 부르고, 해마다 그 날에 그에게 전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18 그때에 우주의 딸이자 안게아스 왕의 아내인 야니아가 병들었는데, 그녀의 병이 안게아스와 그의 신하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안게아스가 그의 현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야니아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그녀의 병을 고쳐야 할까? 하니, 현자들이 이르되, 우리 나라의 공기가 킷팀 땅의 공기와 다르고, 우리 나라의 물이 그들의 물과 다르기 때문에 왕비가 병들게 된 것입니다.
19 공기와 물의 변화로 인해 그녀는 병들었고, 또한 그녀의 고향에서는 조상들이 다리로 끌어올린 푸르마에서 온 물만 마셨기 때문입니다.
20 안게아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킷팀에 속한 푸르마의 물을 그릇에 담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을 아프리카 땅의 모든 물과 함께 무게를 재어 보니, 그 물이 아프리카의 물보다 가벼웠습니다.
21 안게아스가 이 일을 보고 모든 신하들에게 수천, 수만 명의 석공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돌을 깎게 하였습니다. 건축자들이 와서 매우 견고한 다리를 건설하고 킷팀 땅에서 아프리카까지 샘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물은 야니아 왕비와 그녀의 모든 일을 위해 마시고, 굽고, 씻고, 목욕하는 데 쓰였으며, 또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씨앗과 땅에서 나는 모든 과일에 물을 주는 데 쓰였습니다.
22 왕은 그들에게 킷팀의 흙을 큰 배에 싣고 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또한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가져왔습니다. 건축자들은 야니아 왕비를 위해 궁전을 지었고, 왕비는 병이 나았습니다.
23 그 해가 바뀌는 해에 아프리카 군대가 평소처럼 킷팀 땅으로 와서 약탈을 계속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 제포는 그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려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포 앞에서 도망쳤고, 제포는 킷팀 땅을 그들에게서 구원했습니다.
24 킷팀 자손은 스포의 용맹함을 보고 결심하여 스포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고, 스포는 왕이 되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투발 자손과 그 주변 섬들을 정복하러 갔다.
25 그들의 왕 제포가 앞장서서 투발과 그 섬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돌아와 제포를 위해 통치권을 새로 세우고, 왕의 거처와 왕좌가 될 매우 큰 궁전을 짓고, 큰 왕좌를 만들어 주었다. 제포는 킷팀 온 땅과 이탈리아 땅을 50 년 동안 다스렸다.

제 62 장

1 그 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칠십구 년째 되는 해였는데,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 르우벤은 죽을 때 125 세였고, 사람들은 그를 관에 넣어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었다.
2 그리고 그의 형 단은 팔십 세째 해에 죽었는데, 죽을 때 나이가 백이십 세였고, 그도 관에 넣어져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졌다.
3 그 해에 에돔 왕 쿠샴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베닷의 아들 하닷이 삼십오 년 동안 왕위에 올랐으며, 팔십일 년째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 잇사갈이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잇사갈은 죽을 때 122 세였고, 이집트에서 관에 넣어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졌다.
4 그리고 그의 형 아셀은 82 년에 죽었는데,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23 세였고, 이집트에서 관에 안치되어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졌다.
5 갓은 83 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25 세였고, 이집트에서 관에 넣어져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졌다.
6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통치한 지 84 년, 곧 50 년에 하닷은 에서의 모든 자손을 모으고, 약 40 만 명의 군대를 갖추어 모압 땅으로 나아가 모압과 싸워 그들을 자기에게 조공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7 모압 자손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미디안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싸우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8 하닷이 모압 땅에 이르자 모압과 미디안 자손이 그를 맞으러 나와 모압 들판에서 그와 대적하여 전쟁 대형을 갖추었다.
9 하닷이 모압과 싸워서 모압 자손과 미디안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수는 약 20 만 명이었다.
10 모압 자손에게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모압 자손은 전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을 보고, 힘을 빼고 등을 돌려 미디안 자손이 계속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11 미디안 자손은 모압의 의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투력을 강화하여 하닷과 그의 모든 군대와 싸웠더니 온 미디안이 그 앞에서 항복하였다.
12 하닷은 미디안 사람들을 맹렬히 쳐서 칼날로 죽였으니, 모압을 도우러 온 자들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
13 미디안 자손이 모두 전쟁에서 죽고 모압 자손이 도망치자, 하닷은 그 당시 모압 전체를 자기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하고, 모압 사람들은 그의 지배하에 두었으며, 정해진 대로 매년 세금을 냈다. 그리고 하닷은 돌아서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14 그리고 그 해가 바뀌는 해에, 그 땅에 남아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모두 하닷과 싸우다가 모압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모압 자손들이 전쟁터에서 등을 돌리고 미디안을 떠나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다섯 지도자는 자기 땅에 남아 있던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모압과 싸워서 형제들의 원수를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15 미디안 자손이 동방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니, 케투라의 모든 형제들이 미디안을 도와 모압과 싸우기 위해 왔습니다.
16 모압 자손은 이 소식을 듣고 동방의 모든 자손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인 줄로 크게 두려워하여, 에돔 땅의 베닷의 아들 하닷에게 상소인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미디안을 쳐부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 동방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은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 것입니다.
18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미디안과 동방 자손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과 싸웠는데, 그 전투가 매우 치열했습니다.
19 하닷이 칼날로 미디안 자손과 동방 자손을 모두 쳐서 모압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더라. 미디안과 동방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은 하닷과 그의 군대 앞에서 도망쳤고, 하닷은 그들을 그들의 땅까지 추격하여 크게 학살하였으니, 죽은 자들이 길에 쓰러졌더라.
20 하닷은 미디안의 손에서 모압을 구원하였으니, 미디안의 모든 자손이 칼날에 쓰러졌더라. 하닷은 돌아서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21 그날부터 미디안 자손은 모압 자손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압 자손이 미디안 자손 때문에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며, 그 후로 두 자손 사이에 크고 심한 적개심이 있었다.
22 모압 땅 길에서 발견된 미디안 사람들은 모두 모압 사람들의 칼에 죽고, 미디안 땅 길에서 발견된 모압 사람들은 모두 미디안 사람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디안은 모압을, 모압은 미디안을 여러 날 동안 괴롭혔습니다.
23 그때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86 년째 되는 해였고, 유다의 나이는 129 세였다. 그들은 유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관에 넣어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었다.
24 납달리는 89 년에 죽었는데, 향년 132 세였다. 그는 관에 넣어져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졌다.
25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91 년째 되던 해, 곧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스포가 깃딤 자손을 다스린 지 30 년째 되던 해에 아프리카 자손이 깃딤 자손을 침략하여 늘 그랬듯이 약탈하려 했으나, 지난 13 년 동안은 침략하지 않았던 것이다.
26 그 해에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엘리파스의 아들 스포가 그의 부하 몇 명과 함께 나가서 그들을 맹렬히 쳤다. 그러자 아프리카 군대는 스포 앞에서 도망쳤고, 전사자들은 그의 앞에 쓰러졌다. 스포와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아프리카 근처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그들을 쳤다.
27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는 제포가 한 일을 듣고 몹시 분개하여 온종일 제포를 두려워하였다.

제 63 장

1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아흔세째 해에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그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관에 넣어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었다.
2 레위가 죽은 후에 온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 야곱의 자손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날부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여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준 모든 포도원과 밭,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모든 아름다운 집,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풍성한 먹거리를 빼앗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3 그 무렵 이집트의 손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4 그 무렵,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백이 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바로가 죽고 그의 아들 멜롤이 왕위에 올랐으며, 이집트의 모든 유력자들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알던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무렵에 죽었다.
5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야곱의 자손들과 그들이 그들에게 베푼 모든 선행,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든 권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6 그러므로 그날부터 온 이집트는 야곱의 자손들의 삶을 괴롭히고 온갖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들이 기근 때 그들을 구원해 준 조상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7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것이요, 그들의 말년에 유익을 주려 하심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8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에서 행하실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알게 하려 함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의 후손이 평생토록 그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9 멜롤은 스무 살에 왕위에 올라 아흔네 해를 통치했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통치하는 모든 왕에게 행하는 관습이었다.
10 그때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의 모든 군대가 평소처럼 약탈을 위해 치팀 땅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11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제포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맞으러 나가 길에서 그들과 싸웠다.
12 제포는 칼날로 아프리카 왕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고,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주인에게 돌아온 자도 한 명도 없었다.
13 안게아스는 엘리바스의 아들 스포가 자기 군대를 모두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았으니, 곧 아프리카 땅의 모든 사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14 안게아스는 그의 형 루쿠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내게 와서 내 군대를 멸한 제포와 킷팀 자손들을 치는 것을 도와주라 하시매 루쿠스가 그의 온 군대, 곧 매우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의 형 안게아스를 도와 제포와 킷팀 자손들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15 제포와 킷팀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마음에 큰 공포가 임했습니다.
16 그리고 스포는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에서의 모든 자손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 내가 듣기로는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가 그의 형제와 함께 우리와 싸우러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의 군대가 매우 크고, 특히 그가 그의 형제와 그의 군대까지 이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18 그러므로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를 도와 안게아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를 대적하여 싸워라. 네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19 에서의 자손이 킷팀의 자손과 그들의 왕 스보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안게아스와 그의 백성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벨라 초대 왕 시대부터, 그리고 야곱의 아들 이집트 왕 요셉 시대부터 여러 해 동안 평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 요단 강 건너편에서 우리와 싸웠습니다.
20 스포는 에서의 자손인 자기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멀리했으며, 안게아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21 그리고 안게아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는 80 만 명에 달하는 모든 군대를 모아 킷팀 자손을 대적하러 나섰습니다.
22 그리팀의 모든 자손이 스포에게 이르되 네 조상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그분께서 안게아스와 그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모두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23 스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찾아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24 0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내가 주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이방 나라의 모든 신들은 헛되고 무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25 오늘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여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오는 아프리카 왕의 손에서 저와 킷팀 자손을 구원하소서.
26 여호와께서 스포의 말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그를 돌보셔서 스포와 깃딤 자손을 안게아스와 그의 백성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27 그날에 스포가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와 그의 모든 백성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안게아스의 모든 백성을 킷팀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다.
28 안게아스를 향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제포가 칼날로 안게아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의 모든 군대를 쳐서 그날 저녁까지 약 40 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29 안게아스는 자기 군대가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아프리카의 모든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기를 도와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 열 살 이상이면 모두 내게로 오십시오. 만일 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온 가족을 왕이 몰수할 것입니다."
30 그러자 아프리카의 나머지 모든 주민들은 안게아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십 살 이상 된 남자와 소년 약 삼십만 명이 성에서 나와 안게아스에게로 왔습니다.
31 열흘이 지나자 안게아스는 제포와 킷팀 자손들과 다시 싸움을 벌였는데, 그들 사이의 싸움은 매우 크고 격렬했습니다.
32 그리고 제포는 안게아스와 루쿠스의 군대에서 부상당한 많은 사람, 약 이천 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고, 안게아스의 군대 사령관 소시프타르는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33 소시프타르가 쓰러지자 아프리카 군대는 등을 돌리고 도망쳤는데, 안게아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도 그들과 함께 도망쳤다.
34 제포와 킷팀 자손이 그들을 추격하여 길에서 약 200 명을 쳐 죽이고, 아버지와 함께 도망친 안게아스의 아들 아즈드루발을 추격하여 길에서 그의 부하 20 명을 죽였다. 아즈드루발은 킷팀 자손에게서 도망쳐 죽지 않았다.
35 그리고 안게아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는 나머지 부하들과 함께 도망쳐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안게아스는 엘리파스의 아들 제포가 자기와 싸우러 올까 봐 날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제 64 장

1 그때 브올의 아들 발람은 안게아스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포가 안게아스를 이기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 킷팀으로 갔습니다.
2 제포와 킷팀 자손들은 발람을 극진히 영접하였으니, 이는 제포가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며, 제포는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발람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다.
3 제포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킷팀 자손들을 모두 계수하라고 명령하니, 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었다.
4 그러자 스포는 이 일을 기뻐하며 자기 왕국을 다시 세우고 모든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5 그러나 스보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자기를 도우시고 아프리카 왕의 손에서 자기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깃딤 자손과 에서의 악한 자손들의 길을 따라 행하며 그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가르쳐 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서 악이 나온다"라고 말한다.
6 스포는 킷팀의 모든 자손을 안전하게 다스렸으나, 아프리카 왕의 손에서 자기와 온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군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킷팀에 와서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포의 강력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포는 칼날로 아프리카 군대를 모두 쳐부숴습니다. 그래서 안게아스는 엘리바스의 아들 스포와 킷팀 자손을 온종일 두려워했습니다.
7 그 때 스포가 전쟁에서 돌아와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을 이기고 칼날로 그들을 전투에서 쳐부수는 것을 보고, 스포는 킷팀의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야곱의 자손들과 이집트 왕 파라오와 싸우자고 의논했습니다.
8 스포는 이집트의 용사들이 죽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죽었으며, 그들의 모든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9 그리고 스바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온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 에서 자손, 곧 그의 형제들을 쳐서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과 온 이집트와 싸우러 가려 생각했습니다.
10 그리고 스포는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의 모든 형제 에서의 자손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기를,
11 너희는 아프리카 왕이 너희 언약의 일원이므로 그와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그와 싸워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쳐부쉈다.
12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집트와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행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헤브론에 장사 지내러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한 짓입니다.
13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그들과 이집트를 대적하여 싸우는 데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 에서의 자손은 스포의 말을 듣고, 매우 큰 무리를 이루어 스포와 킷팀 자손을 도와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15 스포는 동방의 모든 자손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모여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스포와 킷팀 자손을 도왔습니다.
16 그리하여 에돔 왕과 동방 자손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과 깃딤 왕 제포를 비롯한 모든 왕들이 나가서 헤브론에 그들의 모든 군대를 집결시켰다.
17 그 진영은 매우 빽빽하여 사흘 길이나 되는 거리에 걸쳐 펼쳐져 있었고, 그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18 그리하여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내려가서 온 이집트를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고 파트로스 골짜기에 진을 쳤다.
19 그러자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집트 땅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속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약 삼십만 명이었다.
20 이집트 사람들도 그 당시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왕들과 싸우러 오라고 했습니다.
21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약 150 명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싸우러 나갔다.
22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이 약 삼십천 백오십 명씩 나와서 이 왕들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 고센 땅 밖에서 파트로스 맞은편에 진을 쳤다.
23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우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를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24 그러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우리가 가서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과 싸우겠다. 만일 그 왕들이 우리를 이기거든 너희도 모두 함께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하였다.
25 그리고 킷팀 왕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의 아들 제포와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들의 모든 진영과 동방의 모든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곧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타크판케스 맞은편 파트로스 골짜기에 함께 진을 쳤다.
26 시리아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이 스포의 진영에 있었는데, 그는 킷팀 자손과 함께 전쟁에 나갔으며, 발람은 스포와 그의 부하들이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 그러자 스포가 발람에게 이르되 우리와 이집트 사람들 중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점을 쳐 보아라.
28 발람이 일어나 점치는 기술을 시험해 보았는데, 그는 그 기술에 능숙했지만, 실수를 범하여 그의 손에서 그 도구가 망가졌다.
29 그리고 그는 다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절망하여 그것을 포기하고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스포와 그

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어가게 하시려는 것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에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30 그러자 스포와 하닷은 군대를 편성하여 전투 대형을 갖추고, 이집트 군대 약 삼십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러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31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인들이 파트로스와 타크판케스를 대적하여 이 왕들과 싸웠는데, 그 전투는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불리했다.
32 그 전투에서 왕들은 이집트 사람들보다 강하여 이집트 사람 약 180 명이 그날 죽었고, 왕들의 군대에서는 약 30 명이 죽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왕들 앞에서 도망쳤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이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쳤다.
33 그러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에서와 이스마엘과 깃딤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34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 백오십 명이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 왕들의 진영으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왕들의 신하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왕들과 싸워 왕들의 신하 약 사천 명을 죽였다.
36 여호와께서 왕들의 진영에 큰 공포를 일으키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37 그러자 모든 왕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쳤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추격하여 구스 땅 경계까지 계속해서 쳤다.
38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중 이천 명을 길에서 죽였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다.
39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왕들과 그토록 적은 병력으로 싸웠고,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보고,
40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격렬한 전투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도망쳤고, 모든 사람이 진을 친 군대를 피해 숨어 길가에 숨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만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41 이스라엘 자손은 왕의 군대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그들을 구스 땅의 경계까지 몰아낸 후 돌아갔다.
42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 곧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싸우게 내버려 둔 일을 알고 있었다.
43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도 교활하게 행동하여,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
44 그들이 그들을 죽이는 동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5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우리처럼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당신들은 많은 백성을 거느린 왕들과 싸워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려 하셨습니까?
46 이스라엘 자손이 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쳐라, 쳐라, 그는 이스마엘 사람이나 에돔 사람이나 깃딤 자손이다" 하고 그를 에워싸 죽였다. 그들은 그가 이집트 사람인 것을 알았다.
4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을 상대로 교활하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
48 이스라엘 자손은 이와 같이 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는 약 200 명이었다.
49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50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기쁨으로 고센으로 돌아갔고, 이집트의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제 65 장

1 그 후에 이집트 왕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왕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2 그러자 이집트의 고문들과 장로들이 왕에게 이르되,
3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며, 당신은 우리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알고 있습니다.
4 너희도 그들의 강한 힘을 보았으니, 이 힘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적은 수의 사람이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대적하여 칼날로 쳤으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그들의 수가 많았더라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것이라.
5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서 점차 없애 버려야 합니다.
6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며,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큰 힘으로 우리의 원수와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싸워서 우리를 그 땅에서 멸망시키고 떠나갈 것이다.
7 그리하여 왕이 이집트 장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세워진 계획이니 우리는 이 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 보십시오, 그 땅에는 피톰과 람세스라는 성읍들이 있는데, 전쟁에 대비한 요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우리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너도 가서 그들에게 간교하게 처신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와 고센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여라.
10 이집트와 고센, 파트로스 그리고 그 모든 지역 주민 여러분! 왕께서 우리에게 피톰과 라메세스를 건축하고

전투를 위해 요새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집트 전역
과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성읍 주민 중에서 우리와 함
께 건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왕의 명령에 따라 매
일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가서 부지런
히 건축하여 피톰과 라메세스로 와서 건축을 시작하십
시오.
11 그리고 건축하는 동안, 왕의 명령에 따라 매일 이집
트 전역에 이와 같은 포고령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12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너희와 함께 건축하러
오면, 너희는 그들에게 며칠 동안 매일 품삯을 주어야
한다.
13 그들이 일용직 품삯을 받고 너희와 함께 건축을 마
친 후에는, 너희는 날마다 한 사람씩 몰래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일어나 그들의 감독관과
관리자가 되어, 그들이 품삯 없이 건축을 계속하게 하
라. 만일 그들이 거부하면,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해 강제
로 건축하게 하라.
14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
손에 대항하여 우리 땅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건축과 공사의 피로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 것이며, 당신들이 날마다 그들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이집트의 모든 장로들이 왕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
이 그들과 바로의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였으므로, 그들은 왕의 말대로 행하였다.
16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서 떠나 이집트 전역과
타크판케스와 고센과 이집트를 둘러싼 모든 성읍에 포
고령을 내리게 하여 이르기를,
17 너희는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와 싸워 우리를 멸망시
키려 했다.
18 그러므로 왕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요새화하고, 피
톰과 람세스 성읍을 건설하여 만일 그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싸울 수 있도록 요새를 갖추라고 명령하셨
습니다.
19 이집트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와 함
께 건축하러 오는 자는 왕이 명하신 대로 일당을 받게
될 것이다.
20 이집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신하들이 한
말을 모두 듣고,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서 피톰과 라메세스가 바로의 신하들과 함께 건축하러
왔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는 아무도 자기 형제들과 함
께 건축하러 오지 않았다.
21 바로와 그의 방백들의 모든 신하들이 처음에는 속임
수를 써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축을 하러 왔는데, 마
치 일용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게 일용직을 주었다.
22 바로의 신하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축 공사를
하였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그 공사에 참여하
였다.
23 그리고 그 달이 끝날 무렵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은밀히 물러나기 시작했
습니다.
24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
다. 그들은 일용할 품삯을 받았는데, 이는 이집트 사람
들 중 일부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을 하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
의 품삯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함께 일하는 이집
트 사람들도 자기들의 수고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했습니다.
25 일 년 사 개월이 지나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
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갔고, 이스라엘 자손만 남아서 일
을 계속했다.
26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간
후에 돌아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관리가 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자손 위에 올라 감독관이 되어 그
들이 노동의 대가로 주는 모든 것을 받아 챙겼다.
27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괴롭히려고
날마다 이와 같이 행하였다.
28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홀로 노동에 전념
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
게 아무런 임금도 주지 않았다.
29 이스라엘 사람들 중 몇몇이 품삯을 받지 못하자 일
을 거부하자, 바로의 징수관들과 신하들이 그들을 억압
하고 심하게 때리고 강제로 돌려보내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 년 내내 행했습니다.
30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을 몹
시 두려워하여, 모두 돌아와서 품삯 없이 홀로 일하였
다.
31 이스라엘 자손은 피톰과 라메세스를 건축하였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을 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벽돌
을 만들고 어떤 이들은 건축을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은 이집트 온 땅과 그 성벽을 건축하고 요새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해 동안 일에 힘썼으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
실 때가 되었다.
32 그러나 레위 자손은 처음부터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
지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
33 레위 자손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게 이 모든 말을 속임수로 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34 이집트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 처음에 자기 형제들
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에게 일을 시
키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35 이집트 사람들의 손은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
손에게 끊임없이 가혹하게 대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36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반죽과 벽돌
을 만드는 고된 노동뿐 아니라 밭에서 하는 온갖 일들
을 시켜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3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왕 멜롤을 "이집트 왕 메로
르"라 불렀는데, 이는 그의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이 온
갖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38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려고 온갖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괴롭힘을 당할

수록 더욱 번성하고 자라났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제 66 장

1 그때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죽고, 동방 자손의 나라 메스레카 출신의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 이집트 왕 바로의 통치 제 13 년,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125 년째 되던 해에 삼라는 에돔을 18 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다.
3 그가 왕위에 오르자 군대를 일으켜 엘리파스의 아들 스포와 깃팀 자손을 쳐죽이려고 나섰는데, 이는 그들이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와 전쟁을 벌여 그의 군대를 전멸시켰기 때문이었다.
4 그러나 그는 그와 싸우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가 자기들의 형제라고 말하며 그를 말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라는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에돔 땅으로 돌아갔고, 엘리바스의 아들 제포와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5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에돔 왕 삼라가 킷팀 자손과 싸우기로 결심하였고, 그 후에 이집트와 싸우러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6 이집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닷 시대에 에서의 자손과 싸웠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7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서둘러 너희 일을 마치고 그 땅을 굳건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와 싸우러 올 것이니, 너희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8 이스라엘 자손은 날마다 이집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여 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혀 그 땅에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9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켰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이집트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득 찼다.
10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125 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이집트 땅과 고센 땅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11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장로들과 현자들이 왕 앞에 나아와 그에게 절하고 그의 앞에 앉았다.
12 이집트의 모든 장로들과 현자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왕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나이다.
13 그러나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도 그 땅에서 번성하여 자라나고, 보라, 온 나라가 그들로 가득 찼도다.
14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왕이시여, 온 이집트의 눈이 당신에게 쏠려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멸망시키거나 그 땅에서 그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십시오.
15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우스 땅 출신의 왕의 고문 중 한 사람인 욥이라는 관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 만일 왕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의 종의 조언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하라.
17 욥이 왕과 방백들과 이집트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8 보십시오, 왕께서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고에 관하여 주신 조언은 매우 좋으니, 너희는 그들의 수고를 영원히 그들에게서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19 그러나 만일 왕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조언을 따라 그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 보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우리를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21 만일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왕의 칙령을 내리시고, 그 칙령을 이집트의 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의 피를 땅에 흘려보내도록 하소서. 그 법은 폐지될 수 없게 하소서.
22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자손이 죽으면 그들의 전쟁의 재앙이 그칠 것이다. 왕이여, 그렇게 하고 모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이 일을 실행하도록 명하라.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기뻐하여 왕은 욥의 말대로 행하였다.
23 그러자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은 셰프라였고 다른 한 명은 푸아였다.
24 그러자 산파들이 왕 앞에 나아와 그의 앞에 섰다.
25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산파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만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 두어라.
26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모든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27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나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게 하면, 산파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여 살리었습니다. 산파들은 이렇게 온종일 행했습니다.
28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사람을 보내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여 아이들을 살려냈느냐?" 하고 물었다.
29 그러자 산파들이 왕 앞에서 한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30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을 이집트 여인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건강하여 산파가 오기 전에 출산합니다. 저희 여종들은 오랫동안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모두 건강하여 스스로 산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31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으며, 산파들은 왕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많아졌다.

제 67 장

1 이집트 땅에 레위 자손 중에 암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케핫의 아들이요, 레위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다.
2 그리고 이 남자는 가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레위의 딸이자 그의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이었고, 그녀의 나이는 126 세였다. 그가 그녀에게로 갔다.
3 그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미리암이라 불렀다. 이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4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아론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잉태한 날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자손의 피를 흘리기 시작하였음이라.
5 그 무렵 킷팀 왕 에서의 손자 엘리파스의 아들 제포가 죽고 야네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6 스포가 킷팀 자손을 다스린 기간은 50 년이었고, 그는 죽어서 킷팀 땅의 나브나 성에 묻혔다.
7 그리고 킷팀 자손의 용사 중 하나인 야네아스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50 년 동안 통치하였다.
8 킷팀 왕이 죽은 후에 브올의 아들 발람이 킷팀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렀습니다.
9 바로는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극진히 영접하여 선물을 주고 고문으로 삼고 그의 지위를 높여 주었다.
10 발람은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왕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존경을 받았고, 귀족들은 모두 그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했기에 그를 칭송했습니다.
11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130 년째 되던 해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왕좌에 앉아 눈을 들어 보니 한 노인이 자기 앞에 서 있었고, 그 노인의 손에는 상인들이 쓰는 것과 같은 저울이 들려 있었다.
12 그러자 노인은 저울을 가져다가 바로 앞에 매달았다.
13 그러자 그 노인은 이집트의 모든 장로들과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을 모두 데려다가 묶어서 하나의 저울에 넣었다.
14 그리고 그는 젖먹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다른 저울에 올려놓았더니, 그 새끼 염소가 다른 염소들보다 더 무거웠다.
15 그러자 바로는 이 끔찍한 환상에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어린 염소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많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16 바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17 그러자 왕이 모든 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주어 내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8 브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훗날 이집트를 덮칠 큰 재앙의 전조이니라
19 이스라엘에게 아들이 태어나서 온 이집트와 그 주민들을 멸하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20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희망과 기대를 꺾으십시오. 그리하여 이집트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들의 희망을 없애 버리십시오.
21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22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조언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23 그러자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사람을 보내어 두 고문을 불러오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왕의 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4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두 고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과 우지 사람 욥을 불러오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앉았다.
25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둘 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들었으니 이제 의논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보아라. 그리하여 그들의 악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
26 그러자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27 만일 왕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28 이는 여호와께서 옛날부터 택하셔서 온 땅의 모든 민족과 왕들 가운데서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이니라.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을 뻗어 해를 끼쳤는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않으셨겠느냐?
29 너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의 전 왕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30 이집트 왕이 사라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에 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자, 아브라함은 나았습니다.
31 그리고 블레셋 왕 게라 사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를 막아 버리셨습니다.
32 그들의 하나님이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그를 두렵게 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데려간 사라를 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후에 게라르의 모든 백성이 사라 때문에 벌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간구하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33 아비멜렉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을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많은 선물을 주었다.

34 그가 이삭을 게라르에서 쫓아낼 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게라르의 모든 물줄기가 말라붙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5 그리하여 게라르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삿과 그의 군대 지휘관 피콜이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36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을 위해 간구해 달라고 청하니, 그가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
37 야곱도 그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오빠인 시리아 사람 라반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자손을 멸하려고 온 가나안 왕들의 손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오히려 그들이 돌아서서 그들을 쳤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을 뻗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38 진실로 네 조부의 아버지이신 바로 왕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이집트 땅의 모든 방백들보다 높이 세웠으니, 이는 요셉이 그의 지혜로 온 땅의 주민들을 기근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라.
39 그 후에 그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덕행으로 이집트 땅과 고센 땅이 기근에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다.
40 그러므로 만일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그만두시고, 만일 그들이 이집트에 거주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시라면 그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어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시오.
41 바로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몹시 노하여 이드로는 수치심에 왕 앞에서 일어나 자기 땅인 미디안으로 가서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42 그러자 왕이 우지 사람 욥에게 이르되, 욥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히브리인들에 관하여는 어떤 충고를 하느냐?
43 그리하여 욥이 왕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왕의 권한 아래 있으니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44 그러자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아, 네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네 말을 말해 보아라.
45 그러자 발람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히브리인들을 대적하여 꾸미신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며, 왕께서는 어떤 계략으로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46 만일 네가 불타는 불로 그들을 약하게 하려 해도 이길 수 없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구원하셨고, 만일 네가 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해도 그들의 조상 이삭이 칼에서 구원받아 그 자리에 숫양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47 만일 네가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재산을 줄이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라반을 섬기며 온갖 고된 일을 했고, 번영했기 때문이다.
48 그러므로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대적하여 세워진 책략이며, 이것으로 당신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며, 이 책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49 왕께서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그들의 자녀 중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물에 던지라고 명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아버지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 왕은 발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이 마음에 들었으며, 왕과 방백들은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51 그러자 왕은 이집트 온 땅에 포고령을 내리고 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오늘부터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물에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2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을 샅샅이 뒤져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 버리고 딸은 살려 두어라.
53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헤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함께 갔다.
54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과 함께 남아 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해산할 때가 되면 들판으로 나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들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55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으므로, 하늘에 있는 그의 종들의 천사 중 하나를 보내어 각 아이를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포대기를 입히고, 그 손에 매끄러운 돌 두 개를 쥐어 주어 하나에서는 젖을, 다른 하나에서는 꿀을 빨게 하셨으며, 그 머리카락이 무릎까지 자라게 하여 스스로를 가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꼭 붙어 계시기 위함입니다.
56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땅에 번성하게 하시려고 땅에게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명하시어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안에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내니 그들은 그 성읍에서 땅의 풀과 숲의 풀처럼 자라났고, 각자 자기 가족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57 이스라엘 자손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풀처럼 땅 위에 있었더라.
58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각자 자기 밭으로 나가 소 한 쌍과 쟁기를 가지고 씨 뿌리는 때에 밭을 갈듯이 밭을 갈았습니다.
59 그들이 밭을 갈 때 이스라엘 자손의 어린아이들을 해칠 수 없었으므로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많아졌다.
60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매일 고센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61 그들이 한 아이를 찾아서 어머니의 품에서 억지로 빼앗아 강에 던져 버렸으나,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남겨 두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종일 행하였다.

제 68 장

1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론의 누이 암람의 딸 미리암에게 임하여 그녀가 나가서 집안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요 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였더라
2 암람은 딸의 말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앞서 파라오가 야곱 집안의 모든 남자아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아내를 쫓아냈었습니다.
3 그리하여 암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아내를 내쫓은 지 삼 년 후였다.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요게벳이 임신하였다.
4 그녀가 잉태한 지 칠 달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 온 집안이 해와 달이 비출 때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5 그 여자는 아이가 보기 좋고 예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안방에 숨겨 두었다.
6 그 무렵 이집트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다.
7 이집트 여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으로 가서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어깨에 메고 갔다.
8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지 못하도록 각 여인이 아들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숨겼습니다.
9 이집트 여인들이 고센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아직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깨에 메고 있었다. 한 이집트 여인이 히브리 여인의 집에 들어가자 그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10 그러자 그것이 울부짖을 때 안방에 있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이집트 여인들이 가서 바로의 집에 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11 그러자 바로는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아이들을 잡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여인들에게 날마다 행했습니다.
12 요게벳이 아들을 숨긴 지 약 석 달쯤 되었을 때, 그 일이 바로의 궁궐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3 그러자 그 여자는 관리들이 오기 전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서둘렀다. 그녀는 갈대로 궤를 만들어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 강가의 돌밭에 놓았다.
14 그의 누이 미리암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기 말이 어떻게 될지 보려고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15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무서운 더위를 보내시어 사람의 살을 태양이 그 주위를 도는 것처럼 태우셨고, 이집트 사람들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16 그러자 온 이집트 사람들이 살을 태울 듯한 scorching heat 때문에 강으로 내려가 목욕을 했다.
17 바로의 딸 바티아도 몹시 더워서 강에 목욕하러 갔는데, 그녀의 시녀들과 이집트의 모든 여인들도 강가에 함께 있었다.
18 바티아가 눈을 들어 강을 보니, 물 위에 언약궤가 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하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19 그녀가 문을 열어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말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들 중 하나이구나."
20 강가를 걷던 이집트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먹이려 했으나, 그는 젖을 물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어머니의 젖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신 일이었다.
21 그때 그의 누이 미리암은 강가에 있는 이집트 여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일을 보고 바로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22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 젊은 여자에게 “가거라” 하고 말하더니, 그 여자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23 그러자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일 은 두 닢씩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24 이년이 지나 아이가 장성하자, 그녀는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고, 그녀는 그 아이를 아들처럼 여겨 이름을 모세라 불렀다.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25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암람은 그의 이름을 차바르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자기가 내쫓았던 아내와 다시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26 요게벳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예쿠티엘이라 불렀다. 이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를 소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다시 돌려주셨기 때문이다.
27 그의 누이 미리암은 그를 예렛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그의 최후가 어떠할지 알고자 그를 따라 강가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28 그의 형 아론은 그의 이름을 아비 자누이라 불렀는데, 이는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났다가 그 때문에 어머니에게 돌아왔다'는 뜻이다.
29 암람의 아버지 케핫은 그의 이름을 아빅돌이라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의 무너진 틈을 메우셔서 그들이 더 이상 남자아이들을 물에 던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30 그들의 유모는 그를 아비 소코라 불렀는데, 이는 함의 자손들 때문에 그가 석 달 동안 그의 장막에 숨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31 온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압제자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32 모세는 바로의 집에 있었고, 바로의 딸 바티아와 결혼하여 아들처럼 여겼으며,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제 69 장

1 에돔 왕은 그 당시 재위 18 년에 세상을 떠났고, 에돔 땅에 왕궁으로 지은 자신의 성전에 묻혔다.
2 에서의 자손은 강가에 있는 페토르에 사람을 보내어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멋진 젊은이를 데려오게 하였으

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들은 그를 삼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다.
3 사울은 에돔 땅에서 에서의 모든 자손을 다스리며 사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4 이집트 왕 바로가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조언한 것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온 땅에 번성하여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5 그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 전역에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일의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6 그리고 매일 하는 일, 곧 회반죽이나 벽돌을 만드는 일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막내아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7 그 당시 이집트의 노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매일 벽돌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막내아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아버지가 부족하게 만든 벽돌 자리에 건물 공사에 투입했습니다.
8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날마다 그렇게 하였으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였더라.
9 그러나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했던 간교한 술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70 장

1 모세가 태어난 지 사 년째 되던 해에 바로가 연회에 앉아 있었는데, 왕비 알파라니트는 그의 오른편에, 바티아는 그의 왼편에 앉아 있었고, 어린 모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으며, 브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왕국의 모든 방백들이 왕 앞에서 식탁에 앉아 있었다.
2 그러자 그 소년은 왕의 머리에 손을 뻗어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3 왕과 왕자들이 그 소년이 한 일을 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4 그러자 왕이 식탁에 앉아 있던 방백들에게 이르되 너희 방백들아, 이 일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 아이가 한 일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겠느냐?
5 그러자 마술사 브올의 아들 발람이 왕과 방백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군이시여, 여러 날 전에 꾼 꿈과 그 꿈을 당신의 종이 해석해 드린 것을 기억하소서.
6 그러므로 이 아이는 히브리 자손 가운데 있는 아이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 아이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 그는 히브리 소년이며,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지혜와 총명함을 지녔습니다. 그는 지혜로 이 일을 행하여 이집트 왕국을 자기 것으로 택했습니다.
8 이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왕들과 그 귀족들을 속이는 습성이며, 세상의 왕들과 그 백성들을 떨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교활하게 행하는 습성입니다.
9 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행하여 바벨 왕 니므롯의 군대와 게라르 왕 아비멜렉의 군대를 속이고 헷 자손의 땅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을 차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10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하여 “그녀는 내 누이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집트와 그 왕을 속이려는 속셈이었다.
11 그의 아들 이삭도 게라르에 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렇게 하였고, 그의 힘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군대를 이겼다.
12 그는 또한 블레셋 왕국을 넘어뜨리려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의 누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13 야곱도 그의 형을 배신하여 그의 손에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14 그 후 그는 파단아람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서 교활하게 그의 딸과 가축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달아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다.
15 그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가 노예가 되었고, 12 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16 이전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으며, 그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이집트의 모든 왕자들보다 그를 높이 세웠습니다.
17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을 내리시자,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온 가족을 데려오게 하시고, 아무 값이나 보상 없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로 사셨다.
18 그러므로 나의 주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집트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나 그들의 행적을 그대로 행하고 모든 왕과 군주와 재판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9 만일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그의 피를 땅에 흘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라나 왕의 손에서 정권을 빼앗아 가고, 그가 통치한 후에 이집트의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20 그러자 발람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모든 재판관과 현자들을 불러 모아,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사형이 마땅한 판결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그를 죽이겠습니다."
21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왕 앞에 나아왔다. 그때 주의 천사 하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는 이집트의 현자 중 한 사람과 같았다.
22 그러자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에 있는 이 히브리 소년이 한 일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발람이 이 일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
23 이제 너희도 스스로를 심판하여 그 아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보라.

24 그러자 바로의 동방 박사 중 하나처럼 보이는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동방 박사들과 왕과 방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25 만일 왕께서 원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오닉스 돌과 숯불을 가져와 아이 앞에 놓게 하십시오. 만일 아이가 손을 내밀어 오닉스 돌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26 그러나 만일 그가 숯불 위에 손을 뻗으면, 우리는 그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는 살 것이다.
27 왕과 방백들이 그 일이 좋다고 생각하여 왕은 주의 천사의 말대로 행하였다.
28 그러자 왕은 오닉스 돌과 석탄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놓으라고 명령했다.
29 그들이 그 소년을 자기들 앞에 세우니, 소년이 흑요석에 손을 뻗으려 하였으나, 주의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숯불 위에 놓으니, 숯불이 그의 손에서 꺼졌다. 소년이 그 손을 들어 입에 넣자, 입술과 혀의 일부가 타들어갔고, 입과 혀가 무거워졌다.
30 왕과 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긴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알았습니다.
31 그리하여 왕과 방백들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는 바로의 집에 거하며 자랐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32 그 아이는 왕궁에 있는 동안 자주색 옷을 입었고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랐다.
33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자 바로의 딸 바티아는 그를 아들처럼 여겼고, 바로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으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34 그리고 그는 날마다 나가서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갔는데, 모세는 그들이 날마다 숨이 차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35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날마다 이러한 수고가 주어졌느냐?"
36 그들이 예수께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예수 탄생 전에 바로가 자기들에게 내린 모든 명령을 이야기하였다.
37 그들이 그에게 브올의 아들 발람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꾸민 모든 계략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낸 후에 그를 죽이려고 꾸민 계략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38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발람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날마다 매복하였다.
39 발람은 모세를 두려워하여 그와 그의 두 아들이 일어나 이집트를 떠나 도망쳐 자기 목숨을 구하고 구스 왕 키키아누스에게로 갔다.
40 모세가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그를 매우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41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보러 고센으로 간 날이 이르렀을 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생각하여 슬퍼하였다.
42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와 바로의 궁전에 이르러 왕 앞에 나아가 왕 앞에 절하였다.
43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간청하건대 내가 주께 작은 부탁을 드리러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서지 마소서. 바로가 이르되 말하라 하시니라
4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루 동안 수고를 쉬게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45 그러자 왕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 요청을 들어주려고 네 얼굴을 들었노라 하였느니라
46 그러자 바로는 이집트와 고센 전역에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47 왕이 너희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한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모든 날을 지켜라. 이는 왕과 바티아의 아들 모세가 명한 것이다.
48 모세는 왕이 자기에게 허락한 이 일에 기뻐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49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뜻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음이라.
50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이집트 전역에 퍼졌다.
51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위대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고 왕에게 그들에 관하여 평화의 말을 전했기 때문이다.

제 71 장

1 모세가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싶어 고센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고센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들의 짐을 살펴보았고, 이집트 사람이 자기 히브리 형제 중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 매 맞은 사람이 모세를 보자 도움을 청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이집트 사람이 밤에 제 집에 와서 저를 묶고 제 앞에서 제 아내에게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3 모세가 이 악한 말을 듣고 이집트 사람에게 분노하여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묻고 히브리 사람을 그 치던 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4 히브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갔다.
5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버리려고 생각했다. 야곱의 집에서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오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6 그러자 그 여자는 가서 자기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여자의 오빠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집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7 이 날 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보니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악한 자에게 말했습니다. " 어찌하여 네 이웃을 치느냐?"
8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군주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 일이 다 알려졌나이다 하더라
9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경비대장의 모습으로 바로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
10 여호와의 천사가 경비대장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의 머리도 함께 베어 버렸으니, 경비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더라.
11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집트 국경 밖, 사십 일 길 떨어진 곳에 두었다.
12 그리고 그의 형 아론만이 이집트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언하기를,
13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다.
14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여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15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셨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음이 아니하셨도다.
16 그 당시 바로의 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가혹하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돌보실 때까지 그들을 짓밟고 억압했습니다.

제 72 장

1 그 무렵에 구스 자손과 동방 자손과 아람 자손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구스 왕에게 반역하였다.
2 그리하여 구스의 왕 키키아누스는 모래알처럼 많은 구스의 모든 자손을 이끌고 아람과 동방 자손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다.
3 키키아누스가 나갈 때에는 마술사 발람과 그의 두 아들을 남겨두고 그 땅의 가장 천한 백성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키키아누스는 아람과 동방 자손에게 나아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쳤고, 그들은 모두 키키아누스와 그의 백성 앞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5 그리고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처음처럼 복종시켰고, 그들의 땅에 진을 치고 평소처럼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6 브올의 아들 발람은 구스 왕이 그에게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도록 맡기고 떠났을 때,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키키아누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했습니다.
7 그러자 그 땅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여 그를 왕으로 삼고 그의 두 아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
8 그리하여 그들은 일어나 성읍의 두 모퉁이에 성벽을 쌓고 매우 견고한 건물을 지었다.
9 그리고 셋째 모퉁이에서 그들은 성읍과 쿠스 땅 전체를 둘러싼 강 사이에 수많은 도랑을 파고 강물이 거기서 터져 나오게 하였다.
10 그들은 주문과 마법으로 넷째 모퉁이에 수많은 뱀을 모아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거주하였으며, 그들 앞에서는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11 키키아누스는 아람과 동방 자손과 싸워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고, 그들은 그에게 늘 하던 대로 조공을 바쳤다. 그러자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12 구스의 왕 키키아누스와 그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그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성벽이 높이 쌓여 있었고, 매우 높이 솟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놀랐다.
13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지체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몹시 두려워하여 성벽을 쌓고 요새화하여 가나안 왕들이 싸우러 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14 그리하여 왕과 군대가 성문에 이르러 보니 성의 모든 성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수꾼들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15 그러나 그들의 왕이자 마술사인 발람의 명령에 따라 파수꾼들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6 그리하여 그들은 성문 맞은편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고, 그날 키키아누스 군대 130 명이 전사하였다.
17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들은 계속 싸웠는데, 강가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려고 애썼지만 건널 수 없어서 몇몇은 구덩이에 빠져 죽었습니다.
18 그러자 왕은 그들에게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 그곳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대로 했다.
19 그들이 도랑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살이 거세게 일렁이더니 열 척의 뗏목에 탄 이백 명이 익사했다.
20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뱀들이 있는 곳에서 싸우려고 했으나,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다. 뱀들이 그들 중 백칠십 명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스와의 싸움을 그만두고 구스를 9 년 동안 포위했는데, 아무도 드나들지 못했다.
21 그때 전쟁과 포위 공격으로 쿠스가 공격받았을 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던 파라오를 피해 이집트에서 도망쳤다.
22 모세는 열여덟 살 때 파라오의 눈을 피해 이집트를 탈출하여 키키아누스의 진영으로 갔는데, 그때 키키아누스는 구스를 포위하고 있었다.
23 모세는 구스 왕 기키아누스의 진영에 아홉 해 동안 머물렀는데, 그들이 구스를 포위 공격하는 동안 모세는 그들과 함께 드나들었다.
24 왕과 방백들과 모든 군사들은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위대하고 훌륭하였으므로 그의 키는 위엄 있

는 사자 같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힘은 사자 같았으며 그는 왕의 조언자였음이라.
25 그리고 9 년이 지난 후, 키키아누스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 병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여 7 일 만에 죽었다.
26 그리하여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여 옮겨 이집트 땅 북쪽 성문 맞은편에 묻었다.
27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아름답고 견고하며 높은 건물을 짓고, 그 아래에 큰 돌들을 쌓았다.
28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들에 그들의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위엄과 그가 치른 모든 전쟁을 새겨 넣었으니, 보라, 오늘날까지도 그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도다.
29 쿠시 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후, 전쟁으로 인해 그의 신하들과 군대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30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 광야에서 아홉 해를 보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십시오."
31 만일 우리가 그 성을 공격하겠다고 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곳에 남아 포위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죽을 것이다.
32 이제 아람의 모든 왕들과 동방 자손들이 우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적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와 싸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일 것입니다.
33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 위에 왕을 세우고, 그 성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포위된 채로 남아 있읍시다.
34 그들은 그날 기키아누스의 군대에서 왕을 세울 사람을 택하려 했으나 모세와 같은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
35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각자 옷을 벗어 땅에 던지고 큰 더미를 만들어 모세를 그 위에 눕혔다.
36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 나팔을 불며 그 앞에서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살아 계십시오! 왕이시여, 살아 계십시오!”
37 그러자 모든 백성과 귀족들이 모세에게 맹세하여 기키아누스의 아내인 구스 사람 아도니아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고, 그날 모세를 왕으로 세웠다.
38 그날 구스의 모든 백성은 포고령을 내려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소유물 중에서 얼마씩 모세에게 주어야 한다 하더라.
39 그리고 그들은 더미 위에 보를 씌우고 각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씩, 어떤 사람은 금 귀걸이를, 어떤 사람은 동전을 그 위에 던져 넣었습니다.
40 또한 쿠스 자손은 모세에게 오닉스, 유향, 진주, 대리석과 은과 금을 풍성하게 던져 주었습니다.
41 모세는 구스의 모든 자손이 자기에게 준 은과 금, 모든 그릇, 유향과 오닉스를 가져다가 자기 보물 창고에 보관하였다.
42 그날 모세는 구스 왕 키키아누스를 대신하여 구스 자손을 다스렸다.

제 73 장

1 이집트 왕 파라오의 통치 55 년,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157 년째 되는 해에 모세가 쿠스에서 통치하고 있었다.
2 모세는 스물일곱 살에 구스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구스 자손들 모두의 눈에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니, 구스 자손들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더라. 이로써 모세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4 그리고 그의 통치 일곱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이 모여 모세 앞에 나아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였다.
5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왕 앞에서 한목소리로 말하기를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논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6 우리가 성읍을 포위한 지 벌써 9 년이 되었는데,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7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내 말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8 만일 우리가 키키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다시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전처럼 부상을 입고 쓰러질 것입니다.
9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성이 우리 손에 넘어올 것입니다.
10 그러자 모든 군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11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지나가면서 온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12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숲으로 가서 황새 새끼들을 한 마리씩 손에 들고 데려오너라."
13 왕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새끼를 데려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왕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차지할 것이다.
14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데려오면 너희가 그것들을 돌보고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며 매의 새끼들처럼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15 그리하여 구스의 모든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일어나 진영 전체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여 이르기를,
16 쿠스의 모든 자손들아, 왕의 명령은 이것이니, 너희는 모두 함께 숲으로 가서 거기서 어린 황새를 잡아 각자 자기 새끼를 손에 들고 집으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17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왕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을 것이다.
18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그대로 하여 숲으로 나가 소나무에 올라가서 각자 손에 어린 황새를 한 마리씩 잡아 사막으로 데려가 왕의 명령대로 길러 매의 새끼처럼 쏘는 법을 가르쳤다.
19 어린 황새들이 자란 후에 왕은 그것들을 사흘 동안 굶기라고 명령했고, 모든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왕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강건하여 용감한 자가 되라 각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어린 황새를 손에 들고 가라

21 우리가 일어나 뱀들이 있는 곳에서 그 성읍을 공격하여 싸우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22 그들이 각자 자기 새끼를 손에 들고 떠나갔는데,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각자 자기 새끼 황새를 뱀들 위에 보내라 하였더라.
23 그러자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각자 어린 황새를 내보냈으니, 그 어린 황새들이 뱀 위로 달려가 뱀들을 모두 잡아먹고 그곳에서 뱀들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24 왕과 백성이 그곳에 있는 모든 뱀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25 그들이 그 성에 이르러 싸워서 성을 점령하고 정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26 그날 성읍 주민 중에서 천백 명이 죽었으니, 곧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성을 포위한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27 그리하여 쿠스의 모든 자손은 각자 자기 집으로, 아내와 자녀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28 마술사 발람은 그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자기와 그의 두 아들과 여덟 형제를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로 갔다.
29 그들은 율법책에 언급된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이며,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다.
30 그리하여 모세는 그의 지혜로 그 성을 점령하였고, 구스의 자손들은 그를 구스 왕 키키아누스 대신에 왕위에 앉혔다.
31 그리고 그들은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기키아누스의 아내인 구스 왕비 아도니아를 그의 아내로 주었다.
32 모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마리아에게 가지도 않았고, 마리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33 모세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하여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억하였다.
34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쳤을 때 이삭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과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느니라.
35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후손을 셈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종으로 주셨느니라.
36 그러므로 모세는 구스를 다스리는 동안 기키아누스의 아내에게 마음도 눈도 돌리지 않았다.
37 모세는 평생토록 주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진실로 주님 앞에서 행하였고, 평생토록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가던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38 모세는 구스 자손의 왕국에서 강성해졌고, 그의 평소 지혜로 구스 자손을 다스렸으며, 그의 왕국은 번성하였다.
39 그때 아람과 동방 자손들이 구스의 왕 키키아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구스에 반역하였다.
40 모세는 매우 강한 백성인 구스의 모든 자손, 곧 삼만 명쯤을 모아 아람과 동방 자손과 싸우러 나갔다.
41 그들이 먼저 동방 자손에게 갔더니, 동방 자손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맞으러 와서 그들과 싸웠다.
42 동방 자손과의 전쟁이 심하여 여호와께서 동방 자손 모두를 모세의 손에 넘겨주셨고, 약 삼백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43 그리하여 동방의 모든 자손이 돌아서서 물러갔으므로 모세와 구스의 자손이 그들을 추격하여 정복하고 그들의 관습대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44 그리하여 모세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은 그곳에서 아람 땅으로 건너가 전쟁을 치렀다.
45 아람 백성도 그들을 맞으러 나가서 싸웠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세의 손에 넘겨주셨고 아람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46 아람도 모세와 구스 백성에게 정복당하여 통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였다.
47 모세는 아람과 동방 자손들을 구스 자손들에게 복종시켰고, 모세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은 구스 땅으로 향하였다.
48 모세는 구스 자손의 왕국에서 강성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구스 자손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제 74 장

1 그 해 말에 에돔 왕 사울이 죽고 아크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 모세가 쿠스를 다스린 지 16 년째 되던 해에 아크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에돔 땅에서 에돔의 모든 자손을 다스리고 38 년 동안 통치하였다.
3 그의 시대에 모압은 에돔의 권세에 반역하였다. 모압은 베닷의 아들 하닷 시대부터 에돔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닷이 모압과 미디안을 쳐서 모압을 에돔에 복속시켰다.
4 아크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에돔을 다스리게 되자, 모압의 모든 자손은 에돔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였다.
5 그 무렵 아프리카의 왕 안게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즈드루발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6 그 무렵에 킷팀 자손의 왕 야네아스가 죽고, 그들은 야네아스를 그가 거주지로 삼기 위해 카노피아 평야에 지은 신전에 묻었으며, 라티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7 모세가 쿠스 자손을 다스린 지 22 년째 되던 해에 라티누스는 킷팀 자손을 다스린 지 45 년이 되었습니다.
8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을 위해 크고 견고한 망대를 건축하고, 그 안에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아름다운 신전을 지었는데, 이는 당시 관습대로 한 것이었다.
9 즉위 3 년에 그는 자신을 위해 많은 배를 만든 모든 숙련된 사람들에게 포고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10 그리하여 라티누스는 그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배를 타고 아프리카 왕 안게아스의 아들 아스드루발과 싸우러 갔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이르러 아스드루발과 그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11 라티누스는 아스드루발을 물리치고, 그의 아버지가 킷팀 자손에게서 가져온 수로를 아스드루발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아스드루발은 우지의 딸 야니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라티누스는 수로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아스드루발의 온 군대를 크게 쳤습니다.
12 그러자 아스드루발의 남은 용사들은 힘을 모으고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킷팀 왕 라티누스와 싸웠다.
13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투는 매우 치열하여 그들은 모두 라티누스와 그의 백성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아스드루발 왕도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14 아즈드루발 왕에게는 우슈페제나라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고운 모습 때문에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옷에 수놓았습니다.
15 라티누스의 신하들이 아스드루발의 딸 우슈페제나를 보고 그들의 왕 라티누스에게 그녀를 칭찬하였다.
16 그리하여 라티누스는 그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라티누스는 우슈페제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키팀으로 가는 길을 되돌아갔다.
17 안게아스의 아들 아즈드루발이 죽고 라티누스가 전쟁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간 후에 아프리카의 모든 주민들이 일어나 안게아스의 아들 아니발, 곧 아즈드루발의 동생을 데려다가 그의 형을 대신하여 아프리카 온 땅의 왕으로 세웠다.
18 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그의 형제 아즈드루발의 원수와 아프리카 주민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킷팀으로 가서 킷팀 자손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행하였다.
19 그리하여 그는 많은 배를 만들어 온 군대를 이끌고 그 배를 타고 킷팀으로 갔다.
20 그리하여 아니발은 킷팀 자손과 싸웠고, 킷팀 자손은 아니발과 그의 군대 앞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아니발은 그의 형제의 원수를 갚았다.
21 아니발은 킷팀 자손과 18 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고, 킷팀 땅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그곳에 진을 쳤다.
22 아니발은 킷팀 자손을 매우 심하게 쳐서 그들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죽였고, 나머지 백성 중에서 약 8 만 명을 죽였다.
23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아니발은 자기 땅인 아프리카로 돌아가 그의 형 아즈드루발을 대신하여 안전하게 통치하였다.

제 75 장

1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180 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용맹한 사람들이 걸어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이니라.
2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해 주신 기간, 곧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간이 다 찼다고 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큰 손으로 이집트에서 함께 나왔다.
4 그러나 그들은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가져오지 않고 은과 금만 가져왔으며, 그날 먹을 빵조차 손에 들고 가지 않았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식량을 값에 보답받을 생각이었고, 만약 보답받지 못하면 강제로 빼앗을 생각이었다.
5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우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니, 한 사람이 천 명을 추격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물리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함께 나아갔다.
6 그들이 방향을 가드 땅으로 바꾸어 내려가서 가드의 목자들이 가드 자손의 가축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7 그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빵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니, 값 주고 양 몇 마리를 주십시오."
8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 양이나 소라서 우리가 돈을 받고 당신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것들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다가왔습니다.
9 그러자 가드의 목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 멀리까지 들렸고, 가드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에게로 나아갔다.
10 가드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의 악행을 보고 돌아와서 가드 사람들을 모으고 각자 갑옷을 입고 에브라임 자손과 싸우려고 나갔다.
11 그들이 가드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는데, 싸움이 치열하여 그날에 서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
12 그리고 이듬해에 가드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을 도우러 오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3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 우리 가축을 빼앗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와 싸우려는 에브라임 자손들을 칠 수 있게 하소서.
14 에브라임 자손들은 삼일 동안 빵을 먹지 못해 굶주림과 갈증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때 블레셋 성읍들에서 사만 명의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을 도우러 나섰다.
15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자손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자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16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쳐서 죽였으니, 전투에서 도망친 열 명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7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자손에게 내리신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정해 주신 때가 이르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18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약 이만 명쯤 되었고, 그들의 동족들이 시체를 옮겨 자기네 성읍에 묻었다.
19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죽은 자들은 가드 골짜기에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장사도 치르지 않아 그 골짜기가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찼습니다.

20 그리고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21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여러 날 동안 그들을 위해 슬퍼하였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다.
22 그가 자기 아내에게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가 집에서 불행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베리아라 지었다.

제 76 장

1 그 당시 암람의 아들 모세는 여전히 구스 땅의 왕이었는데, 그는 왕국을 번성하게 하였고, 구스 자손을 공의와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다스렸다.
2 그리고 구스의 모든 자손은 모세가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 내내 그를 사랑하였고, 구스 땅의 모든 주민은 그를 매우 두려워하였다.
3 모세가 구스를 다스린 지 사십 년째 되던 해에 모세가 왕좌에 앉아 있었고, 아도니아 왕비는 그 앞에 있었으며, 모든 귀족들은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4 그러자 아도니아 왕비가 왕과 방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구스의 자손인 당신들이 이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5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쿠스를 다스린 40 년 동안 나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쿠스 자손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
6 그러므로 이제 구스의 자손들아, 들으라. 이 사람이 다시는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는 우리 혈통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7 보라, 내 아들 메나크루스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너희가 주인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이집트 왕의 노예인 이방인을 섬기는 것보다 나으니라.
8 그리고 구스 자손의 모든 백성과 귀족들은 아도니아 왕비가 그들의 귀에 대고 한 말을 들었다.
9 모든 백성은 저녁까지 준비를 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키키아누스의 아들 메나크루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10 그리고 구스의 모든 자손은 모세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고, 구스의 자손은 모세에게 맹세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11 그러나 구스의 자손들은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보냈다.
12 그리하여 모세는 구스 땅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 구스 왕위를 그만두었다. 모세가 구스 땅에서 나올 때 그의 나이는 66 세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옛날부터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을 함 자손의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시려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13 그래서 모세는 바로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기가 두려워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14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일곱 딸이 아버지의 양 떼를 치러 나갔다.
15 그들이 우물에 이르러 물을 길어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주었다.
16 그러자 미디안의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고, 모세는 일어나 그들을 도우며 양 떼에게 물을 주었다.
17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돌아와 모세가 자기들에게 해준 일을 이야기하였다.
18 그들이 말하기를,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다 주고 양 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하였습니다.
19 그러자 르우엘이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두고 왔느냐?"
20 르우엘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여 집으로 데려왔고,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21 모세는 르우엘에게 그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구스에서 사십 년 동안 통치했고, 그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고 그를 평화롭게 보내면서 존귀한 예물과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2 르우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구스 자손과 화해해야겠다. 그는 그들에게서 도망쳤으니까.'
23 그들은 모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모세는 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모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르우엘의 딸 십보라가 그를 불쌍히 여겨 항상 빵과 물을 주어 먹였습니다.
24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이집트 땅에 머물며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온갖 고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집트의 압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가혹하게 행해졌다.
25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를 치시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잔혹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6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수고 때문에 그분께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7 그러나 그의 노여움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바로의 손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뻗어 있었으며, 바로는 여호와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씌워 온갖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다.
28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는 자기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그를 고쳐 달라고 요청하였다.
29 그러자 그의 동방 박사들과 마술사들이 예수께 이르되 어린아이들의 피를 상처에 넣으면 나을 것이라 하였더라
30 그러자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신하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31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갓난 아기들을 어머니 품에서 강제로 빼앗아 매일 한 명씩 바로에게 데려왔고, 의사들은 그 아이들을 죽여서 병든 몸에 바르는 일을 매일같이 행하였다.
32 바로가 죽인 아이들의 수는 삼백칠십오 명이었다.

33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고, 그 재앙은 더욱 거세졌다.
34 바로는 그 전염병으로 십 년 동안 고통받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다.
35 십 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파괴적인 재앙으로 바로를 계속 괴롭히셨다.
36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심한 종양과 위장 질환을 내리셨는데, 그 병이 심한 종기로 변했습니다.
37 그때에 바로의 두 신하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와서 바로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일을 게을리하고 노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38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육체적인 고통에 몹시 괴로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39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병든 것을 알고 돌아서서 우리를 조롱하니, 이제 내 병거를 준비하여 고센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조롱하는 모습을 직접 보겠다 하니라. 그리하여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해 병거를 준비하였다.
40 그들이 그를 데려다가 말에 태웠으니, 그는 스스로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41 그리고 그는 기병 열 명과 보병 열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으로 갔다.
42 그들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렀을 때, 왕의 말이 포도원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양쪽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낮고 평평한 땅이 있었다.
43 그러자 말들이 그곳에서 빠르게 달려 서로 에워쌌고, 다른 말들은 왕의 말을 에워쌌다.
44 왕이 타고 있던 말이 낮은 평지에 떨어지니, 왕이 넘어지자 수레가 왕의 얼굴 위로 넘어졌고 말이 왕 위에 엎드러졌다. 왕은 살이 몹시 아파서 울부짖었다.
45 왕의 살점이 찢겨 나가고 뼈가 부러져서 말을 탈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일이었으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46 그의 신하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조금씩 이집트로 데려왔고, 그와 함께 있던 기병들도 이집트로 돌아갔다.
47 그들이 그를 침대에 눕히니, 왕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왕비 아파라니트가 와서 왕 앞에 나와 울었고, 왕도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48 그날 그의 모든 귀족과 신하들이 와서 왕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통곡하였다.
49 그러자 왕의 신하들과 모든 고문들은 왕에게 자기 아들들 중에서 누구든지 택하여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라고 권면하였다.
50 왕에게는 그의 왕비 아파라니트가 낳은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었고, 그 외에도 첩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다.
51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이는 오트리, 둘째는 아디캄, 셋째는 모리온이요, 그들의 누이들은 맏이는 바티아, 둘째는 아쿠지였다.
52 왕의 맏아들 오트리는 어리석고 말이 성급하고 급했다.
53 그러나 아디캄은 교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이집트의 모든 지혜에 정통했으나, 용모가 볼품없고 살이 찌고 키가 매우 작아서 키가 한 규빗이었다.
54 왕은 자기 아들 아디캄이 총명하고 모든 일에 지혜로운 것을 보고 자기가 죽은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55 그리고 그는 아빌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의 나이는 열 살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네 아들을 낳았다.
56 그 후에 그는 가서 아내 셋을 맞아 아들 여덟과 딸 셋을 낳았다.
57 그리하여 왕은 심한 병에 걸렸고, 그의 몸에서는 마치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들판에 버려진 시체처럼 악취가 났다.
58 왕은 자기 병이 심해진 것을 보고 아들 아디캄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여 그를 왕으로 삼았다.
59 그리고 삼 년 후에 왕은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 속에서 죽었고, 그의 신하들이 그를 옮겨 조안 미즈라임에 있는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 묻었다.
60 그러나 그들은 왕들에게 관례대로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다. 그의 살이 썩어 악취가 나서 가까이 다가가 방부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급히 매장했다.
61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재앙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에 대하여 그에게 재앙으로 갚으신 것이라.
62 그리하여 그는 공포와 수치 속에 죽었고 그의 아들 아디캄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제 77 장

1 아디캄은 스무 살에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 년간 통치했습니다.
2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206 년째 되던 해에 아디캄이 이집트를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들이 통치했던 기간만큼 오래 통치하지는 못했다.
3 그의 아버지 멜롤은 이집트에서 94 년 동안 통치했으나 10 년 동안 병들어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라.
4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의 관습대로 아디캄 파라오의 이름을 그의 조상들의 이름처럼 불렀습니다.
5 파라오의 모든 현자들은 아디캄 아후즈라는 이름을 이집트어로 줄여서 아후즈라고 불렀습니다.
6 아디캄은 매우 못생겼고, 키는 한 규빗 한 뼘이었으며, 발바닥까지 닿을 만큼 큰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7 바로는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 이집트를 다스렸고, 지혜롭게 이집트를 통치하였다.
8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는 그의 아버지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으며, 이스라엘 자손 위에 더욱 가혹한 멍에를 씌웠습니다.
9 그리고 그는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으로 가서 그들의 일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

너희는 매일 맡은 일을 완수하고, 내 아버지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10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세웠고, 그 관리들 위에는 자기 신하들 중에서 감독관들을 세웠다.
11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그 수만큼 벽돌을 쌓도록 정해진 양을 정해 주시고, 돌아서서 이집트로 가셨습니다.
12 그때에 바로의 감독관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13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일을 하고 맡은 일을 끝내며 벽돌의 양을 매일 지켜서 조금이라도 줄이지 말라."
14 만일 너희가 일용할 벽돌이 부족하면 내가 너희의 어린 자녀들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
15 그 당시 이집트의 감독관들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일을 행하였다.
16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필요한 벽돌의 양에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아내들에게 가서 부족한 벽돌의 수만큼 이스라엘 자손의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강제로 빼앗아 벽돌 대신 건축에 투입했습니다.
17 그들의 부모는 건물 벽 속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통곡하며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18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여 자녀들을 성벽 안에 두게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성벽 안에 넣고 그 위에 회반죽을 바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아이에게 떨어졌다.
19 이집트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의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20 그 건물에서 죽은 아이들의 수는 모두 이백칠십 명이었는데, 그중에는 아버지들이 남겨둔 벽돌 대신 쌓아 올린 아이들도 있었고, 건물에서 죽은 채로 끌어낸 아이들도 있었다.
21 아디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과된 노동은 그의 아버지 시대에 행했던 노동보다 훨씬 더 고달팠다.
22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였다. 그들은 속으로 '보라, 바로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일어나 우리의 일을 가볍게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23 그러나 그들은 이전 일보다 나중 일을 더 많이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때문에 탄식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짐과 그들이 그 당시에 행한 고된 노동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6 그 당시 암람의 아들 모세는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집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르우엘의 딸 십보라가 날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주며 그를 도왔다.
27 모세는 르우엘의 집 지하 감옥에 십 년 동안 갇혀 있었다.
28 그리고 10 년이 지난 후, 곧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집트를 다스린 첫해에,
29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십 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신 그 히브리 사람을 아무도 찾아보거나 묻지 않습니다."
30 그러므로 만일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사람을 보내어 그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그를 부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1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 르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십 년 동안 굶주림으로 감옥에 갇혀 살아 있는 일이 있느냐?
32 그러자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님께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니라.
33 그분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구원하셨고, 이삭을 그의 아버지의 칼에서 구원하셨으며, 야곱을 얍북 나루터에서 그와 씨름한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34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강에서와 바로의 칼에서와 구스의 자손에게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에서도 그를 구원하여 살리실 수 있습니다.
35 르우엘은 그 일이 좋다고 생각하여 딸의 말대로 감옥에 사람을 보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36 그가 보니 모세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37 르우엘은 모세를 감옥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머리를 깎고, 모세는 죄수복을 갈아입고 빵을 먹었습니다.
38 그 후에 모세는 집 뒤에 있는 르우엘 동산으로 가서 그에게 큰 기적을 행하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39 그가 기도하는 동안 맞은편을 보니, 정원 한가운데 땅에 사파이어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40 그가 그 지팡이에 가까이 나아가 보니,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지팡이에 새겨져 있었다.
41 그가 그것을 읽고 손을 뻗어 숲 속의 나무를 덤불에서 꺾듯이 그 막대기를 그의 손에 쥐었다.
42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이루신 막대기이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셨느니라.
43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아담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자기가 나온 땅을 경작하였다.
44 그 지팡이가 노아에게 내려와 셈과 그의 자손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손에까지 이르렀다.

45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다 아들 이삭에게 주고 나서 이 지팡이도 주었다.
46 야곱이 파단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것을 손에 들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그것을 두고 가지 않았다.
47 또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그 땅을 가져다가 요셉에게 주었는데, 이는 그의 형제들보다 한 몫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그의 형 에서에게서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48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 귀족들이 요셉의 집에 와서 그 지팡이를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손에 넣었습니다. 르우엘은 이집트를 나갈 때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기 정원에 심었습니다.
49 그리고 기니 족속의 모든 용사들이 그의 딸 십보라를 빼앗으려고 애썼으나 실패하였다.
50 그리하여 그 막대기는 르우엘의 정원에 그대로 심겨져 있었는데, 마침내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
51 르우엘은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보고 놀라워하며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제 78 장

1 그때에 에돔 왕 아크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어 에돔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2 그리고 그의 죽은 후에 에서의 자손은 에돔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 에돔에 있던 하닷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바알 하난의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다.
3 하닷은 에돔 자손을 사십팔 년 동안 다스렸다.
4 그가 왕위에 오르자 모압 자손과 싸워 그들을 이전처럼 에서의 자손의 지배하에 두려고 결심했으나, 모압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 서둘러 자기 형제 중에서 왕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5 그 후에 그들은 많은 백성을 모아 에돔 왕 하닷과 싸우기 위해 그들의 형제인 암몬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 하닷은 모압 자손이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여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7 그 무렵 암람의 아들 모세는 미디안에서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8 십보라는 야곱의 딸들의 길을 따랐으며,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와 다름없이 의로웠습니다.
9 십보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이는 그가 "내가 타국에 나그네였으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장인 르우엘의 명령대로 아들의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
10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포경수술을 하고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불렀으니, 이는 모세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11 그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크게 늘렸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 했습니다.
12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 칙령을 내리도록 명령하여 이르기를, 더 이상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직접 짚을 모으게 하라 하였습니다.
13 또한 그들이 만들 벽돌의 양을 매일 기록하게 하고, 그들이 일을 게을리하므로 그 양을 조금도 줄이지 말라.
14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다.
1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기업에 대해 질투하시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고난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제 79 장

1 그 무렵 모세는 신 광야 너머에서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양 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가 장인에게서 받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2 어느 날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양 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모세가 뒤쫓아갔더니 그 염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더라.
3 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으나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워 없앨 힘이 없었다.
4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어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종살이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7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장인에게 돌아가서 그 일을 알리니 르우엘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했다.
8 모세가 이집트로 가려고 일어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길가의 여관에 묵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모세를 멸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9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맏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10 모세는 장인이 맏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으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11 십보라는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대적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다.

12 그러자 십보라는 서둘러 가서 거기에 있던 날카로운 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의 천사의 손에서 자기 남편과 아들을 구해냈다.
13 모세의 형인 암람의 아들 아론은 그날 이집트에서 강가를 걷고 있었다.
14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가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입맞추었습니다.
15 아론이 눈을 들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자녀들을 보고 모세에게 이르되 이들이 네게 누구냐 하더라
16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저들은 내 아내와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아론은 그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슬퍼하였다.
17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 여자와 그 아이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하시매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더라
18 십보라는 자녀들과 함께 돌아와 르우엘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19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니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20 모세와 아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21 그들이 왕궁 문에 이르렀을 때에, 두 마리의 어린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갇혀 있었고, 왕이 명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그때 마술사들이 와서 주문을 외워 사자를 쫓아냈고,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갔다.
22 모세는 서둘러 가서 막대기를 사자 위에 들어 올려 풀어 주었고, 모세와 아론은 왕궁으로 들어갔다.
23 사자들도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왔고, 마치 개가 주인이 들판에서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을 따라가며 기뻐했습니다.
24 바로가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다.
25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사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26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갔다가 내일 내게 돌아오라 하시매 그들이 왕의 말대로 하였더라
27 그들이 떠나자 바로는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 얀네스와 얌브레스, 그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와 요술사와 고문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다 와서 왕 앞에 앉았다.
28 그러자 왕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자기에게 한 말을 모두 그들에게 말해 주니, 마술사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갇힌 사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께 왔습니까?"
29 왕이 이르되 그들이 지팡이를 들어 사자들을 풀어 주고 내게로 왔더니 사자들도 주인을 만난 개가 기뻐하듯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30 그러자 마술사 브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우리와 같은 마술사들에 불과하느니라.
31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들이 오면 우리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왕은 그대로 했습니다.
32 아침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왕 앞에 나오게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이르되,
33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34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그의 명령으로 내게 왔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35 그러므로 이제 이 일에 관하여 기적이나 표적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믿게 될 것입니다.
36 아론이 서둘러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다.
37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으로 변하였다.
38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에 달린 뱀이 머리를 들고 입을 벌려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39 그러자 마술사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뱀이 동족을 삼키고 생물이 서로 잡아먹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40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처음처럼 지팡이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지팡이들을 처음처럼 되돌려 놓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지팡이가 우리의 지팡이들을 삼켜 버린다면, 우리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41 그러자 아론이 서둘러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꼬리가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로 똑같이 하여 각자 자기 뱀의 꼬리를 잡으니 처음처럼 지팡이가 되었다.
42 그들이 다시 지팡이를 갖게 되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습니다.
43 왕이 이 일을 보고 이집트 왕들에 관한 기록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이집트 왕들의 연대기인 기록부를 가져왔습니다. 그 기록부에는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들은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44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내가 이 책에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45 그러자 고문들과 현자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 우리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시며 옛 왕들의 후손이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6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며, 그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

47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왕의 왕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니 그가 우리 조상 대대로 그의 이름을 우리 위에 선포하시고 우리를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내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48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보내사 광야로 사흘간 가서 그분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번제물이나 예물이나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면 그분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여 전염병이나 칼로 이집트를 치실 것입니다.
49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의 권능과 위엄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보아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며 풀과 잔디가 돋아나게 하셨고, 사람과 짐승과 숲의 동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으며,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죽느니라 하더라
50 진실로 그분은 너를 네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하시고 네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너를 양육하시어 이집트의 왕좌에 앉히셨으나, 네게서 숨과 영혼을 거두어 너를 네가 취해진 흙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51 그들의 말에 왕이 노하여 이르되, "모든 나라의 신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것이다."
52 그리고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어제와 그 전보다 더 심한 고난을 내리도록 명하셨다.
53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서 나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고된 노동을 시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54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학대하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하건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나이다.
5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바로가 손을 뻗어 큰 재앙을 내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56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에 있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주하였다.
5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인들의 강요된 고된 노동으로 인해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제 80 장

1 그리고 이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어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2 모세가 가서 바로의 집에 이르러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으나, 바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의 권세를 일으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크고 심한 재앙을 내리셨더라.
3 여호와께서 아론의 손을 통해 사람을 보내시어 이집트의 모든 물과 그 모든 시내와 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4 이집트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물을 길으러 왔는데, 자기 물동이를 보니 물이 전부 피로 변해 있었다. 그가 잔으로 마시려고 하니 잔에 든 물도 피로 변했다.
5 그리고 여자가 반죽을 치대고 음식을 요리할 때, 그 음식의 모양이 피처럼 보였다.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람을 보내시어 그들의 모든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시매 그 개구리들이 모두 이집트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7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니 그들의 배 속에 개구리가 가득 차서 강에서 춤추듯 배 속에서 춤을 추었다.
8 그들이 마시는 물과 요리하는 물도 모두 개구리가 되었고, 그들이 침대에 누울 때 흘리는 땀에서도 개구리가 나왔다.
9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뻗어 온갖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10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먼지를 이에게 치시니, 이가 이집트 땅에서 두 규빗 높이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11 이가 매우 많아 이집트의 모든 주민, 사람과 짐승의 살에 기생하였고, 주님께서는 왕과 왕비에게도 이를 보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는 이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은 여전히 이집트 위에 뻗어 있었다.
13 여호와께서 온갖 들짐승을 이집트로 보내시매, 그 짐승들이 와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모든 것을 다 멸하였다.
14 그러자 주님께서 불뱀과 전갈과 쥐와 족제비와 두꺼비와 먼지 속에 기어 다니는 다른 짐승들을 보내셨다.
15. 파리, 말벌, 벼룩, 노린재, 모기 등은 종류대로 떼를 지어 다닙니다.
16 그리고 모든 파충류와 날개 달린 짐승들이 종류대로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히 괴롭혔다.
17 그러자 벼룩과 파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과 귀로 들어갔다.
18 그러자 말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쫓아냈고, 그들은 말벌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으나 말벌이 그들을 뒤쫓았다.
19 이집트 사람들이 짐승 떼 때문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던 술라누트호에게 올라와서 이집트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 그녀는 팔이 길어서 남자의 팔 길이 10 규빗이나 되었다.
21 그리고 그녀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서까래와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잘라내고, 팔을 집 안으로 뻗어 자물쇠와 빗장을 풀고 이집트의 집들을 열었습니다.
22 그 후에 짐승 떼가 이집트의 집들로 쳐들어와 이집트 사람들을 멸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히 슬퍼하였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는 이집트 사람들
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은 여전히 그들을 향
하고 있었다.
24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니 그 전염병이 이집트
에 만연하여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떼와 사람에
게까지 이르렀습니다.
25 이집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축을 목초지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모든 가축이 죽어 있는 것을 발
견했다.
26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열 마리 중 한 마리만 남았
고, 고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27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살에 불타는 듯
한 염증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피부가 터지게 하셨고,
온 이집트 사람들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28 그들의 몸에는 많은 종기가 생겨 살이 썩어 문드러
지게 되었습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
하시고 그의 손은 여전히 온 이집트 위에 뻗어 있었다.
30 그러자 주님께서 매우 심한 우박을 보내시어 그들의
포도나무를 치고 과일나무를 부러뜨리고 말라붙게 하
여 그 위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31 또한 모든 푸른 풀이 말라 죽었으니, 이는 우박 가운
데 불이 섞여 내려와 우박과 불이 모든 것을 태워 버렸
기 때문이다.
32 또한 밖에 있던 사람과 짐승들은 불과 우박으로 죽
었으며, 어린 사자들은 모두 기진맥진했습니다.
33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에 수많은 메뚜기
를 보내셨으니, 그 종류는 차셀, 살롬, 차골, 차골 등 다
양하여 우박이 남긴 모든 것을 먹어 치우셨다.
34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밭의 소출을
먹어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메뚜기를 많이 잡
아 소금에 절여 먹었습니다.
35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돌려 모든 메뚜기, 곧
소금에 절인 메뚜기까지도 모두 홍해로 몰아내시니 이
집트 영토 안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6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흑암을 보내시어 이집
트와 파트로스 온 땅이 사흘 동안 어두워져서 사람이
손을 입으로 가져가도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7 그때에 여호와께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
38 그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가지 않겠다. 황량한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며 모세의 말
을 듣지 않았다.
39 여호와께서 삼일 동안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기간 동안 그들을 장사
지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
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40 이집트에 삼일 동안 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
이 임했을 때 서 있던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고, 앉아 있
던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누워 있던 사람은 그
대로 누워 있었고, 걷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
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어
둠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1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명절을 지
키고 유월절을 지키라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들 가
운데로 와서 사람의 첫째부터 짐승의 첫째까지 그들의
모든 첫째를 칠 것이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를
지나가리라
42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
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으니, 그날 밤에 그렇게
행하였다.
43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가운데로 나가셔서 이
집트 사람들의 맏아들부터 사람의 맏아들, 짐승의 맏아
들까지 모두 치셨다.
44 그러자 바로가 밤중에 일어나 모든 신하와 모든 이
집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 전
역에 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체가 없는 집
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45 또한 이집트 맏아들의 형상을 그들의 집 벽에 새겨
놓았던 것도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46 심지어 그들이 그 전에 죽어 집에 묻어 두었던 맏아
들의 뼈까지도 그날 밤 이집트의 개들이 긁어모아 이집
트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47 그러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닥친 이 재앙
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48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가족이 맏아들과 맏딸을 잃
고 슬피 울었으며, 그날 밤 이집트의 소란이 멀리까지
들렸다.
49 그날 밤 바로의 딸 바티아가 왕과 함께 모세와 아론
을 찾으러 그들의 집으로 나갔는데, 그들이 집에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
았다.
50 그러자 바티아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
게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냐? 내가 너를 양육
하고 키워주었는데, 너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이런 재
앙을 가져왔느냐?"
51 모세가 그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열 가
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 중에서 너에게 해가 된
것이 있느냐? 하나라도 너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녀
가 이르되 아니요.
52 모세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머니의 맏아들이지
만 죽지 않을 것이며 이집트 한가운데서 어떤 재앙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53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오빠인 왕과 그의 온
가족과 신하들이 이런 재앙 속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장자들도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함께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54 모세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오빠와 그의 가족과 신
하들, 곧 이집트의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55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과 그들과 함께 그곳
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6 일어나서 네 형제들, 곧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가거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57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당신은 어머니의 맏아들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겠다고 명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크신 권능과 강하게 뻗으신 팔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58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그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59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맹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큰 재물과 양과 소와 귀한 물건들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60 이스라엘 자손은 밤에 나가는 것을 미루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려고 왔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둑이기에 밤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6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옷을 요구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옷을 벗겼다.
62 모세는 서둘러 일어나 이집트 강으로 가서 거기서 요셉의 관을 가져다가 가지고 갔다.
63 이스라엘 자손도 각자 자기 아버지의 관을 가지고, 또 각자 자기 지파의 관을 가지고 나왔다.

제 81 장

1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세스에서 수곳으로 행진했는데,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도 약 60 만 명의 남자들이 걸어서 갔다.
2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 떼와 소 떼, 곧 많은 가축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3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 거주하며 고된 노동을 한 기간은 이백십 년이었다.
4 이백십 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5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와 고센과 라메세스를 떠나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수곳에 진을 쳤다.
6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그들의 맏아들을 모두 장사 지냈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사흘 동안 장사 지냈다.
7 이스라엘 자손은 수콧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 에톰에 진을 쳤다.
8 이집트 사람들이 맏아들을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준 것을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9 그러자 한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10 그러므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돌려보내자. 만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려 하면, 우리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과 싸워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11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아침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약 70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날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12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하히롯 앞에 앉아 먹고 마시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13 그러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우리는 사흘 동안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14 그러므로 오늘로 너희가 떠난 지 닷새가 되는데, 어찌하여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15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너희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이니라 하셨음이라 하셨느니라 하셨음이라.
16 이집트의 귀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장을 갖추었다.
1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게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쳤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죽었습니다.
18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이집트로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쳤으며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모세와 아론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19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과 모든 신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원망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짐을 지고 돌아오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20 그들이 각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이 무슨 일이냐?
21 여호와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셨음이라.
22 그러자 바로가 일어나 전차를 준비하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외에는 남자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23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러 나갔는데, 이집트 진영은 매우 크고 견고하여 약 100 만 명에 달했다.

24 그리하여 이 진영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이집트로 다시 데려오려고 하였고, 홍해 곁에 진을 치
고 있는 그들을 따돌렸다.
25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습에 몹시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6 이집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네 무리로
나뉘었고,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의견이 분분했
습니다. 모세는 그들 각자에게 말했습니다.
27 첫 번째 무리는 르우벤 자손과 시므온 자손과 잇사
갈 자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몹
시 두려워하여 바다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하였다.
2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라
하라
29 두 번째 무리는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
파의 자손들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30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집
트 사람들을 본 것처럼 다시는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
할 것이다.
31 세 번째 부대는 유다와 요셉의 자손들로 구성되었는
데,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가기로
결심했다.
32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제자리에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
히 있으라 하니라
33 넷째 부대는 레위, 갓, 아셀 자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
다. "너희는 너희 자리를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
해 주시도록 하라."
34 그 후에 모세가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 여호와께 기
도하며 말했습니다.
35 온 땅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권력과 위엄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
소서.
3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나아가
게 하라. 네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37 모세가 그대로 하여 그의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38 바닷물이 열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사람이 잘 닦인 길을 걸어가듯 신발을 신고 걸어
서 그 길을 지나갔다.
39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와 바다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 보이
셨다.
40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
이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그들을 덮쳐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로 외에는 한 사
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믿었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1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이집트 사람들 가운
데서 그를 데려오게 하시니, 그들이 그를 니느웨 땅에
던져 넣었고 그는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
42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
원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멸망한 것
을 보았으며, 여호와께서 이집트와 바다에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43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굴복시키
신 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다.
44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한목소리로 이르되 내가 여호
와께 노래하리니 그가 지극히 높으시도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보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
되었도다
4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나 마라에 진을 쳤
고, 여호와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례와 법
도를 주셨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모
든 길을 따라 행하고 그를 섬기라고 명하셨다.
46 그들이 마라에서 출발하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
에는 열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대추야자나무가 있었
고, 아이들은 그 물가에 진을 쳤다.
47 그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두 달 열다섯째 날에 엘림
에서 출발하여 신 광야에 이르렀다.
48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먹게
하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셨다.
49 이스라엘 자손은 사십 년 동안, 곧 광야에 있는 동안
내내 만나를 먹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을 차지하게 되었다.
50 그들은 신 광야에서 나와 알루스에 진을 쳤다.
51 그들은 알루스에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진을 쳤다.
52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에서의 손자
이며 스포의 형제인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이 이스라
엘과 싸우려고 왔다.
53 그리고 그는 마술사와 주술사를 포함한 팔백만 1 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
울 준비를 했습니다.
54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크고 격렬한 전쟁을 벌
였을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모세와 이
스라엘 자손의 손에, 곧 모세의 종인 에브랏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
55 이스라엘 자손이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쳤으
나, 그 전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고통스러웠다.
5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책에 기록하
여 네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
거든 아말렉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 버리
라 하라 하라 하셨느니라.
57 모세는 그대로 하여 그 책을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
게 기록했습니다.
58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너에게 행
한 일을 기억하라.

59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를 쳐 죽인 자들은 네가 기진맥진하고 지쳤을 때 네 뒤에 있던 연약한 자들이었다.
60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를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61 아말렉 족속이나 그의 기억이나 그의 자손을 불쌍히 여기는 왕은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의 백성 중에서 그를 끊어 버릴 것이다.
62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명하였다.

제 82 장

1 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2 그때에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 그의 딸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르우엘이 모세가 진을 치고 있던 광야, 곧 하나님의 산으로 왔습니다.
4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큰 존경을 표하며 나갔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있었다.
5 르우엘과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 날 동안 머물렀고, 르우엘은 그날부터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여섯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7 온 이스라엘이 이 모든 계명을 듣고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8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그가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구름 가운데로 산에 올라갔다.
9 모세가 산에서 사십 일 사십 밤을 지내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게 하셨다.
1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게 하셨다.
11 사십 일 밤낮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체하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모여서 말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3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어 내어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14 아론은 백성을 몹시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15 여호와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르시되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타락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6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짓고 그 위에 절하였으니, 이제 나를 떠나라. 내가 그들을 땅에서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17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라고 주신 두 돌판이 있었다.
18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백성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보자 모세는 분노하여 산 아래에서 돌판을 깨뜨렸다.
19 모세가 진영에 이르러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그것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20 그리고 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가운데 약 삼천 명이 서로 칼에 찔려 죽었다.
21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이 여호와께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2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서 사십 일 사십 밤을 여호와와 함께 머물렀다.
23 모세는 사십 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의 간구를 들어 주셨더라.
24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돌판 두 개를 깎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십계명을 기록하시리라.
25 모세는 그대로 하여 내려와서 두 돌판을 새기고 여호와께 나아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
26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밤을 머물렀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다.
2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시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여 그의 이름이 그 안에 머물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소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의 모형을 보여주셨다.
28 사십 일이 지난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손에는 두 돌판이 들려 있었다.
29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30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31 그러자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좋은 일에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32 그러자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나 여호와의 성소에 풍성한 예물을 드렸는데, 각 사람이 성소의 운영과 모든 봉사를 위해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다.

33 이스라엘 온 자손은 각자 자기 소유 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하였으니 곧 금과 은과 놋쇠와 성전에 쓸 만한 모든 것이었다.
34 일에 능숙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따라 각자 자기 전문 분야대로 여호와의 성소를 지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소와 그 기구와 거룩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35 그리고 성막 성소의 건축 작업이 다섯 달 만에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다.
36 그들이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형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더라.
37 모세가 그 일을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제 83 장

1 열두 번째 달 스물셋째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제물을 가져왔다.
2 그 후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르되 너희는 칠 일 동안 성막 문 밖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이렇게 명령받았느니라
3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고, 칠 일 동안 성막 문 앞에 머물렀다.
4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 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첫째 날인 여덟째 날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설치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다.
5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신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제를 가져왔다.
6 그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으신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가져갔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고, 그들은 그날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7 모세가 성전 건축을 마친 날,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8 그리고 그들은 각 방백이 하루씩, 곧 열두 날 동안 매일 한 명씩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9 그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은 각 사람이 자기 날에 가져온 것으로, 은 쟁반 하나(무게 130 세겔)와 은 대야 하나(무게 70 세겔)였는데, 둘 다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채워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10. 금 10 세겔 무게의 숟가락 하나에 향을 가득 담았습니다.
11 어린 수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십시오.
12 그리고 속죄 제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바치십시오.
13 화목제물로는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다섯 마리를 바치십시오.
14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열두 방백들은 날마다 각자 자기 차례대로 행하였다.
15 그 후, 그 달 열셋째 날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16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7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8 너와 네 형 아론과 이스라엘의 열두 방백은 스무 살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 남자들의 머리를 모두 계수하라.
19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 아론이 이스라엘의 열두 방백과 함께 와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를 세었다.
20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조상의 집을 따라 20 세 이상 된 자들이 육십삼천오백오십 명이었다.
21 그러나 레위 자손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22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들 중 한 달 이상 된 아이의 수는 이만 이백칠십삼 명이었다.
23 레위 자손 중 한 달 이상 된 자의 수는 이만 이천 명이었다.
24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각자 자기 직분과 짐을 맡아 성막 성소를 섬기도록 배치하였다.
25 그리고 그 달 스무 번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사라졌습니다.
26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길을 떠나 사흘 동안 여행하다가 파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그 위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라.
27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28 그러나 그 후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크게 치시고 그곳에 그들을 묻으셨다.
29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케브롯 하타아바라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육욕을 가진 자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30 그들은 케브롯 하타아바를 떠나 파란 광야에 있는 하제로트에 진을 쳤다.
31 이스라엘 자손이 하제로트에 있을 때에 모세 때문에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그녀가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32 그리고 그녀는 나병이 낫고 다시 받아들여질 때까지 칠 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33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제로트를 떠나 파란 광야 끝자락에 진을 쳤다.

34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하셨다.
35 모세가 열두 제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신 광야에서부터 레콥에 이르기까지, 곧 하못에 이르는 온 땅을 정탐하였다.
36 사십 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 중 열 사람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한 소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켜 버리는 땅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37 그러나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르되 그 땅이 매우 좋도다 하더라.
38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3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땅에 대해 악담을 퍼뜨린 열 사람의 말을 들었다.
4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으시고 노하시어 맹세하시며 말씀하셨다.
41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 스무 살 이상이 되어 그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42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 악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43 그 백성은 파란 광야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그 후에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이동하였다.

제 84 장

1 그때에 예체르의 아들 케핫의 아들 레위의 아들 고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어나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과 다투었습니다.
2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곧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켜 버렸습니다.
3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세일 산길로 오랫동안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4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에서의 자손과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내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만큼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옛날에 에서의 자손이 세일 자손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세일 자손을 에서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에서의 자손이 그 땅에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에 있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음식을 돈으로 사서 먹고 물을 돈으로 사서 마실 수 있느니라
7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8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두루 다니며 시내산 길을 따라 오랫동안 돌아다녔고, 에서의 자손을 만나지 못했으며, 그 지역에 십구 년 동안 머물렀다.
9 그때에 킷팀 자손의 왕 라티누스가 통치 45 년째 되던 해에 죽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4 년째 되는 해였다.
10 그들은 그를 킷팀 땅에 그가 지은 왕궁에 장사 지었고, 아빔나스는 그의 뒤를 이어 삼십팔 년 동안 왕위에 올랐다.
11 그 무렵, 곧 십구 년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자손이 에서의 자손의 경계를 지나 모압 광야의 길을 지나갔다.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포위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너에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 하시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은 십구 년 동안 모압 광야 길을 지나갔으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14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삼십육 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혼의 마음을 쳐서 그가 전쟁을 일으켜 모압 자손과 싸우러 나갔다.
15 시혼은 이집트 왕의 고문 발람의 아들 야네아스의 아들 브올과 그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모압을 저주하여 모압이 시혼의 손에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16 사신들이 가서 야네아스의 아들 브올과 그의 아들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의 페토르에서 데려왔습니다. 브올과 그의 아들 발람은 시혼 성에 이르러 아모리 왕 시혼 앞에서 모압과 그들의 왕을 저주했습니다.
17 그리하여 시혼은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모압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시혼은 모압 왕을 죽였다.
18 시혼은 전쟁에서 모압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헤스본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헤스본은 모압의 성읍 중 하나였는데, 시혼은 자기 방백들과 귀족들을 헤스본에 주둔시켰고, 그 당시 헤스본은 시혼의 소유였다.
19 그러므로 비유를 말하는 브올과 그의 아들 발람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오라 시혼 성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 하였더라
20 모압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케모스의 백성들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
21 시혼이 모압을 정복하고 점령한 성읍들에 경비병을 배치하였더니, 모압 자손 중 상당수가 전투에서 시혼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 시혼은 그들의 아들딸들을 많이 포로로 잡고 그들의 왕을 죽였다. 그리하여 시혼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22 시혼은 브올과 그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은과 금을 선물로 주었고, 브올은 그들을 보내주었다. 그들은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다.
23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모압 광야 길에서 나와 돌아와 에돔 광야를 포위하였다.
24 그리하여 온 회중은 이집트를 떠난 지 사십 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신 광야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자손은

신 광야의 가데스에 거주하였다. 미리암은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혔다.
25 그때 모세가 에돔 왕 하닷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네 형제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가 네 땅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노라.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길로 다니겠노라 하니라
26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나라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매 에돔이 강한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으러 나가니라
27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떠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였다.
28 이는 앞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떠나 싸우지 아니하였음이라.
29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가데스를 떠나 모든 백성이 호르 산에 이르렀다.
30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 아론에게 이르기를,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라."
31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사십 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초하루에 호르 산으로 올라갔다.
32 아론은 호르 산에서 죽을 때에 123 세였다.

제 85 장

1 남쪽에 거주하던 가나안 왕 아랏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탐꾼들의 길을 따라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2 이스라엘 자손은 그를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에게 크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3 이스라엘 자손은 아랏 왕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여 사흘 길이나 되는 거리를 되돌아 마세랏 베니 야콘으로 돌아갔다.
4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베니 야콘에 삼십 일 동안 머물렀다.
5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위하여 시기하여 일어나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자기들의 터인 호르 산으로 쫓아냈다.
6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랏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7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더라.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셨다.
9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에서 출발하여 모압 경계에 있는 이제아바림에 진을 쳤다.
10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제 너희 땅을 지나 우리 거처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압 자손이 아모리 왕 시혼이 자기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행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시혼은 그들의 땅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11 그러므로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모압과 싸우지 말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에서 떠나니라
12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경계에서 출발하여 아르논 강 건너편, 곧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의 경계에 이르러 아모리 왕 시혼의 경계에 있는 케데못 광야에 진을 쳤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14 우리가 주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의 큰길을 따라 주의 경계를 넘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5 그리하여 시혼은 아모리 족속을 모두 모아 광야로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고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16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혼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칼날로 시혼의 모든 백성을 쳐서 모압의 원수를 갚았다.
17 이스라엘 자손은 아람에서 야북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에 이르기까지 시혼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들의 모든 전리품을 약탈하였다.
18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성읍에 거주하였다.
19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자손은 암몬 자손과 싸워 그들의 땅까지 차지하기로 결심하였다.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암몬 자손을 포위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암몬 자손과 싸우지 아니하였다.
21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서서 바산 길을 따라 바산 왕 오그의 땅으로 올라갔다. 바산 왕 오그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그에게는 많은 용맹한 병사들과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
22 바산 왕 오그는 매우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나아론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23 그러자 오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보라,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세 파르사(약 300 미터)나 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칼이나 창 없이도 그들을 한꺼번에 칠 수 있겠다.'
24 오그는 야하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길이가 삼 파르사나 되는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던져서 그 돌로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치려고 작정하였다.

25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그의 머리 위에 있는 돌을 뚫으니, 그 돌이 오그의 목에 떨어져 오그가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땅에 쓰러졌다.
26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시혼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27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소수와 함께 그에게 내려가서, 모세가 막대기로 오그의 발목을 쳐서 그를 죽였다.
28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오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29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을 보내 야셀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야셀은 매우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30 정탐꾼들이 야셀로 가서 정탐을 하고, 여호와를 믿고 야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31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아셀과 그 마을들을 점령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32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족속 두 왕의 땅, 곧 요단 강 건너편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만 산까지 있는 60 개 성읍을 점령하였다.
33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나 요단 강 이쪽 편, 여리고 근처의 모압 평야에 이르렀다.
34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35 그러자 모압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의 왕들보다 더 강했던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오그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36 그들이 전에 우리에게 자기들이 지나가야 할 길에 우리 땅을 지나가라고 전갈을 보냈으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들이 무거운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려 한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였다.
37 그리하여 모압의 장로들은 결의하여 자기들 중 한 사람, 곧 모압 사람 십볼의 아들 발락을 택하여 그 당시 왕으로 삼았는데, 발락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38 모압의 장로들이 일어나 미디안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화평을 청하였다. 이는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쳐부순 때부터 그 당시까지 모압과 미디안 사이에 큰 원한과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39 모압 자손이 미디안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평을 맺었고, 미디안의 장로들이 미디안 자손을 대신하여 화평을 맺으려고 모압 땅으로 왔다.
40 모압의 장로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디안의 장로들과 의논하였다.
41 그러자 모압 자손들이 모두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소가 들풀을 핥아먹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42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압에게 이르되 우리가 듣기로는 아모리 왕 시혼이 너희와 싸워 너희를 이기고 너희 땅을 빼앗았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야네아스의 아들 브올과 그의 아들 발람을 보내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시혼의 손이 너희를 이기고 너희 땅을 빼앗게 된 것이라 하더라.
43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의 아들 발람에게도 사람을 보내라. 그는 아직 자기 땅에 머물러 있으니, 그에게 품삯을 주어 그가 와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모압의 장로들은 이 말을 듣고 브올의 아들 발람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44 그리하여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45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고 있다.
46 그러므로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저주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너무 강합니다. 어쩌면 내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주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복을 받고 주께서 저주하시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47 그리하여 발락의 사자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람을 데려와 모압 백성을 저주하여 그들이 모압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48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왔을 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이들은 복된 백성이다."
49 발락은 날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추겼으나, 발람은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발락의 말을 듣지 않았다.
50 발락은 발람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발람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미디안으로 갔다.
51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야에서 출발하여 벳예시못에서 아벨싯팀까지 요단 강가에 진을 쳤으니, 그곳은 모압 평야의 끝이었다.
52 이스라엘 자손이 시팀 평야에 거주할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53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에 가까이 이르자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맞은편에 천막을 쳤다.
54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딸들과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들을 모두 데려다가 금과 은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시켰다.
55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보고 돌이켜 모압과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여인들을 자기들의 장막 문 앞에 앉혔다.
56 모압 자손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각 사람이 자기 아내와 딸을 자기 장막 문 앞에 내놓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모압 자손의 행위를 보고 모압의 딸들을 탐내어 그들에게로 갔더라.
57 히브리 사람이 모압의 장막 문에 이르러 모압의 딸을 보고 마음에 사모하여 장막 문 앞에서 그 딸과 이야

기할 때에 장막 사람들이 나와서 그 히브리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8 당신도 우리가 형제이며, 모두 롯의 자손이요 그의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의 빵과 제물을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59 모압 자손들이 그들의 말로 예수를 매료시키고 아첨하는 말로 유혹하여 장막에 앉히고 음식을 만들어 제물을 바쳤으며, 예수께서는 그 제물과 빵을 드셨다.
60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포도주를 주었고 그는 마셔서 취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려다 놓았고 그는 그 아가씨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61 이와 같이 모압 자손이 싯팀 평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사 이스라엘 자손 이만 사천 명이 죽더라.
62 시므온 자손 중에 살루의 아들인 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왕 수르의 딸인 미디안 사람 코스비와 동침했습니다.
63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셀의 아들 비느하가 짐리가 행한 이 악한 일을 보고 창을 들고 일어나 그들을 뒤쫓아가서 둘 다 찔러 죽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전염병이 그쳤다.

제 86 장

1 그 때 전염병이 지나간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공동체의 지도자들,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들, 곧 군대에 나간 자들을 모두 계수하라.
3 모세와 엘아셀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족별로 계수하니 온 이스라엘의 수는 칠십칠백삼십 명이었다.
4 레위 자손의 수는 한 달 이상 된 자로 이만 삼천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은 모두 죽었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6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라 하시니라
7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서 한 지파에 천 명씩, 총 만 이천 명을 뽑아 미디안으로 갔다.
8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싸워서 모든 남자를 죽였는데, 미디안의 다섯 방백도 죽였고, 브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9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가축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로잡아 갔다.
10 그들은 전리품과 노획물을 모두 가져다가 모세와 엘아셀에게로, 모압 평야로 가져왔습니다.
11 모세와 엘아셀과 모든 회중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12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에게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나누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미디안에게 복수했다.

제 87 장

1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네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성막에 두어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겠다."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2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성막에 나타나셨는데, 그 구름기둥이 성막 입구에 서 있었다.
3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가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4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였더라
5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아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을 보았느니라
6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라.
7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와 법규를 가르쳤습니다.
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길과 그의 율법을 가르치셨으니, 보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9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고, 네 형 아론이 네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10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11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통곡하였으니, 모세를 위한 통곡과 애곡의 날들이 다 차 되었더라.

제 88 장

1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너는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라.
3 너희 발바닥이 닿는 모든 곳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며, 레바논 광야에서부터 큰 강 페랏 강까지 너희의 경계가 될 것이다.
4 네 평생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5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삼일 후에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라
6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들은 그대로 행하여 백성을 지휘하였고,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다.
7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어 여리고 땅을 정탐하게 하니, 그들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였다.
8 칠 일 후에 그들이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주민들은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9 그 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팀에서 출발하여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널 때 그의 나이는 82 세였습니다.
10 그 백성은 첫째 달 열째 날에 요단 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모퉁이 길갈에 진을 쳤다.
11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달 열넷째 날에 여리고 평야의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12 그때 유월절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13 그리고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히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14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모든 백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네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며 엿새 동안 이렇게 하라.”
15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때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대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16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17 일곱째 날에 그들은 성읍을 일곱 바퀴 돌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18 일곱 번째 공격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온 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외치라 하였더라.
19 오직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만이 여호와께 저주받을 것이니, 너희는 저주받은 것을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받게 하고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20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쳐야 하며, 여호와의 보고에 들어가야 한다.
21 그러자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각자 곧장 앞으로 나아가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칼날로 완전히 죽였다.
22 그들은 온 성읍을 불태웠으나 은과 금 그릇, 놋쇠 그릇, 철 그릇만은 여호와의 보고에 넣어 두었다.
23 그때에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맏아들로 그 기초를 놓고 막내아들로 그 성문을 세울 것이라 하였더라
24 유다의 아들, 제라의 아들, 자브디의 아들, 카르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배신하여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져다가 장막에 숨겼으니, 이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
25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를 불태우고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가 아이 성도 정탐하고 공격하도록 사람을 보냈다.
26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지 말고, 삼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그 성을 치십시오. 그곳 사람들은 수가 적습니다."
27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 약 삼천 명이 그와 함께 올라가서 아이 성 사람들과 싸웠더라.
28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의 군사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 삼십육 명을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이 성의 군사들 앞에서 도망쳤다.
29 여호수아가 이 일을 보고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기도하였다.
30 여호수아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 강 건너로 인도하셨나이까?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들에게 등을 돌린 후에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다.
31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의 주민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다.
3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냐? 일어나라!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으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더라.
33 여호수아가 일어나 백성을 모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림을 가져오니 유다 지파가 사로잡히고 카르미의 아들 아간이 사로잡혔다.
34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간이 이르되 내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 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옷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금 오십 세겔 무게의 덩어리를 보았는데 내가 그것들을 탐내어 가져갔더니 보십시오, 그것들이 다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35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어 아간의 장막에서 그것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그것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데려왔다.
36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기구들, 그리고 그의 아들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37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들을 불태워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으니,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로써 여호와의 진노가 누그러졌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성에 이르러 그곳을 공격하여 싸웠더라.
3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아이 성과 그 왕과 백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가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행한 대로 아이 성을 다스리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네가 취하라. 그리고 성 뒤편에 매복하여 성을 공격하라.
39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용맹한 군사 삼만 명을 택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성을 습격하게 하였습니다.
40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교묘하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추격할 때에 너희는 매복에서 나와 그 성을 점령하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라
41 여호수아가 싸우니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 뒤편에 매복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42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앞에서 지친 척하고 교묘하게 광야 길로 도망쳤다.
43 아이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위해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 성 밖으로 나가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고, 그들은 성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44 매복해 있던 자들이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 성읍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보십시오, 성읍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도 물러갈 길이 없었습니다.
45 아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몰려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쪽에, 어떤 이들은 저쪽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했다.
46 이스라엘 자손은 아이 왕 멜로스를 산 채로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데려왔고, 여호수아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47 이스라엘 자손은 그 성을 불태운 후에 돌아와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 죽였다.
48 아이 성에서 전사한 사람의 수는 남자와 여자를 합쳐 만 이천 명이었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가축과 성읍의 전리품만 자기들이 취하였다.
49 요단 강 이쪽의 모든 왕들, 곧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악행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50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다가 죽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여, 꾀를 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먼 땅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오." 하였습니다.
51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매몰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고 화평을 이루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며 자기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더라.
5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긷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53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아모리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주의 종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목숨이 두려워 이렇게 하였나이다.
54 여호수아는 그날 그들에게 나무를 베고 물을 긷는 일을 시켰고,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종으로 나누어 주었다.
55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모든 일을 듣고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트 왕 피람, 라기스 왕 야피아와 에글론 왕 데베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56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칠 수 있게 하라.
57 그들이 한데 모였을 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모든 진영을 이끌고 올라왔는데, 그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강력한 백성이었다.
58 이 모든 왕들이 와서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 주민들과 싸우기 시작하자,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59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이 다섯 왕을 크게 죽였다.
6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에서 그들을 쳐죽이고 벳호론에서 막케다까지 올라가는 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였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쳤더라.
61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죽임을 당한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62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추격하여 길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치고 또 쳤다.
63 그들이 쳐죽이고 있을 때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르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64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시니 해가 하늘 가운데 멈춰 서서 삼십육 분 동안 그대로 있었고 달도 멈춰 서서 온종일 지지 아니하였더라.

65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날이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제 89 장

1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으니
2 주님, 주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내 입술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3 나의 선하심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신 주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힘이시니이다.
4 온 땅의 왕들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께 노래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5 주님, 우리는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셨습니다.
6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믿고 구원받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칼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7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셨고, 주님의 팔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8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서고,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9 온 세상의 군주들이 일어서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모여들었으나, 그들은 주 앞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와 싸우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10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11 민족들이 주의 진노로 멸망하였고, 왕국들이 주의 분노로 쇠퇴하였으며, 주께서는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12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고, 주님의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악행 가운데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13 그들이 덫을 놓았더니 그들이 그 덫에 걸려들었고, 그들이 숨었던 그물에 발이 걸렸습니다.
14 주님의 손은 모든 원수들을 향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칼로 땅을 차지하였고, 팔로 성에 거하였도다 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안겨 주시고, 그들의 뿔을 땅에 떨어뜨리시고, 진노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15 주의 폭풍우 소리에 땅이 떨리고 흔들렸으나 주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막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무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6 주님께서는 폭풍으로 그들을 추격하시고 회오리바람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며 그들의 비를 우박으로 바꾸셨고 그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17 그들의 시체는 마치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 같았다.
18 그들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영혼은 주님의 구원 안에서 찬양합니다.
20 우리가 주의 위대하심을 혀로 전하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21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으며, 그들을 우리 앞에서 멸하시고 우리 발 아래 짓밟으셨습니다.
22 그러므로 주여, 주의 모든 원수는 멸망할 것이며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주의 사랑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23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왕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한 후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24 다섯 왕은 전쟁터에서 홀로 걸어서 도망쳐 동굴에 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그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25 그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왕들이 발견되었는데, 보라,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더라 하더라.
26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들이 동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동굴 입구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라
27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군사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하시니라
28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왕들을 죽여 동굴에 던져 넣고 동굴 입구에 큰 돌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29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날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과 함께 막게다로 가서 칼날로 그 성을 쳤다.
30 그리하여 그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과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 왕과 백성에게도 여리고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였다.
31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립나로 가서 그곳을 공격하니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셨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 성과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그가 여리고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 성과 그 왕에게도 행하였더라.
32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라기스로 가서 그곳 사람들과 싸우려 하였습니다. 가사 왕 호람이 라기스 사람들을 도우러 올라왔으나,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였습니다.

33 여호수아가 라기스와 그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립나에 행했던 것처럼 그곳에도 행하였다.
34 여호수아가 거기서 에글론으로 가서 그 성도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모든 백성을 칼날로 쳐서 죽였다.
35 그리고 거기서 헤브론으로 건너가서 그곳과 싸워 함락시키고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데비르로 돌아와서 그곳과 싸워 칼날로 그곳을 쳤습니다.
36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도시와 그 왕에게 예리코에 행하신 것과 똑같이 행하셨다.
37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르네아에서 아사까지 아모리 왕들을 모두 쳐서 그들의 나라를 즉시 차지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38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39 그때에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미디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라반과 악삽 왕 예팔과 모든 아모리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40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를 쳐들어와 아모리 족속의 다른 왕들에게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을 쳐부수게 하소서.
41 그리하여 이 모든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의 말을 듣고 열일곱 왕과 그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아 온 진영을 이끌고 나아가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4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죽여서 네 앞에 넘겨 줄 것이니 너는 그들의 말을 죽이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 버리라 하시니라
43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그들을 덮쳐서 쳐 죽이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어갔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44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을 이끌고 이 모든 왕들을 추격하여 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45 그때 여호수아가 하솔로 돌아와서 칼로 그 성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고 불태워 버렸다. 하솔에서 떠나서 시므론으로 가서 그 성도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46 거기서 그는 악삽에게로 가서 시므론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행하였다.
47 거기서 그는 아둘람으로 가서 그곳의 모든 백성을 쳤고, 아둘람에게도 악삽과 시므론에게 했던 것처럼 행하였다.
48 그리고 그는 그들을 떠나 그가 쳤던 모든 왕들의 성읍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남은 모든 백성을 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49 이스라엘 자손은 약탈한 물건과 가축만 취하였고, 사람이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였다.
5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실패하지 아니하였더라.
51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쳐서 그들의 왕 서른한 명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나라 전체를 차지하였다.
52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시혼과 오그 왕국 외에도 모세가 그 성읍들을 많이 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다.
53 여호수아가 요단 강 서쪽에 있던 모든 왕들을 쳐서 그 땅을 이스라엘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54 여호수아는 5 년 동안 이 왕들과 전쟁을 계속하여 그들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성읍들에서 전쟁이 사라져 그 땅은 평화로워졌다.

제 90 장

1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을 건넌 지 5 년째 되던 해, 곧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에돔과 깃딤 자손 사이에 크고 격렬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깃딤 자손이 에돔과 싸웠더라.
2 그 해, 곧 그의 통치 31 년에 킷팀 왕 아비아누스는 킷팀 자손의 용사들을 대거 이끌고 세일로 가서 에서의 자손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3 에돔 왕 하닷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에돔 들판에서 그와 싸웠다.
4 그리하여 깃팀 자손이 에서의 자손을 이기고 에서의 자손 이만 이천 명을 죽였더니 에서의 모든 자손이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5 그리하여 킷팀의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 앞에서 도망치던 에돔 왕 하닷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닷을 산 채로 붙잡아 킷팀 왕 아비아누스에게 데려왔다.
6 아비아누스는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에돔 왕 하닷은 재위 48 년에 죽었다.
7 그리하여 깃딤 자손은 에돔을 계속 추격하여 큰 학살을 자행하였고, 에돔은 깃딤 자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8 킷팀 자손이 에돔을 다스리게 되었고, 에돔은 킷팀 자손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날부터 하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9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머리를 들 수 없었고, 그들의 왕국은 킷팀 자손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10 아비아누스는 에돔에 관리들을 배치하였고, 에돔의 모든 자손은 아비아누스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리고 아비아누스는 자기 고향인 킷팀으로 돌아갔다.
11 그가 돌아와서 통치를 새로 시작하고 자신을 위해 넓고 견고한 왕궁을 지어 왕궁으로 삼고 킷팀 자손과 에돔을 안전하게 다스렸다.
12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을 쫓아낸 후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다.

1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늙고 연로하였으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으니라 하시니라
14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여호수아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15 그리고 그는 온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지파대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16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기업도 주지 않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그들의 기업이니라.
17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산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한 몫 더 주었다.
18 그러므로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갈렙과 그의 자손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19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온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20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기업에서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가축과 재산을 위한 교외 지역도 주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것이며, 그들은 크고 작은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었다.
21 그들은 자기들의 경계에 따라 땅을 기업으로 받들려고 갔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한 기업을 주었다.
22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가 요구한 성읍 곧 에브라임 산에 있는 팀낫세락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23 이것은 제사장 엘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막 문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유산이니라. 그들은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느니라.
24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이니라.
2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둘러싼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주셨고,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졌으니, 참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26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아 축복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한 후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각자 자기 성읍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27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일생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방의 소란으로부터 안식을 주셨고 그들은 자기 성읍에 안전하게 거주하였다.
28 그 무렵에 킷팀 왕 아비아누스가 통치 38 년째 되던 해, 곧 에돔을 다스린 지 7 년째 되던 해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자기가 지은 왕궁에 묻었고, 라티누스가 그의 뒤를 이어 50 년 동안 왕위에 올랐다.
29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군대를 일으켜 야반의 아들 엘리사의 자손인 브리타니아와 케르나니아 주민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조공으로 삼았습니다.
30 그 후 라티누스는 에돔이 킷팀의 지배에서 벗어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킷팀 자손의 지배하에 두었으며, 에돔은 킷팀 자손과 한 왕국이 되어 영원히 통치하였다.
31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그들의 통치는 킷딤 자손과 그들의 왕이 맡았습니다.
32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을 건넌 지 26 년째 되던 해,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난 지 66 년째 되던 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108 세였다.
3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34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모세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힘을 주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는 오늘까지 해 온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35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기라고 간절히 권면하였다.
36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이 대대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더라
37 여호수아가 그날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니 그들이 각자 자기 기업과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38 그 무렵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성읍에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조상들의 지파의 관을 각 자손의 유산으로 장사 지냈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도 각 자손의 유산으로 장사 지냈다.
39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야곱의 열두 아들을 장사 지낸 성읍들의 이름이다.
40 그리고 그들은 르우벤과 갓을 요단 강 이쪽 편, 곧 모세가 그들의 자손에게 준 로미아에 장사지냈다.
41 그리고 그들은 시므온과 레위를 마우다 성에 장사지냈는데, 그 성은 그가 시므온 자손에게 준 곳이었고, 그 성읍 외곽은 레위 자손의 땅이었다.
42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베들레헴 맞은편 베냐민 성읍에 장사지냈다.
43 잇사갈 지파와 제불론 지파의 뼈를 그들의 자손에게 속한 몫인 시돈에 묻었다.
44 단은 자기 자손의 성읍인 에스다엘에 묻혔고, 납달리와 아셀은 가데스납달리에 묻혔으니, 각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준 자기 땅에 묻혔다.
45 그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는데, 그곳은 야곱이 하몰에게서 사들인 밭의 일부였고, 요셉에게는 유산으로 주어진 곳이었다.

46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여부스 사람 맞은편 예루살렘에 장사 지냈는데, 그곳은 베냐민 지파 자손에게 주어진 곳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자손의 고향에 자기 조상을 장사 지냈다.
47 이년이 지난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이십팔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생애 동안 내내 여호와를 섬겼다.
48 여호수아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전쟁과 그가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과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리고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성읍들의 이름은 모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의 책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한 여호와의 전쟁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49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 경계인 에브라임 산에 있는 팀낫세락에 장사지냈다.
50 그 무렵 아론의 아들 엘아셀이 죽으니,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에브라임 산의 한 언덕에 그를 묻었다.

제 91 장

1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가나안 자손이 아직 그 땅에 남아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하였다.
2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가 싸워야 합니까? 하시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나가리라 하시니라
3 그러자 유다 자손이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것이며, 우리도 당신과 함께 당신의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과 함께 갔습니다.
4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고, 유다 자손은 베섹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만 명이나 쳐부수었다.
5 그들이 베섹에서 아도니베섹과 싸우니 그가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붙잡고 그의 엄지와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6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엄지와 엄지발가락이 잘린 칠십 명의 왕들이 내가 한 대로 내 식탁 밑에서 음식을 모아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응하셨도다.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7 시므온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가서 칼날로 가나안 사람들을 쳤다.
8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산을 차지하였고, 요셉 자손은 벧엘, 곧 루스로 올라갔으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9 요셉의 자손들이 벧엘을 정탐하다가 파수꾼들이 한 사람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붙잡아 말했습니다. "성문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10 그 사람이 그들에게 성읍 입구를 보여주니, 요셉의 자손들이 와서 칼날로 성읍을 쳤다.
11 그들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돌려보내니, 그는 헷 족속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불렀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읍들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모든 생애와 여호수아 이후에 장수한 장로들의 모든 생애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12 여호수아가 죽은 후 장로들은 십칠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3 그리고 모든 장로들도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14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15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변 민족들로부터 평화를 주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성읍에 안전하게 거주하였다.
16 영원토록 주님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17 너희는 스스로 강건해지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너희 모두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 끝.